

2023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AI 시대의 언어, 인지, 사회에
대한 재고찰

(Revisiting Language, Cognition, and Society
in the Era of A.I.)

2023 한국영어학학회 · 담화인지언어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AI 시대의 언어, 인지, 사회에 대한 재고찰
(Revisiting Language, Cognition, and Society in the Era of A.I.)

일시: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3층[소강당(303호), 304호, 310호]

	Session 1: 영어사 사회: 김유강(한국외대) 사이버관 303호	Session 2: 구문/통사 사회: 강지인(한국외대) 사이버관 304호	Session 3: 인지언어학 사회: 이현숙(장안대) 사이버관 310호
10:00-10:30	A [N N]_N Type of Nominal Compounds in Middle English 발표: 박수진(한국외대) 토론: 신정화(육사)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들에 나타난 발화 패턴의 역동성 분석, 사용-기반 구성문법(네트워크 모델)을 중심으로 발표: 권명식(한국외대) 토론: 김일규(강원대)	taypak'Jackpot!': How social forces intertwine with language-internal mechanisms to turn a Korean noun into an interactive 발표: 안미경(한국외대) 토론: 윤소연(인천대)
10:30-11:00	On the Differences between American and British English with Reference to <i>Get</i> passive 발표: 신성균(강원대) 토론: 최재혁(목포대)	Interphysio Constructions in English: Empirical Approach 발표: 조기석(사이버외대) 토론: 엄수진(한국외대)	EFL Learners' Use of Online Frame-Based Dictionary: A Case-Study of Commerce-Event Frame Verbs 발표: 이지영(인하공전) 토론: 이정은(한국외대)
11:00-11:10	휴식		
11:10-12:10	개회 사회: 이성용(한남대) 안미경(한국외대, 담화인지언어학회 회장) 특강 1 사회: 지인영(한국체육대학교) 나익주(전남대) 삶을 지배하는 은유와 프레임		
12:10-1:10	점심 12:45 담화인지언어학회 이사회 (310호)		
	Session 4: 시와 영어교육 사회: 이진아(상명대) 사이버관 303호	Session 5: 전산/코퍼스 언어학 사회: 이영희(아주대) 사이버관 304호	Session 6: 인지언어학 사회: 김정수(인천대) 사이버관 310호
1:10-1:40	Advancing IELTS Speaking Practice through AI: A Case Study on Korean English Learners Using ChatGPT 발표: 우경민(육사) 토론: 박은영(감리교신학대)	Internal variation of vowel formants in the Buckeye Corpus 발표: 윤원희(계명대) 토론: 신동진(전주대)	한국어 직유 표현의 유형 및 특성 연구 발표: 여현정(영남대) 토론: 송현주(경북대)
1:40-2:10	English Education with AI-based Tools: Present for Future 발표: 유주연(연세대) 토론: 신정화(육사)	Does BERT <i>Wanna</i> Understand <i>Wanna</i> Contraction? 발표: 노강산(고려대), 송상현(고려대), 오은정(상명대) 토론: 이영희(아주대)	한중 광고 담화에 나타난 은유 대조 분석 발표: 강윤희, 쑤시아(경북대) 토론: 나익주(전남대)
2:10-2:40	An Analysis of Metadiscourse and Rhetorical Moves in EFL College Writing 발표: 하경영(상명대) 토론: 신정화(육사)	비원어민의 영어 학술논문에서 나타난 언어적 변화 연구 발표: 박혜선(계명대) 토론: 이영희(아주대)	개념적 혼성의 입력공간 간 관계성에 대한 신고찰 - 동기화 이론을 중심으로 - 발표: 김종진(한국외대) 토론: 권익수(한국외대)
2:40-2:50	휴식		
	담화인지언어학회 연구윤리교육 (310호)		
	Session 7: 응용/심리언어학 사회: 박상희(한밭대) 사이 버관 303호	Session 8: 응용/사회언어학 사회: 김진해(경희대) 사이버관 304호	Session 9: 언어처리 사회: 남윤주(한양대) 사이버관 310호
2:50-3:20	Examining High-Variability L2 Speech Recognition: The Impact of Task Paradigm, Masking Type, and Individual Differences 발표: 신정화(육사) 토론: 신동진(전주대)	Raising sociolinguistic awareness with AI chatbots in 3D metaverse environments 발표: 이성용(한남대) 토론: 최진선(한국기술교육대)	대화형 AI 챗봇의 공감 능력 탐색 발표: 김희수, 정혜윤(고려대) 토론: 이종현(서울대)

<p>3:20-3:50</p>	<p>L2 Proficiency Effects on English Error Detection: An Eye-tracking Study</p> <p>발표: 민지호, 백지선, 박해일(경희대) 토론: 박상희(한밭대)</p>	<p>해외 TV다큐멘터리에서 재현된 한국택배노동현장: 복합모드 담화분석을 기반으로</p> <p>발표: 신진원(부산대) 토론: 예선희(중앙대)</p>	<p>Transformers and polysemy of Korean adverbial postposition -(u)lo</p> <p>발표: 문성민(아주대) 토론: 홍승혜(고려대)</p>
<p>3:50-4:20</p>	<p>양손 수어의 의미 기능과 특성</p> <p>발표: 조주연, 정유진(고려대) 토론: 하경영(상명대)</p>		<p>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in multiple pronoun resolution</p> <p>발표: 송지나(서울대) 토론: 윤홍옥(제주대)</p>
<p>4:20-4:30</p>	<p>휴식</p>		
<p>4:30-5:30</p>	<p>특강 2 사회: 박해일(경희대) 신정아(동국대)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어학/영어교육 연구</p>		
<p>5:30</p>	<p>폐회 사회: 신정화(육군사관학교) 이진아(상명대, 한국영어학학회 회장)</p>		

2023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AI시대의 언어, 인지, 사회에 대한 재고찰>

<특강 1> 사회: 이창봉(가톨릭대)

삶을 지배하는 은유와 프레임

발표: 나익주(전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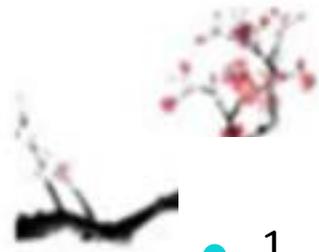
삶을 지배하는 은유와 프레임

2023. 11.11.

담화인지언어학회

한국영어학회





- 1. 들어가는 말:
- 2. 삶을 지배하는 은유와 프레임
개념적 은유 이론 / 프레임 형성 이론
-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사회는 시장(전장)], [인생은 전쟁]
- 4. 맺음말: 은유는 삶과 죽음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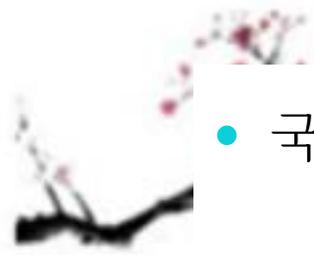
1. 들어가는 말

- We live by metaphors (frames).
- 기균총, 지균총, 원세대, 조려대, 지잡대...
- 반품남(녀), 품절남(녀), 상폐남(녀)...
- 교육인적자원부, 명품 학교, 대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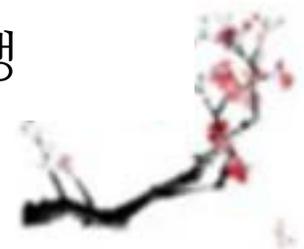
- 연식이 오래되어서 여기 저기 아파요.
- 원산지는 경남이고 재배지는 전남이에요.
- 저질 체력, 스펙 쌓기 ...







-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2000년 이후, 1~2위
- 국내총생산(GDP), 무역량 세계 6~7위
- 1인당 국민소득(GNI) 32,730달러 (2018년 기준)
- 국제 원조 수혜 국가 => 원조 공여 국가
- 3050클럽 국가(인구 3천만, GNI 3만 달러 이상): 7개국
- 세계를 휩쓰는 한국 문화(K-culture)
- cf. 무한경쟁, 승자독식, 각자도생





2. 삶을 지배하는 은유와 프레임

- 개념적 은유 이론(conceptual metaphor theory)
George Lakoff (1980, 1993, 1999)
- 프레임 구성 이론(framing theory)
George Lakoff (1997, 2003, 2007ab, 2012)
- cf. Charles Fillmore (1968, 1975/ 1982, 1985)





2. 삶을 지배하는 은유와 프레임

-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언어의 일탈적 사용
- 수사적 장치, 시인/능변가의 전유물, 천재성 징표
- metaphor as a figure of speech <-> ... as a figure of thought
- 언어 + 사고의 본질적 부분(O), 개념적 은유 이론 (삶 지배)
- ‘사랑은 여행(이야)’ **Love is a journey.** (언어 표현 O)
[사랑은 여행], LOVE IS JOURNEY (언어 표현 X)
(일련의 체계적 대응)





2. 삶을 지배하는 은유와 프레임

- 인정과 격려 속에서 피어나는 교육의 결실
- 창의성의 씨앗/싹이 꽃필 수 없는 암기 교육
- 메마른 인성을 풍요롭게 가꿔줄 고전의 명문장

- 공교육의 붕괴를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
- 교육의 토대/지반/초석/주춧돌을 놓은 마음으로 ...
- 기존 교육의 틀을 허물어 ...

- 은유적인 표현인가? 'A는 B' (A: 원관념, 보조관념)
- 개념적 은유: 언어적 표현 아님 (일련의 체계적 대응)





2. 삶을 지배하는 은유와 프레임

목표 개념영역(프레임): 교육

근원 개념영역(프레임): 상거래

학생

-

식물

교육자(교사, 교장, 담임)

-

식물을 가꾸는 사람

교육 활동

-

식물 재배

학생의 몸과 마음

-

식물의 요소

학생의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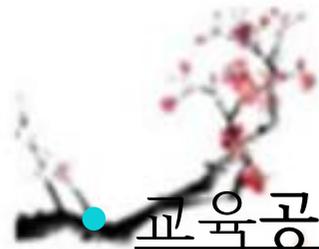
식물의 성장

(학생의) 심신 성장

-

(식물의) 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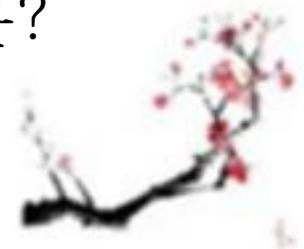


2. 삶을 지배하는 은유와 프레임

- 교육공급자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수요자 중심 교육
- 명품 인생은 사교육 절감형 명품 학교(유/초/중/고)에서
- 명품 교사/담임/교장/교수가 되기 위한 교육철학 이해

- 고교의 최우수 인재를 미리 확보하고 교육해 기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입도선매(立稻先賣) 명품 주문 식 교육 과정 개설한 00대

- 이해하고자 하는 개념(목표 영역)은?
-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근원 영역/프레임)은?





2. 삶을 지배하는 은유와 프레임

목표 개념영역(프레임): 교육

근원 개념영역(프레임): 상거래

교육활동(수업)	-	상품
교육기관(초,중,고,대)	-	상품(제조기업)
교육자(교사, 교장, 담임)	-	상품
학교/교사	-	공급자/생산자
학부모/학교	-	수요자/소비자
(학생의) 담임 선택	-	(수요자의) 상품 구매

• [교육은 상거래]





2. 삶을 지배하는 은유와 프레임

목표 개념영역(프레임): 교육

- 국가/사회
- (대학의) 학생 선발
- 대학
- 중고등학교
- 성적 우수 학생
- 성적 미달 학생
- 수시전형(특별전형)
- 학생의 자질(인성, 창의성)

근원 개념영역(프레임): 상거래

- 구매자
- (수요자의) 구매 행위
- 중간상인(기업)
- 중간상인(대학)
- 명품
- 불량품
- 명품 구매 절차(입도선매)
- 상품의 특질





2. 삶을 지배하는 은유와 프레임

- 프레임 (구성) 이론: (정의) 문화적 관례나 세상에 대한 믿음, 일을 처리하는 익숙한 방식,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등 특정하게 구조화된 마음속 지식 체계 ([마음은 건물])
- 개념적 층위에서 표상되고, 장기 기억 속 저장
- 의미는 프레임(배경지식)에 상대적.
- 표현의 의미: 해당 표현이 불러내는 틀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예: ‘주말’) (날말-구-절-문장-단락-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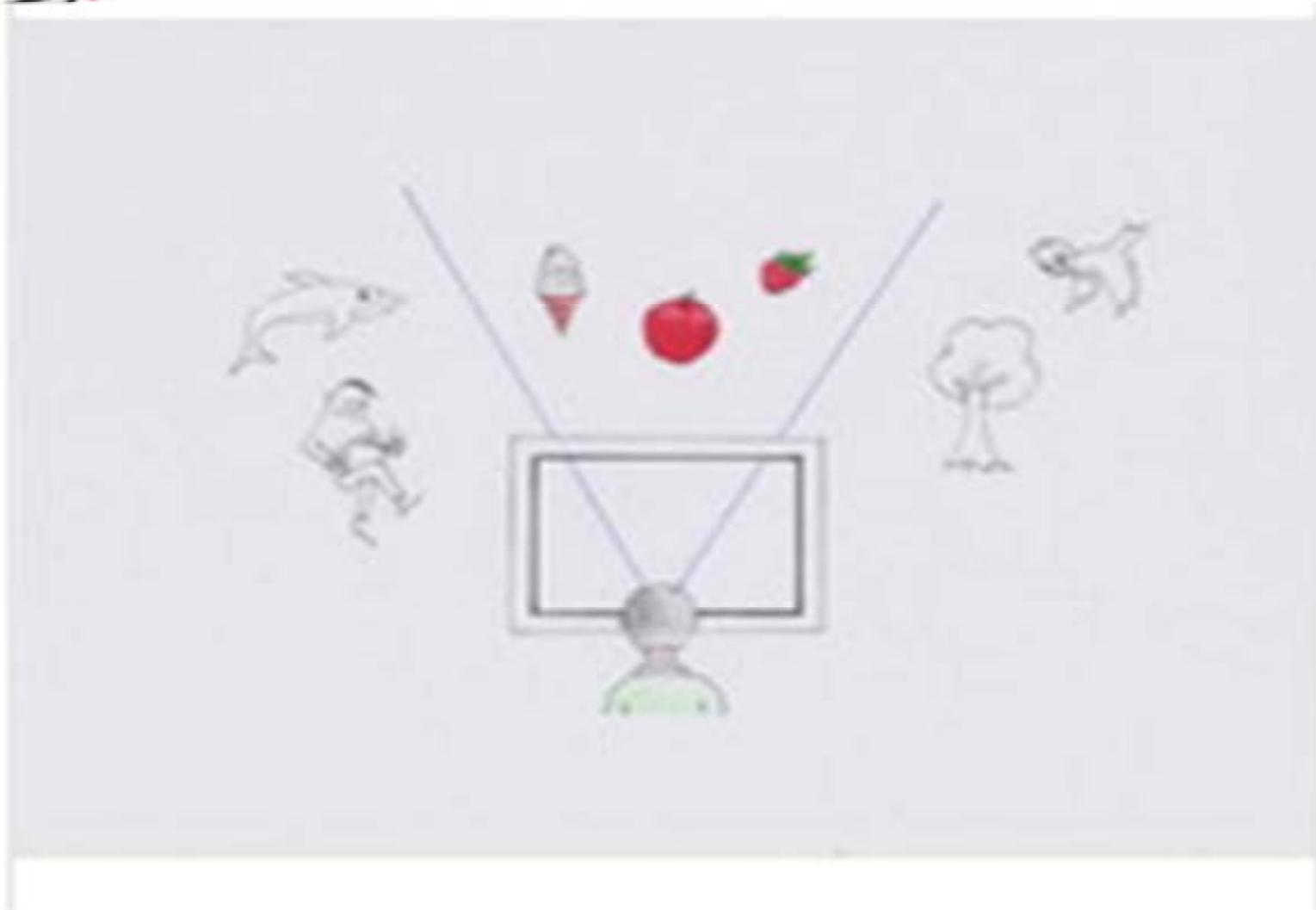


2. 삶을 지배하는 은유와 프레임

- 프레임 (형성) 이론: 인지과학의 교훈
- 인간은 뇌로 생각함: 물리적 프레임(뉴런, 시냅스, 신경회로) 사용. 인지적 무의식
- 뇌 속의 프레임(은유): 상식을 정의함.
- 프레임: 반복 => 뇌 속에 주입 (고착화: 하룻밤에 안 바뀜)
- 표층 프레임 활성화 => 심층 프레임 활성화
- 대안 프레임 억제 (예: tax relief vs. tax cut) (세금 폭탄)
- 프레임 > 사실, 상대의 프레임(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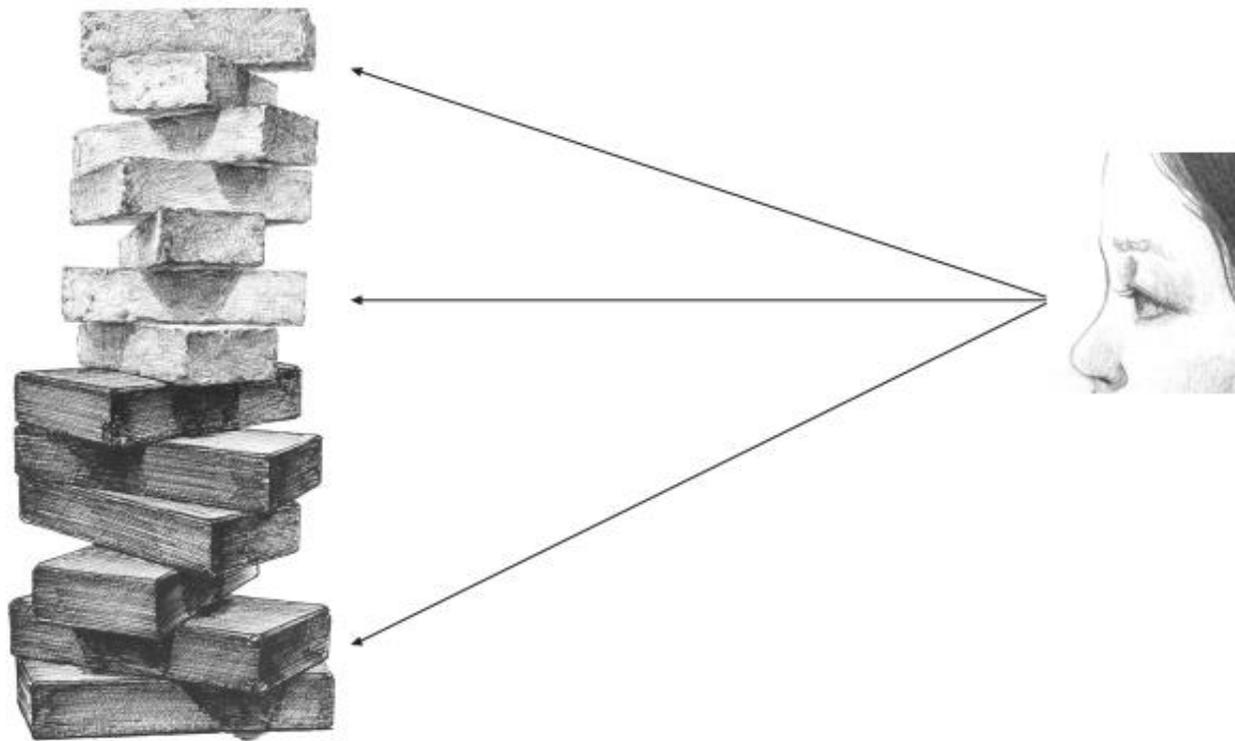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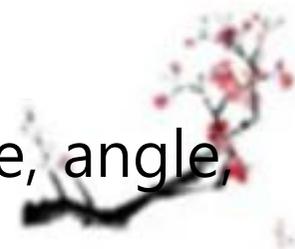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 관점(觀點), 시점(視點), 입장(立場), 시각(視角), 틀



viewpoint, standpoint, vantage point, perspective, angle, frame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 프레임 형성:
- 왜 중요? 실재 왜곡/조작, 부각/은폐, 프레임은 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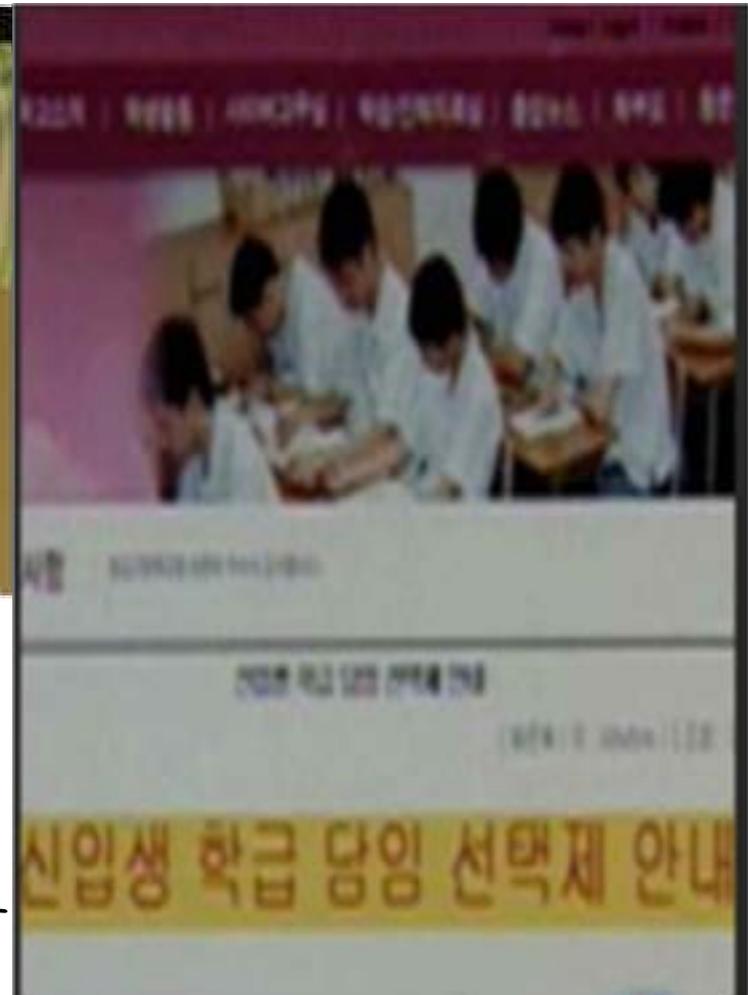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 프레임: 언어 생활(언어 표현의 의미 구성/해석)에만 중요?
- 일상적인 삶(사고, 판단, 행동) 그 자체에도 중요한 문제.
- 논란 중인 사회적 이슈: 근본적으로 프레임 구성의 문제.
- 동일한 상황, 정반대의 주장:
-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시각의 차이 (프레임 차이)
- 담임 선택제, 교원성과급제, 교원능력평가제, TEE인증제,
- 학부모서비스, 강의평가제,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 2008: OO고등학교 (서울)
- 2017: 여주 OO중학교(경기)
- 2010~2015: OO고등학교(대구)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학년도 1학기 명품융합과학교실 (명지대·서울대) 안내

1. 귀 교(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명지대학교 영재교육센터와 서울대학교(관악캠퍼스) 학술정보관에서는 2019학년도 1학기 명품융합과학교실」을 개최합니다. 본 교실은 빛과 사물인터넷(IoT) & 스마트폰과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소프트웨어(SW) 및 코딩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3. 교육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귀 교에 관심 있는 학생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 교 육 명 : 2019학년도 1학기 명품융합과학교실

나. 참가대상 : 초등학교 5학년~6학년 / 중학교 1학년
(소프트웨어(SW), 사물인터넷(IoT), 인공

다. 교육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한국해양대학교 홍보대사인 함께하는 캠퍼스투어!

꿈찾아 명품학교

꿈찾아 명품학교 친구들이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 대입수시지원 전략 설명회/킬러 문항
- 이 땅의 입시 전사들에게 치열한 입시 전쟁에서 살아남도록
- 단답형 지식으로 무장해 입시전선을 뚫고 대학에 들어가면
- [학교는 시장] => [시장은 전장] => [(A)는 (B)] 은유 /대응?
- 교육적 신념: 입시 전선에 친구 없다! / 야간자율학습/선행학습……
- 급훈: ‘졸면 죽는다’ ‘십분 더 공부하면 배우자가 바뀐다’ … …
- (끝없는 경쟁으로 인한) 학부모/학생들의 개념 없는 행태: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 은유: 언어 사용+의사 결정+행동 방식에 영향
(제도, 문화, 세계관)
- 상거래에 관한 용어/추론(유형) =>
교육에 관한 용어/추론(유형)
- 시장주의 사고의 활성화: 무한경쟁, 승자독식, 각자도생,
능력주의
- 배제/차별/혐오의 일상화(둔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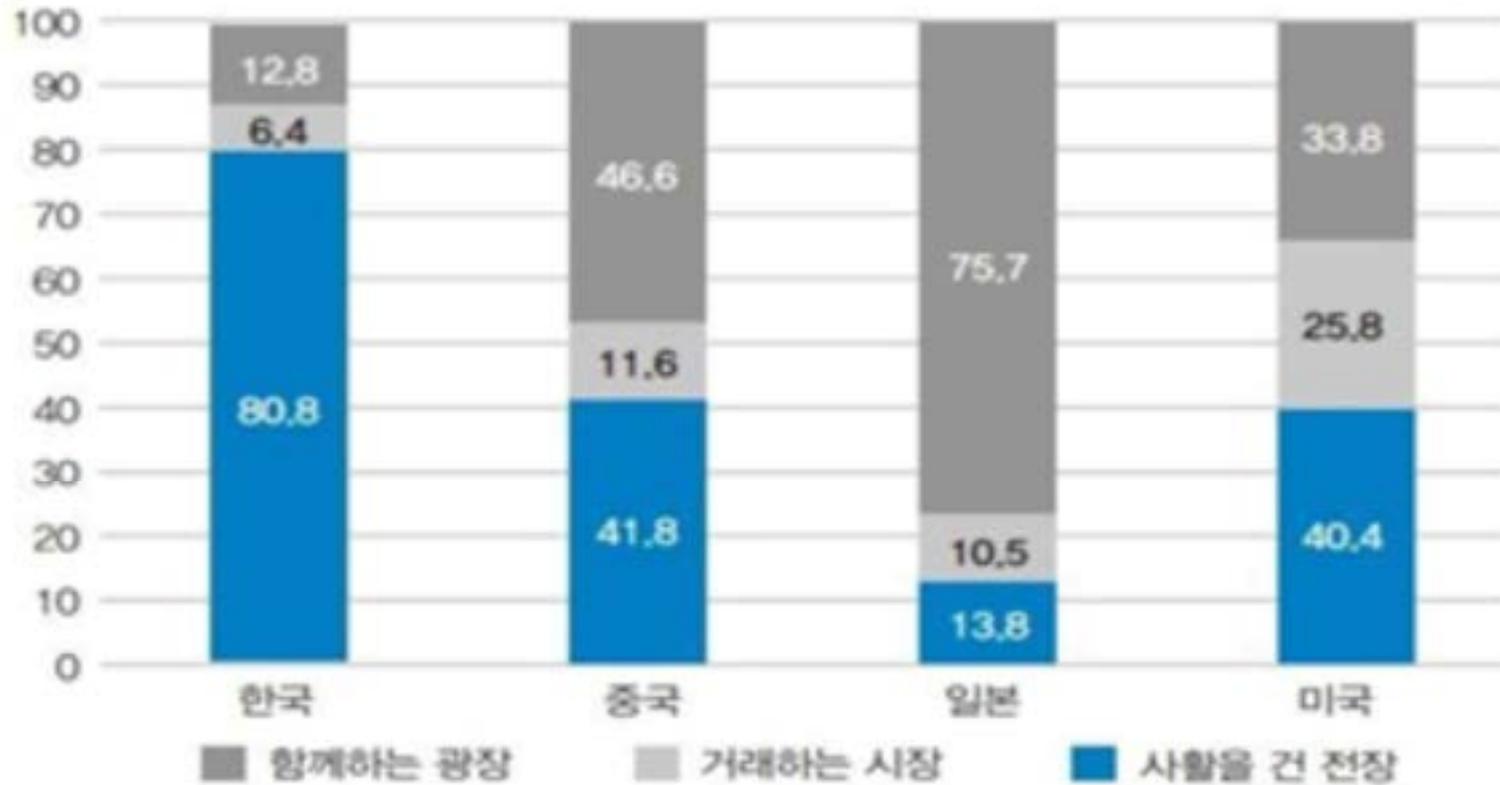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 ‘기껏 기균총(지균총) 주제에 뭘 말이 많아. 그만 내려와.’
- 원세대, 조려대: 저능아덜 아니랄까 봐 연고전 와서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면 니가 정품 되는 거 같지? 니넨 그냥 짜퉁이야, 저능아들 ㅋㅋ
- “너 지잡대 나왔잖아.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지?”
- 정품, 짜퉁, 반품남(녀), 품절남(녀), 상폐남(녀) (<= 등급제)
- 교육인적자원부, 저질 체력, 연식이 오래되어서, 원산지는 경남 재배지는 전남, 스펙 쌓기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학교는 ()]?



자료: 김희삼, 「4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설문조사 자료, 한국개발연구원·광주과학기술원, 2017.

자료=김희삼 '4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3. 은유, 어떻게 삶을 지배?

- 능력주의(meritocracy <= corporatocracy)
- 엘리트 지배주의 (plutocracy)
- 소수(승자)의 오만: 감정이입 부족
- 다수(패자)의 굴욕감: 무기력한 절망감
- 불평등 당연시: 너도 성공해/ 나의 탓
- 오만한 엘리트의 나라(김누리 칼럼)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A)

매년 전교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B)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미래정책연구소 2

소득 격차	확대	해소	비고
한국	58.7	23.5	7차 (2017~2020) 확대: 64.8% 해소: 12.4%
독일	14.7	57.7	
미국	36.2	29.6	
중국	25.8	52.7	
6차(2010-2014)			

-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아! cf. dignocracy (존엄주의)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 탄생(양육) => 청소년기(교육) => 청년 이후 (취업, 승진, 결혼 ...) => 죽음



삶을 지배하는 (시장주의) 은유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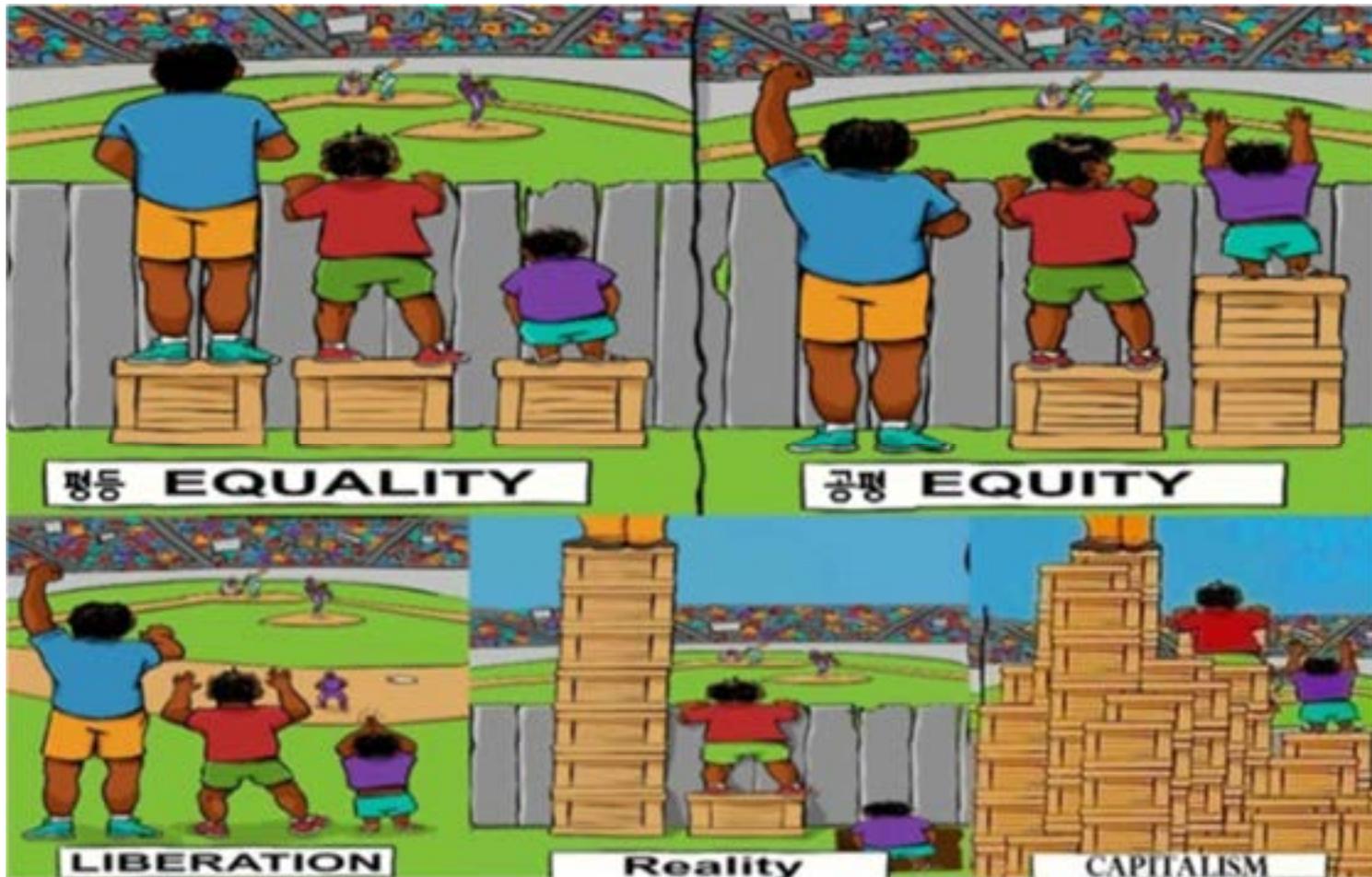
- 어떻게 바꾸어 갈까? 입시제도 개선으로? (해방 후 17회)?
- 대학 진학 왜?: 취업에 유리한 조건 획득 (약 50%)
- 교육현장 황폐화: 학교폭력, 교실/학교 붕괴, 학부모 간섭, 입시 지옥
.....
- 이유? 무한 경쟁? 학력/직종 간 임금 격차? 더 근원적인 이유?
- [사회는 시장(전쟁)] [경쟁은 선] [성장은 선] [승자는 위] [인생은 전쟁]
[승자 독식은 자연 법칙]
- ==>
- [사회는 생태계] [인생은 여행] [경쟁(교육)은 야만]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 어느 것이 공정한가? (정의?)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 시장주의 관점: [사회는 시장/전장] 은유
- [인생은 경쟁/전쟁], [경쟁은 선], [힘(권위)는 위], [시장은 권위] ……
- 편하, 혐오, 차별, ‘배제’ 일상화(갑질/권리과잉/묻지마 살인/학교폭력)
- 보수 세계관: 권위, 순종, 상벌 > 감정이입, 책임, 연대 ……
- 진보 세계관: 감정이입, 책임, 연대 > 권위, 순종, 상벌 ……
- 이상적 가정 모형: 엄격한 아버지 가정 / 자애로운 부모 가정
- 개인적 책임, 직접적 인과관계 (cf. 사회적 책임, 유기적 인과관계)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 낱말 ‘폭탄’: 전쟁(폭격) 프레임
- 무기(폭탄), 적군, 아군, 지휘관, 전략, 전투, 승리, 패배, 전리품, 점령
- 과녁: 살상 파괴 + 주변: 살상 파괴
- 생존: 도망, 폭탄 제거, 폭탄투하자(악당), 폭탄제거자(영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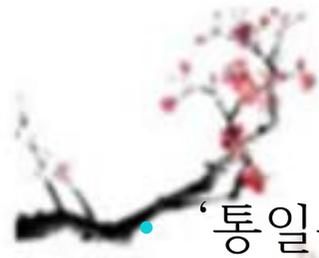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 세금 + 폭탄: [과세는 전쟁] 은유
- 전쟁(폭격) 프레임(이미지, 지식, 논리적 추론) => 세금 프레임
- 전략적 의제(strategic initiative): ‘보수주의 가치(세계관)’ 확산
- 작은 정부 실현, 사회 안전망(공적건강보험, 최저임금제, 실업급여, (사회보장제도) 최소화, 민영화, 규제, 시장주의
- 종합부동산세 도입 (2004년): 찬성 65%, 반대 35% (대상: 2% 이하)
- 문제: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조장,
- 빈곤의 영속 가능성: 개인적 책임(O), 사회적 책임(X).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 ‘통일은 대박’: 개념적 은유 [(A)는 (B)]
 - 승부 예측 불가능, 운에 의존 (계획 & 의지 X), 1인 독식
 - ‘국제 관계’ 개념화의 핵심적 은유: [국가는 사람]
 - 도박판의 노름꾼은 누구? 승자는 누구?
 - 어떻게 ‘통일 대박’? 왜 위험한가?
 - ∴ 거대한 주제인 ‘통일’을 ‘도박’으로 규정:
 - cf. 햇볕정책과 은유(2015), 담대한 구상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 America is drawing up plans for a "bloody nose" military attack on North Korea to sto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Telegraph understands.
- Giving North Korea a bloody nose carries a huge risk to Americans. / It's been dubbed the "bloody nose" strategy.
- The defense secretary at the time, William J. Perry, asked the Pentagon to prepare plans for a "surgical strike" on a nuclear reactor ... (preventive war)
- 코피 작전, 외과수술타격/예방 전쟁





3. 은유(프레임), 어떻게 삶을 지배?

- ‘골목 싸움’ 프레임: 골목, 아이, 주먹, 코피 터짐(싸움 끝)……
- ‘외과 의술’ 프레임: 외과의사, 환자, 수술대, 수술칼……
- 수술 X: 환부 확대, 생명 위험 /수술: 생존

- [국가는 사람], [미국은 외과의사], [북한은 환자],
- [폭탄은 수술칼], [한반도는 수술대] …

- 왜 [전쟁은 의료] 은유는 위험한가? ∴ 부각 & 은폐 : 실재 왜곡
- ‘전쟁’ 불감증, 전쟁 참사 몰인식 => 전쟁 찬성 여론 높임





4. 은유: 삶과 죽음의 문제

- 시장주의 은유 => 생태주의 은유
- [사회는 전장(시장)] => [사회는 생태계] ,
- [삶은 전쟁] => [삶은 동행]

- We live by metaphors and we die by metaphors, too.

- 타인의 언어 사용을 그냥 무심코 따라하지 말라.
- 언어 표현: 어떤 의도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성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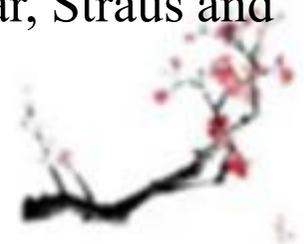
참고문헌

- 
- 권익수. 2015. Charlie Hebdo 만평에 나타난 인지 기제 분석.
『담화와 인지』22-1.
- 권익수. 2015. 햇볕 정책 그리고 은유. 『담화와 인지』22-3.
- 김누리. 2021.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다』. 해냄.
- 마이클 샌델. 2020.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 박재용. 2022. 『불평등한 선진국』. 북루덴스.
- 나익주. 2017. 『조지 레이코프』. 커뮤니케이션북스.
- 나익주. 2020. 『은유로 보는 한국 사회』. 한뼘책방.
- 나익주 옮김. 2007. 『프레임 전쟁』. 서울: 창비.
- 나익주 옮김. 2009. 『자유 전쟁: 미국의 가장 중요한 개념 전쟁』.
서울: 프레시안북.
- 유나영 옮김. 나익주 감수. 2015.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서울:
미래엔 와이즈베리.
- 노양진. 나익주 옮김. 2006.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 



참고문헌

- Edelman, Murray. 1971. *Politics As Symbolic Action: Mass Arousal and Quiescence*. Chicago, Ill.: Markham.
- Kwon, Iksoo. 2019. Conceptual metaphors and performativity in the Sunshine Policy. *Review of Cognitive Linguistics* 17:1, 275–294
- Lakoff, George. 1996/2002. *Moral Politics: How conservatives and liberals thin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eorge. 2014. *The All New Don't think of an elephant!* New Jersey: Chelsea Green.
- Lakoff, George. 2006. *Thinking Points: Communicating Our American Values and Vision*. New Jersey: Farrar, Straus and Giroux.



2023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AI시대의 언어, 인지, 사회에 대한 재고찰>

<특강 2> 사회: 박해일(경희대)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어학/영어교육 연구

발표: 신정아(동국대)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어학·영어교육 연구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신정아

인공지능과 인간

인공지능(AI)의 언어 처리, 언어 지식

인공지능의 언어 학습

생성형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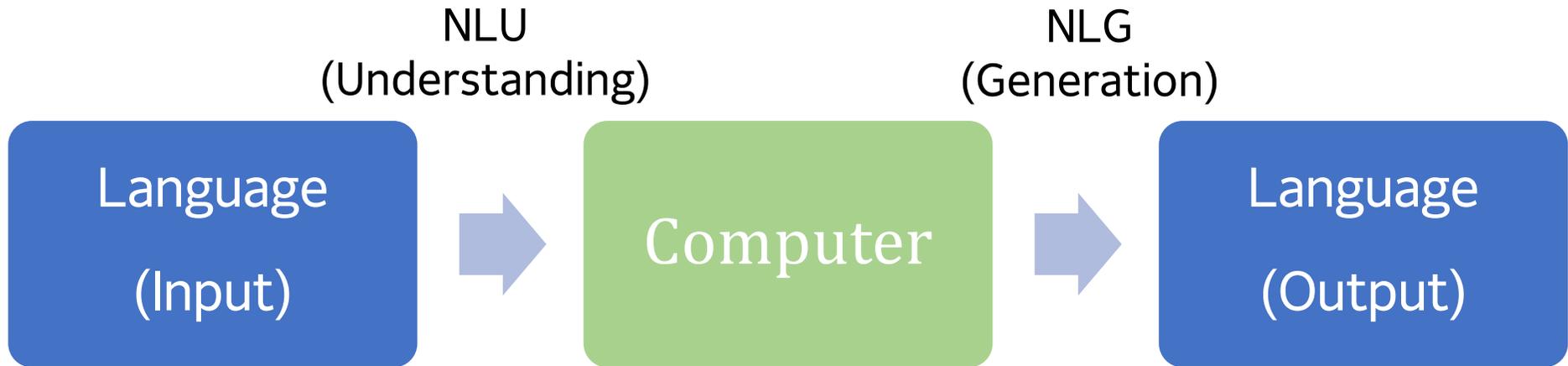
ChatGPT

B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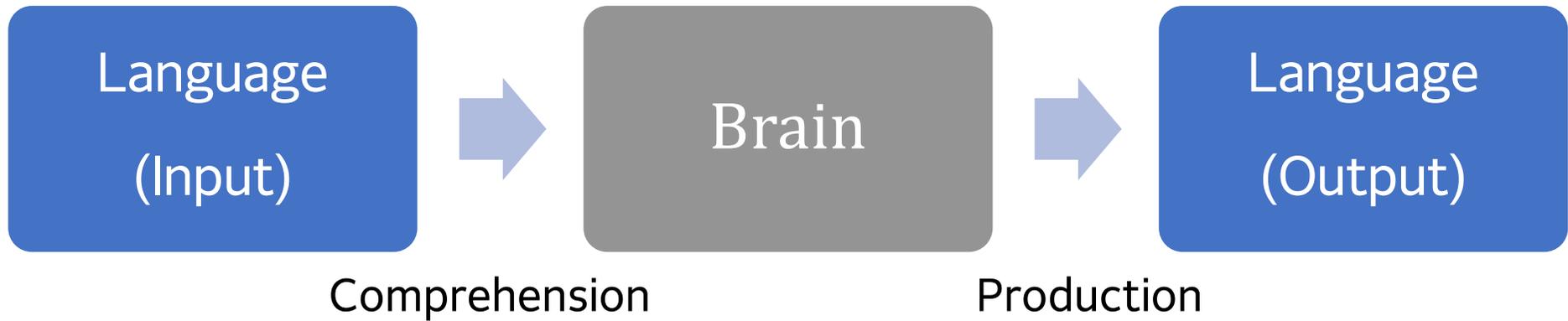
DALL·E 2

Midjourney

(자연언어) 이해와 생성



(인간) 언어 이해와 산출



AI의 핵심: 언어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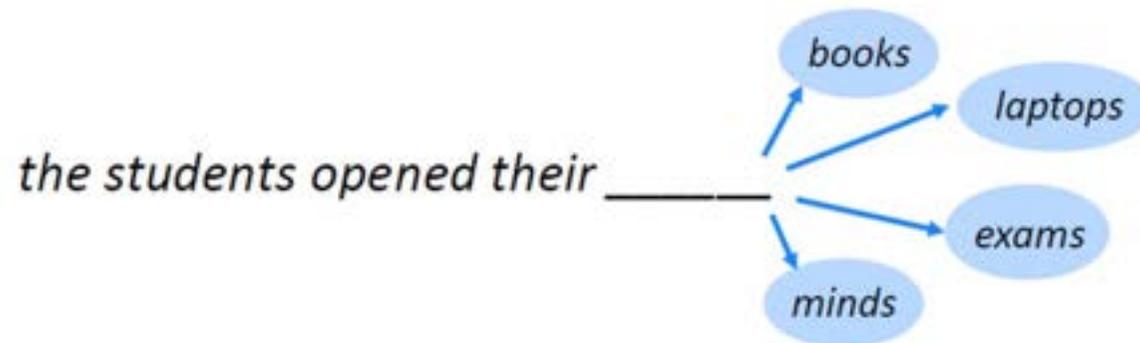
A probability distribution over sequences of words,
which predicts the next word
given the previous sequences of words

인공지능(AI)의 언어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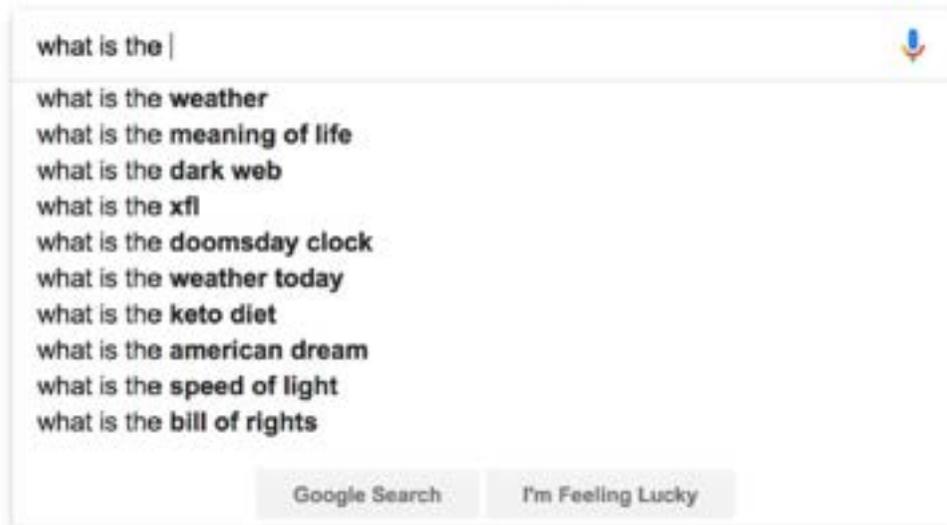
문장(단어시퀀스) 학습/훈련

Language Modeling

The task of predicting what word comes next



We use Language Models everyday!



Pre-trained Language Models

BERT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GPT

Generative Pre-Training

Encoder 여러개

Decoder 여러개

Attention 기반 Transformer를 이용하여 구현된 언어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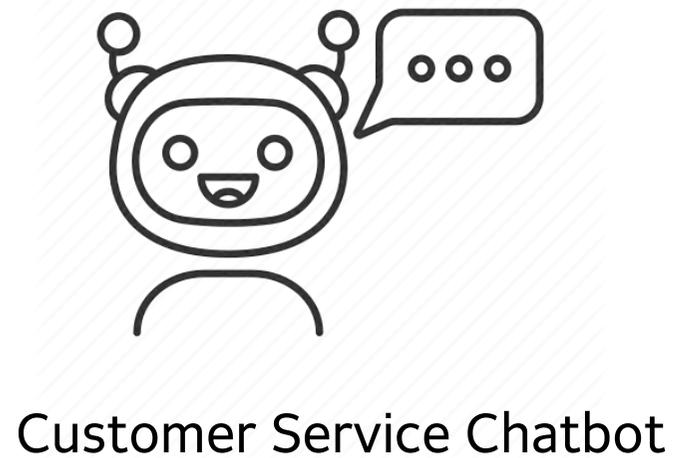
AI의 비약적인 발전

Pre-trained Language Model의 Fine-tuning



스팸메일 분류기

Pre-trained Language Model의 Fine-tuning



AI의 언어모델을 이용한 영어학 ·영어교육 연구

분석 도구로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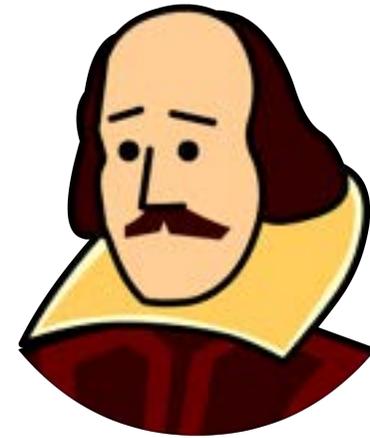
실험 대상을 AI로

분석도구로 AI: Sentiment Analysis



Twitter
Sentiment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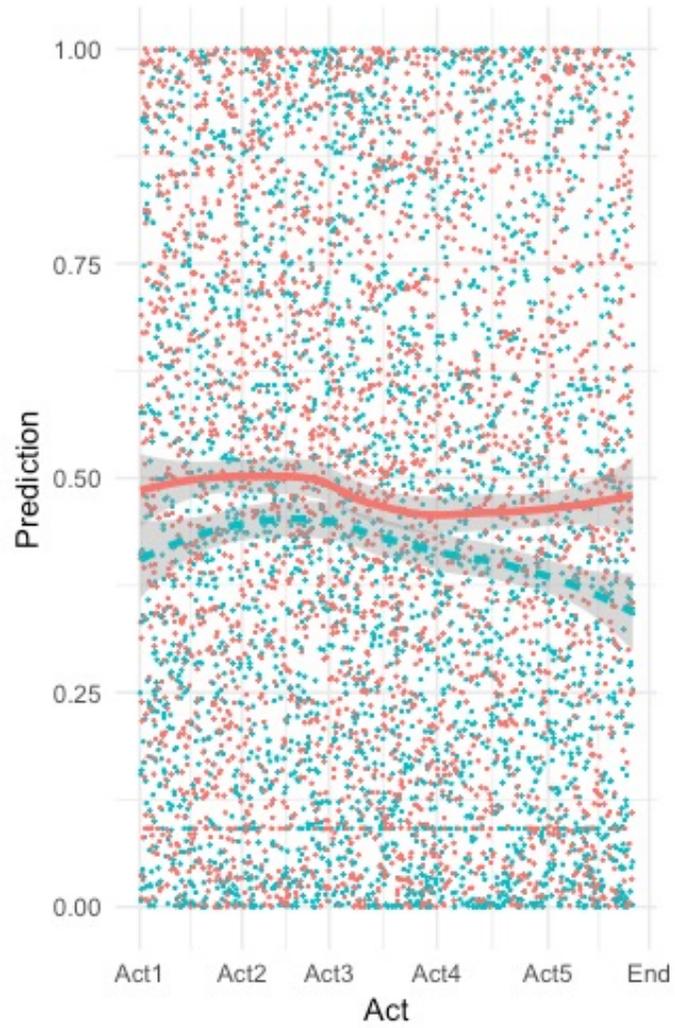
Language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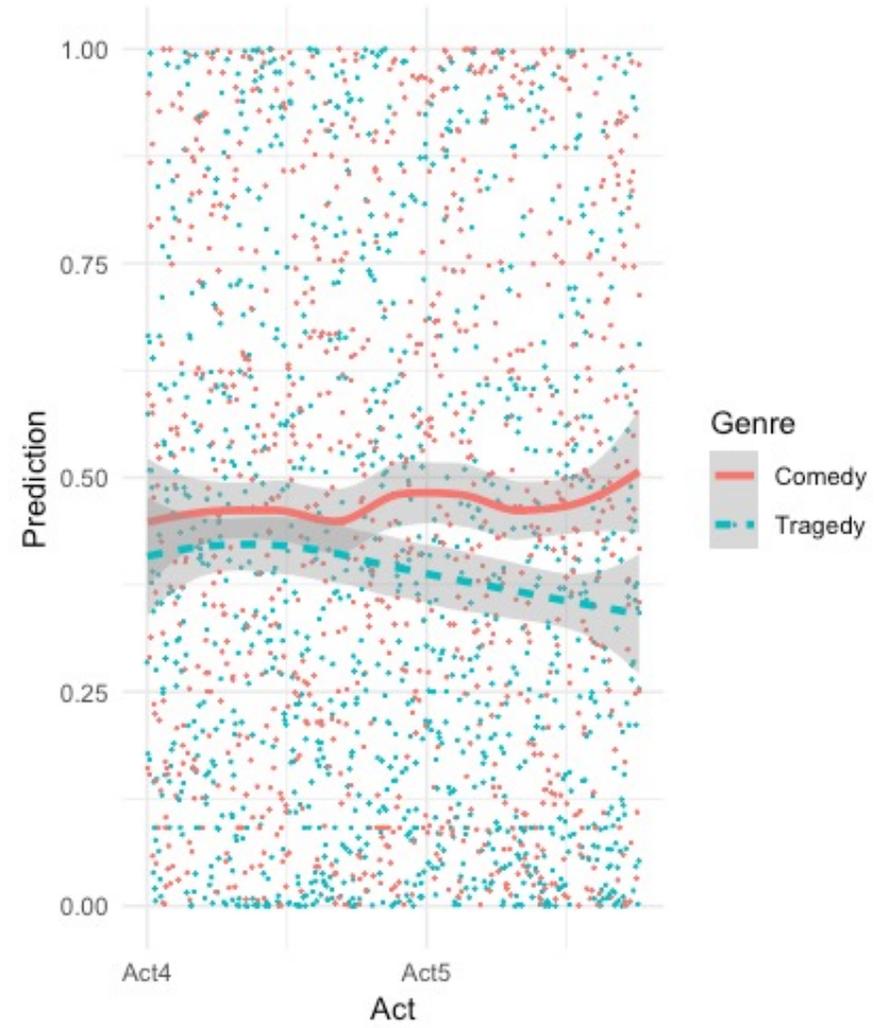
Shakespeare

(e.g., Seo, Lee, & Shin, 2019; Lee, 2023)

Overall



Act 4 & 5



실험대상으로 AI 언어모델

언어모델 언어처리의 양상이 인간과 비슷할까?

“the methods of controlled psycholinguistic experimentation ... shed light on to what extent RNN behavior reflects incremental syntactic state and grammatical dependency representations known to characterize human linguistic behavior”

(Futrell, Wilcox, Morita, & Levy, 2018)

언어모델 언어학습이 인간의 언어 학습에 대해 함의점을 줄 수 있을까?

“Rapid progress in machine learning ... has the potential to transform debates about how humans learn language.”
(Warstadt & Bowman, 2022)

실험대상으로 AI 언어모델
(e.g., Lee, Shin, & Park, 2022; Lee & Shin, 2023)

Experiments with garden-path sentences

Targeted evaluation approach

(Linzen, Dupoux & Goldberg, 2016; Marvin & Linze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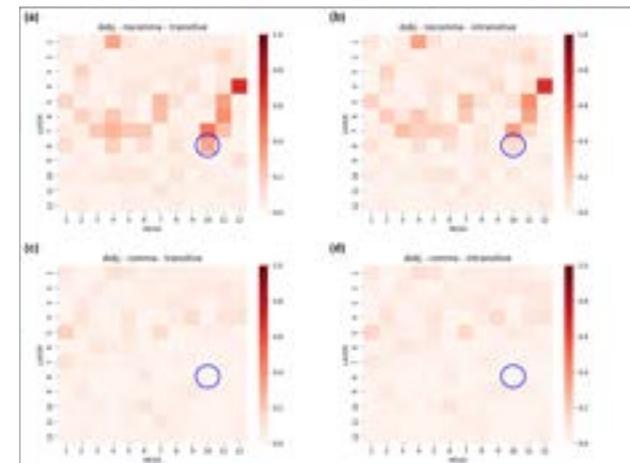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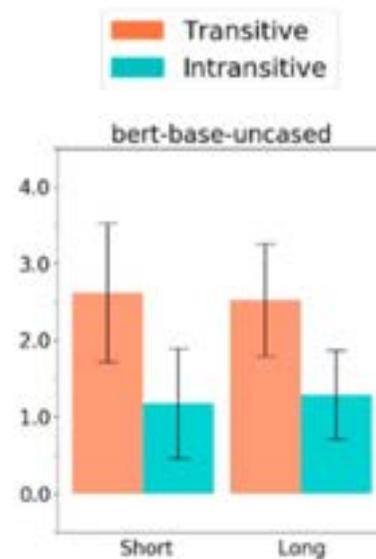
실험대상으로 시 언어모델

(e.g., Lee, Shin, & Park, 2022; Lee & Shin, 2023)

- a. When the dog scratched the vet (with his new assistant) took off the muzzle. [Transitive, GP]
- b. When the dog struggled the vet (with his new assistant) took off the muzzle. [Intransitive, GP]
- c. When the dog scratched, the vet (with his new assistant) took off the muzzle. [Transitive, Non GP]
- d. When the dog struggled, the vet (with his new assistant) took off the muzzle. [Intransitive, Non GP]

Surprisal

$$S(x_i) = -\log_2 p(x_i|h_{i-1})$$



실험대상으로 시 언어모델 (e.g., Lee, Shin, & Park, 2022; Lee & Shin,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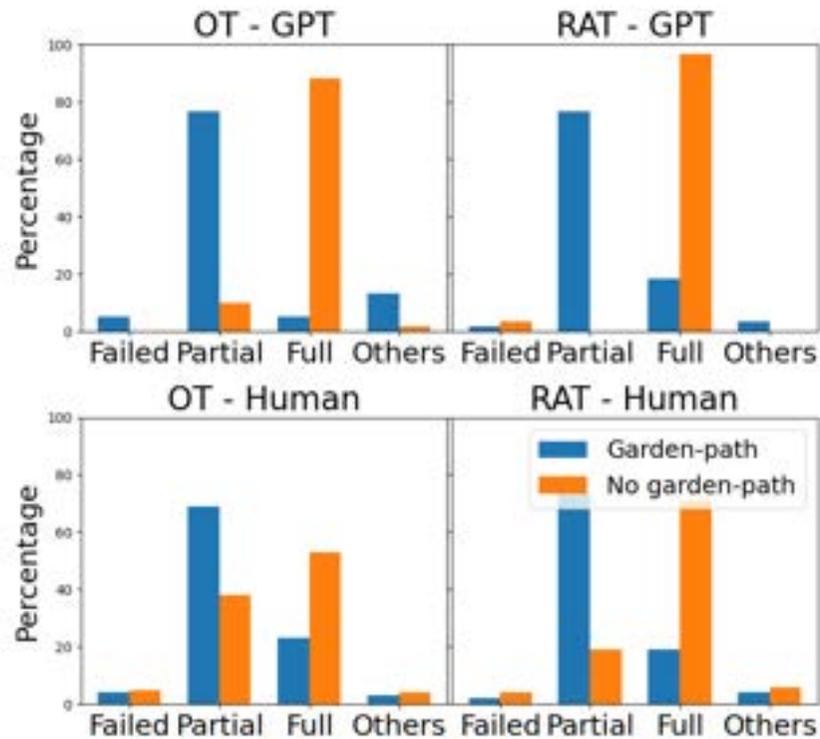
ChatGPT's paraphrasing abilities employing the garden-path sentences, focusing on optionally transitive (OT) and reflexive absolute transitive (RAT) verbs.

"While the man hunted(,) the deer that was brown and graceful ran into the woods." (OT)

"While Jim bathed(,) the child that was blond and pudgy giggled with delight." (RAT)

실험대상으로 시 언어모델

(e.g., Lee, Shin, & Park, 2022; Lee & Shin, 2023)



생성형 AI

ChatGPT

Paraphrasing task

Translation task

영어교육(Second Language, L2) 연구

인공지능(AI)의 언어학습 & 인간의 언어학습(습득)

ChatGPT 활용 영어교육



BabyLM Challenge

Sample-efficient pretraining on a developmentally plausible corpus

[Overview](#) • [Guidelines](#) • [Timeline](#) • [FAQs](#)

Summary: This shared task challenges community members to train a language model **from scratch** on the same amount of linguistic data available to a child. Submissions should be implemented in Huggingface's Transformers library and will be evaluated on a shared pipeline. This shared task is co-sponsored by [CMCL](#) and [CoNLL](#).

- [Download Dataset \(700MB unzipped\)](#)
- Evaluate your model using our [evaluation pipeline](#)
- Models and results due ~~July 15, 2023~~ **July 22, 2023, 23:59** anywhere on earth (UTC-12). Submit on [dynabench](#).
- Paper submission due ~~August 1, 2023~~ **August 2, 2023, 23:59** anywhere on earth (UTC-12). Submit on [OpenReview](#).

See the [guidelines](#) for an overview of submission tracks and pretraining data. See the [call for papers](#) for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task setup and data.

Consider [joining the BabyLM Slack](#) if you have any questions for the organizers or want to connect with other participants!

<https://babylm.github.io/>

ChatGPT 활용 영어 교육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Testing

Act as a [Role]

Create a [Task]

Show as [Format]

<https://github.com/f/awesome-chatgpt-prompts>

생성형 AI 표절 탐지 프로그램

GPTZ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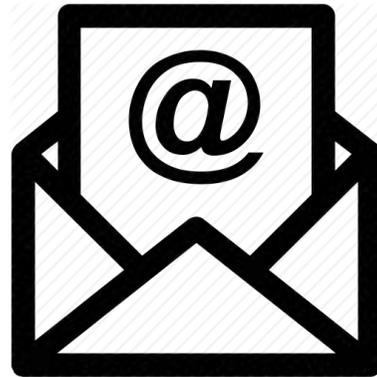
Originality.AI

Copyleaks

DetectGPT

Smodin

감사합니다



jashin@dongguk.edu

<https://sites.google.com/view/jashin/>

Session 1 <영어사> 사회: 김유강(한국외대)

A [N N]_N Type of Nominal Compounds in Middle English

발표: 박수진(한국외대)

토론: 신정화(육사)

A [N N]_N Type of Nominal Compounds in Middle English

Sujin Par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descriptive analysis of a [N N]_N type of nominal compounds in Middle English (ME). Unlike the majority of prior research of ME compounds (Burnley 1992, 2000; Yonekura 1997; Millward and Hayes 2012; Sylvester 2017), where some representative morphological types and semantic patterns are introduced in brief, or the compounds occurring only in certain ME literature are dealt with, the current study mainly focuses on providing in-depth analysis and description of what morphological and semantic types of ME [N N]_N nominal compounds originated from Old English (OE) and on what morphological and semantic types of the compounds were borrowed or newly coined in ME. The data dealt with in this article is 179 types of ME [N N]_N compounds, which are subdivided into three groups ‘Gr1 Native’, ‘Gr2 Borrowed’, and ‘Gr3 Newly Formed’. The main result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i) Type Frequency: Gr3 has the largest number of types (88 types), Gr1 ranks second (64 types), and Gr2 has the fewest number of types (27 types); ii) Morphological structures and Semantic features: Gr1 and Gr3 show morphological reanalysis, and all the three groups have both endo- and exocentric compounds but the latter is found very few; iii) Token Frequency: hapax legomena appear most often in ‘Gr3 Newly Formed’, which reveals that in ME, [N N]_N nominal compounds were productively formed with both the native and foreign resources in the ME lexicon.

Key words: Middle English compounding, lexical borrowing, etymology, productivity

References

- Baayen, R. H. and R. Lieber. 1991. Productivity and English Derivation: A Corpus-Based Study. *Linguistics* 29.5, 801-843.
- Bauer, L. 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uer, L. 2004. *A Glossary of Morphology*. Edinburgh University Press.
- Bosworth, J. and T. N. Toller. 2010. *Anglo-Saxon Dictionary*. Online. <https://bosworthtoller.com/>
- Brinton, L. J. and A. Bergs (eds.). 2017. *The History of English: Volume III Middle English*. De Gruyter.
- Burnley, D. 1992. Lexis and Semantics. Blake, N. (ed.).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Volume II. 1066-1476*, 409-49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rnley, D. 2000. *The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A Source Book*. 2nd ed. Routledge.
- Cleasby, R. and G. Vigfusson. 1874. *An Icelandic-English Dictionary*. Oxford Clarendon Press.
- Dalton-Puffer, C. 1992. The Status of Word Formation in Middle English: Approaching the Question. Rissanen, M., O. Ihalainen., T. Nevalainen and I. Taavitsainen. (eds.). *History of Englishes: New Methods and Interpretations in Historical Linguistics*. 465-482. Berlin, Boston: De Gruyter Mouton.
- Middle English Dictionary (MED). 2000-2018. Online Edition in Middle English Compendium. Frances McSparran, et al. (ed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http://quod.lib.umich.edu/m/middle-english-dictionary/>)
- Millar, R.M. 2023. *Trask's Historical Linguistics*. Routledge.
- Millward, C.M. and M. Hayes. 2012. *A Biography of the English Language*. 3rd ed. Wadsworth Cengage Learning.
- Oxford English Dictionary (OED). 3rd ed. 2010.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www.oed.com/>)
- Sylvester, L. M. 2017. Semantics and Lexicon. Brinton, L. J. and A. Bergs (eds.). *The History of English: Volume III Middle English*. 96-115. De Gruyter.

- Turville-Petre, T. 2020. *A Book of Middle English*. 4th ed. Wiley-Blackwell.
- Yonekura, H. 1997. Chaucer's Compound Nouns: Patterns and Productivity.
Hickey, R. and S. Puppel (eds.). *Language History and Linguistic Modelling: A Festschrift for Jacek Fisiak on his 60th Birthday*, 229-248.
Berlin, New York: De Gruyter Mouton.

Sujin Park
Invited Professor
Minerva Colleg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Global Campus
Oedae-ro 81, Mohyeon, Cheoin, Yongin, Gyeonggi, 17035, Korea
+82-31-330-4330, sjpark@hufs.ac.kr

A [N N]_N Type of Nominal Compounds in Middle English

(중세영어의 [N N]_N 유형의 명사성 합성어)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ujin Park

❖ The Purpose of the Study

➤ To provide a descriptive analysis of a [N N]_N type of nominal compounds in Middle English (ME).

(179 types in total)

❖ This study explores -

1. ME [N N]_N nominal compounds that are

- 1) **Gr1:** originated from Old English (OE) and survived up to ME,
- 2) **Gr2:** borrowed from foreign languages,
- 3) **Gr3:** newly coined in ME

+ the Compounds' Morphological & Semantic Types

2. How many types of the compounds in ME can be found? (Type Frequency)

Which group is the most productive in ME? (Hapax Legomena)

(investigated through Middle English Dictionary (MED))

✓ **Dictionaries** used in this study:

- *Middle English Dictionary* (MED; 2000-2018; online edition)
- *An Anglo-Saxon Dictionary* by Bosworth and Toller (BT; 2010)
- *Oxford English Dictionary* (OED; 2010))

❖ Previous Studies

- **Burnley 1992, 2000; Yonekura 1997; Millward and Hayes 2012; Sylvester 2017; Turville-Petre 2020**
- After the historical event of the Norman Conquest in 1066, **ME word-stock was expanded** much by **borrowing** from foreign languages such as Norman French or Latin **rather than by compounding**.
- Hence, there has **rarely** been **in-depth previous research about ME compounds** so far.
- Most of the studies about ME compounding focus on **introducing** **a few (very restricted) main morphological types and their semantic patterns**.

❖ Previous Studies

- **Burnley (1992:439-443), Millward and Hayes (2012:198-199)**
- Nominal compounds of the [Noun + Noun] structure in particular were **the commonest and most productive in OE**, which caused [N N]_N **nominal compounds to be still productive in ME.**
- **Burnley (1992:441):** e.g., *bagpipe, bedchamber, birthday, bloodhound, schoolmaster, swordfish*
- **Millward and Hayes (2012:199):** e.g., *bagpipe, cheesecake, nightmare, toadstool, wheelbarrow*
- All of these examples are **Endocentric Compounds in ME** with the structure of [**determinant/modifier**_(N1) + **determinatum/head**_(N2)].

❖ Previous Studies

- **Burnley (1992:442), Sylvester (2017:108)**
- **Exocentric Compounds in ME**
- The studies argue that a considerable advance in exocentric compounds was made during the period of the ME.
- ✓ **However**, they both offer only one example *burnwater* ‘smith’.
- ✓ According to my analysis, I have discovered only 9 types of exocentric compounds out of 179 types.
(e.g., *port* (‘bearing, action’)-*pain* (‘bread’) ‘cloth for covering or carrying bread’)
-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 the significant development of exocentric compounds in ME does not refer to the productivity of [N N]_N exocentric compounds in ME.

❖ Previous Studies

▪ Yonekura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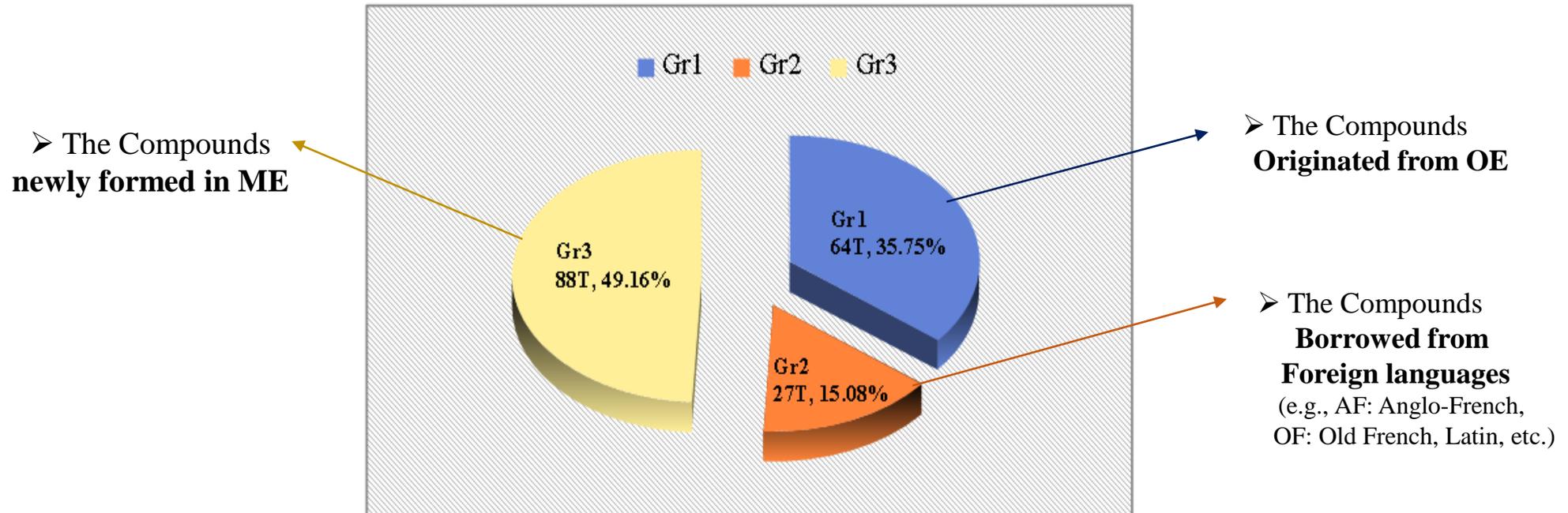
- The only study that provides a detailed morphological and semantic description of ME nominal compounds (299 types in total) along with the information of the origins of the two elements (left & right)
- **Endocentric Compounds**: e.g., *countour-hous(head)* ‘counting house’,
pilwe-beer(head) ‘pillow case’, etc.
- **Copulative Compounds**: e.g., *lylye flour* ‘the flower of the lily’ (= The flower is a lily)
- **Rectional Compounds**: e.g., *shipman* (= The man works on a ship)
- **Left-headed Compounds**: e.g., *ward_(guard)-cors_(corps)* ‘a body-guard’
- ✓ **However**, the scope of the data of his research is limited to the compounds that Chaucer used in his works.

- ❖ A Descriptive Analysis of a [N N]_N Type of Nominal Compounds in Middle English:
Native, Borrowed, and Newly Formed

❖ Data & Statistics

➤ Type Frequency and Proportion of Gr1, Gr2, and Gr3

(179 types in to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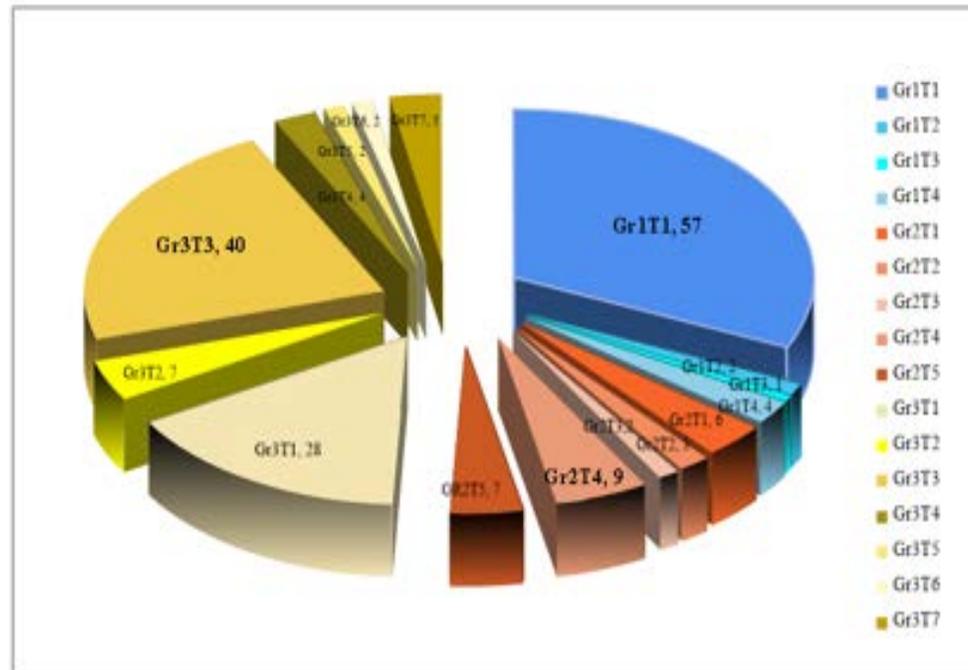


- ❖ A Descriptive Analysis of a [N N]_N Type of Nominal Compounds in Middle English:
Native, Borrowed, and Newly Formed

❖ Data & Statistics

- The Number of Various Morphological and Semantic Subtypes of Gr1, Gr2, and Gr3

- Gr3: 7 Subtypes



- Gr1: 4 Subtypes

- Gr2: 5 Subtypes

- **Group 1: Native [N N]_N Compounds in ME**

- **Four Subgroups with 64 Types in Total**

- **T1.** *bāk(e)*_(‘pie’)-*hōus*_(‘house’) ‘bakery’
(< OE *bæc-hūs* ‘bakehouse’)
*aughte*_(‘possessions/property’)-*man*_(‘man/person’) ‘a man of good reputation, a man of wealth’
(< OE *æhte*_(‘possessions/property’)-*man*_(‘man/person’) ‘a husbandman, farmer, ploughman’)
- **T2.** *vīne*_(‘vine’)-*trē*_(‘tree’) ‘vine (tree)’
(< OF *vigne*, *vin*_(‘vine’) < OE *wīn*_(‘wine’)-*trēow*_(‘tree’) ‘vine (tree)’)
- **T3.** *wāter*_(ME ‘water’)-*silie*_(X) ‘parsley’
(< OE (Simplex N) *petersilige* ‘parsley’ (< Latin (Simplex N) *petresilium*))
- **T4. Exocentric:** *ring*_(‘ring’)-*worm*_(‘worm’) ‘a skin disease characterized by circular eruptive patches, ringworm’
(< OE *reng*_(‘ring’)-*wyrm*_(‘worm’) ‘an intestinal worm’)
Left-headed: *wei*_(‘way’)-*lēte*_(‘meeting of roads’) ‘a place where two or more roads meet, junction’
(< OE *weg*_(‘way’)-*gelēte*_(‘meeting’) ‘a place where roads meet, junction of roads’)

- **Group 2: Borrowed** [N N]_N Compounds in ME

- **Five Subgroups** with 27 Types in Total

- **T1.** *hau*_{((X) *‘neck’)}-*berk*_{((X) *‘shelter’)} ‘a coat of mail’
(< OF *hau*_(*‘neck’)-*berc*_(*‘shelter’) ‘coat of mail’)
(cp. OE *heals*_(‘neck’)-*beorh*_(‘protection’) ‘a protection for the neck, hauberk’)
- **T2.** *wōde*_{(ME ‘living tree(s)/wood’)}-*wāle*_{((X) *‘oriole’)} ‘green woodpecker, golden oriole’
(< MDu./MLG *wede*_(‘wood’)-*wale*_(X) ‘oriolus’)
- **T3.** *capri*_(X)-*fig(e)*_{(ME ‘fig tree (fruit)’)} ‘wild fig-tree, capri-fig tree’
(< Lat. *capri*_(‘male goat’)-*figus*_{(‘fig (tree)’)} ‘wild fig tree’)
- **T4.** *spen*_(ME ‘fence’)-*tonge*_(ME ‘pair of tongs’) ‘some kind of tongs used by a blacksmith’
(< ON/OI *spenni*_(‘clasp’)-*tōng*_(‘tongs of a blade’))
- **T5. Exocentric:** *wīnd*_(‘wind’)-*barġe*_(‘a sloping roof’) ‘a bargeboard, a piece of timber or stone prob. covering the joint between the gable edge and the roof and serving as protection from the wind’ (< AL *winbargia*)
Left-headed: *cōver*_(‘something that covers’)-*chēf*_(‘head’) ‘a piece of cloth used to cover part of the head’
(< OF *cuevre-chief* ‘head covering’)

- **Group 3: Newly Formed [N N]_N Compounds in ME**

- **Seven Subgroups with 88 Types in Total**

- **T1.** *gōst*_(‘spiritual being’)-*wind*_(‘strong wind’) ‘spiritual wind’
(< **OE** *gāst*_(‘spirit, soul, ghost’) & **OE** *wind*_(‘wind’))
- **T2.** *shin*_(‘shin’)-*baude*_(‘baldric, sash, girdle’) ‘shin-plate, greave’
(< **OE** *scinu*_(‘shin’) & **OF** *baudré*_(‘belt, girdle’))
- **T3.** *grāpe*_(‘hook’)-*īren*_(‘iron, craftsman’s tool made of iron’) ‘anchor’
(< **OF** *grape*_(‘hook’) & **OE** *īren*_(‘iron’))
- **T4.** *san*_(‘a sauce containing crushed almonds and colored red’)-*dragōun*_(‘the red juice or resin of the dragon tree; dragon’) ‘the red juice or resin of the dragon tree’
(< **OF** *sanc*, *sang*_(‘blood’) & **OF** *dragon*_(‘dragon’)/ **L** *draco*_(‘dragon’))
- **T5. Exocentric:** *port*_(ME ‘bearing, action’)-*pain*_(ME ‘bread’) ‘cloth for covering or carrying bread’
(< **L** *porta*/**OF** *porte*_(‘action of carrying’) & **AN** *paine*, **OF** *pan*_(‘bread’))
- **T6. Left-headed:** *wam*_(X)-*piniñ*_(ME ‘wing of a bird’) ‘secondary wing feather’
(< **AF** *van*, *vaun*_(‘secondary wing feather’) & **OF** *penon*, *pignon*_(‘bird’s wing’))
- **T7.** *scrā*_(X)-*fish*_(ME ‘fish’) ‘European crawfish’
(< **OF** *escre-* + **ME** *fish*_(‘fish’) < **OF** (**Simplex N**) *escrevice*, *escravage*_(‘crayfish’))

❖ Productivity

➤ Type Frequency and Hapax Legomena of Gr1, Gr2, and Gr3

	Gr1	Gr2	Gr3
No. of Types/Total	64/179	27/179	88/179
Proportion (Types) /100%	35.75% /100%	15.08% /100%	49.16% /100%
No. of Hapax Legomena/Total	7/64	1/27	35/88
Proportion (Hapax Legomena) /100%	10.94% /100%	3.7% /100%	39.77% /100%

❖ Conclusion

- This article has offered **an in-depth descriptive analysis of a [N N]_N type of ME nominal compounds** by examining various aspects including **origins** regarding coinage processes, **morphological and semantic features**, and **statistical analysis with the degree of productivity**.
- **Some of the Main Results:**
 - 1)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ype Frequency: **Gr2 (27 types) < Gr1 (64 types) < Gr3 (88 types)**
 - 2) Semantic Analysis: **Endocentric, Exocentric, and Left-headed** compounds are discovered **in all of the three groups**.
 - 3) The Degree of Productivity: **Hapax Legomena appear most often in 'Gr3 Newly Formed' (35 hapaxes, 39.77%)**, which draws the conclusion that **in the period of ME**, with both the native and foreign resources in the ME lexicon, **the production of [N N]_N nominal compounds were productively performed**.
- ✓ Although this study does not cover every type of nominal compounds in ME, it can be a starting point for further detailed studies about ME compounding.

Session 1 <영어사> 사회: 김유강(한국외대)

On the Differences between American and British English with Reference to Get passive

발표: 신성균(강원대)

토론: 최재혁(목포대)

On the Differences between American and British English with Reference to *Get* passive

Shin, Sungkyu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according to Shin (2017), the change of *get* passive indicates cyclicity of the English language. In OE, the functional roles of passives are divided into the two auxiliaries *weorþan* and *beon/wesan*, informal/dynamic/unintentional and formal/stative/intentional, respectively. In ME, as a result of the lexical loss of the word *weorþan* from the English language, the integration of the functional roles of *beon/wesan* and *weorþan* into *be(on)* occurred. In ME *be(on)* + PP takes the functions of both informal/dynamic/unintentional and formal/stative/intentional. In ENE the division of the functional roles (the division of labor) appeared again or restoration to OE occurred probably because the copula *be* + predicate continued to be used and the dynamic force of *be* + PP was weakened. Therefore, as in OE, a dynamic passive was needed, and *get* passive was introduced, which is similar to the OE *weorþan* ('become' or 'get') passive in function.

Examination of the English Bible versions highlights this diachronic change of *get* passive. No example of *get* passive is found in the *Tyndale* (1526) or *King James Version* (1611). This indicates that the English *get* passive did not appear until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Inspection of the *Darby Bible Version* (1890) revealed only one example of *get* (*got*) *baptised*. Thus, although the English *get* passive was used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it was not popular, particularly in the Bible, because Bible language tends to be formal and conservative.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1952) has no example of *get* passive, other than only two instances of *get drunk*.

The *Good News Translation Version* (1976), published as a full Bible by the American Bible Society as a "common language" Bible, provides 29 examples of *get* passive and 13 examples of *get* + *drunk*, *tired*, and *started*, which are really adjectives. This is a rather informal and colloquial version and it contains many examples of *get* passive, which are used to express dynamic activity in contrast to *be* passives. The PE begins to show the division of functional roles concerning the passives into informal/dynamic/unintentional *get* passive and formal/stative/intentional *be* passive similar to that of OE.

The Revised English Bible (REB), which represents the British English Bible, provides 142 instances of *get* constructions with 15 *get* passives.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and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which represent the American English Bible, show 305 instances of *get* construction with

20 *get* passive and 179 *get* constructions with 18 *get* passives, respectively.

Among the Bible versions examined, the Bible versions representing British English show fewer examples of *get* constructions and *get* passive than the Bible versions representing American English such as GNT, NIV, and NASB. It might be concluded that the movement of *get* constructions and *get* passives spread from American English, which may be characterized by informality and colloquiality, as compared with British English, which may be characterized by formality and conservativeness.

Key words: American and British English, *get* passive, diachronic

References

- Algeo, John and Carmen A. Butcher. 2014.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English Language*. 7th edition. Wadsworth: Cengage Learning.
- Bosworth, Joseph. 1907. *The Gospels. Gothic, Anglo-Saxon, Wycliffe and Tyndale Versions*. London: Gibbings and Company.
- Denison, David. 1993. *English Historical Syntax: Verbal Constructions*. New York: Longman.
- Granger, Sylviane. 1983. The 'be + past participle' construction in spoken English: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passive. (*North-Holland Linguistics Series*, 49.). Amsterdam/New York/Oxford: North-Holland.
- Huber, Judith. 2013. Caused-motion verbs in the Middle English intransitive motion construction. in Goschler, Juliana, and Anatol Stefanowitsch. 2013. *Variation and Change in the Encoding of Motion Events*. John Benjamins Publishing. 11. 14. - 251
- Huddleston, Rodney, and Geoffrey K. Pullum. 2002.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G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spersen, Otto. 190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7 vols.(Repr. London, 1961.) Heidelberg/Ejnar Munksgaard, Copenhagen: Carl WintersUniversitattsbuchhandlung,
- Los, Bettelou. 2015. *A Historical Syntax of English*. Edinburgh University Press, 4. 14.
- Mair, Christian, and Geoffrey Leech. 2006. Current change in English syntax. *The Handbook of English Linguistics*. ed. Bas Aarts and A. MacMahon. Oxford : Blackwell, p. 318-342
- Mitchell, Bruce, and Fred C. Robinson. 1992. *A Guide to Old English*. Fifth Edition. Oxford UK & Cambridge USA: Blackwell.
- New English Bible. 1970. Oxford University Press 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tré, Peter, and Hubert Cuyckens. 2009. Constructional Change in Old English and Middle English copular constructions and its impact on the lexicon. *Folia Linguistica Historica* 30 (2009), 311-366.
- Revised English Bible. 1989. Oxford University Press 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in, Sungkyun. 2017. A Diachronic Study of the English *Get* Passive. *The Jungang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9:2, 239-259.
- The American Bible Society. 1976. *The Good News Translation*.
-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 The Committee on Bible Translation. 1978. *New international version* (Revised 1983).
- Traugott, Elizabeth Closs. 1972. *A History of English Syntax: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the History of English Sentence Structur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Visser, Fredericus. Th. 1963-73. *An Historical Syntax of the English Language*, 4 Volumes Leiden: E. J. Brill.

신성균

명예교수

강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춘천시 춘주로 176-9

010-8795-8148, skshin@kangwon.ac.kr

On the differences between American and British English with reference to Get passive

Shin, Sungkyu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Diachronic Study of the English Get Passive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the diachronic change of the get passive shows cyclicity of the English language. In Old English, the functional roles of passives are divided into the two auxiliary verbs *beon/wesan* and *weorþan*, formal/stative/intentional and informal/dynamic/unintentional, respectively. In Middle English, as a result of the lexical loss of the word *weorþan* from the English language, the integration of the functional roles of *beon/wesan* and *weorþan* into *be(on)* occurred. In Middle English *be + PP* takes the functions of both formal/stative/intentional and informal/dynamic/ unintentional. In Early Modern English the division of the functional roles appeared again or restoration to Old English occurred.

The examination of the English Bible versions shows this diachronic change of the get passive with no example of the get passive in the Tyndale (1526) and King James Version (1611) and - only one in the Darby Bible Version (1890); moreover, only two examples are found in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1952) and 29 examples in the Good News Translation Version (1976).

Key Words: get passive, diachronic study, cyclicity/ get 수동태, 통시적 연구, 순환성

I. Introduction

According to Denison (1993: 419), most authorities follow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OED) to provide that the first passive with get was recorded in the mid-seventeenth-century:

- (1) 1652 Gaule, Magastrom. 361 (OED s.v. get v.34b)
A certain Spanish pretending Alchymist ... got acquainted with foure rich Spanish merchants.

Subsequently, Jespersen (1909-49: IV 108-9) provides the following examples in a chronological order:

- (2) a. 1731 Fielding, Letter Writers II.ix.20
so you may not only save your life, but get rewarded for your roguery
- b. 1759 Sterne, Tristram Shandy III.ii.126.19
he should by no means have suffered his right hand to have got engaged
- c. 1766 Goldsmith, Vicar xvii.90.16
where they give good advice to young nymphs and swains to get married as fast as they can

Since the appearance in the mid-seventeenth century, the usage of the *get* passive has increased in frequency. However, Granger (1983: 234-5) employs a sample of spoken material dated 1961-75 from the educated, adult, British English (BrE) of the Survey of English Usage and concludes that *get* passives remain “extremely rare . . . and are restricted to colloquial style.” She adds that the usage is substantially higher among younger speakers, in more popular styles, and in American English (AmE). She lists 53 *get* + P.P. forms in her corpus, of which nine can be called passive (1983: 193, 365-7).

In this paper I discuss the synchronic usage of the *get* passive in Present-day English (PE) and the diachronic change of the English *get* passive from Old English (OE) *beon/wesan* and *weorðan* (corresponding to PE *get*) passive. I propose how and why the *get* passive has undergone the diachronic change. Finally, I discuss the differences between American English (AE) and British English (BE) with reference to *get* passive.

II. Synchronic usage of the English get passive

- (24) a. Ezekiel was born in 1990.
b. *Ezekiel got born in 1990.
c. She was pregnant.
d. She got pregnant.
e. Ezekiel was spanked by the doctor to open his
airway.
f. *Ezekiel got spanked by the doctor to open his
airway.
g. Ezekiel's umbilical cord was wrapped around his
neck.
h. Ezekiel's umbilical cord got wrapped around his
neck.
i. Our city was founded in 1850.
j. *Our city got founded.

A birth is intentional and expected, even if the pregnancy is accidental, therefore (24b) is ill-formed and (24a, c, d) are well-formed. (24e) and (24f) were intentional and expected, and therefore (24f) is ill-formed. (24g) and (24h) are well-formed because they were unintentional, accidental, and unfortunate acts. (24i) and (24j) were a deliberate and intentional act, and therefore (24j) is ungrammatical.

Thus, we may characterize PE (synchronic) *get* and *be* passives as follows:

Table 1: Characteristics of PE Get and Be Passives

Get Passive: [+informal, +dynamic, +unintentional]

Be Passive: [\pm informal, \pm dynamic, +intentional]

III. Diachronic change of the English *get* passive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 *get* and OE *weorðan* (corresponding to PE *get*), Denison (1993: 421) highlights that the use of *get* is associated with dynamic reading, which is rather similar to OE *weorðan*; however, the elements of volition or ‘luck’ in the meaning do not belong to the OE verb. Traugott (1972) also observes that all three OE auxiliaries *beon*, *wesan*, and *weorðan* are used in OE passive constructions; *beon* is used to express prediction or intermittent generality, *wesan* expresses permanent generality or present action, and *weorðan* stresses the activity and the event. In certain cases, the sense of “becoming” is still so strong in *weorðan* +PP that it seems to approximate our use of *get* as in *It got damaged* versus *It was damaged*.

Concern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forms with *beon/wesan* and those with *weorðan*, Mitchell and Robinson (1992: §202, 203) suggest that the former occasionally seem to emphasize the state arising from the action and the latter the action itself, as seen in the following:

(26) a. he eall wæs beset mid heora scotungum

‘he was completely covered with their missiles’

b. ne bið ðær nænig ealo gebrowen

‘nor is any ale brewed there’ (showing the continuing state by the use of *bið*)

c. Þær wearþ se cyning Bagsecg ofslægen

‘there King B. was killed’ (lit. ‘became slain’)

Huber (2013: 215), also, indicates that similar to German, OE also had separate auxiliaries to distinguish dynamic *weorðan* and stative *beon/wesan* passives. In addition, Petré and Cuyckens (2009: 45) highlight the difference of unintentional and intentional act of the subject. Therefore, the difference in collocational profile between *weorðan* and *becuman* mirrors a difference in semantics: sudden change beyond the control of the subject (*weorðan*) and gradual change, possibly controlled by the subject (*becuman*). Hence, we assume that in OE, the functional roles of passives are divided into the two verbs *beon/wesan* and *weorðan* as follows:

Table 2: OE Division of functional roles

<i>Weorðan</i>	[+informal, +dynamic, +unintentional]
<i>Beon</i>	[-informal, ±dynamic, -unintentional]

In Middle English (ME), as a result of the lexical loss of the word *weorðan* from the English language, the integration of the functional roles of *beon(wesan)* and *weorðan* into *be(on)* occurred. In ME *be + PP* takes the functions of formal/stative/intentional and informal/ dynamic/unintentional. Huber (2013: 215) proposes that a dynamic/ stative difference between OE *weorðan* and *beon/wesan* which is becoming vague in OE; in OE, *weorðan* is less frequent than *beon/wesan* and by the late ME, it is no longer used at all. Thus, in ME, *be* passives can have both dynamic and stative interpretations as seen in the following:

(28) Also it is seyde Pat Pe Erle off Penbroke is
taken into Brettayn (Paston Letters
Ed. Davis 1971)

‘It is also said that the Earl of Pembroke is being
taken/has been taken into Brittany’

In (28), the be passive can be taken as is being
taken (dynamic) or has been taken (stative).

However, in Early Modern English (ENE), the division of the functional roles (the division of labor) appeared again or restoration to OE occurred probably because the copula (linking verb) be + predicate continued to be used, the dynamic force of be + PP was weakened. Therefore, as in OE, a dynamic passive is needed, and the get passive is introduced, which is similar to OE weorþan ('become') in function.

The examination of the English Bible versions shows this diachronic change of the get passive. No example of the get passive is found in the Tyndale (1526, adopted from Bosworth 1907) and King James Version (1611). This indicates that the English get passive did not appear until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The examination of the Darby Bible Version (1890) revealed only one example of get (got) baptised as follows:

(29) Acts 22:16 DBY

And now why lingerest thou? Arise and get baptised, and have thy sins washed away, calling on his name.

Thus, although the English get passive was used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it was not popular, particularly in the Bible language because the Bible language is rather formal and conservative. Revised Standard Version (1952) has no example of the get passive, other than the following two instances of get drunk:

(30) a. Ephesians 5:18 RSV

And do not get drunk with wine, for that is debauchery;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b. 1 Thessalonians 5:7 RSV

For those who sleep, sleep at night, and those who get drunk
are drunk at night

Revised Standard Version (1952)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mal and conservative language.

The investigation of the Good News Translation Version (GNT) (1976) The Good News Translation, formerly called the Good News Bible or Today's English Version, was first published as a full Bible in 1976 by the American Bible Society as a “common language” Bible. It is a clear and simple modern translation that is faithful to the original Hebrew, Koine Greek, and Aramaic texts. The GNT is a highly trusted version. It first appeared in New Testament form in 1966 as Good News for Modern Man: The New Testament in Today's English Version, translated by Dr. Robert G. Bratcher in consultation with a committee appointed by the American Bible Society.

I found 29 examples of get passives, 10 examples of which are of get married, five of get (got) caught, four of get lost, two of get dressed, two of get hurt, one of get circumcised, one of get involved, one of get killed, one of get left, one of get mixed up, and one of get paid, as follows:

(31) a. Ruth 1:12 GNT

Go back home, for I am too old to get married again. Even if I thought there was still hope, and so got married tonight and had sons,

b. Psalm 7:15 GNT

But in the traps they set for others, they themselves get caught

This observation is similar to the trend of the colloquialization of written English reported by Mair and Leech (2006: 318-342). According to them, as written English has become colloquial, the canonical be passive has been declining in frequency according to the evidence of the four written corpora, shown in Table 3 (their Table 8):

Table 3: Decline in the frequency of use of the be passive in the four reference corpora

Get passives in the informal and colloquial Good News Translation version (1976) are used to express dynamic activity in comparison with be passives as in the following table:

Table 5: ENE and PE Division of Functional Roles

Get: [+informal, +dynamic, +unintentional]

Be: [-informal, ±dynamic, ±intentional]

The usage of the get passive of the Good News Translation is similar to the PE common usage of the get passive, as seen in the following examples (these sentences use get in the passive voice instead of the verb be):

- (33) a. She and her boyfriend are going to get married this winter.
b. When did that old church get built?
c. I got picked up by my sister at the bus terminal.
d. The puppy gets fed every evening.
e. He got hired by the university in 2017.
f. My meat got burned.

VI. Conclusion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the change of the get passive indicates cyclicity of the English language. In OE, the functional roles of passives are divided into the two auxiliaries *beon/wesan* and *weorþan*, informal/dynamic/unintentional and formal/stative/intentional, respectively. In ME, as a result of the lexical loss of the word *weorþan* from the English language, the integration of the functional roles of *beon/wesan* and *weorþan* into *be(on)* occurred. In ME *be(on) + PP* takes the functions of both informal/dynamic/unintentional and formal/stative/intentional. In ENE the division of the functional roles (the division of labor) appeared again or restoration to OE occurred probably because the copula *be + predicate* continued to being used, the dynamic force of *be + PP* was weakened. Therefore, as in OE, a dynamic passive is needed, and the get passive is introduced, which is similar to the OE *weorþan* ('become') passive in function.

The examination of the English Bible versions highlights this diachronic change of the get passive. No example of the get passive is found in the Tyndale (1526) and King James Version (1611). This indicates that the English get passive did not appear until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The examination of the Darby Bible Version (1890) revealed only one example of get (got) baptised. Thus, although the English get passive was used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it was not popular, particularly in the Bible, because the Bible language is rather formal and conservative.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1952) has no example of the get passives, except for only two instances of get drunk.

The Good News Translation Version (1976) provides 29 examples of the get passives and 13 examples of get + drunk, tired, and started, which are rather adjectives. This is a rather informal and colloquial version and it contains many examples of get passives, which are used to express dynamic activity in comparison with be passives. The PE begins to show the division of functional roles concerning the passives into informal/dynamic/unintentional get passive and formal/stative/intentional be passive similar to that of OE.

Revised English Bible (REB), which represents British English Bible, provides 142 instances of get with 15 get passives.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and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which represent American English, show 305 instances of 305 get with 20 get passives and 179 get with 18 get passives, respectively.

Among the Bible versions examined, the Bible versions representing the British English show less examples of get constructions and get passives than the Bible versions representing the American English like GNT, NIV and NASB. It might be concluded that the movement of get constructions and get passives spread from American English to British English.

Session 2 <구문/통사> 사회: 강지인(한국외대)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들에 나타난 발화 패턴의 역동성 분석, 사용-기반 구성문법(네트워크 모델)을 중심으로

발표: 권명식(한국외대)

토론: 김일규(강원대)

[담화인지언어학회] 2023년 가을 담화인지 언어학회, 한국영어학회 공동 학술대회 논문발표신청서

발표논문제목: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들에 나타난 발화 패턴의 역동성 분석, 사용-기반 구성문법 (네트워크 모델)을 중심으로

성명: 권명식

소속: 한국 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어학부, 직위: 명예교수, 연락처: mskwon@hufs.ac.kr

주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 125 가락프라자 아파트 2-401, 전화번호(HP): 010-9192-0348

[간단한 내용]

아프리카에는 2,169개 토착 언어가 있고(Hammarström 2018) 여기에 언어집단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집단들이 제2 언어로 배워 쓰는 교통어 (Lingua Franca)가 있다(권명식 2011:56f). 서구 식민 통치 이후 유럽의 제 언어들(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이 공식어로 함께 쓰이고 있다. 그리고 언어의 접촉과 중첩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혼합매체인 피진-크리올어가 대거 사용되고 있다(권명식 2020, Kwon 2023). 여기에 더하여 아프리카 대도시에는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매체가 출현,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언어의 경계 규정(Otsuji & Pennycook 2010), 그리고 변이와 변화의 설명 문제(Labov 1963, 2001, 권명식 2017) 등이 야기되었다. 언어 내부 구조나 그 기능을 보면 전통 구조언어학에서 기본으로 삼는 고정된 범주나 이들 요소를 연결하는 규칙들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난다(Diessel 2017).

이 논문에서는 소위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들(Kießling & Mous 2004, Nassenstein & Hollington 2015)에 나타나는 발화 패턴들을 기존의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 사용-기반 언어학(Bybee 1985, 2006, Hopper 1987, Langacker 2000, Barlow & Kemmer 2000, Schmid 2015, Diessel 2017, 권명식 2023, §3.6), 그리고 구성 문법(Fillmore & Kay 1993, Goldberg 1995, Croft 2001, 권명식 2023, §3.5)이라는 시각에서, 특히 네트워크 모델(Bybee 1985, Langacker 1988, Schmied 2016, Diessel 2019, 2023)을 바탕으로 새롭게 분석하여 그 패턴들이 갖는 역동성(dynamics)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에 대한 전통적 시각이 무엇인지 개관한 다음, 이 같은 발화 패턴이 갖는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를 기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도시와 언어별로 분류된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의 구체적 발화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것을 어휘와 구문(혹은 구성체 construction)이라는 양대 단위를 바탕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분석 방식을 함께 소개하면서 이들을 상호 비교하여 그 어떤 것이, 역동성 설명에 더 적절한지 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사용-기반 구성 문법 특히 네트워크 모델(Diessel 2023)을 중심으로 분석의 핵심 틀, 요컨대 언어사용자의 언어 지식에 관련된 6개 연결 접속과정 (상징, 순차, 분류 접속 등, Diessel 2019:12)을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되, 다시 주어진 구체적 발화 데이터들을 토대로 언어사용과 발화 패턴의 역동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5장의 토론에서는 언어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어 언어사용이 그 중심에 있고 여기를 출발점으로 하여 언어 지식이 구축(entrenchment)되며 아울러 이는 다시 언어사용으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구조로 관례화(conventionalization)되어 언어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사용-기반 구성 문법 핵심 주장인 구축과 관례화 모형(EC-model,

Schmid 2015, 2020)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언어구조 및 문법은 단어나 구문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와 연결된 네트워크로 연관된 어휘와 구문이 다차원적으로 그물망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에 의해 사용되는 발화 패턴은 언어의 진화와 생성 그리고 사용자의 경험과 지식 구축 그리고 체계화 과정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임을 보여 주려 한다.

권명식. 2011. 『아프리카 사회언어학』. Hufs Books.

권명식. 2017. “화용화와 재-어휘화, 샤바 스와힐리어에 나타난 언어변화를 중심으로”, 2017학년도 한국 아프리카학회 상반기 학술회의 논문집. 9-37. (2017년 06월 03일 한국 외국어 대학교 이문 캠퍼스 교수회관 강의실 발표).

권명식. 2020. 아프리카 피진-크리올에 나타난 언어변화의 의의, 문법화와 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아프리카학회 하반기 정례학술대회(2020. 12. 4. 금) 발표논문집』 3-28.

Bybee, Joan.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John Benjamins.

Bybee, J. 2006. From usage to grammar: The mind's response to repetition. *Language* 82:711-733.

Diessel, Holger. 2017. “Usage-based linguistics,” in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Linguistics*, ed. M. Aronoff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doi: 10.1093/acrefore/9780199384655.013.363

Diessel, H. 2019. *The Grammar Network. How Linguistic Structure is Shaped by Language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 10.1017/9781108671040

Diessel, H. 2023. The Constructicon, Taxonomies and Networks, in *Elements in Construction Grammar*, edited by Thomas Hoffmann & Alexander Ber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mmarström, Harald. 2018. A survey of African languages. In Güldemann 2018. *The languages and linguistics of Africa*. De Gruyter, Mouton: 1-57.

Hurst-Harosh, Ellen. 2020. Youth language in Africa: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Linguistics Vanguard* 6(4s):1-4.

Kießling, Roland & Maarten Mous. 2004. Urban youth languages in Africa. *Anthropological Linguistics* 46(3). 303-341.

Kwon, Myong-Shik. 2023. Dynamics of Language Use: Emerging TAM (tense, aspect & mood/modality) Categories in African Pidgin-Creoles. 2023 KAF-KAAS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International Conference *African Dynamics*. 29-30 June 2023. Centennial Hal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Conference Proceeding p.65-100.

Labov W. 1963. The social motivation of a sound change. *Word* 18:1-42

Labov W. 2001.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Social Factors*. Cambridge, UK: Blackwell.

Langacker, Ronald W. 1988. A usage-based model. In Brygida Rudzka-Ostyn (ed.), *Topics in Cognitive Linguistics*, 127-161. Amsterdam: John Benjamins.

Langacker, R. W. 2000. A dynamic usage-based model. In M. Barlow & S. Kemmer (eds.), *Usage-based Models of Language*, 24-63.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Nassenstein, Nico, and Andrea Hollington (eds.). 2015. *Youth Languages in Africa and beyond*. Berlin: Mouton de Gruyter.

Otsuji, Emi, and Alastair Pennycook. 2010. “Metrolingualism: Fixity, Fluidity and Language in Flux.”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7, no. 3:240-254.

Schmid, Hans-Jörg. 2015. A Blueprint of the Entrenchment-and-Conventionalization Model, in *Yearbook of the German Cognitive Linguistics Association* 3,1:3-25.

Schmid, Hans-Jörg. 2016.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linguistic entrenchment and its psychological foundations in memory and automatization. In Hans-Jörg Schmid (ed.), *Entrenchment and the Psychology of Language Learning: How We Reorganize and Adapt Linguistic Knowledge*, 11–35. Berlin: Mouton de Gruyter.

Schmid, Hans-Jörg. 2020. *The dynamics of the linguistic system. Usage, conventionalization, and entrenchment*. Oxford University Press.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들에 나타난 발화 패턴의 역동성 분석, 사용-기반 구성문법 (네트워크 모델)을 중심으로

권 명 식)

1. 서론
2.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
 - 2.1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사회의 일반적 특징
 - 2.2 청소년들이 소통 의지 반영 전략들
3. 발화 패턴 (구성체) 분석
 - 3.1 어휘 차원, 3.2 구성성분 차원, 3.3 절-차원 표현
4. 인지와 언어 표상 전략
 - 4.1 상징적 연결, 4.2 순차적 연결 (자동화와 관례화)
 - 4.3 분류적 연결 (추상화 정도에 따른 층위)
 - 4.4 네트워크 관계
 - 4.4.1 어휘와 어휘 사이 관계, 4.4.2 구문과 구문 사이 관계, 4.4.3 슬롯과 필러 관계
 - 4.5 사회 인지와 화용적 연결
5. 토론
 - 5.1 언어 구조적 특징과 의의
 - 5.2 언어구성 패턴 (계열과 통합)
 - 5.3 사회적 의의와 화용적 연결
6. 나가는 말 (문법화와 화용화)

[Abstract]

[Key words]

1. 서론

아프리카에는 2,169개 토착 언어가 있고(Hammarström 2018) 여기에 언어집단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집단들이 제2 언어로 배워 쓰는 교통어 (Lingua Franca)가 있다(권명식 2011:56f). 서구 식민 통치 이후 유럽의 제 언어들(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이 공식어로 함께 쓰이고 있다. 그리고 언어의 접촉과 중첩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혼합매체인 피진-크리올어가 대거 사용되고 있다(권명식 2020, Kwon 2023). 여기에 더하여 아프리카 대도시에는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매체가 출현,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언어의 경계 규정(Otsuji & Pennycook 2010), 그리고 변이와 변화의 설명 문제(Labov 1963, 2001, 권명식 2017) 등이 야기되었다. 언어 내부 구조나 그 기능을 보면 전통 구조언어학에서 기본으로 삼는 고정된 범주나 이들 요소를 연결하는 규칙들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난다(Diessel 2017).

이 논문에서는 소위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들(Kießling & Mous 2004, Nassenstein & Hollington 2015)에 나타나는 발화 패턴들을 기존의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 사용-기반 언어학(Bybee 1985, 2006, Hopper 1987, Langacker 2000, Barlow & Kemmer 2000, Schmid 2015, Diessel 2017, 권명식 2023, §3.6), 그리고 구성 문법(Fillmore & Kay 1993, Goldberg 1995, Croft 2001, 권명식 2023, §3.5)이라는 시각에서,

1)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어학부 명예교수. mkskwn@hufs.ac.kr 이 논문은 2023년도 한국 영어학 학회, 담화-인지 언어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11월 11일, 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3층 소강단(303, 304, 310호) 발표문임.

특히 네트워크 모델(Bybee 1985, Langacker 1988, Schmied 2016, Diessel 2019, 2023)을 바탕으로 새롭게 분석하여 그 패턴들이 갖는 역동성(dynamics)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에 대한 전통적 시각이 무엇인지 개관한 다음, 이 같은 발화 패턴이 갖는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를 기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도시와 언어별로 분류된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의 구체적 발화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것을 어휘와 구문(혹은 구성체, construction)이라는 양대 단위를 바탕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분석 방식을 함께 소개하면서 이들을 상호비교하여 그 어떤 것이, 역동성 설명에 더 적절한지 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사용-기반 구성 문법 특히 네트워크 모델(Diessel 2023)을 중심으로 분석의 핵심들, 요컨대 언어사용자의 언어 지식에 관련된 6개 연결 접속 과정(상징, 순차, 분류 접속 등, Diessel 2019:12)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다시 주어진 구체적 발화 데이터들을 토대로 언어사용과 발화 패턴의 역동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5장의 토론에서는 언어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어 언어사용이 그 중심에 있고 여기를 출발점으로 하여 언어 지식이 구축되며 아울러 이는 다시 언어사용으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구조로 관계화되어 언어체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사용-기반 구성 문법 핵심 주장인, 구축과 관계화 모형(Entrenchment & Conventionalization EC-model, Schmid 2015, 2020)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언어구조 및 문법은 단어나 구문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와 연결된 네트워크로 연관된 어휘와 구문이 다차원적으로 그물망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에 의해 사용되는 발화 패턴은 언어의 생성과 진화 그리고 사용자의 경험과 지식 구축 그리고 체계화 과정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임을 보여 주려 한다.

2.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

이 논문에서 다루려는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란 키슬링과 마우스(Kießling & Mous 2004)가 다룬 다섯 개 언어가 대표적이다.²⁾ 프랑스어권 누시(Nouchi,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 캄프랑글레(Camfranglais, 카메룬의 야운데와 두알라)가 대표적이고, 이어서 콩고의 인두빌(Indoubil)과 링갈라야 바얀키(Lingala ya Bayankée, 브라자빌, 킨샤사 그리고 부카부)는 프랑스어권이지만 현지 링갈라와 스와힐리어가 각각 틀어 역할을 한다. 영어권은 엔쉬(Engsh, 케냐 나이로비)와 쉹(Sheng, 케냐 나이로비)이 있는데 주력인 문법을 담당하는 언어가 영어 혹은 스와힐리어로 갈린다. 마지막으로 이스캄토(Iscambo,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가 있는데 이는 줄루어가 주력이고 아프리카언어가 기반인 경우는 초치탈(Tsotsitaal)이다. 언어처리의 핵심인 문법 틀을 담당하는 언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주력/기반어, 혹은 틀어가 결정된다. 아래 누시³⁾ 예문 (1)은 코트디부아르 수도 아비장, 특히 이주민이 많이 사는 아자메(Adjamé) 지역 변이형으로 문장의 기본 틀이 프랑스어이다. ‘가다’라는 의미의 출처 불명의 토착어 요소 {s’imbouate}가 ‘찾느라 바쁘다’라는 의미로 삽입되어 있다. 이 같은 특이 어휘 사용이 도시 청소년 언어가 표준 프랑스어 혹은 피진-프랑스어 같은 이웃 언어들과 구분되는 기준이다.

(1) Nouchi (Abidjan)

On s’imbouate dans nos cherching.

- 2) 이후 연구에서 새로운 도시 청소년 언어들이 알려졌다. 예컨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는 야라다 크완크와(Yarada K’wank’wa)가 쓰인다(Hollington 2016). 같은 도시에서 쓰이는 청소년 언어라 해도 시대와 시기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DR 콩고 킨샤사에서는 인두빌(1955-68), 링갈라야 바얀키(Lingala ya Bayankée 1970-1982), 안케(Yanké, 1883-현재), 그리고 랑길라(Langila,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알려진 다양한 변이형들이 존재한다(Nassenstein & Hollington 2016:189). 자연스레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의 규정문제가 야기된다. 명칭 및 내용이 고정적, 동질적이기보다 유동적이며 역동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언어 규정이 이같이 ‘청소년 언어’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명칭이 공고한 기존 언어들에도 적용되는 사안인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연이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언어(language)’라는 기존 명칭 대신 화자에 의해 새롭게 구성되어 사용되는, 역동성을 감안한 ‘언어화(languaging)’라는 용어가 제안되었다(Jørgensen 2008, Jørgensen et al. 2011, 아래 §5.4 참조).
- 3) 누시(Nouchi)라는 용어는 줄라(Jula)어로 ‘코-피부 *nún sii*’에서 유래했다는 설(Lafage 1998b)과 불어의 *chez nous*를 바꾸어 말한 것(metathesis 음절/ 단어 전환)이라는 설이 있다(Kießling & Mous 2004:3).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의 특징 중 하나로 기표와 기의의 상징적 연결 양상이 1:1 고정적이지 않고, 다수:다수의 대응으로 변이와 역동성을 내보인다. 누시 연구는 Lafage 1991, 1998a, Kube 2003 참조.

3.PL.N RFLX(se).go(< s'imbouater) in cherch-er
 'We are busy looking for money.'
 (*Nous sommes occupés à chercher de l'argent.*)

Kiessling & Mous 2004:3

아프리카 토착어들, 아프리카 교통어(스와힐리어나, 링갈라, 혹은 줄루), 그리고 유럽어인 영어, 프랑스어 등의 언어자료들이 서로 뒤엉켜 있으므로 이를 그 양상에 따라 코드 전환 혹은 혼합(code switching/mixing) 현상으로 취급될 수도 있고(Myers-Scotton 1993, Slabbert & Myers-Scotton 1996), 위 누시의 경우처럼 프랑스어(피진-크리올)를 틀어(matrix language)로 한 어휘 차용, 혹은 삽입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⁴⁾ 문장 처리에서 주어 동사 부가어(전치사구) 순서로 배열되므로 프랑스어의 SVx(PP) 어순-패턴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은 전통 언어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다. 표준 프랑스어에 없는 {-ing}는 영어에서 온 분사형 형태이다. 프랑스어 문법 틀에 다른 요소들을 단순하게 삽입한 게 아니라 어휘 선정과 형태에서는 변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통적 접근에서는 제시하기 어렵다.⁵⁾

이 같은 특이한 형태소 배열이나 특이 언어자료 삽입은 청소년 화자들의 의도적 언어 조작(manipulation)으로 설명되기도 한다(Kießling & Mous 2004, §3.1). 물론 이런 조작의 뒷전에는 세대 구분, 기존 언어 패턴에 대한 저항, 자신들만의 정체성 과시 등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화자들의 적극적 개입의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같은 대도시라 해도 거주 지역과 그에 따른 화자들의 의도 차이에 따라 문법 처리의 기본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는 화자의 틀어가 영어와 스와힐리어로 갈림으로써 영어-기반 앵쉬(Engsh)와 스와힐리어-기반 쉹(Sheng)⁶⁾이라는 별개의 변이형이 한 도시 안에 공존한다(Abdulaziz & Osinde 1977). 아래 쉹 예문(2)에서는 스와힐리어가 문장 처리 및 단어구성의 기본 틀이어서 거기에 영어 어휘(-kam)가 삽입된 경우이고, 앵쉬 예문(3)에서는 영어가 절 및 구-구성의 기본 틀이고 스와힐리어가 어휘(명사 혹은 대명사)로 논항인 목적어 혹은 전치사의 보어로 삽입된 경우이다. 어느 코드를 처리 매체로 할 지에 대한 화자들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2) Sheng (Nairobi) a. Alikam (< English come)
 3.SG-PST-come a-li-ku-ja 3.SG-PST-INF-come (Standard Swahili)
 'S/he came.'

- 4) 전통적으로 언어 경계는 분명하고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였고, 따라서 언어접촉 과정에서 생기는 코드의 혼합은 차용이나 코드 전환 혹은 혼합(Code switching, mixing)으로 설명되었다(권명식 2011:137-139). 이런 선상에서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 패턴도 여러 언어, 혹은 코드의 혼합으로 설명하곤 했다(Slabbert & Myers-Scotton 1996). 이때 언어처리의 통사적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코드가 틀어(matrix language)이고, 여기에 다른 삽입 코드가 들어가는 식으로 언어구조 및 처리 양상이 설명되었다(Myers-Scotton 1993). 이런 설명은 화자가 두 개의 이상의 언어구조를 다 이해하는 다중언어화자(multi-lingual speaker)라는 전제가 암암리에 깔려 있다. 그는 능동적으로 어떤 언어를 틀어로 할 것인지 결정하며 여기에 필요한 어휘나 구절을 필요에 따라 삽입한다고 본다.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들에서는 이같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화자들이 자기가 삽입해 쓴 언어의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삽입된 어휘 및 구문이 어떤 언어에서 왔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들은 2개 언어구사자도 아니고 다언어 구사자도 아니다. 다만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소통되는 언어자원을 그저 체험하여 다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아래 §5.4 참조). 그러므로 다언어 상용(multi-lingualism)이라는 용어 대신 '다-언어자료 수행(poly-languaging)'이라는 새 용어를 쓴다(Jørgensen 2008, Isiaka 2022). 이는 사용-기반 구성문법에서 언어표현인 어휘나 구문을 범주와 규칙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생성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언어 체험을 바탕으로 구문을 통째로 기억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어 이를 통째로 다시 쓰는 처리 단위(구성체, construction)로 설명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Goldberg 1995, Diessel 2019). 언어의 다양성이 언어-내적 구조뿐만 아니라 언어 외적 맥락에서도 갈래 취급되고 있음을 본다.
- 5) 프랑스어에서는 동사원형이 *cherch-er*로 끝이 {-er}로 끝난다. 그런데 누시에서는 이 동사의 어근에 영어의 분사형 어미 {-ing}가 붙어 전치사의 보어가 될 수 있는 동명사, 혹은 분사로 기능한다. 왜 누시 화자를 이런 표현을 선택했을까? 사용-기반 구성문법에서는 누시어 집단에서 이미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동사에 -ing를 붙이는 게 하나의 스키마로 도식-관계화되어 있고, 그리고 화자는 단지 이를 따라 사용한 것이다. 예컨대 코드 전환 패러다임으로 보면 문법요소 {-ing}가 틀어이고 어근이 붙어이므로 문장 차원과 단어 차원의 언어처리 틀이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구성성분 단위 분석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구성체로 보는 시각이 더 유력하다.
- 6) 쉹에 대한 연구로 Mazrui 1995, Githiora 2002, Samper 2002, Kang'ethe 2004, Ogechi 2005, Githinji 2005, 2006이 있다.

- b. *ebu lola huyu mresh!* (< Giriama lola)
hebu/hey angalia/look huyu/this msichana/girl (Standard Swahili)
 ‘look at this girl!’ Githiora 2002:166

다른 아프리카 대도시 상황이 비슷하지만, 나이로비 동부지역에서 쓰이는 ‘쟁’이라는 변이형 이외에 ‘청소년’이라는 특질이 결여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스와힐리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일반 화자들이 쓰는 또 다른 변이형 ‘도시 피진-스와힐리어’가 있다. 이는 위에 함께 표기한 동부 해안 표준 스와힐리어와 또 다른 변이형이다. 표준어와 비교하면 도시 청소년 언어 쟁의 특징은 문법 형태에 기초한 규칙이라기보다는 표준어에 없는 어휘들이 언어자원(*kam/English, lola/Giryama, mresh/?*)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이로비의 또 다른 변이형으로 앵쉬 언어처리 패턴은 영어를 따르고 있다.

- (3) English (Nairobi) *si you akin pass for mwa morrow in your wheels ..*
see me tomorrow car
 ‘Come for me tomorrow in your car ..’
 Abdulaziz & Osinde 1997:55

아프리카 도시에서 청소년들에 의해 쓰이는 변이형(variant)을 하나의 언어(language)로 간주할 수 있을지(예컨대 앵쉬)의 의문이 제기된다.⁷⁾ 방언(dialect)과 일반 언어 경계가 모호하고, 레지스터(register, 사용-역) 혹은 사회 방언(sociolect)의 경우도 언어-내적 기준은 찾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의 발화를 은어(argot), 비어, 속어(slang) 등 하위 범주로 규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경계나 그 어떤 언어적 기준으로 명확히 경계를 짓기보다 언어사용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양상의 하나로 좀 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의미로서 ‘청소년 언어’라는 용어를 관행에 따라(Kießling & Mous 2004, 2006, Beyer 2015, Nassenstein & Hollington 2015, 2016, Jonsson et al. 2019, Nassenstein & Bose 2020, Hurst-Harosch & Kanana 2020), 그리고 편의상 그대로 쓰고자 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규정되었다(예컨대, 코드-전환/Slabbert & Myers-Scotton 1996, 코드 혼합/Abdulaziz & Osinde 1997, 방언/크리올/Githiora 2002, 레지스터/Meshrie & Hurst 2013, Hurst 2013, 레퍼트와(repertoire)/Blommaert & Backus 2011, 2012, Nassenstein & Hollington 2016), 스타일/Hurst 2008, 2009, 2013).

2.1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사회의 일반적 특징

언어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집단이라는 사회적 측면과 언어사용의 주체인 개인의 언어 지식이라는 두 측면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⁸⁾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라 했을 때 이들 청소년으로

7) 주어진 위 예문(3)을 보면 영어 문장 배열 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동사구, 전치사구 구조도 마찬가지로 다. 어휘를 보면 표준 영어 발음과 약간의 변이가 있지만(*see > si, tomorrow > morow, car > wheel*) 역시 영어 어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 외래 어휘가 삽입되는데 그 어원은 불투명하다. *mwa*는 스와힐리어 형태이지만 의미는 *me/‘나를’*이고, *akin*은 역시 스와힐리어 *akina* ‘family, folk’와 유사한 데 이 구문에서는 기능은 모호하다. 담화표지 역할을 하는 듯하다. 단어의 조작, 특히 단어 동원(recruitment)이 청소년 언어의 특질이긴 하나 그것만으로 이를 하나의 언어 지위로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역동적 시각에서 보면 ‘언어’가 역사적,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다(Maher 2010, Pennycook 2017, Isiaka 2022:29). 방언, 사회-방언, 레지스터(사용-역)는 언어-외적 사회 특질이 반영된 명칭이다. 이런 전장에서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라는 용어도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다.

8) 이 논문에서 분석의 배경을 이루는 사용-기반 구성문법은 ‘구축과 관례 모형(EC-Model, entrenchment & conventionalization model, Schmid 2015, 2020)’과 ‘네트워크 모형(Diessel 2019, 2023)’으로 발전되어 나간다. 여기에는 기본 전체가 있다. 요컨대 화자는 소통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고,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언어 지식이 있어야 하며, 언어 지식은 인간의 정신, 요컨대 두뇌에서 표상되며, 언어집단은 언어 지식을 공유하고, 집단의 그 누구도 동일 언어 지식을 갖는 건 아니며, 마지막으로 언어구조는 언어사용으로 구체화 된다는 것이다(Schmid 2015:3). 언어 체현, 언어 지식의 구축, 그리고 사용은 언어자원의 형태 및 의미의 네트워크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진다.

구성된 언어집단이 상정된다.⁹⁾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각기 다른 모어 배경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직접 농촌의 자기 모어 집단에서 이주해 온, 경우도 있고 이미 도시지역으로 이주해 왔으나 부모와 함께 가족 내에서 여전히 모어 영향 아래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들, 도시 청소년들이 대개는 공식 교육에서 배제된 집단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이들이 언어소통을 교육이 아니라 소통 현장에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독특한 맥락 아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 특유의 의지와 활력이 적지 않기에 나름의 활기찬 소통이 전개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안정적이며 변화가 많지 않은 사회에서 언어의 관례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고정되어 오래 지속되지만, 그 반대로 언어집단이 이질적이며, 주어진 소통 맥락이 변화무쌍하고 동시에 대화 참여자들의 의지와 동기가 활발할 경우 언어 변이의 크기와 질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청소년 언어의 발화 패턴의 역동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2.2 청소년들의 소통 의지 반영 전략들

언어구조, 혹은 발화 패턴을 결정짓는 또 다른 축은 언어사용자의 언어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한 언어 지식이다. 이것이 근간이 되어 언어 표상으로 구체화 된다.¹⁰⁾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¹¹⁾ 도시 부랑이나 수감 경력이 있는 남성 청년들에게서 흔히 그러하듯 이들은 기존 틀의 수용을 거부하는 태도를 지닌다. 기존 틀이란 언어 부분에서도 그러한 데 그것은 공식교육을 통한 표준어 사용, 더욱이 외국어인 유럽어 사용이 그러하다. 사실 일부러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여 거부의 형식, 혹은 자발적 자기 세계의 구축이라는 형식으로 표출된다. 이런 태도는 사회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
- 9) ‘도시’라는 특징은 농촌(rural)과 대비된다. ‘청소년’은 15-30세 연령집단으로 기성세대와 또 대비된다. 도시와 청소년은 부차적 특징들을 함축하는데 ‘현대성, 글로벌 문화, 탈 부족/민족화, 소수 경범죄 집단, 남성성, 도시 현실을 잘 아는 약은 무리(street wise, kleva/clever)’ 등이 대표적이다(Kiessling & Mous 2004, §2, Nassenstein & Hollington 2015, Hurst-Harosh 2020, Isiaka 2022, §2). 하지만 이 특징들은 지리적 분포, 역사적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그룹 내부 정체성을 지키려는 경향이 점차 외부 화자를 끌어들여 코스모-폴리탄 대도시 글로벌 경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요컨대 후기-식민, 포스트-모던 사회의 양가성과 초-다양성(super-diversity, Vertovec 2007, Blommaert & Backus 2011, 2012, Blommaert & Rampton 2011, Jonsson et al. 2019)이 나타난다.
- 10) 언어구조는 정태적, 불연속적 성격을 지니기보다 발화 패턴(utterance type or pattern)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역동적이고 유동적이다. 이 같은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역동적 분석 모형이 요구된다. 그것이 이 논문에서 취하고 있는 네트워크 모형이다(Bybee 1985, Langacker 1988, Goldberg 1995, Croft 2001, Traugott & Trousdale 2013, Diessel 2015). 이는 문법구조뿐만 아니라, 두뇌 신경망(Elman et al. 1996), 생태계, 인지 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네트워크 모형 핵심은 몇몇 노드(nodes)와 링크(links)로 구성되는데, 활성화 정도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유동적인 체계이다. 그러므로 만들어졌다가, 삭제되기도 하고 새로운 노드와 접속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Buchanan 2002). 문법이 바로 범주와 구문(혹은 구성체, construction)이라는 인지 조직에 동기 부여되어 네트워크 방식으로 출현하고 또 변형되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구성 문법에서 구문이 중심이 되어 상호 연결된다. 결국, 모든 문법 개념은 특정 링크(접속)와 노드(구문)로 이해된다. 요컨대 언어사용자의 언어 지식은 언어상징의 연결 방식으로 이해된다. 이는 네트워크의 기본이 되는데 상징(4.1), 순차(4.2), 그리고 분류 연결(4.3) 세 가지 패턴으로 구체화 된다(Schmid 2016, Diessel 2019). 여기에 더하여 논항 구조, 품사 구분, 문법 관계, 형태적 문법 패러다임 현상 등을 전통적 불연속 범주와 알고리즘으로 파악하는 대신, 역동적 네트워크 개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차원의 네트워크 연결 방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휘 관계(4.4.1), 구문들 사이 관계(4.4.2), 그리고 필러-슬롯 관계(4.4.3)로 정리된다(Diessel 2019, ch.2).
- 11) 전통적으로 사회언어학에서는 사회적 특징들(성별, 나이/세대, 사회경제적 지위/ 계급, 혹은 민족)을 특정 언어적 특징들(음성/발음, 어휘 구사/선택, 혹은 문법 표현)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자 했다(Labov 1963, 1966, Trudgill 1972, 1974). 이 사회적 특징과 언어적 특징들은 서로를 지시하는 지표(indexical)로 활용되었다(Siverstein 2003). 대개는 표준어와 글로벌 변이형이 주도하고 현지(local) 변이형이 주변화되어 위축되는 방식으로 언어 변이의 변화가 설명되었다. 그러다가 현지(local) 변이형의 가치와 기준이 중시되는 새로운 시각이 나타났다(Milroy 1980, Gumperz 1982, Eckert 1989, 2000). 이 두 경향은 글로벌 가치 혹은 현지 가치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고정된 특정 특징을 상호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같다. 이는 전통 언어학이나 생성이론에서 고정 범주와 규칙 세트로 언어구조 및 문법을 설명하려 했던 것과 같다. 사회-언어학에서도 제3의 물결이 나타났다(Bucholtz & Hall 2005, Eckert 2012). 본질은 언어사용자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의도와 정체성을 그때그때 구성해 나간다는 점이다. 이는 언어 변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화자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중시한다. 화자의 발화 실행(speech practice)은 사회적 특징을 직접 반영한다기보다 주어진 집단의 사회적 관심사와 화자의 의도나 지향점이 하나의 스타일(Irvine 2001), 혹은 발화 패턴으로 나타나는 끊임없는 즉석 구성과정, 브리콜라지(bricolage, Hebdige 1984)이다.

않든 새로운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지키고, 그리고 유지해 가려는 노력으로 규정된다. 도시는 농촌 전통사회와 구분되고, 청소년은 기성 장년 세대와 대립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언어는 유럽어나, 표준화된 공식어, 혹은 국어와 차별된다.

기록된 문헌 텍스트와 달리 소통 현장에서 구어체 형식으로 전개되는 발화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는데 ‘속어’, ‘은어’, ‘비어’라는 명칭에서 흔히 암시되듯 표준어의 규칙을 위반한 용인되지 않는 변이형으로 곧잘 간주 된다. 사회문화적 규정, 혹은 언어 외적 기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 논문에서는 이를 다른 일반 언어 패턴과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는 하나의 변이형, 그러므로 ‘언어’로 불러 마땅한 매체로 간주하고 자 한다. 문제를 이런 변이형들의 특징이 일반 언어이론과 어떻게 부합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특별히 사용-기반 언어학, 구성 문법이라는 시각을 도입하여 새롭게 분석과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이 선상에서 최근 발전된 네트워크 모델은 언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암시하고 있다.

3. 발화 패턴 (구성체) 분석

언어는 음성 형태와 의미로 이루어진 기호라는 사실은 현대 언어학의 출발점이다. 대개는 ‘단어’라는 언어단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에서 단어, 구와 절 (문장)으로 언어단위가 규정된다. 이에 따라 구나, 절의 의미(명제)가 나타나게 된다. 언어단위의 크기에 따른 단위 구분과 함께 공통으로 이들은 어휘와 문법으로 나뉘며 어휘는 기호로 이해되고, 문법은 하나의 규칙으로 설명된다. 요컨대 언어구조는 어휘와 이것으로 이루어진 문법 규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구조주의언어학, 그리고 이를 잇는 생성문법 이론의 근간이다(Jackendoff 2002). 예컨대 아래 (4)는 카메룬에서 쓰이는 캄프랑글레(Camfranglais)¹²⁾ 타동문인데 프랑스어와 영어가 각각 틀어이다. 예컨대 (4a)는 주어-동사(조동사-동사)-목적어 SVO 어순을 하고 있으며 주어 {on}은 대명사로 실현되고 목적어는 명사구(소유사+명사, *mon agogo*)로 이루어진다. 프랑스어 술어부는 조동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과거분사 형식이다(*sont volé*). 이와 달리 캄프랑글레는 시제 표지와 동사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a kick) 여기에 목적어가 덧붙여진다. ‘시계(*agogo/montre*)’와 ‘훔치다(*kick/volé*)’는 어휘이고, 주어 대명사는 3-인칭, 복수 문법 의미를 지니며, 소유사 {*mon*}은 1-인칭 속격 기능을 하는 또 다른 문법요소이다. 4a와 달리 4b에서는 영어 통사 어순을 하고 있다. 영어의 부사가 동사로 쓰이고(*back/bàk > return*), *mwà* (Fr. *moi*)는 프랑스어 어휘이고, *dollar*라는 형태가 절단되고(*dó*), 내용도 ‘돈’이라는 의미가 환유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상의 분석은 품사와 구 그리고 절이라는 통사 범주가 미리 주어진 분석 틀이고, 더욱이 이를 연결하는 구성성분 분석 규칙도 그러하다. 이는 정태적, 고정적 접근이다.

(4) Camfranglais (Yaunde, Duala)

- a. On a *kick* mon *agogo*.
 3.PL PST steal (<kick) 1.POSS watch (HAUSA)
 ‘They stole my watch.’ Kießling & Mous 2004:5

(cf. French *Ils sont volé ma montre*. (PST participle)
 3.PL be.3.PL stole 1.POSS watch = ‘그들이 내 시계를 훔쳤다.’)

12) 카메룬은 248개 토착어가 있으나 독립 이후 공식어는 프랑스어와 영어이다. 일반 대중들이 피진-크리올 과정을 거쳐 광범위하게 쓰이는 카메룬 피진-영어와 대중 불어(Français Populaire)가 있으나, 도시 청소년 언어인 캄프랑글레는 이와 구분되는 다른 변이형이다. 이는 시골에서 쓰이는 토착어들과 대립하는 한편 도시의 교육받은 소수, 엘리트들의 영어나 불어와 대비된다. 생성 당시, 그리고 그 이후 발전 단계에 따라 그 성격이 크게 달라지지만, 애초에는 거리의 소수 청소년 집단의 내부 정체성 유지 차원의 비밀 코드 성격을 지녔다. 그것은 음성-절단, 음절 변환, 의미의 변경(은유, 환유, 혹은 과장이나 욕설이나 조롱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변이형이 과연 하나의 언어로 규정될 수 있을지의 의문이 제기되었다. 기껏해야 레지스터(register), 사회 방언(socioliet), 아니면 하나의 스타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문법 문제와 더불어 언어 개념도 좀 더 급진적인 접근, 요컨대, 구성문법(Diessel 2019)과 변이형 연구의 제3 물결(Eckert 2012) 연구에 부응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 b. *bàk mwà mè dó.*
give back/return me my dollar
'Give me back my money!'

Kießling 2005:87

이와 달리 구성문법에서는 어휘와 문법이 양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를 이룬다고 본다. 문법화 이론에서 보듯 언어변화의 통시적 측면이 공시적 변이들로 흔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 예문의 주어 {on}은 인칭, 수라는 문법 기능과 함께 '그들'이라는 어휘적 의미를 지닌다. 언어분석의 새로운 접근으로 어-형태를 하나의 구문, 혹은 구성체(construction)¹³⁾로 파악한다. 언어 처리 단위가 하나의 자립 단어로 구성되면 어휘로 파악하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형태소, 혹은 구문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크기와 상관없이 구성체로 본다. 바로 이 구성체가 언어사용자가 처리하고 저장하는 기본 단위로 작용한다(Goldberg 2006, Diessel 2019)는 것이다. 이 구분은 전통 언어학의 구분과 유사하나, 일반 영역 인지 과정에서 처리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기인한다.

3.1 어휘 차원

어휘는 구체적 의미 내용을 지닌 자립형태소로 하나의 단위로 되어 있다. 예컨대 위 (4a)에서 kick '흠치다', agogo '시계'는 어휘요소이다. 캄프랑글레에서는 프랑스어 문법과 어휘가 문장, 발화구성의 근간이 되지만 kick은 영어에서 온 것이고, agogo는 하우사어에서 온 어휘이다. 어휘는 형태와 의미의 연결로 이루어진 상징인데 영어와 달리 kick이라는 형태는 캄프랑글레에서는 '흠치다'라는 의미와 연결된다. 새로운 사용 맥락과 새로운 사용자에게 따라 상징 연결이라는 인지 과정이 다르게 수행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사용자의 언어 지식과 체험이 반영된 결과이다. 하우사어 단어가 캄프랑글레에 들어온 것은 다언어 상용이라는 사회, 역사적 현실이 개인의 언어 경험으로 연결된 결과이다.

어휘는 다른 요소와 연결되어 하나의 구성체(construction)를 형성한다.¹⁴⁾ 이것이 하나의 단위가 되어 기억되고 탐색, 인출 및 재사용의 단위로 작용하면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의미는 사라진다. '나의 시계'라는 명사구 형태의 구성체는 {*mon agogo*}, {*ma montre*}, {*my watch*} 등 언어에 따라 제각각 달리 실현된다. 어휘에서 그랬던 것처럼 구성체도 의미와 형태 결합이라는 상징 연결이 작용한다. 어휘는 {POSS N}이라는 도식(schema)에서 각각의 슬롯을 채우는 요소로 작용한다.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의 발화 패턴을 보면 어휘의 출처가 다양하다. 예컨대 누시 예문 (1)에서는 프랑스어에 더하여 영어(-ing)와 토착어 동사가 하나의 단위로 나타났고, 예문 (2-3)의 쉹과 앵쉬에서는 스와힐리어와 영어 단위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4)의 캄프랑글레에서는 프랑스어에 이어 하우사, 영어 자료가 덧붙여지고 있다. 이는 이를 구사하는 도시 청소년들의 언어적 체험,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언어지식과 여기서 비롯되는 언어사용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음은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쓰이는 도시 청소년 언어 이스캄토¹⁵⁾ 종속문사례이다. 이 발화의 기저 문법은 반투어인 줄루어를 따르고 있으나 영어 어휘가 아프리카언어와 함께 대폭 새로운 형태와 의미변형을 거쳐 이스캄토

13) 언어구조는 의미와 특정 형태로 연결된 구성체, 혹은 구문(construction)으로 이루어진다(Goldberg 1995:5). 이 구문이 언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지만 통사 범주처럼 분석의 기본 단위가 아니라 다시 이는 네트워크로 다른 것과 유사성, 혹은 대조 관계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Diessel 2020:3).

14) 전통문법에서는 언어분석 단위를 형태소, 단어, 구, 절 등으로 나누어 이해하지만, 구성문법에서는 이들 모든 단위가 형태와 의미를 연결하는 상징으로서 하나의 구성체로 이해했다(Goldberg 2006:5). 하지만 언어 지식과 처리라는 역동적인 인지 과정을 고려하면 어휘는 세계 지식을 직접 지시하지만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구문/구성체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로부터 의미/기능을 어떻게 추론하는지를 지시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둘은 구분된다(Diessel 2019:12).

15) 이스캄토는 본래 줄루어를 쓰는 수감자들 사이의 은어인 Shalambombo에서 기원하였으나 차츰 도시 남성 청소년 언어로 확대되어 줄루어와 다른 변이형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요하네스버그 서부에서 아프리카언어를 쓰는 츠와나인들 사이 범족어(tsoetsi) 언어(taal)가 이스캄토처럼 도시 청소년 언어로 확대되어 남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되게 되었다(Kießling & Mous 2004, §1.4) 은구니 그룹의 반투어인 줄루, 호사, 벤다, 소토, 츠와나, 페디어가 언어 문법 처리의 기본 틀로 작용함에 따라 다양한 변이형들이 생겨났다. 아프리카언어-기반어는 초치탈, 반투-기반어는 이스캄토로 부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만 최근 남아프리카 전역 도시 청소년 언어를 더반,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등 지역에 따라 별도 레지스터 초치탈로 통틀어 부르는 이도 있다(Mesthrie & Hurst 2013, Hurst 2015). 이 같은 사실은 이스캄토, 초치탈의 역동성과 유동성을 반영하는 또 다른 측면이라 하겠다.

어로 실현되고 있다.

(5) Iscamto (Johannesburg)

If u-roof-a i-bank ya-se-lokishi-ni u-ya-tabalaza?

if you-rob-IND ART-bank CL-location-LOC you-OBJ-struggle¹⁶⁾

'If you rob a bank in the townships, is that fighting for survival?' Child 1997, K/M 2004:8

전통문법에서는 문법요소와 대비되는 요소로 구체적 지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어휘로 간주하였으나, 네트워크 구성문법(Diessel 2019)에서는 구성요소가 단일한 자립 요소(예컨대 위 예문에서, if)를 구성체와 구분하여 어휘를 본다. 여러 요소로 구성된 단어인 {uroofa} 2.SG-rob-IND는 형태적 구성체로 간주하고, {ufoofa ibank} 'you rob a bank'는 통사적 구성체로 간주한다.

3.2 구성성분 차원 (관용구, prefabricated expression, idioms)

전통 구조주의언어학과 생성문법에서는 문장구조가 단어들의 통사 범주와 이들 사이를 묶는 통사 규칙, 요컨대 구절구조 규칙으로 설명된다. NP, VP, PP로 대표되는 구-구조의 특징은 중심(head)과 의존소(dependent)로 나뉘고(Nichols 1986) 이들 사이의 관계는 종속관계로 규정된다(Lehmann 1985, 권명식 2022). 구-단위의 외적으로 떠맡는 통사 기능과 단위 내적으로 나타나는 통사 관계가 지배, 혹은 수식 관계로 구분된다. 구성문법 시각으로 보면 이들은 보통 선형적으로 자동화될 수 있는 단위로 작용하고, 중심 혹은 의존소가 갖는 상대성에 따라 필요한 필러(filler, 논항 혹은 보어)를 취하는 어휘, 혹은 구성체가 슬롯을 제공한다. 근본적 차이는 영역 일반 인지 과정에 따라 화자가 이를 사용한다는 점인데 고빈도 단위는 강화되어 언어 지식으로 구축되고(entrenched), 그것이 집단 내로 확산하면 관례화되어(conventionalized) 공유지식으로 안정된다는 역동적 시각에 있다(Schmid 2020).¹⁷⁾

다음(6)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쓰이는 청소년 언어 생의 타동문과 자동문이다. (6a)는 타동문으로 해석되었으나 구조상으로 보면 ‘..과 더불어 있다’라는 의미의 자동 존재문이다. 주어는 *u-le dem* DEM-N ‘that girl’로 명사구를 이루며, 술어부는 존재 의미 (..가 있다)의 *ako*이다. 마지막으로 전치사구 ‘with six lovers’가 오는데 반투 어순에 따라 Prep + NP (N - num)이다. 사용-기반 구성문법에서는 통사 범주에 의한 규칙으로 문장의 구-구조가 규정되지 않고 사용과 인지 처리의 기본 단위가 되는 구성체(construction)가 유동적으로 규정된다. 대개는 구-구조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a-ko* 3P.SG-be에서 보듯 대명사 주어(인칭 호응)와 동사가 하나의 구성체로 융합되어 범주 위주의 구-구조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cf. 영어의 I’m, He’s). {*a-ko*}는 발음과 산출, 그리고 저장이나 인출, 탐색이라는 인지 과정에서 하나의 단위로 작동되기에 하나의 구성체로 기능한다.

(6) Sheng (Nairobi)

a. *u-u/u-le dem a-ko na ma-chali wa-sita*
this/that girl 3.SG-is with CL6-lover CL2-six
'This/that girl has six lovers.'

b. *a-ko na ball.*
3.SG-is with CL9.ball/pregnancy
'She is pregnant.'

Beck 2015:61, Nassenstein & Bose 2020:6, 10

16) *roof* Afrikaans ‘rob’, *lokishi* Engl. location/townships *tabalaza* < Zulu *zabalaza* ‘struggle’.

17) 앞 본문의 앵쉬 예문(3)에 나타난 전치사구 ‘in your wheels’를 보면 이는 PREP [POSS N]]이라는 구-구조 혹은 스키마로 분석된다. 하지만 영어의 전치사구 ‘in the long run’을 보면(Diessel 2023:44) 통사 범주와 구-구조는 같은 PREP [ART ADJ N]으로 분석되지만, 의미상으로는 ‘결국에’라는 전혀 다른 의미, 기의로서 작용한다. 그리하여 해당 구성 어휘 의미와 아주 다르다. 소위 속어는 꼭 그 어휘들만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다른 동일 스키마 경우보다 사용 빈도가 높다. 모든 구(phrase)들이 사실상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언어(collocation)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그 차이는 사용 빈도 그리고 그에 따른 관례화 정도로 결정된다.

조금 더 큰 단위의 구성체로서 {ako na}는 ‘..과 더불어 있다’라는 의미이지만 맥락에 따라 ‘소유하다 (to have)’라는 타동사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때 {V-with}라는 단위는 구-구절 범주 규칙에서 성립될 수 없는 단위이다. 하지만 사용-기반 구성문법에서는 화자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이 단위가 하나의 구성체를 이룰 수 있다. 의미와 형태의 상징적 결합에서 의미는 ‘더불어 존재한다’라는 자동 의미에서 ‘...를 소유하다’라는 타동 의미로 전환된다.

여러 단어가 합쳐 하나의 관용구(formulaic expression)나 숙어(idiom)처럼 쓰이는 경우 이는 사용의 기본 단위로 굳어지게 된다. 형태적으로도 주어진 통사 범주로 해석될 수 없다. 흔히 그 의미가, 자구 의미에서 환유 의미로 전환되어 역시 관례화된다. 누시의 ‘태양의 왕’이라는 의미의 명사적 소유 구문 {roi du soleil =king of sun}은 ‘해에 말리기 위해 펼쳐 놓은 옷가지를 훑치는 도둑’이라는 의미로 굳어져 사용된다(Kiessling & Mous 2004:23). 이런 표현은 사용의 빈도가 반영된 사전 조작 표현(prefab, pre-fabricated expression)으로 구성체 형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3.3 절-차원 표현

전통문법에서는 주어와 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언어분석의 핵심이다. 주어와 목적어와 같은 논항은 문법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적 표지들이 나타난다.¹⁸⁾ 술어와 논항의 관계는 술어가 (valency)를 바탕으로 이들 사이의 지배관계, 혹은 수식 관계로 기술된다(Lehmann 1986, 권명식 2022). 담화상황이라는 구체적 대화 현장으로 들어가면 명제를 표현하는 문장은 오히려 흔치 않고 불완전한 단편들, 요컨대 발화 표현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cf. 아래 인두빌 예 (8)). 문장이라는 단위 밖에 담화나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표현들, 예컨대 담화표지, 화용 표지(권명식 2017)로 알려진 요소들이 등장한다. 이는 담화 참여자의 감정이나, 의도, 판단이나 인식 상태를 별도로 표현하기도 한다. 문장과 문장 외적 요인들을 문법의 별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중첩되거나 두 영역의 기능을 맥락에 따라 달리 수행한다. 그리하여 구와 절의 전통적 구분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며 사용-기반 언어학에서 그러하듯 어휘와 구문이라는 양대 구분만으로 오히려 총체적 현상을 좀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다음 (7)은 콩고민주공화국 남동부 중심도시인 루뭇바시에서 쓰이는 킨두빌(Kindubile)¹⁹⁾ 청소년 언어의 타동절을 수반한 복문이다.

(7) Kindubile (Lubumbashi, DR Congo)

ka²⁰⁾=marimi a-ka-savé ku-sata mu ki-ndubile

- 18) 문장 분석 및 언어 간 유형 비교에서 주어와 목적어라는 통사 기능을 보편적 개념으로 삼아 적용하고자 하면 능력이나 분열어에서 보듯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 곤란해진다(권명식 2022). 요컨대 주어/목적어도 논항의 행위성(agentivity)위계와 주제성(topicality) 위계가 함께 작용하여 행위성이 높고 담화 상에서 주어가 활성화된 개체가 주어로 나타나며 반대로 피해자와 비-주제 논항이 목적으로 나타난다(cf. Diessel 2023:54). 결국 주어, 목적어 이외의 요인들의 상호 작용으로 이 개념이 도출되며 화자는 이 원칙에 따라 문장을 구성해 나간다. 이것은 이미 관례화되어 무의식적 자동화 과정으로 수행된다. 위 본문 예문 (7) 킨두빌 타동문에서도 행위자인 사람이 주어로 오고, 피해자 논항 킨두빌어가 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19) 스와힐리어가 사용되는 동부, 중부에는 여러 청소년 언어가 있다. 앞에서 이미 소개한 케냐 나이로비의 쉐과 앵쉬 이외에 키스와힐리아 미타아니(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D.R. 콩고 북동부 키부호수의 도시 고마(Goma)에서 쓰이는 야바크란(Yabacrân), 키부호 남부 도시 부카부에서는 인두빌, 마지막으로 D.R. 콩고 동남부 도시 루뭇바시에서 쓰이는 킨두빌이 있다(Nassenstein & Bose 2020). 여기에는 피진-크리올 루뭇바시 스와힐리어가 도시 변이형으로 쓰이고 있어 남아프리카 여러 도시에서 그러하듯 이 변이형과 청소년 언어 킨두빌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언어처리의 기본 틀인 통사와 문법이 스와힐리어이고, 그다음으로 프랑스어 기원 어휘와 표현들이 대거 유입되는 것은 루뭇바시 스와힐리어의 일반적 특징이다. 여기에 청소년 언어 변이형은 그 무엇으로 특징지어지는지가 문제인데 대개는 글로벌화, 대도시화, 탈-부족화 등 청소년이 맞이하는 역동적, 정체성 과시와 더불어 동시에 새로운 문화, 스타일을 창조하려는 의지를 담은 새 어휘들에 그 핵심이 있어 보인다. 구체적 예를 바탕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0) {ka=}는 명사 12부류 접사형태로 표준 스와힐리어에서는 없으나 내륙 반투어 영향으로 킨두빌, 야바크란, 루가야 미타아니에 모두 나타난다. 이는 언어가 사용자의 지식과 사용을 반영하는 증거이다. 이 요소는 접두사 기능을 넘어 분절(proclitic)로 작용하는데 ka=mw-antishiza CL12-CL1-child ‘small child’에서 보듯(Nassenstein & Bose

CL12=naive.person NEG-CL12-know INF-speak LOC CL7-K.

‘The valueless ignorant person does not speak Kindubile.’

Mulumbwa 2009:3, Nassenstein & Bose 2020:3

통사 범주와 이를 연결하는 통사 규칙으로 문장구조를 설명하는 전통문법에서는 문장이 주어(*ka=marimi*)와 술어부(*a-ka-savé ku-sata mu ki-ndubile*)로 우선 나뉜다. 주어부를 구성하는 명사는 부류를 나타내는 접두사와 어근으로 분석되고 술어부는 다시 동사(*a-ka-savé*)와 목적절로 구분된다. 동사의 목적어는 시제, 상이 없는 부정형(infinitive)이 와 그에 대한 보어절(*mu ki-ndubile*)이 온다. 사용-기반 구성 문법에서는 통사 범주와 이를 연결하는 구-구절구조 규칙으로 문장이 객관적 실체로 존재한다는 고정적 시각을 거부한다. 요컨대 문장은 발화, 혹은 화행 (speech act)라는 언어 실현으로 화자가 지닌 언어 체험과 지식을 주어진 대화 현장에서 즉각적 인지 과정을 통해 산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통사 범주나 규칙이 아니라 언어사용자가 어떻게 자신의 언어 지식을 표출하는가이다. 발화는 결국 최초의 경험 대상인 어휘와, 이를 바탕으로 도식화할 수 있는 구문(construction)으로 구성된다. 위 예문(7)에서 {*mu*}라는 단일 요소는 하나의 기표로서 {LOC, 혹은 in}이라는 기의와 연결된 상징체이다. 더 이상 분절할 수 있는 구성요소가 없다. 그다음으로 *kamarimi* ‘the native person’, *akasavé* ‘not know’, *kusata* ‘to speak’, *kindubile* ‘Kindubile language’은 각각 접사와 어근으로 분절하여 각각의 형태소 의미나 기능을 부여하였으나, 실제 화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그것을 객관화하여 일원화할 수도 없다. 요컨대 명사 부류사, 주어 호응, 시제, 부정형 등의 문법 표지는 사용할 때 잠시 나타났다가(emergent) 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이며(fleeting) 일시적인(transient) 속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사용-기반 구성문법에서는 구와 절을 절대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어휘가 아닌 두 개 이상의 사용 단위들은 모두 구문 범위에 들어간다. 언어처리의 추상화 혹은 분류 위계(taxonomic hierarchy)에 따라 구문의 크기와 범위가 유동적으로 달라진다. 예컨대 {*ka=marimi*}는 두 개의 형태소를 지닌 구성체이고, {*ku-sata mu ki-ndubile*}는 세 개의 단어와 그중에 두 개는 다시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구성체로 이루어진다.

4. 인지와 언어 표상 전략

전통적으로 언어는 기호체계(Saussure 1916), 혹은 소통 체계로 정의되지만, 사용-기반 언어학에서는 언어사용자의 인지 과정과 처리를 중시한다.²¹⁾ 인지 과정이란 외부에서 들어온 감각적 자극을 분류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다음 저장하며 필요한 경우 이들을 검색하여 다시 인출하고,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²²⁾ 이는 언어 지식과 처리의 구체적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인지 과정은

2020:4) 접사가 이중으로 나타난다. *mariami*는 출처 불명의 어휘로 화자가 아는 토착어일 것이다. 이런 어휘의 사용이 청소년-어의 특징이 된다. *savé*는 프랑스어 *savoir* ‘to know’와 유사한데 형태적 변형이 나타났다. *sata mu*는 불어와 스와힐리어 중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연결이다. 킨두빌만의 특이(idiosyncratic) 구문이다.

21) 언어가 기호이며, 기호는 다시 기표와 기의로 되어 있다는 시각은 정태적 성격을 지닌다. 역동적으로 설명하면 기표(형태)에 언어사용자가 의미를 부여하고, 표현하려는 기의(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상징적 연결(association, link, Goldberg 2019:52, Schmid 2020:43) 행위로 나타난다. 소통 체계라는 정의는 화자, 청자, 메시지, 코드 등 기호 이외의 요소들이 개입되어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사회인지(Diessel 2019, §3.3), 혹은 화용적 연결(Schmid 2020, ch.14)이라는 개념으로 좀 더 역동적으로 언어사용자의 인지적 활동이 개입된다.

22) 사용-기반 구성문법에서는 언어사용이 중요한데, 본질적으로 여기에는 참여자들의 결정 과정이 개입된다. 그리고 이 결정 과정은 다시 세 개의 일반 영역으로부터 오는 인지 요인들로 구성된다. 그것은 사회인지(social cognition), 개념화(conceptualization), 그리고 기억(memory) 관련 요소들이다(Diessel 2019:23). 사회인지란 화행 참여자들(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련된 것으로, 주의 맞추기(joint attention), 공동배경(common ground), 그리고 청자 디자인(audience desig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Clark 1996). 한편 개념화란 경험의 인지적 구조화라 할 수 있는데 의미의 구성, 혹은 창출이다(Langacker 1987, Talmy 2000, Croft & Cruise 2004). 마지막으로 기억-관련 과정은 주의와 의식 흐름(Chafe 1994), 범주화(Lakoff 1987), 추상화(스키마화, Langacker 2008) 유추(Bybee & Moder 1983), 선제사용(priming, Leech et al. 2008), 사례학습(Bybee 2006) 및 자동화(Anderson 2005) 등인데 이는 모두 정보의 저장, 탐색, 인출 그리고 처리, 사용에 관련된 정신/뇌-작용이다(Diessel 2019:36).

달리 말하면 뇌의 신경망들이 정보를 관리하는 양상들을 말한다. 언어도 다른 영역 일반 인지 과정들의 하나로 간주 된다. 뇌의 인지 활동은 일반 인지 과정으로서, 하나의 연결 양상, 혹은 관계로 나타난다. 보통 상징 관계(4.1), 순차 관계(4.2) 그리고 분류 관계(4.3)가 그것이다(Diessel 2019, 2020, 2023). 이 세 관계가 언어의 기본 단위인 형태소, 단어, 구, 그리고 구문을 규정하게 된다. 모든 단위는 역동적 노드(nod)와 연결(link)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 연결망은 세 가지 유형의 연결로 나타난다. 정보처리의 기본 단위인 어휘와 구문을 기본으로 하여 어휘와 어휘 사이 연결(4.4.1), 그리고 구문과 구문 사이 연결(4.4.2) 마지막으로 어휘와 구문 사이(4.4.3)를 연결하는 필러-슬롯 관계로 대별 된다(ibid). 아래 항목에서는 이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들의 발화 패턴을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같은 접근은 기존 전통적 분석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도시 청소년 언어를 분석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서들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용어들, 요컨대 코드 전환(Slabbert & Myers-Scotton 1996), 코드 혼합, 문법화(Lehmann 1982, 권명식 2013, §3.2), 화용화(Erman & Kosstsinas 1993, Kwon 2017, 권명식 2017, 2023, §3.2), 구조 단순화와 재-어휘화(Muysken 1981, Lefebvre 1998, 권명식 2023, §3.3) 등의 개념들이 어떤 한계를 지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분석에 사용될 자료들은 아프리카 대륙 도시 전반에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최근 발표된 논문들에서 인용하여 나중에 상호비교 차원의 토의에 참고하고자 한다.

4.1 상징적 연결 (의미에서 표현으로, 표현에서 용법으로)

상징적 연결은 소리 형태와 의미 사이의 접속을 말한다. 인지 과정의 한 양상으로 소리 혹은 문자 형식의 기표가 주어지면 두뇌가 이것에 어떤 의미나 기능을 연결하는 작용을 말한다(Saussure 1916, Schmid 2015:7). 반대로 화자-입장에서는 머릿속 의미나 기능을 어떤 음성 형태로 혹은 문자형태로 표출시킬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언어소통 과정에서 전개되게 된다(Schmid 2020:20f). 언어 데이터의 분석은 이런 전제하에 수행된다. 이것이 기표와 기의의 상징적 접속 운영이다.²³⁾ 전통적으로 어휘와 같은 단어로 제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나 구성문법에서는 형태소들이 들어가 있는 복잡한 단어, 혹은 두 개 이상의 어휘나 단위들이 합쳐져 사용되고 처리되는 구문이 모두 상징적 연결 관계로 이해되게 된다. 다음(8)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와 맞은편 브라자빌에서 쓰이는 인두빌(Indoubil)²⁴⁾ 대화 구문 예이다. 프랑스어(Komā)와 영어(mista) 그리고 스와힐리어(bwana)와 이탈리아(ciao > chawe) 어원으로 보이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8) Indoubil (Bukavu, DR Congo)

A: *Komā mista?*

‘How are you sir?’ (= Comment allez-vous monsieur? French)

B: *Bjẽ bwana. Uko unachawe wapi?*

‘I’m fine, mister. Where are you going?’ (=Unakwenda wapi? Swahili)

(Je vais bien, monsieur. Où vas-tu? French)

23) 형태와 의미의 연결을 공식적 입장으로 보면 단순히 기표와 기의의 연결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생성과 발전이라는 역동적, 통시적 시각으로 보면 의미의 생성과 연결은 좀 더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아동의 L1 획득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Tomasello 2003) 의미는 어-형태(발음)와 지시물(의미)을 처음부터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아동이 관련 맥락에서 자신의 의도와 관련하여 창출하여 사용한다. 요컨대 어휘 의미는 화자의 언어 지식-망 중 초점이 되는 의미를 실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사용한다. 그리하여 ‘출현적’ 성격을 지닌다. 주어진 형태는 의미해석의 단초 역할을 할 뿐이다(Langacker 1987). 상징 연결은 주로 어휘를 중심으로 설명되었으나 어휘 범위를 넘어 구문도 결국은 언어기호이기에 상징 연결 과정이 해당한다. 다만 어휘는 형태가 세계 지식과 직접 연결되지만, 어휘로 구성된 구문은 이를 해석하는 지침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어휘 의미 연결과 차별화된다(Diessel 2019, §2.4.1, ch.6).

24) 인두빌은 1950년대 킨샤사, 브라자빌에서 형성된 청소년 언어이다. 미국풍 영화, 시리즈 만화, 음악의 영향을 받은 변이형으로 탈-부족, 특정 세대를 대변한다. 명칭은 Hinou ‘인디언’와 Bill (‘Buffalo Bill’)이라는 유명한 사냥꾼 이름)의 혼성어이다. 인두빌은 이후 콩고 각 지방으로 확대되어 북동부 도시 부카부에서도 쓰이게 되었다. 킨샤사에서는 링갈라에 기반한 변이형이었으나, 부카부에서는 스와힐리어로 들어가 바뀌었다. 킨샤사에서는 이후 변경된 청소년 변이형을 링갈라야 바얀키(Lingala ya Bayankee)로 부르게 되었다(Kiebling & Mous 2004:4-5).

Goyvaerts 1988, Kießling & Mous 2004:6

‘how’라는 의미가 {Komā}이라는 형태와 연결되는 것은 기호학의 기본인데, 사용-기반 언어학에서는 이를 정태적, 고정적 관계로 보는 게 아니고, 화자가 ‘꼬망’이라는 소리로부터 ‘어떻게’라는 의미를 해석하거나, 반대로 ‘어떻게’라는 의미를 ‘꼬망’이라는 소리로 발화하는 것은 모두 상징적 연결이다.²⁵⁾ 이는 고정적 정태적 시각이 아니라, 역동적, 처리 운영이라는 측면을 담는다. 이와 같은 상징적 연결은 어휘 단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선생님(Komā mista?)’이라는 인사말 전체 표현이 하나의 구문 단위로 처리되고 파악되어 실제 발화 상황에서 표상된다.

대화상에서 나타나는 어휘들의 출처에 관심을 두어 프랑스어, 영어, 스와힐리어 그리고 이탈리아어의 코드 혼합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곤 했으나, 인두빌에서 쓰인 이와 같은 다양한 언어출처는 단지 인두빌어 생성과 사용이라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암시할 뿐이다. 그 안에서 이를 사용하는 도시 청소년의 언어 체험 결과라는 점에서는 다른 일반 언어들과 다를 바 없다.

4.2 순차적 연결 (자동화와 관례화)

구조주의언어학에서 언어구조의 핵심은 수평과 수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수평적, 수직적 구조는 연결과 선택이라는 언어 운영을 전제로 하여 언어구조의 통합관계(syntagmatic relation)와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가 성립된다(Saussure 1916, Jakobson 1956, Lyons 1968:172, Matthew 1974:255f, Hollenstein 1975:142f, 권명식 1995:31, Schmid 2020:47).²⁶⁾ 전자를 기초로 통사 기능인 주어, 목적어 등이 나타나고, 후자를 바탕으로 품사, 혹은 통사 범주가 나타난다. 문장은 이 두 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통사 범주와 기능으로 설명된다. 예컨대 다음은 동아프리카 도시(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형성된 스와힐리어-기반 청소년 언어인 루가야 미타아니(Lugha ya Mitaani, 거리 스와힐리어) 타동 예문이다.

(9) Lugha ya Mitaani (Dar es Salaam, Tanzania)

Juma a-mesha-kul-a nyasi yake

J. SM1-PRF-eat-FV NP9.grass PP9:POSS3SG

‘Juma has already smoked his weed.’

Reuster-Jahn and Kießling 2006:166, Nassenstein & Bose 2020:9

‘주마가 이미 그의 대마초를 피웠다’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의 수평 통합관계는 SVO-어순을 하며 목적어의 명사구(NP)는 중심과 의존소(head-dependent) 어순으로 배열된다. 단어 차원으로 들어가도 동

25) 부카부는 다-언어 상용 지역으로 여러 언어자원이 인두빌의 토대가 된다. ‘how’라는 의문 대명사 의미가 인두빌에서 /komā/이라는 음성 형태와 연결되어 있다. 이 소리/의미 결합은 ‘자의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 관계이다. 하지만 역동적 측면으로 보면 이미 프랑스어에서 ‘comment’으로 나타나 인두빌 화자의 어휘 지식에 기여된다. 더 나아가 사람을 만나 인사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화용적 지식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어휘 차원을 넘어 구문 차원에서도 상징 관계가 적용된다. 다만 프랑스어에서는 ‘가다’라는 동사가 들어간 관례화된 인사구문이 쓰이지만(Comment allez-vous monsieur?), 인두빌에서는 인칭과 동사가 오지 않고 직접 의문 대명사와 상대 호칭이 오는 방식으로 관례화된 구문이 쓰인다(Komā mista?).

26) 언어는 주어진 순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나가야 한다. 그것은 언어단위 크기와 무관하다. 음소, 형태소, 단어, 구, 절 그 모든 통사 단위에 적용된다. 보통 통사 범주와 이를 연결하는 규칙으로 통사구조를 설명하곤 했다(Chomsky 1965, 권명식 1995, II.4). 스와힐리어는 SVO 문장 어순을 하며, 중심(head)이 앞에 오는 NP-어순을 한다(Det, adj - N). 전치사구도 중심-선행 prep-NP 어순이다. 단어구조도 대개 접사가 선행하는 접두사 구조이다(prefex-Root). 권명식(1993). 루가야 미타아니도 이 원칙을 따른다. 여기에는 예외들이 있다. 그것은 숙어나, 관례화된 표현이 대표적이지만 이따금 통사 단위를 위반한 것들이 나타난다. 영어의 I’ve처럼 주어 동사가 하나의 단어로 융합된 경우인데, 예문(9)의 *a-me-sha-ku-l-a*, 3P.SG-PF-finish-INF-eat-IND ‘He has already eaten.’에서 이 표현은 사용 빈도가 높아 문법화-과정을 거쳐 하나의 단어로 고착, 관례화되어 쓰이고 있다. 여기서 주어와 술어인 동사가 서로 다른 통사범주이기에 융합될 수 없는 거지만, 사용-기반 언어학에서는 고빈도 사용에 의한 자동화로 순차적 배열 및 응집력 증대가 나타날 수 있음을 증시한다. 이는 청자-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의 증대로 나타난다. 요컨대 자동화와 예측성이라는 사용 관련 요소가 언어 요소 순차적 배열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Diessel 2019, ch.5).

사는 주어 표지-완료 상-어근-범 순서로 역시 관례화된 수평적 배열을 한다. 이런 점에서 사용-기반 구성문법의 접근은 여러 면에서 구조주의 접근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 본질적 차이는 이 구문에 대한 시각이 구조주의언어학에서는 범주와 통사 규칙이라는 고정적, 절대적 시각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지만 사용-기반 구성 문법에서는 주어진 발화 맥락에서 특정 화자가 자신의 언어 지식을 토대로 원하는 소통 메시지를 처리한다는 역동적 시각으로 자동화와 예측성이라는 점을 중시한다. 순차적 연결(sequential association)이라는 용어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주마라는 단어가 먼저 오고, 그러면 그다음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 동사가 오며 이는 다시 그다음에 목적어가 오는데 이때 목적어는 좀 더 긴밀한 단위를 형성하는 구문(nyasi yake ‘his weed’)이 하나의 처리 단위(chunk, Bybee 2010)를 형성하여 이 요소가 더 높은 층위에서 동사 다음에 배열되게 된다. 사용상 빈번한 표현은 자동화되어 쉽게 기억되고 동시에 다음 사용에서 좀 더 용이하게 처리된다. 청자 측면에서는 예측-가능한 단위로 작용하여 역시 쉽게 이해된다. 이런 내용을 담아 통합적 관계 혹은 운영이란 용어가 아니라 순차적 관계, 혹은 통합적 연결이라는 새로운 전문용어를 쓴 것이다.

4.3 분류 위계적 연결 (추상화 정도에 따른 층위)

전통문법에서 문장은 단문과 복문으로 나뉘고 단문은 다시 술어와 논항들로 이루어진다. 복문일 경우 단문이 2개 이상 나타나 접속사를 통해 연결되는데, 종속 여부에 따라 대등문과 종속문으로 나뉜다. 예컨대 아래 예문(10)은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외곽 소웨토 지역에서 쓰이는 도시 청소년 언어 초치탈²⁷⁾ 복문이다. 구-구절 문법에서 어휘(N, Copl, Prep, Adv)와 구(PP, NP, VP) 그리고 다시 문장(S)으로 올라가는 수직구조가 수평도로 표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기반 문법에서도 이 위계 구조가 추상화 정도에 따라 어휘에서 구문으로 올라간다. 이 과정은 통사 규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현 양상의 빈도에 따라 사용자가 그 어떤 패턴을 도식화(schematization)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역으로 한번 도식화된 패턴은 수용되는 새로운 언어자료를 범주화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이 같은 인지 처리 및 과정을 분류적 연결(taxonomic association)이라 한다(Diessel 2023, §3.1). ‘아파치는 동 올란드 출신이다.’라는 첫 구문(10a)에서 {Orlando East}는 두 개의 어휘가 구문을 이루고 이는 다시 [in - Nominal]이라는 스키마로 도식화된다. [주어 - 기사 - 장소표현]은 좀 더 추상화한 구문도식이다. 이처럼 언어는 수직적으로 추상화 정도에 따라 분류 위계적으로 연결된다. 최종적으로 복문은 [S - conj. - S]라는 추상화된 도식으로 표상된다.

(10) Tsotsitaal (Johannesberg, Soweto, South Africa)

- | | | |
|----|--|--|
| a. | <i>Apache was van in Orlando East</i>
Apache COP/PST from in Orlando East
‘Apache was from Orlando East’ | <i>ma (maar) hiesô (hierso) in West</i>
but here in West
but here in (Orlando) West’ |
| b. | <i>da (daar) was ook</i>
there COP/PST also
‘there was also (a gang),’ | <i>want ou Tex laat ons daai (daardie) GROUP JOIN.</i>
because old Tex make 1PL DEM group join
because old Tex made us join that group.’ |

Slabbert and Myers-Scotton 1997: 332

(10a)는 두 개의 존재문으로 구성되는데, 앞 문장은 기사가 오고, 뒤의 절은 없다. (10b) 앞 문장에

27) 앞에 제시한 이스캄토 예문 관련 각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치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문법 통사를 규정하는 틀어가 아프리카언어인지, 아니면 다른 반투어인지에 따라 초치탈과 이스캄토로 양분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지만, 이후 연구에서 남아프리카, 제 도시에서 각각의 반투어 기반 언어들(호사, 줄루, 소토 등) 모두 통틀어 초치탈로 부르는 이도 있다(Mesthrie & Hurst 2013, Hurst 2015). 결국 이 초치탈의 규정이 기본 틀어 문법이 아니라 이들만이 쓰는 독특한 어휘나 구문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가까운 예로 앙쉬와 쎅이 서로 다른 틀어를 지니고 있고(Abdulaziz & Osinde 1997), 콩고의 인두빌도 킨샤사와 부카부 변이형이 각각 링갈라와 스와힐리어로 그 틀어가 다르다(Nassenstein & Bose 2020). 이 점은 언어와 레지스터, 사회 방언 등 기존 개념과 관련지어 다시 §5에서 논하고자 한다.

서는 보어가 없는 변이형이다. 한 단계 추상화하면 이는 모두 존재문이다. 그다음으로 계사가 오는 경우 존재문이 아니라 형용사가 오는 묘사문(He is tall.), 명사가 오는 확인 구문(Apach is a gang.)이 있어 이들 모든 패턴이 자동문 중, 계사문으로 일반화된다. 다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자동사가 오는 자동문과 함께 자동 구문으로 통합되고 이는 다시 단문이라는 좀 더 일반화된 구문으로 통합된다(단문 아래에는 타동문과 함께 (10b) 후반 문장처럼 사역 구문이 포함된다). 맨 아래 존재문은 위의 통사적 특질들을 계승한다. 초기 구성문법에서는 구성체와 분류 위계 구조가 언어 문법 조직의 핵심이었다(Goldberg 1995:67).

4.4 네트워크 관계 (언어 지식과 문법)

전통 기존 언어학에서 그리했듯 언어분석의 중심은 언어 데이터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론이나 주장을 펼칠 수 있고 동시에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주장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구조주의 및 생성언어학에서 주어진 언어구조와 데이터 이외의 사항들, 예컨대 심리, 사회, 담화 등의 요소를 구조분석에 직접 관련짓지 않으려 했다. 언어의 수평적 통합구조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나타나기에 선형적으로 배열된 통합관계가 언어분석의 핵심 관심사였다. 계열 관계 속에서 형성된 문법 패러다임도 고정 체계로서 분석 및 문법 이해에서 중요했다. 사용 기반 구성 문법에서는 언어(어휘와 구문)가 기호, 혹은 상징으로서 이들 상호 간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는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개념(Elman et al. 1996, Buchanan 2002, Diessel 2023:13-15)으로 설명되는데,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으로 나누어 이해된다. 미시적이란 언어상징 자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때는 링크가 중시된다. 거시적이란 언어상징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때는 구성체로서의 기호가 노드로 작용하게 된다. 미시 차원은 상징은 거시차원의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된 네트워크(nested network)로 설명될 수 있다(Diessel 2019, §2.3).

앞서 제시한 3가지 기본 연결 혹은 접속 관계(상징, 분류, 순차)는 기호들 내부의 미시적 시각(네트워크로서의 구성체)에서 온 것이다. 언어구조의 세 가지 측면인 이원 구조, 계열 관계, 그리고 통합관계인데 여기에 상징, 순차, 분류 위계적 연결이라는 새로운 시각은 역동적 성격을 가미할 뿐 전통적 접근과 본질적으로는 일맥상통한다.²⁸⁾

네트워크 관계에서는 언어를 처리하는 사용자의 언어 지식과 생성 및 이해라는 두 측면이 부각된다. 언어사용과 지식이라는 측면을 보면서, 언어구조의 그물망 관계를 강조한다. 요컨대 화자의 언어 지식은 그가 가진 언어정보를 기반으로 원하는 의미를 기표로 산출하는 데 있다. 반대로 청자-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닌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주어진 음성기표에서 의미를 해독한다. 기호의 유사성과 대립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언어 지식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이 빈번한 것은 활성화가 또한 빈번하며, 아울러 산출 및 해독은 좀 더 쉽게 이루어진다. 어휘와 구문의 구분을 바탕으로 노드로 기능하는 기호 네트워크 구조는 어휘와 어휘(4.4.1), 어휘와 구문(4.4.2) 그리고 슬롯과 필러 관계(4.4.3)로 세분된다. 이는 구성체를 거시적으로 본 것으로 각각 노드로 작용하여 서로 연결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4.4.1 어휘와 어휘 사이 관계

어휘는 언어사용자의 머릿속에 형태 혹은 의미의 유사성과 대립성에 따라 범주화된 지식으로 저장 및 인출, 그리고 탐색 및 사용에서 더 신속하고 쉽게 처리된다.²⁹⁾ 앞의 예문 (1) 누시의 {*cherching*, 'looking for money'}과 프랑스어의 {*chercher* 'looking for'}는 형태적 유사성을 지니지만 프랑스어에서는 단지 '...를 찾는다'라는 의미로 한정되지만, 누시에서는 특별히 '돈을 찾는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28) 노드와 링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상징, 순차, 위계 분류 등 미시적 연결 작동으로 나타나는 한편, 거시적으로 보면 어휘와 구성체로 이루어진 언어상징들은 다시 어휘들 사이, 구성체 사이 그리고 어휘와 구성체 사이라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연결 관계로 이어진다. 결국 구성체는 문법의 네트워크 아래 자체가 연결망으로 이해되기도 하고(미시적), 동시에 노드가 되어 서로 다시 연결되어 있다(nested network model, Diessel 2019, §2.3, §2.5).

29) 화자의 어휘 지식은 하나의 연결망(정신 어휘, mental lexicon)으로 이루어져 활성화 방식으로 저장되고 처리된다. 이 연결은 음성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Collins & Loftus 1975, Diessel 2019, §10.3).

이는 환유적 표현이지만 이들 두 어휘 기호 사이에는 형태적, 그리고 의미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관계로 화자의 언어사용, 요컨대 어휘 선택 및 연결에 직접 영향을 준다. 누시의 어휘 중 {-ing}는 다시 이번에는 영어의 현재 분사형 어미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look-*ing* for money).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들의 경우 언어 경계를 넘어 다양한 언어자원들이 발화 형성에 동원되었다. 다음(11)은 앞 예문(9)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는 스와힐리어-기반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청소년 언어 루가야 미타아니 대화 구문이다. 표준 스와힐리어 문법을 토대로 분절하여 그 기능을 기재하였으나, 도시 청소년 언어 화자가 이를 의식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대개 그것을 하나의 언어단위인 단어로, 요컨대 뭉치(chunk)로 처리할 것이다. 어휘들 사이의 관계는 주어진 언어체계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발췌된 예문 안에서 어휘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구체적 차례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한 어휘를 몇몇 골라 어휘 유사성과 대비성을 기반한 어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형태적 유사성을 보이는 예로 우선 자립 인칭대명사 형태 패턴이 그러하다(wewe, sisi, mimi, ninyi, 2.SG, 1.PL, 1.SG, 2.PL). 음절 중첩이라는 형태 유사성과 함께 인칭(1, 2, 3-인칭)과 수(단수, 복수)는 대립으로 나타난다. 이들 어휘는 형태패턴의 유사성과 의미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한다. 동일 문법 기능을 하는 구성체가 같은 형태적 유사성(-a)과 함께 시제/인칭 대조(me~na, u~a~tu-)를 보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unifikiri ‘you think’, amekuj-a ‘he has come’, umefanya-a ‘you have done’, tumeshachez-a ‘we have played’, unaniamibi-a ‘you are telling to me’). 순전히 형태적 유사성을 보이는 다른 예로 {kila, hela, bwana, kuja, akina}를 들 수 있는데 2음절에 뒤 음절 절정(peak)가 모두 개방 모음 {-a}로 실현된다. 의미 차이{모든, 돈, 신사, 오다, ..처럼}는 무관하다. 의미 유사성을 보이는 예는 wewe, sisi로 ‘우리’, 혹은 ‘너희들’로 모두 복수 대화 참여자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어휘의 형태/의미의 비슷함과 대립은 뇌의 정보처리에 유리하게 작동되는데 이들이 정신-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11) Lugha ya Mitaani (Dar es Salaam, Tanzania)

- a. Joan: *Wewe vipi wewe! U-na-fikiri kila demu³⁰ a-me-ku-ja Club*
 you how you 2.SG-PRS-think each girl 3.SG-PF-INF-come nightclub
 ‘Hey you, what do you want! Do you think every girl to come to a nightclub
- b. *ha-na hela bwana!*
 3.SG.NEG-have money mister
 has no money, man?’
- c. GK: *Acha kumaindi, kuja kucheza na wewe umefanya dili,*
 ‘Stop making a fuss! You are making it an issue that I have come to dance with you.
- d. *sisi tumeshacheza na akina Miss Venezuela huko,*
 We have already danced with women like Miss Venezuela there.
- e. *wewe kuku wa kienyeji unaniambia.*
 And what are you telling me, you country bumpkin.’

Reuster-Jahn and Kießling 2006:57

위 예문에서 고딕으로 표시된 어휘들은 거리 스와힐리 체계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이다. 이는 영어 어휘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다른 어휘들도 있다. 이 어휘들은 도시 청소년 언어를 규정하는 중요한

30) 예문 중 고딕으로 표시한 것(demu, maindi, dili)과 평서체로 쓴 구성체(kuku ya kienyeji)는 표준 스와힐리어에 나타나지 않는 언어자원을 말하는데 기반어와 청소년 언어 차이를 구분 짓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거시 네트워크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모르는 언어 어휘망과 연결된 어휘 기호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4.4.2 구문과 구문 사이 관계

네트워크 관계는 어휘와 어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구문과 구문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추상화 정도가 같은 층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특히 수평적 연결(horizontal association)로 불린다(Diessel 2023). 어형태의 굴절 패러다임이 대표적 특징을 보이지만 이런 패턴은 구문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앞에 제시한 썩의 자동문(2)에서 ‘그가 왔다(Alikam < A-li-kam SUBJ-PST-come)’라는 자동문은 주어 요소와 시제 그리고 자동사를 모두 포함한 하나의 단어 {alika ‘he came’}로 실현된다. 이 구문은 형태소의 변이에 따라 다양한 대조 구문이 나타나는 데 이는 인칭, 수, 시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 각각의 구성체는 나름의 긴밀한 관계 안에 있다. 전통적으로 형태적 패러다임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인칭(1, 2, 3)과 수(Sg/Pl)에 따라 {ni-, u-, a-, tu-, m-, wa-}로 변한다. 하지만 이들의 출현 빈도를 보면 복수보다는 단수가, 3-인칭보다는 1-인칭이 더 빈번하다. 이처럼 네트워크 접근에서는 패러다임 형태가 그 위의 도식 안에서 긴밀한 관련을 서로 맺지만, 이들이 다시 비대칭으로 대립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다른 사례로 위 썩 예문(6)에서는 부가어(PP)가 수반된 자동문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다(A-ko na ball. 3P.SG-be with ball, ‘She is pregnant). 스키마로 표시하면 [주어-존재-수반] 도식이다. 이는 (2a)의 구문 A-li-kam [주어-행동]과 목적어가 없다는 유사성 관계와 함께 동시에 부가어(adjunct, prepositional phrase)의 유무라는 대조 관계로 서로 연결된다. 이것이 구문과 구문 사이의 관계로, 도식들이 네트워크 연결 방식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더하여 어휘와 구문 사이를 연결하는 또 다른 네트워크 연결(4.4.3)이 있다.

다음 (12)는 반투어 기반 도시 청소년 언어의 또 다른 사례로서 DR 콩고 킨샤사에서 쓰이는 얀케(Yanké)³¹⁾ 구문이다. (12a)는 계사문이고, (12b)는 계사문이 포함된 종속문이다. (12c)는 타동문이며, (12d)는 자동사를 수반한 자동문이다. (12a, b)는 같은 계사문으로 술어가 명사로 구성되는 유사성이 나타난다. 두 구문 모두 계사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다만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만 구별된다. 이처럼, 구문들 사이의 차이와 유사성으로 이들은 서로 그물망 관계에 있다.

(12a, d)는 같은 자동문이지만 계사문과 동사문으로 서로 갈리고 있다. (12c, d)는 둘 다 동사문이지만 논항 수에 따라 타동문과 자동문으로 나뉘고 있다. 여기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긍정문과 부정문, 능동문과 수동문도 각각 비대칭 구조 도식을 하지만 구문들 사이 네트워크 형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들도 일반 다른 표준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문법의 구조는 네트워크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절 차원의 구조를 논의하였으나 이는 구-차원의 도식, 그리고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 단어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한다.

(12) Yanké (DR Kongo, Kinshasa, Lingala)

a. *tala kaka yo swagg ya niama*
look.IMP only 2SG stylish.look CONN CL9.animal
‘just look, you have incredible style!’(=you look incredibly stylish. or you are of incredible style.)

b. *kiekiekie pck suis the king* [hihihi... paskə swi də ki:ŋ]

31) 앞서 (8)번 본문 예문 인두빌(부카부 지역)을 설명할 때 이미 언급하였지만, DR 콩고 킨샤사에서 1950년대 발생한 이 변이형은 지방 도시로 확산하여 동북부 키부호수 지역 부카부에서도 쓰이게 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도 바뀌고 세대 변화도 나타났는데 이들이 쓰는 청소년 언어 변이형의 명칭도 달라졌다. 링갈라야 바얀키로 불렸다. 그러다가 1983년 이후로는 화자들이 스스로 느끼는 정체성 변화와 함께 명칭도 얀케(Yanké)로 바뀌었다. 2003년 이후로 또 다른 청소년-어 변이형이 랑길라(Langila)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Nassenstein & Hollington 2016:189). 언어구조 변화와 함께, 화자, 화자 집단 그들의 언어 수행 그리고 이미지와 스타일이 빠르게 변할 뿐 고정되고 영원한 실체로서 이 변이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laughter) because 1SG:COP DET.ART fashion.leader
 ‘(laughter) because I am the fashion leader/role model’

c. g vs kiff mes bro [ʒə vu: kif me: bro:]
 1SG.S 2SG.O love POSS1SG brother
 ‘I love you, my brothers’

d. na-zo-chillé kaka awa na Edmonton
 1SG-PRG-relax only here LOC E.
 ‘I am simply relaxing here in Edmonton

Nassenstein & Hollington 2016:179

4.4.3 슬롯과 필러 관계 (중심과 의존소)

어휘는 상대적(relational)인 것과 절대적(absolute)인 것으로 보통 양분된다(Lehmann 1985, 권명식 2018). 이는 내재적 의미에 기인 된다. 예컨대 앞에 주어진 캄프랑글레 예문(4)에서 동사 {to kick}이나 {to steal}인 경우는 행위자와 이 행위를 당하는 피해자를 이미 어휘 의미에 담고 있는 상대적 기호이다. 반면 목적어인 ‘시계 agogo’는 명사로서 절대적이다. 다른 의미를 구성에 필요로 하지 않고 독자적(autonomous)으로 존재 한다. 전통 언어학에서 동사는 중심(head)이라 하고 주어, 목적어 같은 명사구 논항을 의존소(dependent)로 하여 명제가 구성된다(Nichols 1985, 권명식 2017a). 이 같은 정태적 분석에서 벗어나 사용-기반 구성 문법에서는 필러(filler)와 슬롯(slot)이라는 용어를 쓰는데(Diessel 2019) 화자가 슬롯이 있는 동사 구성체에 필러-논항을 채워 하나의 구문을 만드는 언어처리 과정으로, 위 타동문 산출 및 문장 이해를 역동적으로 파악한다.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4)에서는 동사의 의미가 ‘차다’에서 ‘훔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이는 이미 이 언어집단에서 구축(entrenched)되어 있어 그대로 사용된다. 다만 이 슬롯은 주어인 {on}과 목적어 {agogo} 논항으로 채워지는 과정으로 문장이 산출되고 이해된다(4a). 프랑스어 등 다른 언어에서 사용된 기호만 다를 뿐(4b) 기본 처리 패턴은 같다.

디셀(Diessel 2019)은 상징 관계, 순차 관계, 그리고 분류 관계를 네트워크로서의 기호라는 차원에서 묶어 설명했고(Part II), 필러-슬롯 관계를 별도 Part III에서 분리하여 취급하면서 일반 언어학과 통사론에서는 다루는 주요 주제들 요컨대 품사, 구-구조, 그리고 논항 구조를 함께 다루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징, 순차, 분류 관계는 링크를 중심으로한 네트워크 차원 현상이고 필러-슬롯은 어휘들 및 구문들 사이의 관계와 함께 기호들을 노드로 바라본 데서 나온 개념이다.

언어단위를 어휘와 구성체로 구분하여 통사구조 설명을 노드라는 차원에서 필러-슬롯 관계로 파악하려 했다. 과거 의존문법(Tesnière 1959)은 언어의 통사구조를 의존관계로 파악했는데 이는 주어진 언어단위 사이의 통사 관계를 지배 혹은 수식이라는 의존관계로 설명한 것과 유사하다. 의존관계의 출발은 어휘가 갖는 본유적 의미 상관성에서 비롯된다. 동사, 전치사처럼 본유적으로 다른 요소와의 결합을 함유한 요소와 그것을 충족시키는 절대적 요소들(명사, 혹은 명사구)이 모여 통사 관계가 규정된다. 중심과 의존소라는 두 요소 중 어디에 빈-공간(open slot, 슬롯)이 열리느냐에 따라 지배(보어)관계와 수식 관계가 분리된다(권명식 2022, §3.3).

콩고민주공화국의 동북부 도시 고마(Goma)에서 쓰이는 스와힐리어-기반 청소년 언어 야바크란의 구체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보자. 예문(13)의 a는 소유 명사가 중심을 한정, 수식하는 명사구이고, b는 부가어를 수반한 자동문으로 부정법이다. c는 강조된 목적어가 문두로 이동된 타동 구문(OSV)으로 주어는 대명사 요소로 동사 접두사로 실현되고 있다. d는 명사구를 목적으로 하는 타동문이며, e는 자동문을 보어절로 품은 종속문이다. 틀어는 스와힐리어이고 여기에 도시 청소년 특유의 어휘들이 프랑스어를 비롯한 여러 원천어(source language)들에서 동원되고 있다(고딕 표시).

(13) Yabacrâne (Goma, DR Congo, Kiswahili-based)

a.	<i>ma-affaire i-a (ya) ma-justesse,</i>	<i>ma-affaire i-a (ya) ma-bi-tu moya ivi</i>
	NP6-thing PP6-CONN NP6-justice	NP6-thing PP6-CONN NP6-NP8-thing INDEF

‘(some) fair things (=things of justice), things of such a kind’

- b. *i-yi ma-borite ha-i-ta-tok-a apa*
PP6-DEM1 NP6-thing NEG-SMinanim-FUT-come.out-FV here
‘these things won’t come out here/ ~won’t show here.’
- c. *ka-le ka=demu ba-li-ka-dobé*
PP12-DEM2 NP12=girl SM2-PST-OM12-rape/take
‘that small (bad-looking) girl, they raped her/took her.’
- d. *ni-li-on-a u-le petit yangu*
SM1SG-PST-see-FV PP1-DEM2 NP1.youth POSS1SG
‘I saw that young friend/buddy of mine’
- e. *a-ka-ni-ambiy-a ye iko prêtre*
SM1-CONS-OM1SG-tell-FV 3SG COP rich.man
‘He then told me that he is a rich man/ famous.’ Nassenstein & Bose 2020:4-8

(13a)에서 명사, 혹은 명사구는 의미상 다른 요소가 필요하지 않은 절대적 요소, 필터이다. 그러므로 명사적 수식을 받으려면 연결사(CONN) {i-a}가 요구된다.³²⁾ 반면에, (13b)의 동사 {-toka} ‘come out’은 자동사로 행위자, 혹은 주어 기능을 하는 하나의 논항(*iyi maborite* ‘these things’)을 필요로 한다. 달리 말하면 동사 -toka가 하나의 슬롯을 열었고, 이를 채운 논항 *iyi maborite*와는 필터-슬롯 관계에 있게 된다. 중심에 슬롯이 열리므로 지배관계인데 이런 통사 배열은 출현 빈도가 높고, 그러므로 학습 및 사용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된다.³³⁾ (13c) 문장의 중심인 동사 -dobé ‘to take, to rape’은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타동사이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슬롯을 연다. 이는 행위자와 피해자 논항인데 주어인 행위자는 대명사 요소로(ba- ‘they’), 피해자인 목적어는 명사구(*kale kademu* ‘저 소녀’)로 실현되고 있다. *kale* ‘that’이라는 한정사(determiner)가 공간을 열어 명사가 이를 채우므로 이 명사구(그리하여 한정사-구 DP determiner phrase로 부름)는 지배관계이다. 문장이나 구 차원이 아니라 단어 차원의 구성체에서도 필터-슬롯 관계가 나타났다.

(13d)의 술어는 동사 *niliona* ‘to see’인데 이는 보다 복잡한 형태소 배열로 이루어져 있다(*ni-li-on-a* 1SG-PST-see-IND). 동사 어근 {-on-}는 표준 스와힐리어에서 그리하듯 주어, 시제, 범 범주를 요구하는 공간/슬롯이 있다. 이 빈-공간을 각각의 해당 형태소들이 채워주고 있다. 요컨대 필터-슬롯 관계는 문법 전반의 통사 혹은 문법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주어와 달리 목적어는 별도의 명사구로 나타났다.

(13e)는 세 개의 논항이 필요한 여격 구문인데 중심인 동사 {-ambiya} ‘tell’은 행위자(agent), 대상(theme), 표적(goal)이라는 논항들이 들어갈 세 개의 슬롯을 지닌다. 이들은 각각 주어, 직접 목적어, 간

32) [N of N] 도식의 명사적 소유 구문은 구성성분 분석을 따르면 N [of N]^{PP}로 분석되어 전치사구로 파악된 다음 이 요소가 중심 명사를 수식하는 식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instead of money* ‘돈 대신’에서처럼 of가 중심 명사와 먼저 연결되어 하나의 숙어 혹은 전치사로 관계화되면(문법화) 분석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사용-기반에 따라 구조가 달리 해석된다. 필터-슬롯 관계는 지배관계로 통사 범주가 우선되어야 결정되지만, 때에 따라 중심이 명사 혹은 전치사로 달라질 수 있다. 앞의 예문(13a)에서 앞 두 단어가 복합전치사로 해석되면 후행 명사는 필터가 되고, 반대로 앞 단어가 중심 명사로 해석되면 뒤의 전치사구 수식을 받는 형식으로 지배관계가 아니라 수식 관계가 된다(cf. Lehamann 1985:85).

33) 지배와 수식으로 의존관계가 구분되듯이 필터-슬롯 연결은 필수적인 지배관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부가어와 술어 사이 관계는 수식 관계이다. 본문 13b에서 *haitoka apa* ‘[won’t come out] [here]’에서 술어와 부사 사이의 관계를 필터-슬롯으로 봐야 할지의 의문이 제기된다. 동사가 이 부사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접 목적어 기능을 한다. 사람인 논항은 대명사 요소로 동사 어근에 붙어 접사로 나타나지만, 대상인 직접 목적어는 다시 자동문이라는 절로 실현되고 있다. 그 결과 좀 더 복잡한 보어문이 나타났다.

4.5 사회 인지와 화용적 연결

이상 다룬 인지 처리는 상징적, 순차적 그리고 분류적 연결이라는 접속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어휘와 어휘, 어휘와 구문, 그리고 필러와 슬롯이라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았다(Diessel 2019).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의 발화 패턴도 이런 점에서는 일반 ‘정상적’ 언어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이는 정신 작용,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뇌 활동에 기인한 것이다. 인지 처리나 과정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감각적 자극들을 의미와 결부시켜 파악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저장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환경에서 이를 바탕으로 언어적으로 표상하는 일련의 운영과정이라 하겠다. 언어가 인지 표상이라는 명제에 이어, 소통 매체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개인의 정신 작용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넘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상, 요컨대 청자의 상황이나 정신 상태를 함께 고려하고 소통을 통해 하나의 연결 통로를 구축하는 행위이다.

언어 외적 요소로서의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공유하는 관심사와 의도, 더 나아가 이들이 처한 외부 환경과 상황, 구체적 맥락 등이 언어 표상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과정은 전통적으로 사회-언어학, 혹은 화용론이라는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루어졌다. 사용-기반 구성 문법에서는 이들이 불연속적으로 구분된 별도 영역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동시에 인지 과정과 함께 작동되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회인지(social cognition, Diessel 2019, §3.3), 혹은 화용적 연결(pragmatic association, Schmid 2020, ch.14)이라는 용어가 있다.

사회인지(social cognition)³⁴는 구체적인 언어 표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이스캅토 앞 예문(5)에서 종속절의 주어 ‘너(u-)’는 직시 범주로 이 문장만으로는 실제로 누구를 가리키는 지 알 수 없다. 언어 외적 맥락, 대화 상황을 직접 체험한 화자가 주어진 상황을 인지해서 이를 표현한 것이다. 이같이 화용에 필요한 상황정보를 언어 표상에 연결하는 인지 작용을 화용 연결(pragmatic association)이라고 설명한다. 인칭대명사와 같은 직시 범주 외에 사회인지 영역에 속하는 언어 표상으로 ‘담화표지’ 혹은 규격화된 인사말이 있다. 또 다른 앞 예문(8)의 인두빌 대화문에서, (8A)는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어 대화의 통로를 여는 기능을 하는 표현(Komā mista?)이다. 영어나 프랑스어와 달리 계사가 생략된 좀 더 간략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8B)에 나오는 서두 표현 {Bjẽ bwana}도 개개 단어의 본래 의미(fine, mister)와 무관하게 인사에 답하는 관례화된 표현이다. 이는 어휘나 내부 구조와 무관한 하나의 구문으로 화용적 연결(pragmatic association)³⁵이라는 인지 과정에 기반 된 언어 표상이다.

다음 예(14)는 나이지리아 도시 청소년 언어로 영어, 나이지리아 피진, 속어(slang) 및 토착 어휘들이 섞여 있다. 앞에서 인용한 다른 청소년 언어들과 달리 이 변이형을 지칭하는 별도 언어 명칭이 없다. 그리하여 나이지리아 피진-영어를 기반으로 한 코드 혼합 정도로 볼 수도 있다. 청소년 언어 특징을 나타내는 특이한 어휘들이 들어가 있다(고딕 표시). 나이지리아 청소년 사회에서 구분되는 두 종류의 청소년-타입에 관한 대화로 세 명이 등장한다(Shegzy, Bright, Tina). 청소년 언어(피진-영어)는 이탤

34) 사회인지는 언어사용이 도메인 일반 인지 과정의 하나라는 인지 언어학적 시각에서 나온 용어로 사회인지 이외에 개념화와 기억-관련 과정이 있다. 이 세 과정을 통하여 언어사용은 하나의 결정-과정으로 실현된다. 사회-인식이란 구체적으로 대화-참여자들(화자와 청자) 사이의 주의 맞추기(joint attention), 공동 대화 기반(common ground), 그리고 상대(audience)에 대한 디자인(design, 설계)을 의미한다. 이 같은 사회인지가 전제될 때 언어소통이 실현된다(Diessel 2019:36). 아프리카 대도시 청소년 언어소통 분석에서도 이 같은 전제가 깔린다.

35) EC-모델을 제시한 슈미트는 구축(entrenchment)과 관례화(conventionalization)을 언어구조 설명의 양대 축으로 하여 이 두 영역을 연결하는 현상으로 언어사용을 제시했다. 연결(association)이라는 인지 과정은 상징, 계열(분류), 통합(순차) 관계로 삼분 되지만 여기에 더하여 ‘화용 연결’ 인지 과정을 추가했는데 이를 통해 혁신, 상호적응, 전과 및 규범화라는 관례화 과정을 인지 작용 차원으로 연결했다(Schmid 2015:4). 이와 달리 디젤(Diessel 2019)은 문장 차원의 의미와 화용 차원의 의미는 분리하기 어렵고 서로 중첩되기 때문에, 화용적 연결을 의미-형태 연결인 상징 연결에 포함하여 이해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인지 과정 차원에서 데이터를 분석했으나, 아래 §5.3-5.4에서 관례화라는 사회적 측면을 짧게 고려하였다.

략체로, 그 해석(영어)은 일반 서체, 그리고 속어 및 현지 토착어는 고딕으로 표시했다. 상층어 형태를 하고 있으나 현지 의미로 재-어휘화한 단어들은 밑줄로 표시했다.

(14) Nigerian Youth Language

- a. Shegzy [Yoruba male]: *Alright, now I want you guys to differentiate these guys in two, e:m: smelos and the frosh. Who be the **smelos** and who be the **frosh**?*
- b. Bright [male]: ((laughs)) **Smelos** – *smelos na people wey dey smell na, wey no get package*
 (((laughs))) Smelos – *smelos are people who are smelling, who have no appeal*
- c. Tina [female]: *How you take know say dem dey smell?*
 [How do you know that they smell?]
- d. Bright: *Definitely na – from the word “smelos”*
- e. Tina: *People wey no get **swag**, wey no dey **jive** =*
 [people without finesse, who don't socialize]
- f. Bright: ***Dem low** – *lowlife, lowlife people.**
- g. Tina: *= then the **frosh** be dem people wey package (.) wey **arra:nge**, people wey **gather***
 [= then the frosh are the well-heeled (.) folks who look well-arranged and attractive]

Isiaka 2022:32

위 대화문에서 사회적 연결 현상과 관련된 표현 중 청소년 언어 특유의 단어들(예컨대 smelos, frosh)이 있다. 스멜로스 와 프로쉬는 청소년을 매력적인 유형과 그렇지 못한 지저분하고 외로운 부류로 분류하여 일컫는 명칭이다. 이 용어는 이 청소년 집단 안에서 하나의 혁신으로 나타나 유포되고, 그리고 상호-적응(co-adaptation)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규범화(normation)된 표현이다. 이는 언어표현이 반복 사용됨으로써 관례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Schmid 2015:4). 이 같은 사실이 화용 연결이라는 인지 과정을 통해 언어 지식으로 구축된다. {e:m:, na, say} 등은 소위 담화표지로 알려진 요소인데 화자가 상대와의 소통이라는 현장을 인식하여 담화를 구성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시간, 생각할 틈을 직접 나타내고 있다. 대화는 질문(a, c)과 이에 대한 답변(b, d-f) 형식으로 이어지는데 답변 부분에서는 앞서 나타난 표현, 예컨대 smelos, frosh(14a)가 다시 반복되어 나타난다(14b). 이것은 화용 연결의 한 패턴인 적응(co-adaption, accommodation)을 의미한다. 청소년 언어의 특수어 표현은 이들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예컨대 (14g)의 **gather**가 ‘매력적인’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이 집단원이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표현이다. 이와 같이 화용적 지식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화용 연결이다.

위 데이터를 보면 이를 별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이지리아 피진어로 보아야 할지 등의 언어 지위, 혹은 경계 문제가 나타난다. 사회 방언, 레지스터, 아니면 하나의 스타일(발화 방식)로 이해해야 할지의 의문도 나타난다.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라 했을 때 이를 규정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아니면 아무런 기준 없이 적절치 못한 용어가 쓰이고 있는지의 문제도 나타난다. 이 문제는 언어구조 및 언어 지식과 수행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새로운 검토를 하게 한다(cf. 아래 §5).

이제까지 앞에서 다룬 아프리카 청소년 언어 데이터를 뒤에 추가될 몇몇 변이형과 함께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아프리카 청소년 언어들의 분류

명칭(예문 번호)	나라(도시)	통사패턴(문법처리), 어휘(삽입 원천어)
① 누시(1, 19, 22)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프랑스어 토착어, 영어
② 쉹(2, 6, 16, 21, 23, 26)	케냐 (나이로비)	스와힐리어, 영어, 토착어
③ 앵쉬(3)	케냐 (나이로비 서부)	영어, 스와힐리어, 토착어

④ 캄플랑글레(4, 15, 18, 27)	카메룬 (야운데, 두알라)	프랑스어, 영어, 하우스, 토착어
⑤ 이스캄포(5)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소피아타운)	줄루어, 아프리카스어, 영어, 기타
⑥ 킨두빌(7)	DR 콩고 (루분바시)	스와힐리어, 프랑스어
⑦ 인두빌(8, 17, 20)	콩고 (킨샤사, 브라자빌)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기타
⑧ 루가야 미타아니(9, 11, 28)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스와힐리어, 영어, 기타
⑨ 초치탈(10)	남아프리카(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더반)	아프리카스어, 소토, 줄루, 호사
⑩ 얀케(12)	DR 콩고(킨샤사)	링갈라
⑪ 야바크란(13)	DR 콩고(고마, 키부지역)	스와힐리
⑫ 나이지리아 청소년 언어(14)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피진, 영어, 토착어(요루바 등)
⑬ 키발랄레(24)	DR 콩고(부카부)	링갈라, 스와힐리, 인두빌
⑭ 야리다 크완크와(25)	에티오피아(아디스 아바바)	암하라어, 영어, 아랍어

표. 1에서 보듯 아프리카에는 아주 다양한 도시 청소년 언어들이 있으나 이 변이형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제각각 다르다. 지리적 요인, 도시의 성격, 규모, 그 도시에서 가장 잘 통용되는 기존 언어들이 보통 통사 문법을 관장하는 기본 스키마로 기능한다. 여기에 삽입되는 필러 요소들이 다른 언어들로 채워진다. 도시마다 이들 경쟁적 언어의 지위와 용도, 가치와 힘이 제각각 다르다.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대화 상황에서 대화의 발화를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할 화자의 처지에서 이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들 대상 언어들의 가치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성과 변이성을 지닌다. 그런 요소들에 대한 화자의 체험이 화용적 연결이라는 인지 과정을 통해 독특한 발화 패턴으로 실현된다. 예시로 나타난 예문과 달리 역동적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와 관련된 주제로 방언과 사회 방언, 사용역(레지스터), 은어, 속어, 피진-크리올, 반-언어 등 무수한 용어들이 등장했다.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들은 어떤 사회적 범주로 이해될 수 있을지 다음 5장에서 다루려 한다.

5. 토론: 발화 패턴 역동성과 인지 소통적 의의

이 논문에서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라 지칭했는데 이는 기존 연구(Kießling & Mous 2004, Beyer 2015, Nassenstein & Hollington 2015, Jonson et al. 2019, Hurst-Harosh 2020)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쓰는 변이형을 하나의 ‘언어’라 지칭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야기된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언어가 불연속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아프리카 언어들의 계통분류에서 조어로부터 분기되어 나오는 후손 언어들을 자연스레 수형도로 표시하곤 했는데 이때에도 각각의 명칭은 불연속적 언어, 혹은 방언으로 간주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어로 규정될 수 없을 때 좀 더 하위적 개념으로 방언(Githiora 2002), 사회-방언(sociolect), 레지스터(register, Mesthrie & Hurst 2013) 등이 쓰인다. 사회적 특질이나, 화자의 의도 혹은 사용 목적에 따라 스타일(style, Hebdige 1984, Irvine 2001, Reuster-Jahn & Kießling 2006, Hurst 2008, 2009), 레퍼트와(Repertoire, Blommaert & Backus 2011, 2012, Nassenstein & Hollington 2016), 코드-혼합/전환(Mazrui 1995, Slabbert & Myers-Scotton 1996, Abdulaziz & Osinde 1997, Lafage 1998b, Samper 2002), 변이형(Childs 1997, Lafage 1998b, Githinji 2005) 혹은 개인방언(idiolect) 등의 차별화된 용어들이 쓰인다. 특히 사회적 특징이 반영된 토착어, 속어, 비어, 은어(argot, Kube 2003, Mulumbwa 2009) 등이 사용되는 데 이런 경우 그 뒤에 이를 포함하는 일반 언어를 전제로 한다.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의 경우 하나의 언어로 간주하기 어렵지만 다소 과격한 견해로서 새로 형성되어 가는 언어(languaging)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특히 대도시 메트로시티의 초-다양성(super-diversity, Vertovec 2007)을 배경으로 생성되고 진화되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는 역동적 측면이 강조된 용어들이 새롭게 등장했다.³⁶⁾

36) ‘languaging’이라는 역동적 언어 만들기라는 용어 앞에 ‘통과’ 의미가 추가된 trans-languaging (Pennycook 2017), 대도시 지하철 내 다양성을 상징하여 metro-languages(Maher 2010), 일상의 언어 수행에 언어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everyday languaging (Madsen et al. 2015), 다양한 언어자원이 개입된다는 의미에서 Polylinguaging (Jørgensen 2008, Jørgensen et al. 2011, Isiaka 2022), 심지어는 기존 언어 규범을 의도적으로 파괴한다는 의미에서 반-언어(antilinguaging, Halliday 1978)라는 용어가 쓰였다. 구성문법의 초기 연구에서 등장한 출현 문법

기존의 정태적, 이상적 접근에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요컨대 언어는 끊임없이 새롭게 변형되고, 조정되며, 적응해 나가는 역동적 체계라는 시각을 나타낸다(Hopper 1987, Diessel 2019). 그런 까닭에 정태적 범주화를 어렵게 한다. 아프리카 청소년 언어의 발생 배경을 보면 사회 질서에 반항하는 갱단, 교육 없는 거리 청소년들이 범죄자들의 그룹으로 소규모 집단 내부 소통 패턴으로 시작되곤 했다(cf. 이시캄토, 초치탈). 이 단계에서 보면 이 변이형은 속어(slang, Mesthrie & Hurst 2013), 혹은 하나의 스타일(style, Hurst 2008, 2009)로 간주할 수 있다. 언어 구조적 측면으로 다가가면, 이들의 언어소통 배경이 이질적이며 동시에 복잡하게 혼합되어 그 어떤 하나의 관례화된 언어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어휘와 문법이라는 양대 구성에서 청소년 언어는 관례화되고, 규범화된, 그러므로 그 누구도 위반할 수 없는 정교한 문법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변이형을 하나의 정상적인 일상 언어로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컨대 어휘와 어느 정도 관례화된 구성체, 구문으로 이들 언어가 구성된다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휘 그리고 하나의 의미나 기능으로 이루어진 언어(collocation), 속어 및 관용어는 의미와 형태 연결이라는 상징적 접촉으로 직접 실세계를 지시하고, 서술하고, 그리고 묘사할 수 있는 일차적 전략이기 때문이다.

생성 초기 단계에서 몇십 년이 흘러가면서 청소년 언어들이 쓰이는 사회적 맥락에 변화가 나타난다. 도시화, 서구화, 그리고 세계화로 표상되는 역동적 환경이 조성되고 모든 부족사회로부터 탈주해 온 젊은이들이 새로운 삶을 펼쳐나갈 도시문화가 형성되어 나갔던 것이다. 농촌이 아니라 도시 청소년들이라는 사회적 특징은 창의성과 혁신³⁷⁾이라는 개념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같은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의지와 욕구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이고 그것은 다시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져 나간다. 아프리카 도시사회가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들이 이들을 가로막는다. 자신의 전통 민족 언어로는 이웃과 소통할 수 없고, 그다음으로 부족 간, 민족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어(Lingua franca)가 아직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아프리카 집단의 대응 결과는 피진-크리올어 창출이다. 피진-크리올어는 정부, 세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매체이다.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는 피진-크리올어보다 좀 더 과격한 성격을 지닌 매체이다. 왜냐하면 상층어와 기층어 역할이 대폭 줄어들었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Kießling & Mous 2006:375).

사용-기반 언어학에서 언어구조 및 체계를 출현적, 임시적, 그리고 유동적 현상으로 파악하듯(Hopper 1987) 바로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의 생성과 발전 과정을 보면 이런 속성을 엿볼 수 있다. 도시 범죄자 언어라는 부정적 배타적 속성을 띤 변이형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수용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감에 따라 고정 표현 패턴과 특수 어휘 표현들이 전파(diffusion)되게 된다. 대화는 참여자들의 조정(accommodation)과 상호적응(co-adaptation) 과정을, 필요로 하고 이 과정을 거쳐 마침내 규범화와 일상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Schmid 2014, 2015). 이는 일반 언어체계 형성의 일반적 과정이다.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의 출현을 보게 되는 순간이다. 이와 같은 사회화 과정과 동시에 개개 화자와 청자들의 인지적 차원의 변화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언어 지식의 구축(entrenchment, Schmid 2020) 과정이 그것이다. 언어 지식이 없는 언어소통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고도의 인지 과정을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형태와 의미를 연결하는 접촉 활동이다(§4.1).

화자는 원하는 소통 의지나 목표를 언어화하기 위해 의미에서 언어 형태로의 연결작업을 한다. 언어산출에서 특정 어휘나 고정 표현을 일차적으로 동원해야 하는데 이때 청소년 언어의 근간이 되는 기초-언어가 필요 된다. 초치탈의 경우 아프리카어이고, 누시의 경우는 (피진-)프랑스어이다. 기존 제도권 속에 정착된 언어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사용 기회도 별반 없으므로 이 언어 매체에 대한 지식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아프리카 도시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단편적 어휘, 구문이 도시 청소년 언어구성의 출발점이 된다. 화자는 반대로 감각적으로 청취한 언어자료에서 의미를 도출해야 한다. 자신의 언어 지식 배경과 언어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재해석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의미변화와 변이가 나타나지만, 언어산출과 언어해석이 반복되면서, 정보 강화로서의 구축과 언

(emergent grammar, Hopper 1987)도 같은 맥락 아래 있다.

37) 여기서 혁신(innovation)이란 기존 사회-언어 규범과 다른 사용을 의미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상호적응, 전파, 규범화 과정으로 언어의 관례화가 성취된다(Schmid 2015, §5.2).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사회에서는 기존 언어 규범의 부재로 혁신이 돋보인다.

어 규범화로서의 관례화라는 언어체계 형성 과정이 실현된다(Schmid 2015, 2020).

5.1 발화 패턴 특징과 의의

언어사용 집단의 동질성으로 대변되는 기존 일상 언어와 달리 아프리카 청소년 언어는 그 역동성과 함께 다양한 변이를 내보인다. 음운과 단어 형태 그리고 구문이라는 전통적 언어단위 크기에 따라 그 특징들을 논의할 수도 있으나, 사용-기반 구성 문법에서는 구성체(construction)라는 단일 개념으로 상징 기호를 파악한다(Goldberg 1995:5, Croft 2001:46). 때로는 어휘와 구성체로 양분하여 접근하기도 한다(Diessel 2019:11). 음운 차원은 의미가 배제된 층위이기에 이를 따로 분리하여 다룰 수도 있다(분별소 *distinctor*, Schmid 2020:24). 개인 차원의 반복적 언어사용의 결과로 문법화 이론(Heine & Reh 1984)에서 흔히 규정하는 음운 융합, 혹은 기타, 다른 특이한 변화가 흔히 나타난다. 다음은 캄프랑글레에 나타난 음성변화 예인데 CVC 음절구조가 CV로 바뀐 건 단순화, 무표화 과정이다. 좀 더 발음하기 편한 구조로 대체된다. 다른 하나는 영어에 없는 선-비음화 음 /ŋ/의 첨가인데, 이는 토착 반투어 체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³⁸⁾

(15) Camfranglais *nga* ‘girl’ < English *girl* Kießling & Mous 2004:19

다음은 나이로비, 쎅의 사레인데 스와힐리 3음절이 2음절로 단축된다는 것은 단순화 과정으로 인한 편의성 전략으로 캄프랑글레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런데 원천어에 없던 {-oo} 요소가 붙는다. 이는 다른 단어에도 즐겨 붙곤 하는데 이로써 이는 단순한 음운, 음성변화가 아니라 청소년 화자들이 의도적으로 언어유희를 하듯 단어를 조작하고 있음을 본다. 단순화는 발성이라는 신체운동 과정(physical motor process)을 쉽게 하려 했다는 점에서 음운 과정이라 한다면, 접미사 {-oo} 첨가는 단어의 의도적 조작으로 발화집단 외부로부터 차별화하려는 사회적 의도가 엿보인다. 요컨대 언어 조작을 통해 화자의 사회적 의도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기성 언어체계 안으로 쉽게 접근해 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이체는 자신들의 체계 내로의 외부 기성 화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이 같은 형태적 과정으로 이 용법이 확산하여 하나의 관례화, 숙어(idiom)처럼 고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도시 청소년 언어의 생성 과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16) Sheng *faroo* ‘horse’ < Swahili *farasi* Kießling & Mous 2004:20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에 흔히 나타나는 어휘 변화 현상 중 하나는 절단이다. 원천어 단어 일부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단순하지만, 간단한 형태를 그 의미로 쓴다. 링갈라의 응골리/ngoli ‘양’을 그냥 응골/ngolo로 쓰는데 외부자에게는 소통이 막힐 위험성이 있다. 그것을 감수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걸 내포한다. 반-언어(anti-language)가 갖는 저항성이나 외부 집단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서려 있다. 언어 내적 구조변화 측면만 본다면 발음 편이에 기반한 경제성 원리에 해당한다.³⁹⁾

38) 언어변화는 상반된 동력의 결과로 다양한 변이들이 나타난다. 일차원의 대립이 아니라 대각선(diagonal)상의 상호작용하는데 그 두 동력(two driving forces)은 발음 쉬움(Bequemlichkeittrieb, easiness)이라는 경제성과 의미 구분의 정확함(Deutlichkeittrieb)이라는 변별성(distinctness) 원리이다(Gabelentz 1901, Heine et al. 1991:8, 권명식 2020a:74). 캄프랑글레에서 영어의 [gɔ:l]이 [ga]로 변환 것은 음절-코다 [-l]을 생략한, 발음 편이 원리가 작용한 결과이다. 하지만 음절 개시 /ŋ/이 추가된 것은 변별성 원리가 작용한 게 아니고 기층어 언어 지식이 그저 반영된 것일 뿐이다. 여기서 사용-기반 구성 언어학적 접근이 그 효력을 얻는다.

39) ngoli라 하면 링갈라 화자들에게 모두 이해될 수 있는데 이를 ngol 이라 하여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다. 경제성이 작용된 측면도 있으나 여기서는 화용적 힘이 작용한 것인데 새로운 형태는 혁신으로 주의를 끄는 효과가 있다(“... the tendency for humans to associate pragmatic force with novelty (Lehmann 1985). When an expression is old and has been used very often, it is no longer suited to fulfill a prominent role in speech.” Haspelmath 1998:319, 권명식 2005:20). 아프리카 청소년 언어의 어휘적 특질인 ‘새로운 어휘 형태의 창조(음절 절단과 전환)’는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바로 이 화용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17) Indoubil *ngol* 'sheep' < Lingala *ngoli*

Kießling & Mous 2004:21

좀 더 노골적인 언어유희, 혹은 저항성 표시 전략으로 음절 바꾸기(전환)가 있다. '빼래'라는 음절을 앞뒤 전환하여 '래빼'로 발음하여 이 규칙을 모르는 외부자를 이 단어 뜻을 간파할 수 없다. 내부자만의 소통 전략은 정체성 과시, 외부와의 분리 등 여러 사회적 의도들을 내포한다.

(18) Camfranglais

père 'father' /*pet/ pere*

>

repe

Kießling & Mous 2004:22

음절 전환은 언어 자체 변화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화자의 적극적이고 과격한 언어 조작으로 다른 화자가 이를 모방하여 전파할 확률은 아주 낮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 상황에서는 아프리카 대도시 청소년 언어에서 보듯 이런 변화가 유포되어 관례화된다.

5.1.1 의미변화와 소통 전략

발음의 단순화, 절단, 전환 등은 의미(소통 의도)를 형태(발화 패턴)로 연결하는 상징 과정의 결과로 의미-표현 형태 연결 방향 과정(onomasiology process, Schmid 2020:20)이다. 이와 반대로 주어진 형태에서 은유, 환유, 혹은 다른 비유를 써 의미를 달리하는 전략이 있다. 형태-의미해석 과정(semasiology process)이다. 은유, 환유 이외에 제유(synecdoche), 과장, 악의 어법(dysphemism)이 있다. 여기에서도 정체성, 제외와 배척, 연대감 강화 등 사회적 의도와 기능이 결들여진다. 다음은 누시의 은유 사례인데, 여자친구를 스테이크 음식으로 비유한다.⁴⁰ 여성을 음식 섭취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뒤에서 볼 악의 어법과 겹친다. 여기엔 도시 남성 청소년들의 난폭함과 남성성이라는 성차 차별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런 비유는 그룹 내적 유희로 파악되기도 한다.

(19) Nouchi *steki* 'girlfriend' < English *steak*

Kießling & Mous 2004:23

다음은 환유 사례로 링갈라에서 '뿌리', 혹은 '줄기'라는 의미로 쓰이는 {*tine*}가 인두빌에서는 대마초(뿌리, 줄기)라는 의미로 쓰인다. 영어의 복수형 어미가 붙어 {*tins*}로 고착(혹은, 형태 구성체)⁴¹되어 있다. 이는 내부 요소의 어원이나, 의미에 무관하게 하나의 단어 단위(holistic word unit, univervation)로 쓰인다. 이는 언어사용에 기반한 어휘화 과정이다.

(20) Indoubil *tins* 'hemp' < Lingala *tina* 'root, stalk' (+ English plural suffix -s)

Kießling & Mous 2004:24

비유는 청소년들의 민첩한 감각을 잘 내보인다. 창의성이라는 점에서 신선하기도 하고, 미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는 청자-입장에서도 상황과 맥락을 기반으로 민첩한 추론과 해석이 뒤따라야 한다. 일부로 전체를 표현하는 제유 사례이다. 남아프리카 특정 지역(소웨토)을 일컬어 나이로비 슬럼가 거주자들을 표현한다(21). 청소년 언어는 정교한 문법 체계보다 어휘가 무척 선호된다. 어휘라 해도 비유를 통하여 소통의 현저성(saliency, Schmid 2020:79)이 높아지고, 언어적 표현성이 강화된

40) 문법화 이론에서 {물질/object} 인지-도메인으로부터 {추상개념/abstract}로 은유를 통해 의미가 문법 개념으로 변해간다(Heine et al. 1991:55). 위 누시 예문에서는 {사람} 영역이 {사물} 영역으로 대체되었는데 문법 의미가 도출된 것이 아니라 이해가 좀 더 쉽고 인지 현저성이 높은 대상으로 옮겨갔다. 여기서 작용한 중요한 기준은 사용 빈도가 높은 일상 개념이 좀 더 드물고 특이한 개념을 표현했다는 점이다. 사용-기반 시각이다.

41) 구성문법에서는 구성, 구문 혹은 구성체(construction)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어휘나 문법의 구분 없이 모든 게 다 인지와 사용 단위로서 구성체이다'라는 초기 시각(Goldberg 1995)에서 자립적으로 나타나는 단일 형태소로서의 어휘와 두 개 이상 형태소, 혹은 단어 및 다른 요소가 연이어 나타날 때를 구분하는 시각이 있다(Diessel 2019). 인두빌은 *tin*이라는 링갈라 명사와 영어의 복수 표지 *s*라는 요소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되는 *tins*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구성체를 이룬다. 내부 복합요소는 사용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저 하나의 단위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를 공식언어학에서 univervation (Lehmann 2020), 혹은 어휘화라는 어-형성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다. 화자-입장에서도 이를 이해하기 위한 유연한 인지적 연결 과정이 요구된다.

(21) Sheng *Sowetto* ‘conglomeration of slum dwellings’ Kießling & Mous 2004:24

과장은 또 다른 의미변화로 익살과 창의성, 조작 행위를 엿보게 한다. 1리터 병맥주를 ‘성당’이라고 과장한다.⁴²⁾ 정교한 문법적 체계 결여로 어휘가 소통의 주종을 이루지만 어휘를 다양한 비유 속으로 넣음으로써 소통상의 풍부한 의미 체계를 경험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도 언어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22) Nouchi *basilique* ‘one-liter bottle of beer’ < French ‘basilica’ Kießling & Mous 2004:24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은 상대방에게는 모욕이겠으나, 자신의 언어 그룹 안에서는 하나의 통쾌한 감정 표현 욕구 해소책이 된다. 다음 생에서는 백인의 땅 ‘유럽’을 ‘야만인의 땅’으로 욕하고 있다. 악의 어법(dysphemism)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는 내부로는 해학적 즐거움을 주고, 외부적으로는 욕설을 퍼부어 차별화와 적대감을 표현한다. 스와힐리어의 접미사 {-ni}는 처격 공간 의미를 지니지만 생에서는 하나의 단일 형태소로 어휘화되어 있다(univerbation).

(23) Sheng *ushenzini* ‘Europe’ < Swahili *ushenzi* ‘barbarism’ Kießling & Mous 2004:24

5.2 발화구성 패턴 (계열/분류 관계와 통합/순차적 연결)

언어 지식의 구축이라는 측면과 발화의 관계화라는 또 다른 측면이 언어 변이와 변화를 유발하는 두 영역이며 동시에 언어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 두 영역은 실제적 언어사용으로 서로 연결된다(Schmid 2015:4). 언어사용이 언어 생성과 출현의 현장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감각적, 신체운동 행위로부터 인지,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Schmid 2020:15). 개인 차원의 언어 수행은 인지 행위가 핵심인데 그것은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징적, 계열적, 통합적, 그리고 화용적 연결로 나뉜다(ibid. p.45). 앞 5.1에서는 언어기호의 근본인 의미와 형태 연결이라는 상징적 연결 측면을 본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통합적(혹은 순차적, 4.2), 계열적(혹은 분류적, 4.3) 언어 운영이 있다. 이런 인지 연결은 음절, 단어, 구문 등 언어단위의 여러 층위에서 수행된다.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에서도 보편적으로 이 현상이 나타나지만 좀 더 특이한 경우가 나타난다. 이것이 다른 일반 언어들과 차별하게 하는 특질이다.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의 출현 초기 변이형은 화자의 소통 의도와 지향점이 강하게 표출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레지스터 형식으로 실현된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동북부 키부호수 호반 도시 부카부에서는 인두빌과 다시 차별되는 비밀 언어코드 키발렐레(Kibalele)가 쓰인다(Goyvaerts 1996). 외부 그룹의 이해를 막고, 내부 그룹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언어 조작이 나타나는데 새로운 통합적 배열 기제가 도입된다. 앞서 이미 언급한 음절 전환(위, 18)이라는 기제(ndu.gu > gun.du)에 단어 끝에 /l-V/이라는 음절이 추가된다(gundu.lu). 미묘한 리듬이 형성되어 발음과 청취 중 음악적 쾌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는 언어의 순차적, 통합적 배열이라는 인지 연결(association) 기제가 작동된 경우이다. 이 통합 순차 관계는 한 층위 높은 절 차원에서도 [의문사 - 호칭] 도식이라는 구성체에서도 작동된다.

(24) Kibalele *mākolo gu.ndu.lu?*
komā[Indoubil < French *comment*] ndu.gu[Swahili]

42) 과장(hyperbole)은 키슬링과 마우스의 해석인데, 사실은 ‘1리터 병맥주’와 ‘성당’이라는 의미가 의미적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화자의 언어 지식에 근거한 것으로 연구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그다음 예(23)에서 의악 어법으로 제시한 ‘유럽’과 ‘야만’이라는 의미 차이가 유사한 형태 *ushenzini*, *ushenzi*로 나타난 것은, 반대로 형태의 네트워크로 설명될 수 있다. 이처럼 의미관계와 형태 관계가 각각의 그물망 형태로 청소년 화자의 언어 지식으로 구축-관계화되어 있다. 이것을 기능 차원으로 해석할 때 비유, 과장, 의악-어법으로 구분된다.

‘How are you, brother?’

Goyvaerts 1996:130

프랑스어의 *comment*이 인두빌에서는 *komã*으로 실현되고 이 단어는 다시 음절 전환을 거쳐 *mãko*로 된 다음 그 어떤 리듬을 타기 위해 {-lo}가 첨가된다. *mã-ko-lo*라는 순차적 통합적 배열은 도시 청소년 언어의 통합/순차적 연결을 보여주는 독특한 사례이다. 위 문장의 두 번째 단어 *gundulu*도 스와힐리어의 *ndugu*가 우선 전환되어 *gundu*가 된 다음 여기에 리듬 음절 {-lu}가 추가된다. 자음은 /l/이고 모음은 앞 모음이 복제되어 리듬을 타게 된다. 문장 전체의 통합적 배열은 프랑스어와 반투어(스와힐리, 링갈라)와 같게 중심 선행 어순으로 이루어진다(한국어는 그 반대임). 구성단위의 크기에 따라 단어 혹은 문장으로 나타났지만 각각은 하나의 구성체로 파악되며 이는 크기와 상관없이 의미와 형태의 상징적 연결, 기표와 기의의 상징 관계로 이어져 있다. 계열과 통합 관계 이전의 일차적 연결이다.

5.2.1 계열 분류 관계

언어 운영은 통합적 순차 배열이라는 측면과 계열적 선택 배열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진행된다(cf. §4.2 & §4.3). 통합적 배열이 언어단위의 연결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반면 계열적 관계의 요소들은 특정 맥락에 올 수 있는 같은 성질의 단위들, 중 경쟁과 대립 관계 아래 선택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Saussure 1916, Jakobson 1956, 권명식 1995:31, Levelt et al. 1999, Langacker 2000:105, Schmid 2020:47). 이들 사이에는 단위의 크기에 따라 다시 분류적(taxonomic) 위계 층위를 이루기도 한다(Goldberg 1995:5, Croft 2001:25, Diessel 2019:44). 앞 절 §4.3에서 이미 남아프리카 초치탈어의 복문(10)과 그 안에 도입된 특이 어휘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있다. 여기서는 에티오피아 암하라어-기반 야라다 크와(Yarada K’wank’wa)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5) Yarada K’wank’wa *pis nã**peace*[English] *nãw*[Amharic ‘it is’]

‘Hello, what’s up?’

Nassenstein & Hollington 2016:176

‘평화롭네요!’라는 암하라어 중심 후행 [논항-술어] 어순 배열을 따른다. 기사 구문의 논항이 되는 ‘*pis*/평화’라는 명사는 암하라어 단어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여기서는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많은 단어 중 유독 영어의 *peace*라는 단어가 선택되어 음성변화(철자법)를 거쳐 실현되었다. *nã* ‘..가 있다’라는 술어(슬롯)에 올 수 있는 논항(필어)은 명사, 혹은 명사구로 영어 *peace*를 포함한 모든 단어가 해당한다. 화자의 언어 지식에 있는 이 필러들의 관계가 계열 관계이고 이는 어휘망으로 이어져 있다. 이중 외래어는 현저성 증대라는 화용적 효과가 있고, 도시화, 글로벌 효과 등을 나타내는 전략으로 쓰인다.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에 나타난 계열 관계 연결 전략은 대개 전혀 다른 코드의 선택으로 흔히 나타난다. 예컨대 스와힐리어-기반 나이로비 도시 생 (26)에서는 영어나 기타, 다른 반투어 어휘들, 혹은 은어가 즐겨 선택된다.

(26) Sheng *twende hepi*

a. *tw-end-e (ni) tu-ka-ji-burudish-e* [Swahili]
1.PL-go-SUBJV 1.PL-REFLX-refresh-SUBJV
‘Let’s go and have a good time!’

b. *ebu lola huyu mresh!*
hebu angalia (-eni) huyu msichana
‘(you PL) look at this girl.

Githiora 2002:167

스와힐리어 동사 ‘*burudisha*’는 아랍어 *baridi* ‘cool’에서 온 말이고 여기에 재귀 접두사 *ji*가 붙어 ‘즐기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스와힐리 동사는 주어, 시제, 재귀, 가상법 등 문법요소들을 수반한 복합

체 형식을 취한다. 이 자리에 올 계열 연결 기제로 간단하게 영어의 happy라는 단어가 왔다. 본래의 형용사로서의 범주가 무시되어, 아니면 계사 요소의 생략으로 간단하게 표현된다. (26b)에서는 표준 스와힐리어의 *angalia* ‘look’, *msichana* ‘girl’이라는 대신 도시 청소년 은어인 *lolo*, *mresh*로 대체, 선택되고 있다. 이들은 서로 계열 관계에 있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계열적 연결(paradigmatic association)이라는 인지 과정으로 처리된 것이다. 목적어 자리에 오는 논항이 단일 명사(*mresh* ‘girl’)일 수도 있으나, *huyu mresh* ‘this girl’처럼 명사구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명사와 명사구 사이의 관계는 추상화 정도에 따른 층위 구분으로 나타나는 분류적 연결(taxonomic association, cf. §4.3)이다. 이는 별개 인지 작동 기제로 처리된다.

5.2.2 통합 관계와 속어

언어의 선형성 특질로 언어단위는 순차적으로 배열되어야 하는 특질을 지니는데 이를 전통적으로 통합 관계로 설명했다(Saussure 1916). 통사 단위의 추상성, 혹은 상세성 정도에 따라 다시 위계 구조가 나타난다. 정태적 분석 시각을 벗어나 역동적 인지 처리라는 언어 운영 개념이 반영된 용어로 순차 연결(sequential association)이라는 용어가 대신 쓰이기도 한다.

언어의 통합적 연결은 보편적 현상으로 통사 범주를 바탕으로 한 구절구조 규칙으로 통사구조가 설명되곤 했다(예컨대 NP = Adj. + N). 하지만 사용-기반 언어학에서는 통사 단위를 거스르는 사용 단위를 바탕으로 요소 묶음(chunk)이 더 본질적이라는 입장이다(예컨대 영어의 I’m < I am, Krug 1998, Diessel 2019:68). 아래 예문(27b)에서 주어와 동사가 하나의 구성체(묶음, *J’attends* ‘I wait’)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좋은 또 다른 예이다.

유형론에서는 보통 중심과 의존소 사이의 선후 배열로 언어 어순 패턴을 논한다. 예컨대 아래 캄프랑글레는 기반어인 프랑스어와 같이 SVO-어순이며 명사구는 poss-N, 전치사구는 Prep-N이다. 목적어를 품은 동사구는 V-NP인데 이때 의미가 서로 어울려야 바른 배열이 된다. 예컨대 ‘내 시계를 훔치다 (steal my watch)’는 정상적 배열이지만 (27a)에서 보듯 ‘내 시계를 차다(kick mon agogo)’는 의미상 비정상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배열이 ‘훔치다’라는 의미변화를 거쳐 관례화되면 하나의 관용구(idiom)로 쓰인다. 이는 기존 용법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혁신(innovation)이다. 이 새로운 용법이 유포(diffusion)되어 그룹 공동체의 연대감과 정체성 표시 효과를 지니게 된다.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는 이와 같은 어휘 및 구문 혁신과 내부 전과과정을 통해 관례화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남아프리카 초치탈의 경우 기반-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청소년 언어 변이형으로 불리는 것은, 이 같은 어휘 및 구문 혁신과 공유에 기인한다. (27b)에서는 ‘지치다’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fatigué*가 *depuis*와 연결되어 ‘오랫동안’이라는 시간 부사 의미표현으로 형식화(formulaic)되었다. 그러므로 이 형식화된 표현(formulaic expression)은 하나의 단어처럼 내부 요소의 범주와 무관하게 단일 표현처럼 쓰인다. 사용 빈도에 따라 그 용합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27) Camfranglais

- a. *On a kick mon agogo.*
3.PL PST steal my watch
‘They stole my watch.’ (Chia / Gerbault 1991: 274).

- b. *J’attends depuis fatigué.*
1.SG wait since exhausted
‘I’ve been waiting since long.’

Kießling 2005:15

통합연결은 다양한 층위에서 두루 나타난다. {a kick}에서 과거 표지는 동사 앞에 오며, {mon agogo}에서 소유사가 의존소로 중심 앞에 오고, 문장 차원에서는 주어, 시제, 동사, 목적어가 오는 통합배열 형식으로 처리된다. 언어요소는 차례로 배열되어 나가는데 이미 나온 요소는 다음에 올 요소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통합배열 패턴이 있고, 화자는 이를 경험과 지식으로 알고 있다.

5.3 사회-인지와 화용적 연결 의의

개인의 언어 지식 구축과 발화 패턴의 관례화는 뗄 수 없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나 인간의 정신/뇌 속에서 진행되는 인지 과정은 연결(association)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진행된다. 이는 활성화된 처리 사건을 말하는데(Goldberg 2019:52),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경험으로 다른 경험을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이다(Schmid 2020:43). 연결은 네트워크 이론(Baronchelli et al. 2013)에서 노드들 사이를 접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활성화 정도에 따른 링크 가치가 유동적으로 변하며, 그에 따른 접속의 무게도 계속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Buchanan 2002, Diessel 2019:10). 이 같은 연결 관계로 모든 문법 개념이 설명된다고 본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상징, 계열(분류), 통합(순차) 관계로 구분되지만(§4.1-4.3) 이들 셋은 모두 언어 내적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작용이다. 이와 달리 청자 및 대화 맥락이라는 언어 외적 상황이 고려되면 화자는 발언할 때 사회적, 화용적 동력을 고려한 화용적 연결이라는 또 다른 인지 처리가 있다. 요컨대 사회적, 대인(interpersonal)관계 행위에 대한 인지 처리가 함께 수행된다. 이것이 화용 접속(pragmatic association)이다(Schmid 2014, §2.2). 언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용적 접속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나타내는 사례는 대화문에서 흔히 나타난다. §4.5의 나이지리아 청소년 언어 대화문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화용 연결에서는 1차로 대화 참여자가 고려된다. 그리고 이들 간의 질의, 응답, 혹은 지시, 서술, 명령, 경고 등 다양한 언표 외적 힘을 지닌 발화 패턴들이 등장하게 된다. 또 다른 대화문 예로(28) 탄자니아 거리 스와힐리어 루가야 미타아니(Lugha ya Mitaani) 인사말 사례이다. 네 개의 인사말 패턴(A1-A4)이 질문형식으로 주어지고, 그에 대한 관례화된 답 형식이 B로 주어진다. 괄호 속의 비교자료는 참고하기 위한 표준 스와힐리어이다. 눈에 띄는 것은 표준어에 없는 특이 어휘들이 동원되어(*mshikaji* ‘friend’, *techele* ‘fine’, *kidanka* ‘how are you’, *chee* ‘good’, *misheni* ‘what plan?’) 이 변이형이 도시 청소년 언어임을 나타낸다. 화용 연결이라는 보편적 원리는 상호 대화에서 나타나는 협력원리(principle of cooperation, Grice 1975), 혹은 조정(accommodation, Giles et al. 2004)이나 조율(alignment, Pickering & Garrod 2004)과 상호적응(co-adaption, Ellis & Larsen-Freeman 2009, Schmid 2015:11)이라는 대화 개시 인사와 그에 대한 관례화된 대답으로 표시되고 있다.

(28) Lugha ya Mitaani, Maamkizi (Greetings)

A1: *Mambo vipi, mshikaji?* (=habari gani rafiki) ‘How are you, friend?’

B1: *techele* (=poa/healthy, safi/clean, nice), *baridi/cool* (=safi), *poa* (=safi), *joto* (=safi) ‘Fine.’

A2: *Hali vipi?* (what condition?)

B2: *techele* (=poa, safi), *poa*, *nipe dili* (=nzuri, nieleze / nikueleze siri fulani Tell me any secrete)

A3: *Kidanka?* (=hali yako?)

B3: *chee* (=nzuri ‘good’)

A4: *Misheni?* (=mipango / mpangilio wako ‘plans?’)

B4: *chelea pina* (=nzuri sana ‘very good’, safi sana, barábara OK!)

Reuster-Jahn & Kießling 2006:88

A1는 대화를 트기 위해 상대방에게 인사말을 건네는 표현인데, 이런 상황에서 알아야 할 화용 지식, 혹은 화용적 연결로 표상된 언어 코딩이다. B1, B2, B3, B4는 공통으로 상대방의 인사 문의에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한 화용 지식의 결과로 나타난 표현들이다. 특수 어휘를 포함한 이 표현들은 탄자니아 거리 스와힐리어 사용 청소년들의 언어 지식과 체험을 반영한다. 동시에 언어 구성체와 대화 화용 상황에 대한 인지적 연결이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4 발화의 거시적 측면; 사회적 함축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는 시각에 따라 아주 다르게 평가된다. 기존의 전통적 시각에서 보면

이는 단지 하나의 속어(slang) 정도로 치부된다(Mazrui 1995). 화자의 의도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변이형의 하나인 레지스터(register)로 간주하기도 한다(Mesthrie & Hurst 2013). 초기 생성 배경이 사회에서 주변화된 거리 청소년이나 불량배들, 심지어는 감옥을 드나드는 범죄자들의 은어(argot)나 비어(vulgarism) 정도로 규정했다(Kube 2003, Mulumbwa 2009). 그리하여 아프리카 피진-크리올의 경우처럼 온전한 정식 언어로 취급하기를 주저했다.⁴³⁾ 급속히 변화하는 아프리카 사회에서, 특히 변화의 중심인 대도시에서 다-민족, 다-언어 상황에서 소통 필요와 욕구는 증대했으나 제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결책은 부재했다. 요컨대 식민 종주국 언어인 유럽어는 소수 엘리트에게 한정되었고, 전통 부족, 민족 언어들은 언어 경계를 넘지 못했다. 외국어 우선 정책으로 일관된 신생 아프리카 모든 국가에서 이에 대한 탈출구는 도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언어 창출이었다. 범죄자의 언어로 출발했던 남아프리카 초치탈이 범-국가적 도시 청소년 언어로 발전해 간 이유는 당연하고 있는 중대한 소통 문제 해결이라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언어집단,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담화 수행 집단의 입시적, 유동적, 출연적 속성, 그리고 우연성 때문에, 안정된 체계로서의 지속이 여타 일반 언어에 비할 바 없었다. 그런 이유로 이를 과연 일반 언어로 간주할 수 있을지의 의문이 제기되었다.

1980년대부터 나타난 구성 출현 문법(Hopper 1987, Fillmore et al. 1988)은 언어의 이 같은 속성을 오히려 부각하였다. 문자와 제도, 기타 사회적 통제와 관리로써 언어가 추상적인 체계, 안정적 범주와 고정 규칙으로 정의되는 접근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런 계열에 함류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보이는 제안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런 연구 흐름은 그들의 이목 끄는 문구(catch phrase)로 나타난다. 예컨대 어떤 이는 ‘언어’라는 용어 대신 ‘언어-화 (linguaging)’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언어의 생성, 변화, 변이, 그리고 소멸을 중시했다(Jørgensen 2008, Møller et al. 2014, Madsen et al. 2015). 정태적 접근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발화 패턴을 역동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사회-언어학에서 이미 정착된 ‘다언어 상용 (multi-lingualism)’이라는 용어 대신 ‘대도시 언어화 (metro-lingualism)’, 혹은 ‘다-언어자료 수행 (poly-linguaging, Isiaka 2022)’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⁴⁴⁾ 수많은 언어자원이 난무하는 초-다양 (super-diverse, Vertovec 2007, 2010) 현대 대도시에서 특히 새로 이주해 온 도시 청소년 같은 시민들은 이 언어자원을 자기 필요로 활용할 뿐 그 언어체계 자체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코드-전환(code-switching)이라는 용어도 적절치 않음을 볼 수 있다. 완전히 터득한 두 개의 언어체계 사이에서 발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의 문법 지식은 화자마다 다르고, 맥락에 따라 화자는 그저 자신의 소통 의지를 그때그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구사,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고정된 언어 이념을 바탕으로 주어진 변이형을 규정하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언어 권력을 구사한다.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립적으로 주장하며 타자와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설정한다. 이는 외부 기성 체제, 혹은 신-식민 메트로폴리탄 중심부에서는 반-언어 (anti-language) 행위로 지각된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청소년 언어가 확산하고, 그리고 소수자들의 집단-내부 언어에서 다수자들의 민족들 사이 교통어(vehicular language, i.e., Lingua franca)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은, 이 변이형이 갖는 새로운 사회 기능이 다수, 도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43) 여기에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언어의 명칭은 이미 그 매체에 대한 기존 사회의 평가와 시각이 반영된다. 명칭이 있는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들은 대부분이 서구 학자들에 의한 것이고 일부는 내부 화자의 호칭이 반영되기도 했다. 앞 표. 1에서 제시한 14개 언어 이외에 명칭이 없는 변이형들이 더 많이 있다. 표준어라는 언어 지위는 이외의 방언이나 피진-크리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반영한다. 이는 권력과 명망이 있는 기존 언어체계 안에서 밖을 보는 시각이다. 서구 대도시 이주 청소년 언어는 명칭과 함께 민족(인종), 사회계급, 교육 등 다른 사회적 특질과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규정된다. 표준어 및 ‘언어’라는 용어조차 이런 편견과 이념을 담고 있으므로 객관적 분석 개념으로 적절치 못하다. 반-언어(anti-language, Halliday 1987)라는 용어는 이에 대한 저항 형식이다. 구성문법에서 기존 범주와 규칙에 대한 새로운 역동적 틀을 제시했듯, 사회언어학 혹은 인류 언어학에서는 언어 수행을 강조하면서 ‘언어 만들기(linguaging)’라는 신조어를 제시했다(Jørgensen 2008). 이는 화자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그때그때 자신의 전 언어자산을 전용하여 매체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구성해 나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언어 행위는 그 어떤 기존 고정 언어 이념으로 억압되거나,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Jonsson et al. 2019).

44)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역동적 시각에서 보면 ‘언어’는 복합적 적응 체계(complex adaptive system)로서 역사적,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다(Maher 2010, Pennycook 2017, Isiaka 2022:29).

있기 때문이다.

6. 나가는 말

지난 세기 이래 언어연구의 핵심 관심사는 언어 변이와 변화이다(Paul 1880).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법 구조의 생성과 발전이다. 문법이 언어체계를 관장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어휘는 세계에 대한 사전적 지식의 표상이기에 항목을 나열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어휘를 관장하여 구절을 구성하는 추상적 규칙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물음은 인간 정신과 관련하여 언어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Humboldt 1822, 1836). 문법 진화의 최고점인 굴절 요소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굴절어가 인간 정신의 극치로 여겨지기도 했다. 반면 문법요소가 없는 고립어는 쇠퇴와 타락의 결과로 치부되기도 했다(Meinhof 1936). 문법화 이론은 문법요소의 진화와 발전, 마침내는 소멸하여 혁신을 통한 새로운 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보편적 언어변화 가설을 제시했다(Lehmann 1982, Heine et al. 1991). 어떤 이는 단선적 진화에서 비켜서서 대각선 나선형 발전을 제시하기도 했다(Gabelentz 1901). 이는 유형론과 서로 연결된다. 고립어에서 첨가어 그리고 마침내 굴절어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었다.

구조주의 공시언어학과 생성문법의 등장 이래, 언어변화 논의는 잠시 주춤했으나 언어접촉과 사회언어학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재개되었다. 담화에서 문법이 진화된다거나(Givón 1979), 언어사용의 효율성과 경제성, 요컨대 인지 처리 양상이 다양한 언어구조를 가져온다는 설명이 있다(Hawkins 2004). 핵심은 영어, 중국어 같은 분석 유형 언어들의 문법 결여를 어찌 설명할 것인가로 수렴되었다(Bisang 2015). 유럽 중심의 연구에서는 리턴-그리스어로부터 단어중심 굴절에 관심이 집중됐다. 문장이나 발화 차원으로 가면 단어와 단어가 합쳐진 복잡한 구문(construction)이 하나의 기의, 개념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중요해졌다(Fillmore et al. 1988). 문법 형성의 다른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피진-크리올이나 여기서 주제로 삼은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 언어에서 새로운 패턴의 구성체가 생성되어 나가는 것에 주목했다(권명식 2023). 사용-기반 구성문법 네트워크 모델은 언어사용자의 언어 체험, 인지, 그리고 사용의 구체적 과정에 주목한다(Langacker 1988). 다른 한편으로는 어휘가 날개로 존재하여 언어구성 및 구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휘들, 동시에 다른 구문들과 깊이 연관되어 총체적으로 기능한다는 네트워크 모델이 새로운 통찰을 주고 있다(Bybee 1985). 어휘와 문법의 구분을 넘어, 규칙과 범주의 범위를 넘어 언어가 하나의 적응 체계로서 절묘하게 기능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했다. 아울러 사회 구성 패턴과 언어 유형 및 변이/변화 패턴, 그리고 언어사용자의 발화구성 사이에 모종의 깊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Eckert 2000). 요컨대 배타적, 엘리트적 성향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다소 폐쇄적 집단에서는 정교하고 복잡한 단어중심 굴절패턴이 나타나고, 개방적 이질적, 대중적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에서는 어휘 중심, 구성체(construction) 중심의 언어 패턴이 주도적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언어 변이와 변화의 범위나 속도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에 있다. 아프리카 도시 청소년의 언어는 변이가 많고, 변화가 빠른 구성체 중심의 발화 패턴을 보이는 사례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 권명식. 1993. "스와힐리어 구조, 유형학적 특징" 변광수(편) 『세계의 주요 언어』, 한국 외대 출판부, 1081-1109.
- 권명식. 1995. "스와힐리어의 담화행태, 텍스트에 나타난 품사의 은유적 전이" 『한국의대 논문집』 28:29-47.
- 권명식. 2011. 『아프리카 사회언어학』. Hufs Books.

- 권명식. 2017. “화용화와 재-어휘화, 사바-스와힐리어에 나타난 언어변화를 중심으로”, 2017학년도 한국 아프리카학회 상반기 학술회의 논문집. 9-37. (2017년 6월 3일 한국 외국어 대학교 이문 캠퍼스 교수회관 강의실 발표).
- 권명식. 2017a. “스와힐리어 명사구 구조와 문법 관계 표시, 다른 아프리카 언어들과의 유형 비교”, 2017년 9월 23일 한국 외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성균관 대학교) & 한국 아프리카학회 겨울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5-122. 2017년 12월 16일 전북대학교 인문 사회관 208호실)
- 권명식. 2018. “아프리카 언어들에 나타난 문법 관계 표시 전략의 유형 비교, 색인과 격-표시 그리고 구성성분 어순을 중심으로”, 2018년도 한국 아프리카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논문집 47-71. (2018년 6월 9일 토요일, 뉴욕 주립 대학교 대한민국 인천 송도캠퍼스에서 발표).
- 권명식. 2020. 아프리카 피진-크리올에 나타난 언어변화의 의의, 문법화와 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아프리카학회 하반기 정례학술대회(2020. 12. 4. 금) 발표논문집』 3-28.
- 권명식. 2020a. 역사언어학과 피진-크리올어, 아프리카 접촉어들에 나타난 변화 패턴이 갖는 역사-언어학적 의의를 중심으로, 『[사]한국 언어학회 겨울 학술대회(2020, 12. 12 토) 발표논문집』 . 75-97.
- 권명식. 2022. 언어유형론의 과제와 전망: 유형분류와 다양성 설명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언어연구소 주간 ‘언어와 언어학’ 학술지 100호 기념 언어연구소 학술대회 “언어학, 회고와 전망” 발표(2022년 12월 02일, 금.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5층 컨퍼런스홀). 발표논문집 59-149.
- 권명식. 2023. 아프리카 피진-크리올어에 나타난 언어 변이와 변화 특징, 동사 문법범주(시제, 상, 법)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언어학회 - 담화인지언어학회 2023년도 공동 학술대회 (이화여자대학교, 4월 22일, 토 인문관 111호) 발표 자료집, 『진행 중인 언어변화와 변이』 . 55-101.
- Abdulaziz, M. & K. Osinde. 1997. Sheng and English: development of mixed codes among the urban youth in Keny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Language*. 125:43-63.
- Anderson, John R. 2005.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 New York: Worth Publisher. [Sixth edition].
- Barlow, Michael & Suzanne Kemmer (eds.). 2000. *Usage-based models of language*.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 Baronchelli, Andrea, Ramon Ferrer-i-Cancho, Romualdo Paster-Satorras, Nick Chater and Morten H. Christiansen. 2013. Networks in cognitive scie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 17: 348-360.
- Beck, Rose Marie. 2015. Sheng: An urban variety of Swahili in Kenya. In Nico Nassenstein & Andrea Hollington (eds.), *Youth language practices in Africa and beyond*, 51-80. Berlin: de Gruyter Mouton.
- Beyer, Klaus. 2015. Youth language practices in Africa: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n Nico Nassenstein & Andrea Hollington (eds.), *Youth Language Practices in Africa and Beyond*, pp. 23-50. Berlin: Mouton de Gruyter.
- Bisang, Walter. 2015. Problems with primary vs. secondary grammaticalization: the case of East and mainland Southeast Asian languages. *Language Sciences* 47, 132-147.
- Blommaert, J., and A. Backus. 2011. “Repertoires revisited: ‘knowing language’ in superdiversity,” in *Working Papers in Urban Language & Literacies*, vol. 67, www.kcl.ac.uk/ldc.
- Blommaert, J. & A. Backus. 2012. Superdiverse repertoires and the individual. in *Multimodality and multilingualism: Current challenges for educational studies*. eds. I. Saint-Jacques & J. Weber. Sense Publishers, Rotterdam.
- Blommaert, J. & B. Rampton. 2011. Language and superdiversity. *Diversities*. 13,2:1-20.

- Buchanan, Mark. 2002. *Nexus. Small Worlds and the Groundbreaking Science of Networks*. New York: W. W. Norton.
- Bucholtz M, Hall K. 2005. Identity and interaction: a sociocultural linguistic approach. *Discourse Stud.* 7:585-614.
- Bybee, Joan.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John Benjamins.
- Bybee, J. 2006. From usage to grammar: The mind's response to repetition. *Language* 82:711-733.
- Bybee, Joan and Carol Lynn Moder. 1983. Morphological classes as natural categories. *Language* 59: 251-270.
- Chafe, Wallace. 1994.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The Flow and Displacement of Conscious Experience in Speaking and Wri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ilds, G. Tucker. 1997. The Status of Isicamtho, an Nguni-Based Urban Variety of Soweto. In *The Structure and Status of Pidgins and Creoles, Including Selected Papers 2004* from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Pidgin and Creole Linguistics, edited by Arthur K. Spears and Donald Winford, 341-67. Amsterdam: John Benjamins.
- Clark, Herbert H. 1996. *Using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lins, Alan M. and Elizabeth F. Loftus. 1975. A spreading-activation theory of semantic processing. *Psychological Review* 82: 407-428.
- Croft, W. 2001.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roft, William and Alan Cruse. 2004.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essel, Holger. 2017. "Usage-based linguistics," in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Linguistics*, ed. M. Aronoff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doi: 10.1093/acrefore/9780199384655.013.363
- Diessel, H. 2019. *The Grammar Network. How Linguistic Structure is Shaped by Language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 10.1017/ 9781108671040
- Diessel, H. 2023. The Constructicon, Taxonomies and Networks, in *Elements in Construction Grammar*, edited by Thomas Hoffmann & Alexander Ber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ckert Penelope. 1989. *Jocks and Burnouts: Social Categories and Identity in the High School*. New York: Teach. Coll. Press.
- Eckert P. 2000. *Linguistic Variation as Social Practice*. Oxford: Blackwell.
- Eckert, P. 2012. Three Waves of Variation Study: The Emergence of Meaning in the Study of Sociolinguistic Vari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1(1), 87-100.
- Ellis, Nicholas. C. Diane Larsen-Freeman. 2009. Constructing a second language. In: *Language as a complex adaptive system*, Nicholas C. Ellis & Diane Larsen-Freeman (eds.), 90-123. Chichester, England: Wiley-Blackwell.
- Erman, Britt & Ulla-Britt Kotsinas. 1993. Pragmaticalization: The case of *ba* and *you know*: *Studier i modern sprakvetenskap* 10. 76-92.
- Fillmore, Charles J., Paul Kay and Catherine O'Connor. 1988. Regularity and idiomaticity in grammatical constructions: The case of let alone. *Language* 64:501-538.
- Fillmore, Charles J. and Paul Kay 1993, *Construction Gramm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Gabelentz, Georg von der 1901. *Die Sprachwissenschaft. Ihre Aufgaben, Methoden und bisherigen Ergebnisse*. Leipzig: Weigel Nachf. (2. Aufl.; 1.: 1891. Nachdruck: Tübingen, Narr, 1972. TBL, 1).

- Giles, Howard, Nicholas Coupland & Justine Coupland. 1991. Accommodation theory: Communication, context and consequence. In Howard Giles, Nicholas Coupland & Justine Coupland (eds.), *Contexts of accommodation: Developments in applied sociolinguistics*, 1-68.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thiora, Chege. 2002. Sheng: peer language, Swahili dialect or emerging Creole? in *Journal of African Cultural Studies*, Volume 15, Number 2 , 159-181.
- Githinji, Peter. 2005. *Sheng and variation: The construction and negotiation of layered identities*. PhD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Githinji, Peter. 2006. Bazes and their shibboleths: Lexical variation and Sheng speakers' identity in Nairobi. *Nordic Journal of African Studies* 15,4:443-472.
- Givón, Talmy.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 Goldberg, A. E. 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ldberg, Adele E. 2006. *Constructions at Work: The Nature of Generalization in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berg, Adele E. 2019. *Explain me this: Creativity, competition, and the partial productivity of construc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oyvaerts, Didier L. 1996. Kibalele: Form and function of a secret language in Bukavu (Zaire). *Journal of Pragmatics* 25:123-143.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P. & J. Morgan(eds.) 1975: 41-58. *Syntax and Semantics,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 Gumperz J. 1982.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 Press.
- Halliday, Michael A. K. 1978 Antilanguages. In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London: Edward Arnold.
- Hammarström, Harald. 2018. A survey of African languages. In Güldemann 2018. *The languages and linguistics of Africa*. De Gruyter, Mouton: 1-57.
- Haspelmath, Martin. 1998. "Does grammaticalization need reanalysis?" *Studies in Language* 22:315-351.
- Hawkins, John A. 2004. *Efficiency and Complexity in Gramma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ebdige D. 1984.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New York: Methuen.
- Heine, B. & M. Reh. 1984. *Grammaticalization and reanalysis in African languages*. Buske, Hamburg.
- Heine Bernd, Claudi Ulrike, and Hünemeyer Friederike. 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lenstein, Elmar. 1975. *Roman Jakobsons phänomenologischer Strukturalismus*. suhrkamp taschenbuch wissenschaft 116. Suhrkamp. Frankfurt am Main. Germany.
- Hollington, Andrea. 2016. Reflections on Ethiopian youths and Yarada K'wank'wa: Language practices and ideologies. *Sociolinguistic Studies* 10(1,2). 133-150.
- Hopper, Paul. 1987. Emergent grammar.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3. 139-157.
- Humboldt, Wilhelm v. 1822. "Über das Entstehen der grammatischen Formen und ihren Einfluß auf die Ideenentwicklung. *Werke in fünf Bänden. Band III. Schriften zur Sprachphilosophie*, hersg. von A. Flittner und K. Giel, 31-63. Darmstadt. 1963.
- Humboldt, Wilhelm v. 1836. *Über die Verschiedenheit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und ihren Einfluss auf die geistige Entwicklung des Menschengeschlechts*. Berlin: Dümmler. [eng. 1990. *On language*. translated by. P. Hea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rst, Ellen. 2008. *Style, structure and function in Cape Town Tsotsitaal*. Cape Town: University of Cape Town dissertation.

- Hurst, Ellen. 2009. Tsotsitaal, global culture and local style: Identity and recontextualisation in twenty-first century South African townships. *Social Dynamics* 35(2). 244-257.
- Hurst, Ellen. 2013. ‘When yu hang out with the guys they keep you in style’: the case for considering style in descriptions of South African tsotsitaals. in *Language Matters* (Taylor & Francis) 44,1.
- Hurst, Ellen. 2015. Overview of the Tsotsitaals of South Africa; Their different base languages and common core lexical items. in N. Nassenstein & A. Hollington. (eds.) 2015.
- Hurst-Harosh, Ellen. 2020. Youth language in Africa: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Linguistics Vanguard* 6(4s):1-4.
- Hurst-Harosh, E. & F. E. Kanana. 2020. Metaphor and their link to generational peer groups and popular culture in African youth languages. *Linguistic Vanguard*, 6,s4:1-10.
- Irvine J. 2001. Style as distinctiveness: the culture and ideology of linguistic differentiation. In *Stylistic Variation in Language*, ed. P. Eckert & J. Rickford, pp. 21-43.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siaka, Adeiza Lasisi. 2022. “No we jus’ dey gist”: Polylinguaging, mtreolingualism and African youth languages. in *Nordic Journal of African Studies*. 31,1:26-44.
- Jakobson, Roman. 1956. Two aspects of language and two types of aphasic disturbances, in Jakobson & Halle (eds.) *Fundamentals of Language*, s’Gravenhage: Mouton & Co., 53-82.
- Jackendoff, R. (2002). *Foundations of Language. Brain, Meaning, Grammar, Evolu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onsson Rickard, Henning Årman & Tommaso M. Milani. 2019. Youth language. in Karin Tusting (ed.) 2019. *The Routledge Handbook of Linguistic Ethnography*. Ch.9. 259-272.
- Jørgensen, Jens Norman. 2008. “Polylingual Linguaging around and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5, no. 3: 161-176.
- Jørgensen, Jens Norman, Martha Karrebæk, Lian Malai Madsen, and Janus Spindler Møller. 2011. “Polylinguaging in Superdiversity.” *Diversities* 13, no. 2: 23-37.
- Kang’ethe, Iraki. 2004. Cognitive Efficiency: The Sheng phenomenon in Kenya. *Pragmatics* 14(1): 55-68.
- Kießling, Roland (2005). Bāk mwà mè dó – Camfranglais in Cameroon. *Lingua Posnaniensis* 47: 87-107.
- Kießling, Roland & Maarten Mous. 2004. Urban youth languages in Africa. *Anthropological Linguistics* 46(3). 303-341.
- Kießling, Roland & Maarten Mous. 2006. <Vous nous avez donné le français, mais nous sommes pas obligés de l’utiliser comme vous le voulez> Youth languages in Africa. In: *Perspektiven der Jugendsprachforschung / Trends and developments in youth language research*, hrsg. von Christa Dürscheid & Jürgen Spitzmüller,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385-401.
- Krug, Manfred. 1998. String frequency. A cognitive motivating factor in coalescence, language processing, and linguistic change.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26: 286-320
- Kube, Sabine. 2003 Das Nouchi in Abidjan: Vom Argot der Strassenkinder zur zukünftigen Nationalsprache der Côte d’Ivoire? *Osnabrücker Beiträge zur Sprachtheorie* 65:131-53.
- Kwon, Myong-Shik. 2017. "Pragmaticalization and Relexification as a Contact Induced Linguistic Change in Building Shaba Swahili, in DRC", *the 7th Institute of African Studies HK International Conference*, at Global campus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on 12th October, 2017.

- Kwon, Myong-Shik. 2023. Dynamics of Language Use: Emerging TAM (tense, aspect & mood/modality) Categories in African Pidgin-Creoles. *2023 KAF-KAAS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International Conference African Dynamics*. 29-30 June 2023. Centennial Hal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Conference Proceeding* p.65-100.
- Lafage, Suzanne. 1991. L'argot des jeunes ivoiriens, marque d'appropriation du français? *Langue Française* 90:95-105.
- Lafage, Suzanne. 1998a. "Le français des rues," une variété avancée du français abidjanais. In *Faits de langues* 11-12: *Les langues d'Afrique subsaharienne*, edited by Suzy Platiel and Raphaël Kabore, 135-44. Paris: Orphys.
- Lafage, Suzanne. 1998b. Hybridation et "français des rues" à Abidjan. In *Alternances codiques et français parlé en Afrique*, edited by A. Queffélec, 279-91. Aix-en-Provence: Publications de l'Université de Provence.
- Labov W. 1963. The social motivation of a sound change. *Word* 18:1-42
- Labov W. 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Washington, DC: Cent. Appl. Ling.
- Labov W. 2001.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Social Factors*. Cambridge, UK: Blackwell.
- Lakoff, George.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onald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onald W. 1988. A usage-based model. In Brygida Rudzka-Ostyn (ed.), *Topics in Cognitive Linguistics*, 127-161. Amsterdam: John Benjamins.
- Langacker, R. W. 2000. A dynamic usage-based model. In M. Barlow & S. Kemmer (eds.), *Usage-based Models of Language*, 24-63.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onald W. 2008.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fage, Suzanne. 1998. Hybridation et "français des rues" à Abidjan. In *Alternances codiques et français parlé en Afrique*, edited by A. Queffélec, 279-91. Aix-en-Provence: Publications de l'Université de Provence.
- Leech, Robert, Denis Mareschal and Richard P. Cooper. 2008. Analogy as relational priming: A developmental and computational perspective on the origin of a complex cognitive skill. *Behavior and Brain Sciences* 31: 357-378.
- Lefebvre, Claire. 1998. *Creole genesis and the acquisition of grammar: the case of Haitian Creo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hmann, Christian 1982, Thoughts on grammaticalization. A programmatic sketch. Vol. I. Köln: Institut für Sprachwissenschaft der Universität (akup, 48).
- Lehmann, Christian. 1985. On grammatical relationality. *Folia Linguistica*. 19: 67-109.
- Lehmann, Christian. 1985a. Grammaticalization Synchronic variation and diachronic change. *Lingua e Stile* 20: 303-318.
- Lehmann, Christian. 2020. Univerbation. *Folia Linguistica Historica* 41:205-252.
- Levelt, W., A. Roelofs, & A. Meyer 1999. A theory of lexical access in speech production.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2,1:1-38.
- Lyons, John.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dsen, L.M., Karrebæk, M.S., & Møller, J.S. (Eds.) 2015. *Everyday languaging: Collaborative research on the language use of children and youth*. Berlin: Mouton de Gruyter.
- Maher, John C. 2010. "Metroethnicities and Metrolanguages." In *The Handbook of Language and Globalization*, edited by Nikolas Coupland, 575-591. Malden, MA: Wiley-Blackwell.

- Mathews, P. H. 1974. *Morphology,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Word-structure*.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 Mazrui, Alamin. 1995. Slang and Codeswitching: The case of Sheng in Kenya. *Afrikanistische Arbeitspapiere*, 42: 168-179.
- Meinhof, Carl. 1936. *Die Entstehung flektierender Sprachen*. Berlin.
- Mesthrie, R. & E. Hurst. 2013. Slang registers, code-switching and restructured urban varieties in South Africa, An analytic overview of tsotsitaal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pe Town variety. *Journal of Pidgin and Creole Languages* 28,1:103-130.
- Milroy L. 1980. *Language and Social Networks*. Oxford: Blackwell.
- Møller, J.S., Jørgensen, J.N., & Holmen, A. 2014. Polylingual development among Turkish speakers in a Danish primary school – A critical view on the fourth grade slump.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7, 32-54.
- Mulumbwa, Georges. 2009. *Etude sociolinguistique du Kindubile, argot Swahili des enfants de la rue de Lubumbashi*. Brussels: Faculte de Philosophie et Lettres, Universite Libre de Bruxelles dissertation.
- Muysken, Pieter. 1981. "Half-way between Quechua and Spanish: the case for relexification" in *Historicity and variation in Creole studies*, Highfield & Valdman(eds.) 52-79. ann Arbor MI: Karoma.
- Myers-Scotton, Carol. 1993. *Duelling Languages: Grammatical Structure in Codeswitching*. Oxford: Clarendon Press.
- Nassenstein, Nico, and Andrea Hollington (eds.). 2015. *Youth Languages in Africa and beyond*. Berlin: Mouton de Gruyter.
- Nassenstein, Nico & Andrea Hollington. 2016. Global repertoires and urban fluidity: Youth languages in Africa.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242: 171-193.
- Nassenstein, Nico & Paulin B. Bose. 2020. Morphological features of Kiswahili youth language(s): Evidence from Dar es Salaam, Goma, Lubumbashi and Nairobi. *Linguistics Vanguard, special issues: Youth languages in Africa*. 6,4. (1-13).
- Nichols, Johanna 1986. "Head-marking and Dependent marking Grammar" in *Language* 62:56-119.
- Ogechi, Nathan. 2005. On Lexicalization in Sheng. *Nordic Journal of African Studies* 14(3): 334-355.
- Otsuji, Emi, and Alastair Pennycook. 2010. "Metrolingualism: Fixity, Fluidity and Language in Flux."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7, no. 3:240-254.
- Paul, Hermann. (1880) 1920.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Tübingen: Niemeyer. [Fifth edition]
- Pennycook, Alastair. 2017. "Translanguaging and Semiotic Assemblage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14, no. 3: 269-282.
- Pickering, Martin J. & Simon C. Garrod. 2004. Toward a mechanistic psychology of dialogu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 27. 169-226.
- Reuster-Jahn, Uta & Roland Kießling. 2006. Lugha ya Mitaani in Tanzania. The poetics and sociology of a young urban style of speaking with a dictionary comprising 1100 words and phrases. *Swahili Forum* 13. 1-200.
- Samper, David. 2002. *Talking Sheng: The role of a Hybrid Language in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and Youth Culture in Nairobi Keny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Saussure, Ferdinand de. (1916) 1994.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La Salle, IL: Open Court.
- Schmid, Hans-Jörg. 2014. Lexico-grammatical patterns, pragmatic associations and discourse frequency. In:

- Thomas Herbst, Hans-Jörg Schmid & Susen Faulhaber, *Constructions Collocations Patterns*, 239-293. Berlin, Boston: de Gruyter Mouton.
- Schmid, Hans-Jörg. 2015. A Blueprint of the Entrenchment-and-Conventionalization Model, in *Yearbook of the German Cognitive Linguistics Association* 3,1:3-25.
- Schmid, Hans-Jörg. 2016.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linguistic entrenchment and its psychological foundations in memory and automatization. In Hans-Jörg Schmid (ed.), *Entrenchment and the Psychology of Language Learning: How We Reorganize and Adapt Linguistic Knowledge*, 11-35. Berlin: Mouton de Gruyter.
- Schmid, Hans-Jörg. 2020. *The dynamics of the linguistic system. Usage, conventionalization, and entrench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Silverstein M. 2003. Indexical order and the dialectics of sociolinguistic life. *Lang. Commun.* 23:193-229
- Slabbert, S. and Myers-Scotton, C., 1996. The structure of Tsotsitaal and Iscamtho: code switching and in-group identity in South African townships. *Linguistics*, (35), 317-342.
- Talmy, Leonard. 2000. *Towards a Cognitive Semantics*, Vol. 1, Concept Structuring Systems. Cambridge, MA: MIT Press.
- Tesnière, Lucien. 1959. *É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is: Klincksieck.
- Tomasello, Michael. 2003. *Constructing a Language: A Usage-Based Approac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raugott, Elizabeth Closs and Graeme Trousdale. 2013. *Constructionalization and Constructional Chan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rudgill P. 1972. Sex, covert prestige and linguistic change in the urban British English of Norwich. *Lang. Soc.* 1:179-95.
- Trudgill P. 1974. *The Social Differentiation of English in Norwich*. Cambridge, UK: Cambridge Univ. Press.
- Vertovec, Steven. 2007. Superdiversity and its implications. *Ethnic and Racial Studies* 30. 1024-1054.
- Vertovec, Steven. 2010. Towards post-multiculturalism? Changing communities, contexts and conditions of diversity.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99. 83-95.

Session 2 <구문/통사> 사회: 강지인(한국외대)

Interphysio Constructions in English: Empirical Approach

발표: 조기석(사이버외대)

토론: 엄수진(한국외대)

Inter-physio Constructions and the Choice of Prepositions: a Semantic Approach

Keeseok Cho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 Introduction

Some transitive event constructions in English have a subject and an object that contains a part of the human body. Consider the following sentences.

- (1) a. John kissed her hand.
a'. John kissed her on the hand.
- b. Davina hit his eye.
b'. Davina hit him in the eye.

Sentence (1a) is a transitive event construction with a subject and an object. The object contains a part of the human body, *her hand*. This object can be split into the pure object *her* and a part of the human body *on the hand*, using the preposition *on*, as seen in sentence (1a').

Sentence (1b) is another transitive event construction with a subject and an object. The object contains a part of the human body, *his eye*. This object can be split into the pure object *him* and a part of the human body *in the eye* using preposition *in*, as seen in sentence (1b').

The choice of prepositions is not limited to *on* or *in* but also includes *by* and *around*. Consider the following sentences.

- (2) a. The policeman caught the robber's hand.
a'. The policeman caught the robber by the hand.
- b. Steve caught her wrist.
b'. Steve caught her around the wrist.

In sentence (2a), the object contains a part of the body *the robber's hand*. The object *the robber's hand* is split into a pure object *the robber* and a part of the human body *by the hand*, as seen in sentence (2a').

In sentence (2b), the object contains a part of the body *her wrist*. The object *her wrist* is split into a pure object *her* and a part of the human body *around the wrist*, as seen in sentence (2b').

We will group these sentences (1a) ~ (2b'), which show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as inter-physio constructions in the sense that they involve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¹⁾ Splitting the objects, however, into pure objects and parts of the human body can be also extended to sentences without real physical contact. Consider the following sentences.

- (3)a. The music touched my heart.
- a'. The music touched me to the heart.
- b. The speech of Donald Trump touched the bottom of their heart.
- b'. The speech of Donald Trump touched them to the bottom of the heart.

Sentence (3a) is superficially a sentence of inter-physio construction in the sense that its object has a part of the human body *my heart*. However, sentence (3a) differs from sentences (1a) ~ (2b') in that there is no real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Nevertheless, the object *my heart* can be split into a pure object *me* and a part of the human body *to the heart*, as seen in (3a'). The same is true of sentence (3b'). The object *the bottom of their heart* in (3b) can be split into pure object *them* and a part of the human body *to the bottom of the heart*, as seen in (3b').

Sentences (3a) and (3b) both use the preposition *to* in order to split the objec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human body. Sentences such as (3a) and (3b) can be also classified as inter-physio constructions in that their objects that contain a part of the human body can be spli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1) We will simply name the transitive constructions that have an object that contains a part of the body as inter-physio constructions in the sense that they involve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of the human body.

This study deals with five research questions as shown below.

- (4) a. What is the semantic property of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on*?
- b. What is the semantic property of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in*?
- c. What is the semantic property of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by*?
- d. What is the semantic property of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around*?
- e. What is the semantic property of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o*?

The organiza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Section 2 deals with previous studies on inter-physio constructions. Section 3 deals with more inter-physio constructions in English and shows that the five types of prepositions are used in English inter-physio constructions. Section 4 conducts an empirical survey with native speakers of English and Koreans with good English competence. Section 5 shows results and discussion. Section six provide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2. Literature Review

Previous studies on inter-physio constructions are mostly limited to French inter-physio constructions. French inter-physio constructions show a similar pattern of splitting the objects that contain the part of the body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Park (2010) shows that French inter-physio constructions use four prepositions *sur*, *dans*, *aux*, and *par* to split the objects. Consider the following French sentences.

- (5) a. J'ai embrasse' sa bouche.
 I've kissed her lip
 'I've kissed her lip.'
- a' Je l'ai embrasse' sur la bouche.
 I her have kissed on the lip
 'I have kissed her on the lip.'
- b. Il tapit sa dos.
 He hit his back
 'He hit his back.'

- b'. Il lui tapait dans le dos.
 He him hit in the back
 'He hit him in the back.'
- c. Il prend ma bras.
 He holds my arm
 'He holds my arm.'
- c'. Il me prend au bras.
 He me catches by the arm
 'He me catches by the arm.'
- d. J'ai tiré le bras de Paul.
 I've pulled the arm of Paul
 'I've pulled Paul's arm.'
- d'. J'ai tiré Paul par le bras.
 I've pulled Paul by the arm
 'I've pulled Paul by the arm.'

Sentences (5a) ~ (5c') are French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involve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For example, (5a) is an event construction that involves physical contact between *Je* (I) and *elle* (she). The object that contains a part of the body can be split into a pure object *la* (accusative case of *elle*) and a part of the body *sur la bouche*, as shown in (5a'). This is a split object that uses the preposition *sur*.

Sentence (5b) is another inter-physio construction in French that involves physical contact between *Il* (he) and *il* (he). The object that contains a part of the body can be split into a pure object *lui* (accusative case of *il*) and a part of the body *dans the dos*, as shown in (5b'). This is an inter-physio construction that uses the preposition *dans*.

Sentence (5c) is another event construction in French that involves physical contact between *Il* (he) and *Je* (I). The object that contains a part of the body can be split into a pure object *me* (accusative case of *Je*) and a part of the body *aux bras*, as shown in (5c').

Sentence (5d) is another example of inter-physio construction in French that involves physical contact between *Je* (I) and *Paul*. The object that contains a part of the body can be split into a pure object *Paul* and a part of the body *par le bras*, as shown in (5d').

Park (2010) approaches these French inter-physio constructions in terms of construction-particular use of three prepositions *sur*, *dans*, *par*, and *aux*, and does not provide a principled account on the choice of four prepositions in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3. Choice of Prepositions in Inter-physio Constructions

In the previous section we dealt with French inter-physio constructions discussed by Park (2010). In this section we will deal with more inter-physio constructions in English that split the objects that contain the part of the body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Consider the following sentences.

- (6) a. John kissed Mary's cheek.
- a'. John kissed Mary on the cheek.
- b. He touched her shoulder.
- b'. He touched her on the shoulder.
- c. The teacher spanked Andrew's bottom.
- c'. The teacher spanked Andrew on the bottom.
- d. She kissed his forehead.
- d'. She kissed him on the forehead.
- e. Mary scratched the dog's head.
- e'. Mary scratched the dog on the head.

Sentences (6a) ~ (6e') are transitive event constructions that involve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For example, (6a) is an event construction that involves physical contact between *John* and *Mary*. The object that contains a part of the body can be split into a pure object *Mary* and a part of the body *on the cheek*, as shown in (6a'). This is a split object that uses the preposition *on*.

Sentence (6b) is another transitive event construction that involves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The object that contains a part of the body can be split into a pure object *her* and a part of the body *on the shoulder*, as shown in (6b'). This is also a split object that uses the preposition *on*. The same is true of sentences (6c), (6c'), (6d), and (6d'). The objects that contain a part of

the body can be spli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using the preposition *on*.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split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are not necessarily limited to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In (6e), there is a physical contact between a human and an animal. The object that contains a part of the animal body can be spli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in the same way, as shown in (6e'), as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Inter-physio constructions (6a) ~ (6e') have two things in common. First, they involve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animate entities. Second, they split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using the preposition *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tive grammar put forth by Chomsky (1957) and developed into the minimalist program, as proposed in Chomsky (1981), Chomsky (1995), and Chomsky (2001),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split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can be analyzed in terms of a transformation that maps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into split object constructions. In other words, the initial inter-physio constructions are considered Deep Structure and the constructions that split the objec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are considered Surface Structure.²⁾

Prepositions that inter-physio constructions use to split objects are not necessarily limited to the preposition *on*. Consider the following sentences.

- (7) a. He punched the man's chest.
- a'. He punched the man in the chest.
- b. The robber stabbed his stomach.
- b'. The robber stabbed him in the stomach.
- c. Jack hit her eye.
- c'. Jack hit her in the eye.
- d. The shot wounded his arm.
- d'. The shot wounded him in the arm.

Sentences (7a) ~ (7c') are also transitive event constructions that involve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However, they use a different preposition

2) The notion of transformation is discussed in detail in Hornstein, N. Nuns & Grohman (2005), and Radford (2003), (2005), and (2006).

in. For example, sentence (7a) can use the preposition *in* to split the object, as shown in (7a').

Sentence (7b) is another inter-physio construction that can use the preposition *in*, as shown in (7b').

In comparison with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 *on*,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 *in* seem to use verbs of strong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such as *punch* or *stab*. Sentence (7c) also uses a verb of strong physical stroke between two people, such as *hit*, and uses the preposition *in* to split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as shown in (7c').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 *in* to split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are not necessarily limited to direct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In (7d), there is physical contact between a bullet and a person. Likewise the object that contains a part of an animal body can be spli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in the same way as direct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This shows that the coverage of inter-physio constructions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literal inter-personal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Prepositions that inter-physio constructions use to split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can be extended to some prepositions other than just *on* and *in*. Consider the following sentences.

- (8) a. He seized her hand.
a'. He seized her by the hand.
b. Tina pulled Sue's hair.
b'. Tina pulled Sue by the hair.
c. The teacher grabbed the student's ear.
c'. The teacher grabbed the student by the ear.
d. Mr. Jackson caught his wife's hand.
d'. Mr. Jackson caught his wife by the hand.
e. Michael held the monkey's tail.
e'. Michael held the monkey by the tail.

Sentences (8a) ~ (8d') are also transitive event constructions that involve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The object that contains a part of the body can be spli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However, they use

a different preposition *by*. For example, in (8a) the object can be spli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using the preposition *by*, as shown in (8a').

Sentence (8b) is another inter-physio construction that split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using the preposition *by*. In comparison with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s *on* or *in*,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 *by* seem to use verbs of durational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such as *seize* or *pull*. Sentence (8c) also uses a verb of durational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such as *grab*, and uses the preposition *by* to split the objec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as shown in (8c'). The same is true of sentence (8d), which uses a verb of durational physical contact, such as *catch*, and uses the preposition *by* to split the objec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as shown in (8d').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s the preposition *by* to split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are not necessarily limited to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In (8e), there is physical contact between a human and an animal. The object that contains a part of the animal body can be spli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using the preposition *by* in the same way, as shown in (8e'), as a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Prepositions that inter-physio constructions of durational verbs use are not limited to preposition *by*. Consider the following sentences.

- (9) a. The child hugged his mom's neck.
a'. The child hugged his mom around the neck.
b. The wrestlers grabbed each other's waist.
b'. The wrestlers grabbed each other around the waist.
c. The woman tied the child's hands.
c'. The woman tied the child around the hands.
d. Chris chained the dog's neck.
d'. Chris chained the dog around the neck.

Sentences (9a) ~ (9b') are also sentences of inter-physio constructions. These inter-physio constructions are formed by verbs of durational verbs, such as *hug* and *grab*. However, they use a different preposition *around*. For example, in (9a) the object can be spli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using the preposition *around*, as shown in (9a'). Sentence (9b) is also an inter-physio construction of a durational verb, and uses *around* to split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as shown in (9b'). In comparison with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of durational verbs that use preposition *by*,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of durational verbs that use preposition *around* seem to involve physical contact in a circular way. In both sentences (9a) and (9b), the physical contact is made in a circular way,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 verbal constructions *hug a neck* or *grab a waist*.

In (9c) the physical contact is also made in a circular way, which is characteristic of verbal constructions such as *tie hands*. Hence the same preposition *around* is used.

Circular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around* to split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are not necessarily limited to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In (9d), there is physical contact made in a circular way between a human and an animal. However, the same preposition *around* is used to split the objec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as shown in (9d').

Prepositions that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use to split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vary between *on*, *in*, *by*, and *around*. Choice of prepositions depend on how the physical contact is made. We have another preposition that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can use to split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Consider the following sentences.

- (10) a. The music touched my heart.
a'. The music touched me to the heart.
b. His speech touched the core of their hearts.
b'. His speech touched them to the core of their hearts.
c. Her speech touched the bottom of their hearts.
c'. Her speech touched them to the bottom of their hearts.

Sentences (10a) ~ (10c') are sentences of seemingly inter-physio constructions. In (10a), the verb *touch* is a kind of transitive verb that can involve the physical contact between two people. The object of the transitive verb *touched* is *my heart*, which seemingly contains a part of the body. This object can be spli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using preposition *to*, as shown in (10a').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10a) show differ from all the other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we have discussed so far. The inter-physio construction that (10a) shows is not a construction involving real

physical contact but a construction of a metaphorical physical contact. This metaphorical inter-physio construction uses the preposition *to* when splitting the objec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The same is true of sentences (10b) and (10c). In (9b), the object of the transitive verb *touched* is *the core of their hearts*, which seemingly contains a part of the body. In (10c), the object of the transitive verb *touched* is *the bottom of their hearts*, which also seemingly contains a part of the body. These objects can be spli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using the preposition *to*, as shown in (10b') and (10c'), respectively.

So far, we have discussed various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split complex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using one of five prepositions. The choice of prepositions depends on how the physical contact is made. The next section discusses how the choice of prepositions is made on the basis of an empirical survey with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4. Empirical Survey

4.1. Participants

An empirical survey was designed to find out how the choice of prepositions is made when splitting the objects in inter-physio constructions.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native speakers of English and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For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the survey was limited to the participants who have one of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in order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test.

- (i) English major participants
- (ii) English teachers at institutes or schools
- (iii) 900 or above TOEIC scores

The survey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native speakers of English and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³⁾ Their personal and academic back grounds are as follows.

3) The participation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is relatively low in comparison with the participation of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simply because they were hard to get.

<Table 1> The backgrounds of the participants

Information about the participants		Number	Percentage
Total		40	100%
Native Language	English	6	15%
	Korean	33	82.5%
	Other Languages	1	2.5%
Gender	Male	15	37.5%
	Female	25	62.5%
Educational Back grounds	Undergraduate students	1	2.5%
	University graduates	2	5%
	Master-degree students	4	10%
	Master-degree graduates	13	32.5%
	Doctorate-degree students	6	15%
	Doctorate-degree graduates	13	32.5%
	Others	1	2.5%

4.2. The methods of survey

The survey was implemented online and the survey sheets were made using the survey program ‘Naver Office’. The survey participants accessed the URL(Uniform Resource Locator) to participate in the experiments. Five sets of questions were used in the questionnaires. The first set of questions were set up in order to find out the semantic properties of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 *on* to split the objec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The sentences of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used in the first set of questions were derived from the corpus and revised to match the needs of the survey.⁴⁾

The followings sentences are the data of inter-physio constructions used in the first set of questionnaires.

- (11) a. She scratched his arm.
a’. She scratched him on the arm.

4) The sentences that use a preposition are from COCA(Corpus of Contemporary of American English. The website address is: <https://www.english-corpora.org/coca/>.

- b. He sometimes pats my head like I'm a labradoodle.
- b'. He sometimes pats me on the head like I'm a labradoodle.
- c. He smiled and kissed her cheek softly.
- c'. He smiled and kissed her on the cheek softly.
- d. He laughs and spanks my head with a stolen passport.
- d'. He laughs and spanks me on the head with a stolen passport.
- e. Tilda's mother touched her head.
- e'. Tilda's mother touched her on the head.

The sentences in (11) are all sentences of inter-physio construction that use the preposition *on* when splitting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For example, sentence (11a) has an object that contains the part of the body. The object is spli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using preposition *on*, as shown in (11a'). The same is true of sentences (11b) ~ (11e'). They all use preposition *on* in order to split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The following sentences are the data used in the second set of questionnaires.

- (12) a. The snake bit his ass.
- a'. The snake bit him in the ass.
- b. If I hurt her, you can punch my nose.
- b'. If I hurt her, you can punch me in the nose.
- c. If she tries to do that, you smack her head with the brick.
- c'. If she tries to do that, you smack her in the head with the brick.
- d. He began to kick the man's ribs and only stopped when his foot grew sore.
- d'. He began to kick the man in the ribs and only stopped when his foot grew sore.
- e. If you hit a man's face, in time his wounds will heal.

e'. If you hit a man in the face, in time his wounds will heal.

The sentences in (12) are all sentences of inter-physio construction that use the preposition *in* when splitting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For example, sentence (12a), which has an object that contains a part of the body, can be transformed into sentence (12a'), which splits the objec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using preposition *in*. The same is true of sentences (12b) ~ (12e'). They all use the preposition *in* in order to split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The following sentences are the data used in the third set of questionnaires.

- (13) a. He will take my hand and lead me to them.
a'. He will take me by the hand and lead me to them.
b. Wrigley had grabbed my waist.
b'. Wrigley had grabbed me by the waist.
c. We surely would have seized his right hand.
c'. We surely would have seized him by his right hand.
d. His brother-in-law catches his elbows.
d'. His brother-in-law catches him by the elbows.
e. He was still holding her arms.
e'. He was still holding her by the arms.

The sentences in (13) are all sentences of inter-physio construction that use the preposition *by* when splitting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For example, sentence (13a), which has an object that contains the part of the body, can be transformed into sentence (13a'), which splits the objec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using preposition *by*. The same is true of sentences (13b) ~ (13e'). They all use the preposition *by* in order to split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The following sentences are the data used in the fourth set of questionnaires.

- (14) a. She hugged his waist and walked him up the porch steps.
a'. She hugged him around his waist and walked him up the porch steps.
b. He grabbed her waist, drawing her to him.
b'. He grabbed her around the waist, drawing her to him.
c. Fell seizes his chest.
c'. Fell seizes him around the chest.
d. He holds her neck, and puts a staple gun to her head.
d'. He holds her around the neck, and puts a staple gun to her head.
e. They put a collar on the dog's neck.
e'. They put a collar on the dog around the neck.

The sentences in (14) are all sentences of inter-physio construction that use the preposition *around* when splitting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For example, sentence (14a), which has an object that contains a part of the body, can be paraphrased into sentence (14a'), which splits the objec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using the preposition *around*. The same is true of sentences (14b) ~ (14e'). They all use the preposition *around* in order to split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The following sentences are the data used in the fifth set of questionnaires.

- (15) a. Your candid and raw emotions touched my core.
a'. Your candid and raw emotions touched me to the core.
b. The cold now chilled my bone.
b'. The cold now chilled me to the bone.
c. Her stare alone chills my bones.

- c'. Her stare alone chills me to my bones.
- d. Donald Trump's speech touched my heart.
- d'. Donald Trump's speech touched me to the heart.
- e. His speech touched the bottom of my heart.
- e'. His speech touched me to the bottom of my heart.

The sentences in (15) are all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 *to* when splitting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For example, sentence (15a), which has an object that contains a part of the body, can be paraphrased into sentence (15a'), which splits the object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using preposition *to*. The same is true of sentences (15b) ~ (15e'). They all use the preposition *to* in order to split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Each set of questionnaires use one of five prepositions *on*, *in*, *by*, *around*, and *to* in order to split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select the semantic properties of each construction that uses one of the five prepositions. The following table contains the options that the participants are asked to choose from.⁵⁾

<Table 2> The options of constructions that participants choose from

Types of constructions	Definition
Momentary slight inter-physio constructions	Events that involve a weak physical contact that only lasts for a short duration of time
Momentary strong inter-physio constructions	Events that involve a strong physical contact that only lasts for a short duration of time

⁵⁾ The options of constructions are basically based on Goldberg (1995) and (2003), but revised to satisfy the needs of the experiment.

Durational inter-physio constructions	Events that involve a physical contact that continues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Durational circular inter-physio constructions	Events that involve a physical contact that moves in a circular motion and that continues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Metaphorical inter-physio constructions	Events that seemingly involve a physical contact but have metaphorical meaning

4.3. Analysis of Results

The first set of questionnaires were designed to identify the semantic properties of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 *on* to split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The semantic properties of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 *on* is as follows.

<Table 3> The results of the first set of questionnaires that use *on*

Information about the participants		Number	Percentage
Total		40	100%
The first set of questionnaires	Momentary slight inter-physio constructions	28	70%
	Momentary strong inter-physio constructions	7	17.5%
	Durational inter-physio constructions	3	7.5

	Durational circular inter-physio constructions	2	5%
	Metaphorical inter-physio constructions	0	0%

The results of the first set of the questionnaires in table 3 show that 70%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 *on* are momentary slight inter-physio constructions. In other words, for the events that involve a weak physical contact that only lasts for a short duration of time, the preposition *on*, in comparison with the use of other prepositions, is mostly used when splitting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The second set of questionnaires were designed to identify the semantic properties of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 *in* to split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The semantic properties of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 *in* are as follows.

<Table 4> The results of the second set of questionnaires that use *in*

Information about the participants		Number	Percentage
Total		40	100%
The second set of questionnaires	Momentary slight inter-physio constructions	4	10%
	Momentary strong inter-physio constructions	29	72.5%
	Durational inter-physio constructions	4	10%

	Durational circular inter-physio constructions	2	5%
	Metaphorical inter-physio constructions	1	2.5%

The results of the second set of the questionnaires in table 4 show that 72.5%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 *in* are momentary strong inter-physio constructions. In other words, for the events that involve a strong physical contact that only lasts for a short duration of time, the preposition *in*, in comparison with the use of other prepositions, is mostly used when splitting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The third set of questionnaires were designed to identify the semantic properties of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 *by* to split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The semantic properties of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 *by* are as follows.

<Table 5> The results of the third set of questionnaires that use *by*

Information about the participants		Number	Percentage
Total		40	100%
The third set of questionnaires	Momentary slight inter-physio constructions	1	2.5%
	Momentary strong inter-physio constructions	6	15%
	Durational inter-physio	31	77.5%

	constructions		
	Durational circular inter-physio constructions	2	5%
	Metaphorical inter-physio constructions	0	0%

The results of the third set of the questionnaires in table 5 show that 77.5%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 *by* are durational inter-physio constructions. In other words, for the events that involve a physical contact that continues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e preposition *by*, in comparison with the use of other prepositions, is mostly used when splitting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The fourth set of questionnaires were designed to identify the semantic properties of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 *around* to split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The semantic properties of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preposition *around* are as follows.

<Table 6> The results of the fourth set of questionnaires that use around

Information about the participants		Number	Percentage
Total		40	100%
The fourth set of questionnaires	Momentary slight inter-physio constructions	1	2.5%
	Momentary strong inter-physio constructions	3	7.5%
	Durational inter-physio constructions	2	5%

	Durational circular inter-physio constructions	32	80%
	Metaphorical inter-physio constructions	2	5%

The results of the fourth set of the questionnaires in table 6 show that 80%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 *around* are durational circular inter-physio constructions. In other words, for the events that involve a physical contact that moves in a circular motion and continues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e preposition *around*, in comparison with the use of other prepositions, is mostly used when splitting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The fifth set of questionnaires were designed to identify the semantic properties of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 *to* in order to split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The semantic properties of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preposition *to* are as follows.

<Table 7> The results of the fifth set of questionnaires that use *to*

Information about the participants		Number	Percentage
Total		40	100%
The fifth set of questionnaires	Momentary slight inter-physio constructions	0	0%
	Momentary strong inter-physio constructions	2	5%
	Durational inter-physio constructions	1	2.5%
	Durational circular inter-physio constructions	1	2.5%
	Metaphorical inter-physio	36	90%

	constructions		
--	---------------	--	--

The results of the fifth set of the questionnaires in table 7 show that 90%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that use the preposition *to* are metaphorical inter-physio constructions. In other words, for the events that seemingly involve a physical contact but have a metaphorical meaning, the preposition *to*, in comparison with the use of other prepositions, is mostly used when splitting the object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5. Conclusion

This study explored inter-physio constructions in English, and found out how the choice of prepositions is made among the five prepositions *on*, *in*, *by*, *around*, and *to* on the basis of the empirical survey with native speakers of English and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Five prepositions are used when splitting the objects of inter-physio construction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When splitting the objects of inter-physio constructions into a pure object and a part of the body, momentary slight inter-physio constructions mostly use the preposition *on*; momentary strong inter-physio constructions mostly use the preposition *in*; durational inter-physio constructions mostly use the preposition *by*; durational circular inter-physio constructions mostly use the preposition *around*; and metaphorical inter-physio constructions mostly use the preposition *to*. The result shows that the choice of prepositions in the inter-physio constructions is systematically based on the semantic properties of the construc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further study on the choice of prepositions in inter-physio constructions.

References

- Chomsky, N.(1957). *Syntactic Structures*, Mouton.
- Chomsky, N.(1995). *The Minimalist Program*. MIT Press. Cambridge Mass.
-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loris Publication
- Chomsky, N. (2001). "Beyond Explanatory Adequacy."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20, 1-28.
- Goldberg, Adele E. (1995).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ldberg, A. (2003). "Constructions: a New Theoretical Approach to Languag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Vol.7 No.5 May 2003, 219-224.
- Hornstein, N. Nuns & Grohma (2005). *Understanding Minim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ford, A. (2003). *Syntactic theory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ford, A. (2005). *Transformational Grammar*.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ford, A. (2006). *Minimalist Syntax*.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ssion 3 <인지언어학> 사회: 이현숙(장안대)

**taypak'Jackpot!': How social forces
intertwine with language-internal
mechanisms to turn a Korean noun into
an interactive**

발표: 안미경(한국외대)

토론: 윤소연(인천대)

***taypak* 'Jackpot!': How social forces intertwine with language-internal mechanisms to turn a Korean noun into an interactive**

Mikyung Ah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Foong Ha Yap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Shenzhe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how the Korean interactive *taypak* with evaluative and interjectory readings has arisen. First, we examine how the Korean noun *taypak* has undergone a semantic change from a concrete noun meaning 'large gourd' to an abstract noun meaning 'a great success or a great hit', and it has further undergone categorial change through a process of subjectification (Traugott, 1999; Traugott and Dasher, 2002) and developed into an adjectival meaning 'amazing, great' and further an evaluative expressing the speakers' own evaluation and perspectives. We also find that *taypak* has undergone even further semantic extension from the evaluative to an interjection that expresses intense amazement and at the same time often draws attention to the following message (equivalent to English 'wow'), this development emerging through a process of intersubjectification (Traugott, 2003: 128). In terms of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aypak*, category conversion occurred earlier within the lexical domain (i.e. noun > adjective, noun > adverb), then cooptation paved the way for adjectival *taypak* to be deployed in the pragmatic domain (i.e. adjectival > evaluative), and the evaluative *taypak* has further developed into a mirative expressive (i.e. evaluative > interjection). Korean interactive *taypak* is an excellent example to show that the rise of an interactive is attributed to the collaboration of cooptation and grammaticalization. Via cooptation, an interactive moves beyond sentence grammar, being detached syntactically and prosodically from its etymological source now being anchored to the situation of discourse, whereas grammaticalization allows for further functional extensions via shifts from one type of interactive to another (see Heine, 2023).

The dynamic and versatile uses of *taypak* brought about by the language-internal development have to do with, and to a certain degree reflects, recent social developments in Korean society. The feeling of relative deprivation among Koreans triggered by remarkable and rapid economic growth in a relatively short time has led Korean society to be caught in a get-rich-quick fever. Besides, with the more frequent spate of turmoil and instabilities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more people seek to acquire wealth through *taypak*, that is, hitting the

jackpot with fictitious capital such as the lottery, stocks and real estate speculation rather than hard work (Kim, 2011). With the launching of Korea's most popular lottery, Lotto, which debuted in 2002, along with stocks and real estate speculation, a new frenzy for *taypak* 'hitting the jackpot', a figurative expression for unexpectedly quick acquisition of wealth and success has been spread nationwide. The dream of *taypak* 'hitting the jackpot' has inadvertently also encouraged Koreans to frequently use the word *taypak* in daily conversation, which has now developed into an almost ubiquitous interactive expres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our better understanding of how a society or social development has influenced the development and uses of a common word that we otherwise would hardly notice. In other words, this study helps to shed light on how social factors affect our psychology or way of thinking, which inevitably influences the way we speak. This study also demonstrates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internal factors (e.g. semantic, morphosyntactic and prosodic characteristics of a given language) and language-external factors (e.g. the socio-economic milieu) influence language use. For future investigation, cross-linguistic studies on how dynamic and evolving societal forces affects language use will also provide a fuller picture of how language and society are intertwined.

References

- Kim, W., 2011. Fever of making a fortune at stroke in "Casino Society." *Social Science Review* 42(2), 51-72.
- Heine, B., 2023. *The Grammar of Interactive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K.
- Traugott, E. C., 1999. From subjectification to intersubjectification. In: Four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storical Linguistics, Vancouver, Canada, July 1999.
- Traugott, E. C., Dasher, R. B., 2002. *Regularity in Semantic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 Traugott, E. C., 2003. From subjectification to intersubjectification. In: Hickey, R. (Ed.), *Motives for Languag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pp. 124-39.

Session 3 <인지언어학> 사회: 이현숙(장안대)

EFL Learners' Use of Online Frame-Based Dictionary: A Case-Study of Commerce-Event Frame Verbs

발표: 이지영(인하공전)

토론: 이정은(한국외대)

EFL Learners' Use of Online Frame-Based Dictionary: A Case-Study of Commerce-Event Frame Verbs

Lee, Ji Young

(Professor, Inha Technical College)

This study advocates for the potential and importance of infusing frame semantic insights into lexical learning and teaching in the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classroom. According to Nation (2001), there are nine aspects of vocabulary knowledge across three main categories. The typology includes (1) form: spoken, written, word parts, (2) meaning: form and meaning, concepts and referents, associations, and (3) use: grammatical functions, collocations, and constraints on use. Traditional dictionaries frequently lack many of these components necessary for effective language acquisition.

In order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Lorenz, Crane, Benjamin, and Boas (2020) examine how 65 beginning and intermediate second language learners of German perceive and report interacting with a frame-based dictionary, the German Frame-Semantic Online Lexicon (G-FOL). In EFL learners' class, FrameNet (<https://framenet2.icsi.berkeley.edu/fnReports>) can be used to enhance their lexical knowledge with the structured cognitive and experiential background provided by the frame. FrameNet is an online lexical source for English, connecting linguistic forms to frames and aligning Frame Elements (FEs) with their syntactic realizations demonstrated through corpus examples. The process involves creating frame descriptions that include frames, FEs, and frame-to-frame relations, as well as identifying Lexical Units (LUs) as the primary annotations. Sentences are extracted from the British National Corpus and annotated with FE labels (highlighted in various colors), phrase types, and grammatical functions (Fillmore and Baker 2010).

This integrated tool can effectively meet the lexical learning needs of EFL students and demonstrat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know a word. One hundred students enrolled in the Business English for Secretaries class take part in a survey targeting their perceptions concerning the use and benefits of lexical education for ESP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underpinned by FrameNet. After learning about the English Commerce-Event frame verbs, including "buy" (purchase), "collect," "pay," "sell," and "cost," through FrameNet, the students were request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This questionnaire serves as the primary source for analyzing the student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the FrameNet tool,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the process of research, the commercial transaction verbs (Fillmore, Charles J. and Beryl, Atkins 1992), such as *buy*, *purchase*, *sell*, *pay*, *cost*, *charge*, and *spend*, need to be revisited and analyzed for effective English vocabulary teaching. Beyond traditional dictionaries and textbooks, EFL learners can improve their awareness of lexico-grammar as a system of meaning-driven patterns by acquiring vocabulary through well-structured frame-based dictionaries.

References

- Boas, Hans. 2009. *Multilingual FrameNets in computational lexicography: Methods and applications*. Berlin: de Gruyter.
- Fillmore, Charles J. 1982. Frame semantics.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ed. by Linguistic Society of Korea, 111-138. Seoul: Hanshin.
- Fillmore, Charles J. 1990. Epistemic Stance and Grammatical Forms in English Conditional Sentences. *CLS* 26: 137-162.
- Fillmore, Charles J. and Beryl, Atkins. 1992. Towards a frame-based organization of the lexicon: The semantics of RISK and its neighbors. *Frames, fields, and contrast: New essays in semantics and lexical organization*, eds. by A. Lehrer and E. Kitay, 75-102. Hillsdale: Erlbaum.
- Fillmore, Charles J., and Collin, Baker. 2010. A frames approach to semantic analysis.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analysis*, eds. by B. Heine and N. Heiko, 313-33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ameNet (<https://framenet2.icsi.berkeley.edu/fnReports>)
- Lorenz, Alexander, and Cori, Crane, John D. Benjamin and Hans Boas. 2020. L2 German Learners' Perceptions and Use of an Online Semantic Frame-Based Dictionary. *Die Unterrichtspraxis/Teaching German* 53:2, 191-209.
- Nation, Paul.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ssion 4 <AI와 영어교육> 사회: 이진아(상명대)

Advancing IELTS Speaking Practice through AI: A Case Study on Korean English Learners Using ChatGPT

발표: 우경민(육사)

토론: 박은영(감리교신학대)

Advancing IELTS Speaking Practice through AI: A Case Study on Korean English Learners Using ChatGPT

Kyeongmin Woo (Korea Military Academy)

In the continuously evolving field of English language learning and assessment, devising efficient, technology-driven tools for preparation is of paramount importance (Kim, Cha & Kim, 2019; Kim, 2020). Focusing on the IELTS speaking component, this study suggests a novel approach integrating the ChatGPT API and Python programming, offering a highly useful preparatory tool for Korean English learners. This software program not only provides an interactive platform for practice but also bridges the gap between traditional learning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enhancing overall learning efficacy (Son & Chang, 2020). The researcher's exploration involved a small yet insightful group of 10 students, whose interactions with the tool yielded rich data. Voice recordings and corresponding STT converted text were extracted and analyzed, unveiling patterns and recurrent mistakes that offered insight into learners' strengths and weaknesses. Utilizing these features, a ChatGPT-powered chatbot was developed to facilitate targeted corrective feedback (Sheen, Lyster, & Ellis, 2010), addressing specific areas of concern. In addition, a detailed analysis of the feedback provided by the chatbot was conducted. Each feedback instance was categorized and mapped to the respective responses of the students to draw correlations between common error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corresponding feedback. A comparative lex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orpus of students' responses and the feedback from ChatGPT, providing insights into the vocabulary variations, usage patterns, and the adaptability of the AI in responding to a diverse range of errors and queries. The findings showed that as students engaged more with the chatbot, a noticeable enhancement in the quality of their responses

was observed. The dynamic feedback mechanism, underlined by the adaptability of ChatGPT, ensured that feedback was not static but evolved in line with each student's progress. The vocabulary analysis suggested the AI's capability to adapt its feedback linguistically, resonating with the learners' lexical and syntactical growth. In conclusion, this study underscores the potential of embedding advanced AI solutions like ChatGPT in the pedagogical fabric of language learning. It highlights a pathway where technology and education converge, ensuring that learning is not just interactive but is also adaptive, addressing individual nuances and offering feedback that is as personalized as it is instructive.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vast, promising a future of language learning that is as technologically enriched as it is pedagogically sound.

Key words: synthetic nominal compounds

References

- Kim, N.-Y., Cha, Y., & Kim, H.-S. (2019). Future English learning: Chatbo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3), 32-53.
- Kim, M.-J. (2020). *A Study o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speaking assessment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 Focusing on affective effect and objectivity in assessm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 Sheen, Y., Lyster, R., & Ellis, R. (2010). The role of Oral and written corrective feedback in SLA.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2(2), 169-357.
- Son, H.-J., & Chang, W.-H. (2020). An analysis of grammatical errors in English speaking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34(3), 27-313.

Kyeongmin Woo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Korea Military Academy
300 Jungang-ro 10-gil, Seongdong-gu, Seoul, 02050, Korea
+82-10-3308-3180, martincan@kma.ac.kr

Session 4 <AI와 영어교육> 사회: 이진아(상명대)

English Education with AI-based Tools: Present for Future

발표: 유주연(연세대)

토론: 신정화(육사)

English Education with AI-based Tools: Present for Future

Ju Yoen Yu (University of Yonsei)

Much attention has been garnered to 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ChatGPT) and its practical use in most of the disciplinary and industrial areas. Even though open discussions on challenges including the issues of ethical awareness, academic integrity, hallucination effect, and so forth remain to be conducted, it seems to be inevitable not to make use of it, especially in an educational sector. This paper aims to find the way the teachers cope with the use of chatbots in their classrooms in the era of A.I. For this, this paper briefly looks into the transition of chatbots and their practical uses in teaching English language, which makes it possible to have better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s of AI-based tools in the educational setting. For example, using proper prompts to get the desired results from the AI-based tools is one of them. Then a couple of empirical studies in Korea where AI-based tools were used are introduced, which shows the effect of the chatbots on students' reading comprehension and teachers' materials development, and identifies the role of the teachers as conductor who orchestrates different resources, facilitator who makes students active investigators, and ethic advocate who raises AI ethical awareness. Finally, this paper pursues to answer how educators can make English learning classrooms human friendly environments with using AI-based tools, emphasizing on interaction among teachers and students.

Key words: Agency, A. I., ChatGPT, English learning, Humanities, Teachers' roles

References

- Bonner, E., R. Lege., & E. Frazier. 2023. Large Language Model-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Language Classroom: Practical Ideas for Teaching. *Teaching English with Technology* 23.1, 23–41.
- De Silva, D., N. Mills., M. El-Ayoubi., M. Manic., & D. Alahakoon. 2023. ChatGPT and Generative AI Guidelines for Addressing Academic Integrity and Augmenting Pre-Existing Chatbots. 2023.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Technology (ICIT)*, Orlando, FL, USA, doi: 10.1109/ICIT58465.2023.10143123.
- Jeon, J., & Lee, S. 2023. Large Language Models in Education: A Focus on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Human Teachers and ChatGPT.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2023. <https://doi.org/10.1007/s10639-023-11834-1>
- Kay, M. R. 2023. Classroom Discussion Just Got More Important. *Educational Leadership* 80.7, 78–79.
- Koltovskaia, S. 2020. Student Engagement with Automated Written Corrective Feedback (AWCF) Provided by Grammarly: A Multiple Case Study. *Assessing Writing*. 44. <https://doi.org/10.1016/j.asw.2020.100450>
- Kim, R. 2023. Effects of ChatGPT on the Cognitive Processing of K-CSAT English Reading tasks by Korean High School Learners: A Preliminary Study. *Secondary English Education* 16.2, 179–205.
- Kim, T. 2023. A Field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for Secondary English and Its Use of ChatGPT. *Secondary English Education* 16.2, 207–218.
- Pack, A., & J. Maloney. 2023. Potential Affordances of Generative AI in Language Education: Demonstrations and an Evaluative Framework. *Teaching English with Technology*. 23.2. 4–24.
- Paterson, K. 2020. Machine Translation in Higher Education: Perceptions, Policy, and Pedagogy. *TESOL Journal*. 14.2. <https://doi.org/10.1002/tesj.690>
- Park, H. 2023. Application of ChatGPT for an English Learning Platform. *Journal of English Teaching through Movies and Media* 24.3, 30–48.
- Stevenson, M., & A. Phakiti. 2014. The Effects of Computer-generated Feedback on the Quality of Writing. *Assessing Writing*. 19. 51–65.

Ju Yoen Yu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nglish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Republic of Korea

+82-2-2123-2300, yjyet2019@yonsei.ac.kr

Session 4 <AI와 영어교육> 사회: 이진아(상명대)

An Analysis of Metadiscourse and Rhetorical Moves in EFL College Writing

발표: 하경영(상명대)

토론: 신정화(육사)

An Analysis of Metadiscourse and Rhetorical Moves in EFL College Writing

Kyongyeong Ha (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academic writing skills amo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students, investigates the evolution of metadiscourse utilization during their semester-long engagement with research papers. A cohort of 31 EFL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each submitting two research papers – one in the 7th week and another in the 16th week of the semester. The specific emphasis was placed on the research paper introductions. Utiliz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incorporate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the research identifies overarching patterns in metadiscourse frequency, elucidating how these patterns are influenced by genre constraints. The study delves into the complex dynamics of academic writing by concurrently examining the utilization of metadiscourse and rhetorical moves in research paper introductions. It explore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se features while considering the writers' achievement levels, distinguishing between high and low achievers. The structural elements of rhetorical moves remained largely consistent across both groups. However, metadiscourse markers exhibit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based on achievement levels and the purpose of their respective rhetorical moves. Notably, transitions emerged as the favored metadiscourse marker regardless of achievement levels and move objectives. Conversely, the high-achieving group fortified their arguments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more evidentials from external sources, whereas the low-achieving group augmented and clarified their ideas by relying on code glosses. Furthermore, the low-achieving group actively engaged readers through interactional

2 Kyongyeong Ha

markers, while the high-achieving group prioritized providing clear reader guidance through interactive markers.

This research underscores the role of metadiscourse in academic writing and its role in the development of EFL students' academic identity, highlighting the implications for writing instruc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where automated writing assistance tools are becoming increasingly prevalent, this finding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human agency in academic writing.

Key words: metadiscourse, rhetorical moves, EFL writing, research paper, writing instruction

Kyongyeong Ha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
20 Hongjimun 2-gil, Jongno-gu, Seoul, 03016, Korea
+82-2-2287-6109, kha@smu.ac.kr

Session 5 <전산/코퍼스언어학> 사회: 이영희(아주대)

Internal variation of vowel formants in the Buckeye Corpus

발표: 윤원희(계명대)

토론: 신동진(전주대)

Internal Variation of Vowel Formants in the Buckeye Corpus

Weonhee Yun (Keimyung University)

Vowel formants are an important piece of information for mapping acoustic signals to a specific position in a vowel space defined from an articulatory phonetics' perspective with cardinal vowels (Hagiwara 1997; Hillenbrand et al. 1995; Ladefoged 2006; Peterson and Barney 1952; Yang 1996, 2009). To show the relative positions of the vowels in a language, researchers have used controlled speech in the sense that the factors that may affect the formants are under control. For example, they have used the same phonetic environment for vowel production, such as /hVd/. However, the total number of tokens recorded and analysed is limited simply because human resources required for the recording and labelling are unmeasurable. Although a large speech corpus such as the Buckeye Corpus of conversational speech (Pitt et al. 2005) can provide more tokens of vowels, the formant values from the corpus give a general view of how the vowel space can be distorted in conversational speech. The source of the distortion can be tracked down on the assumption that a method for measuring formants is appropriate and accurate.

Each formant of a vowel can be obtained by averaging multiple formant values calculated from sliding analysis windows applied over the signals in the vowel area or simply by taking the formant value at a time point. Depending on which part of the vowel span is used, the formant values can change and as a result its position in the vowel space can also change. When averaging multiple values from a token, the internal variation in each vowel token is easily ignored. This paper suggests that averaging the vowel formants without considering the size of the internal

variation misrepresents the real values of the formants of the vowel by showing how large the internal deviation of formant values can be in the interval of the vowel token.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with the first formant of non-low vowels which tends to be more affected by the internal deviation than with low vowels.

Key words: Buckeye Corpus, vowel formants, internal deviation, representative vowel formants, vowel space

References

- Hagiwara, R. 1997. Dialect Variation and Formant Frequency: The American English Vowels Revisited.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02.1:655-658.
- Hillenbrand, J., Laura G., Michael C., and K. Wheeler. 1995. Acoustic Characteristics of American English Vowels.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97.5:3099-3111.
- Ladefoged, P. 2006. *A Course in Phonetics*. 5th ed. Boston: Thomson Wadsworth.
- Peterson, G. E., and H. L. Barney. 1952. Control Methods Used in a Study of Vowels.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24:175-184.
- Pitt, M., Keith J., Elizabeth H., Scott K., and W. Raymond. 2005. The Buckeye Corpus of Conversational Speech: Labeling Conventions and a Test of Transcriber Reliability. *Speech Communication* 45:89-95.
- Yang, B. 1996. Comparative Study of American English and Korean Vowels Produced by Male and Female Speakers. *Journal of Phonetics* 24.2:245-261.
- Yang, B. 2009. Formant Trajectories of English Vowels Produced by American Ma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eech Science* 1.3:65-72.

Weonhee Yu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Keimyung University
109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42601, Korea
+82-53-580-5134, whyun@kmu.ac.kr

Session 5 <전산/코퍼스언어학> 사회: 이영희(아주대)

Does BERT *Wanna* Understand *Wanna* Contraction?

발표: 노강산(고려대), 송상헌(고려대), 오은정(상명대)

토론: 이영희(아주대)

Does BERT *Wanna* Understand *Wanna* Contraction?

Kang San Noh (Korea University)¹

Sanghoun Song (Korea University)

Eunjeong Oh (Sangmyung University)²

Wanna contraction is a grammatical phenomenon in which the verb *want* and the adjacent infinitival marker *to* are reduced to the form *wanna* (Chomsky 1980). It is disallowed in subject questions in which subject extraction takes place. As the recent focus of research on language models is on such models' capability to process grammatical constraints, *wanna* contraction is well-suited for this purpose to the extent that it requires the understanding of a *wh*-trace and subject/object extraction (Zukowski and Larsen 2011). To see whether the BERT and RoBERTa models detect disallowed cases of *wanna* contraction, surprisal was used as a complexity metric. We expected that the surprisal values for subject questions are higher than those of nonsubject questions if and only if the contraction is done. The results show that both models generally produced higher surprisal values for subject questions regardless of the contraction. Taken at face value, this result seems to simply suggest that the language models failed to detect the constraints underlying the *wanna* contraction. However, we believe that this result rather could be best explained by resorting to the subject-object asymmetry (Schachter and Yip 1990; Juffs and Harrington 1995). Considering the prior studies on the asymmetry, we argue that the language

¹ First Author

² Corresponding Author

2 Kang San Noh, Sanghoun Song, and Eunjeong Oh

models may have detected asymmetry between subject and object extraction instead.

Key words: *wanna* contraction, *wh*-trace, language model, surprisal, subject-object asymmetry

References

- Chomsky, N. 1980. Rules and representation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1), 1-15.
- Juffs, A. and M. Harrington. 1995. Parsing effects in second language sentence processing.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7.4, 483-516.
- Schachter, J. and V. Yip. 1990. Grammaticality judgments: Why does anyone object to subject extrac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2.4, 379-392.
- Zukowski, A. and J. Larsen. 2011. *Wanna* contraction in children: Retesting and revising the developmental facts. *Language Acquisition*, 18.4, 211-241.

Kang San Noh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Linguistics
Korea University
26, Jongam-ro 9da-gil, Seongbuk-gu, Seoul, 02809, Korea
+82-10-6480-3719, kasan1998@korea.ac.kr

Sanghoun Song
Professor
Department of Linguistics
Korea University
Anam-ro 145,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82-2-3290-2177, sanghoun@korea.ac.kr

Eunjeong Oh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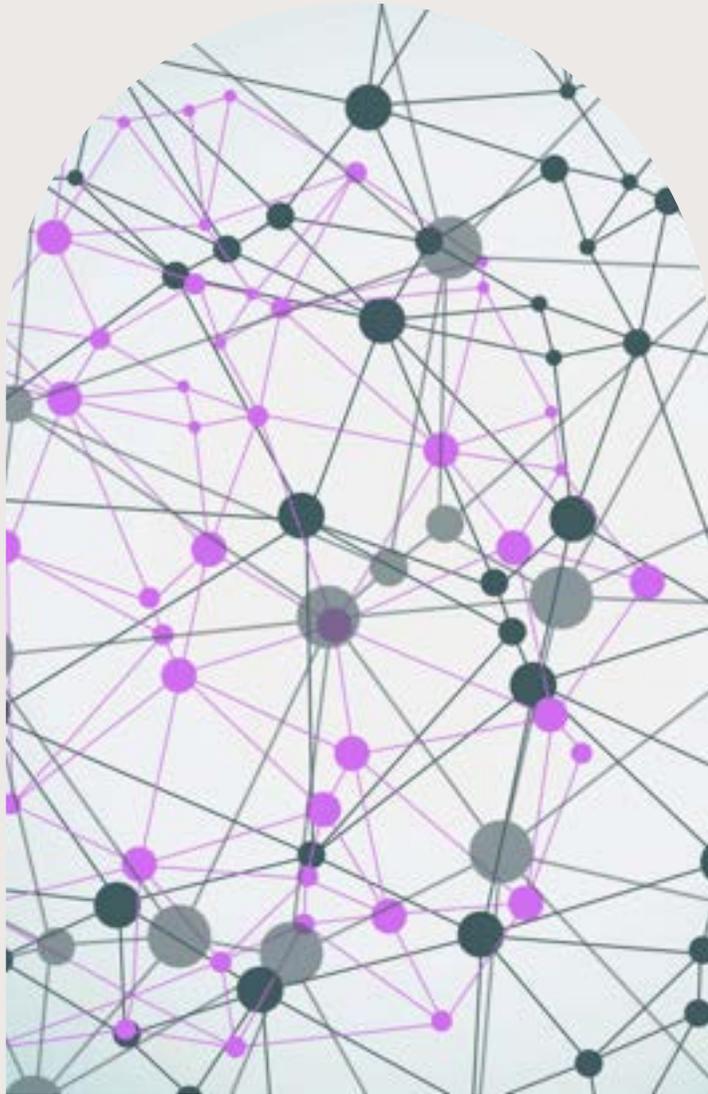
Does BERT Wanna Understand Wanna Contraction? 3

20 Hongjimun 2-gil, Jongno-gu, Seoul, 03016, Korea
+82-2-2287-5095, coh@smu.ac.kr

2023 한국영어학학회 &
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DOES BERT
WANNA
UNDERSTAND
WANNA
CONTRACTION?

Kang San Noh (Korea University)
Sanghoun Song (Korea University)
Eunjeong Oh (Sangmyung University)



CONTENTS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Background
3. Experiment Design
4. Results
5. Discussion

INTRODUCTION

What The Present Study Is About

→ Testing whether language models capture grammatical constraints of *wanna* contraction

If Language Models Succeed...

→ They capture **non-linear** and **hierarchical** characteristics of natural languages.

THEORETICAL BACKGROUND

Wanna Contraction

Wanna contraction occurs when the English verb *want* and the following infinitival marker *to* are reduced into *wanna*.

- (1) a. Who do you want to kiss?
b. Who do you wanna kiss?

(Postal and Pullum 1982)

THEORETICAL BACKGROUND

What Is Interesting...

Wanna contraction is not always allowed.

- (2) a. Who do you want to kiss you?
b. *Who do you wanna kiss you?

(Postal and Pullum 1982)

Traditional derivational approaches claim that it is a *wh*-trace which blocks *wanna* contraction (Lightfoot 1976; Chomsky et al., 1977).

(3) a. Do you want *who* to kiss you?

b. *Who* *i* do you want *t* *i* to kiss you?



c. **Who* do you wanna kiss you?

In non-subject questions, *wanna* contraction is **licit**.

However, in subject questions, *wanna* contraction is **disallowed**.

(4) a. Do you want to meet *who*?

b. *Who i* do you want to meet *t i* ?

(non-subject question)



(5) a. Do you want *who* to wait?

b. *Who i* do you want *t i* to wait?

(subject question)



EXPERIMENT DESIGN

Research Questions

- Q1: Can language models detect violations of *wanna* contraction as native English speakers do?
- Q2: Do types or parameters of language models matter in processing *wanna* contraction?

EXPERIMENT DESIGN

2x2 Table Design

Based on the experiment design by Zukowski and Larsen (2011)

	No Contraction	Contraction
Non-Subject Question	Who do you want to meet at the dorm?	Who do you wanna meet at the dorm?
Subject Question	Who do you want to sleep at the dorm?	*Who do you wanna sleep at the dorm?

Dataset

Datasets A/B/C (800 sentences per each dataset → 2,400 sentences in total)

Dataset	Conditions		Sentence
	Contraction	Question Type	
A	-	Non-subject	Who do you want to meet at the dorm?
	-	Subject	Who do you want to wait at the dorm?
	+	Non-subject	Who do you wanna meet at the dorm?
	+	Subject	*Who do you wanna wait at the dorm?
B	-	Non-subject	Who do you think your roommates want to meet at the dorm?
	-	Subject	Who do you think your roommates want to wait at the dorm?
	+	Non-subject	Who do you think your roommates wanna meet at the dorm?
	+	Subject	*Who do you think your roommates wanna wait at the dorm?
C	-	Non-subject	Who do you want to meet the students with ?
	-	Subject	Who do you want to meet the students today ?
	+	Non-subject	Who do you wanna meet the students with ?
	+	Subject	*Who do you wanna meet the students today ?

EXPERIMENT DESIGN

Language Models

BERT (Devlin et al., 2018)

RoBERTa (Liu et al., 2019)

Models	Layers	Hidden Size	Attention Heads	Parameters
BERT-base-uncased	12	768	12	110M
BERT-large-uncased	24	1024	16	340M
RoBERTa-base	12	768	12	125M
RoBERTa-large	24	1024	16	355M

EXPERIMENT DESIGN

Measuring Surprisal

Surprisal is a complexity metric which quantifies how difficult it is to process a given linguistic expression (Hale 2016).

→ Surprisal values are higher for events with low probabilities.

EXPERIMENT DESIGN

Do Language Models Know ‘Anything’ about *Wanna*?

There is a need for a base experiment...

“Who do you wanna [MASK] at the party?”

[Choice A: *meet*] or [Choice B: *meeting*]

EXPERIMENT DESIGN

At least, language models do know the basics of *wanna...*

Model	<i>t</i> score	<i>p</i> value
BERT-base-uncased	$t = -40.106$	$< 2.2e-16$ (***)
BERT-large-uncased	$t = -44.58$	$< 2.2e-16$ (***)
RoBERTa-base	$t = -55.827$	$< 2.2e-16$ (***)
RoBERTa-large	$t = -59.052$	$< 2.2e-16$ (***)

Prediction 1

- a. Who do you want to meet at the dorm? [no contraction, non-subject]
- b. Who do you want to sleep at the dorm? [no contraction, subject]

“Who do you want to [MASK] at the dorm?”

Prediction: $S(a) \approx S(b)$

→ Because both (a) and (b) are grammatically sound.

Prediction 2

- c. Who do you wanna meet at the dorm? [contraction, non-subject]
- d. *Who do you wanna sleep at the dorm? [contraction, subject]

“Who do you wanna [MASK] at the dorm?”

Prediction: $S(c) < S(d)$

→ Because only (c) is grammatically sound.

RESULTS

In summary...

Q1: Can language models detect violations of *wanna* contraction as native English speakers do?

A1: Overall, both language models failed to successfully capture syntactic constraints of *wanna* contr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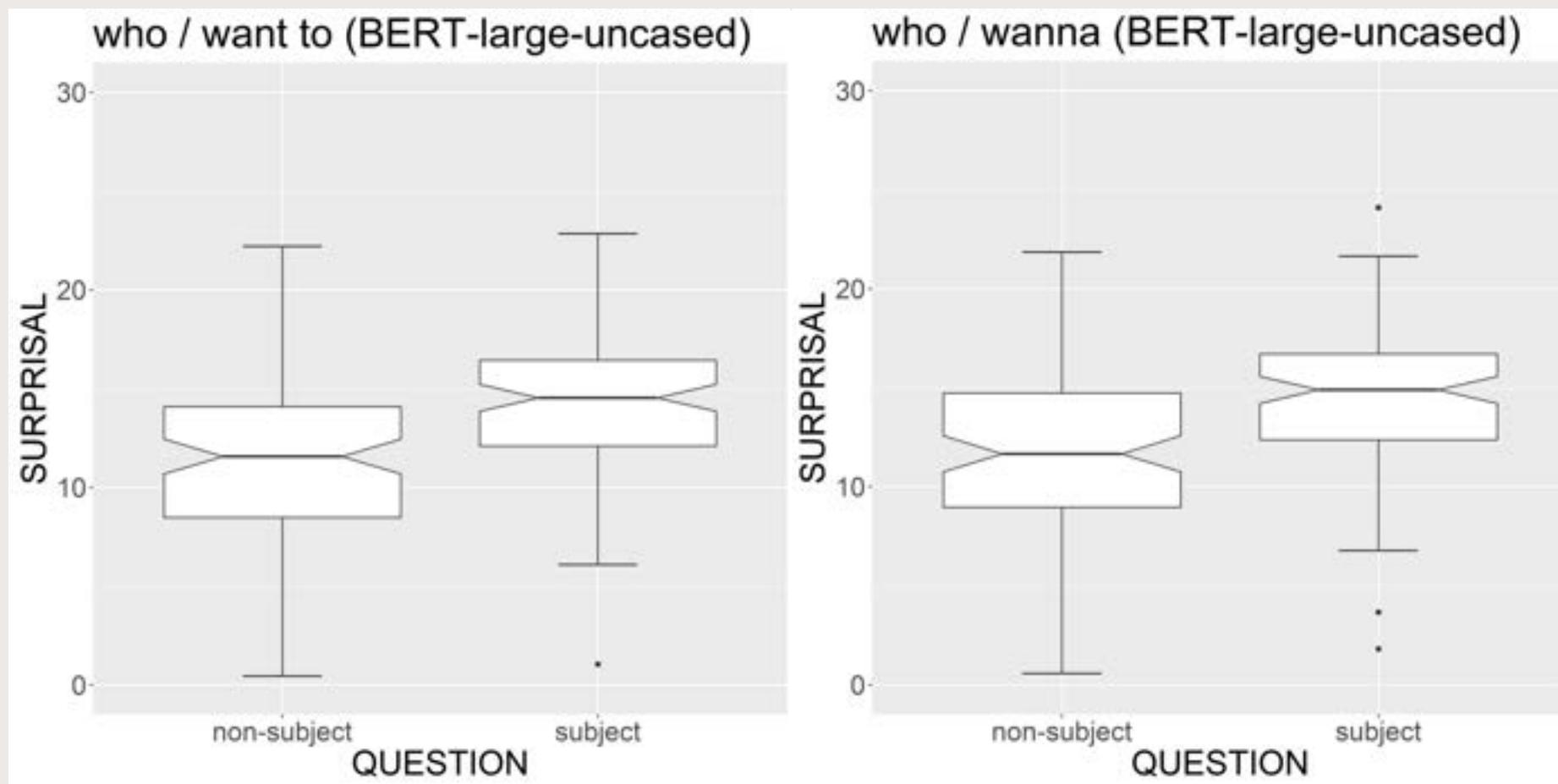
Q2: Do types or parameters of language models matter in processing *wanna* contraction?

A2: Only large models were occasionally in line with our prediction.

Surprisal of dataset A (BERT-base-uncased)



Surprisal of dataset A (BERT-large-unca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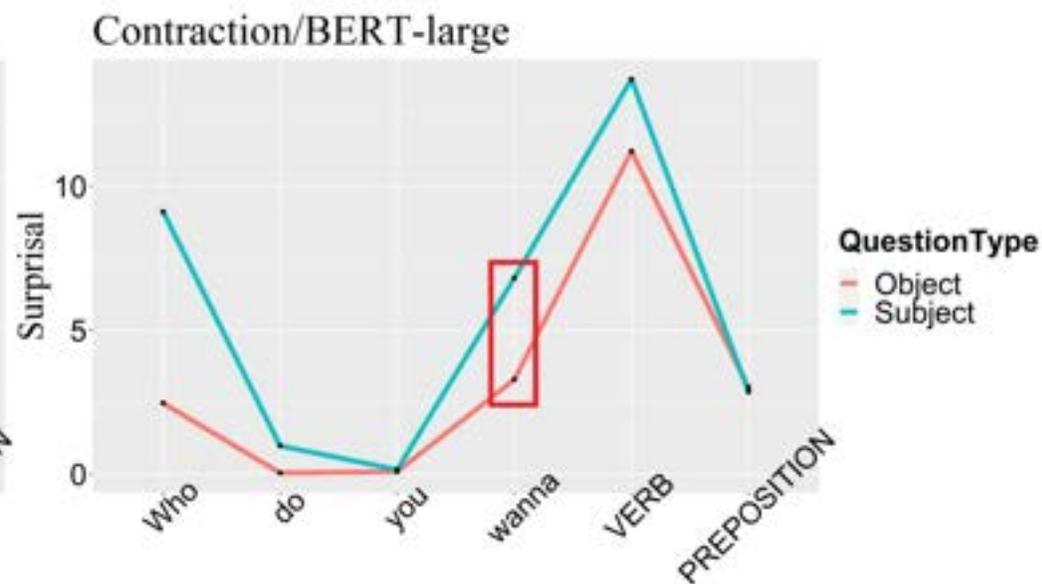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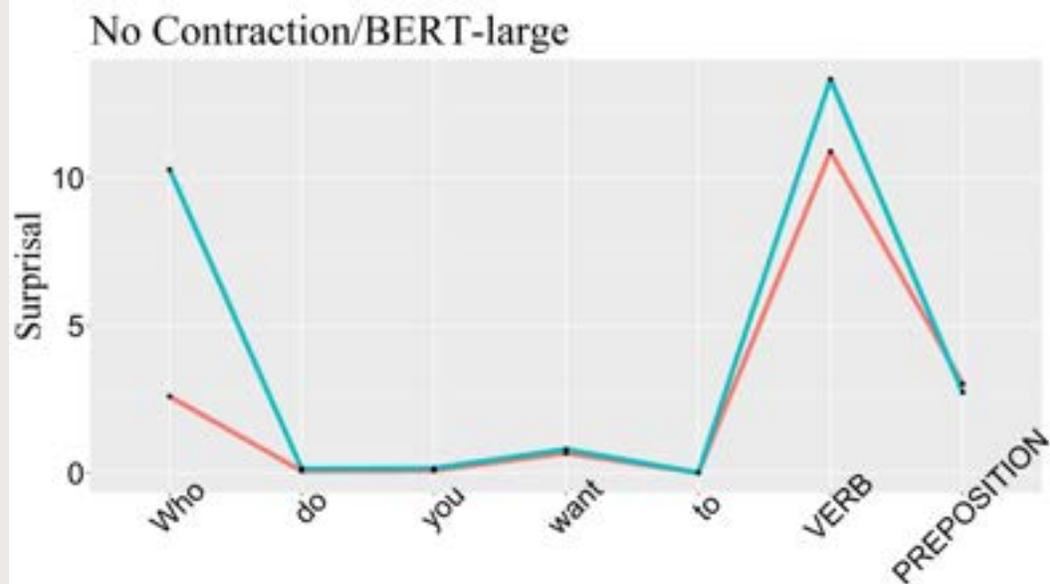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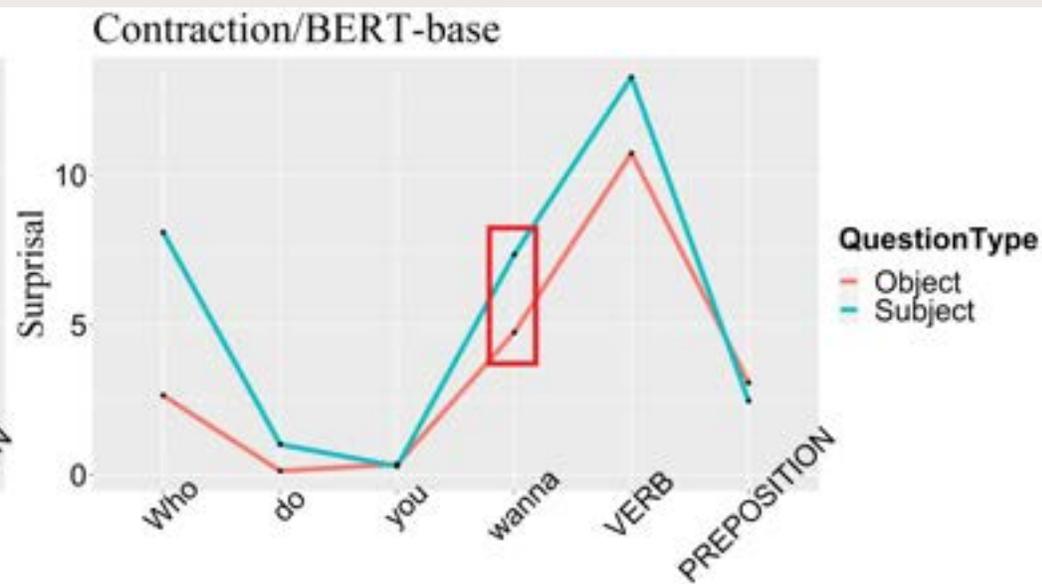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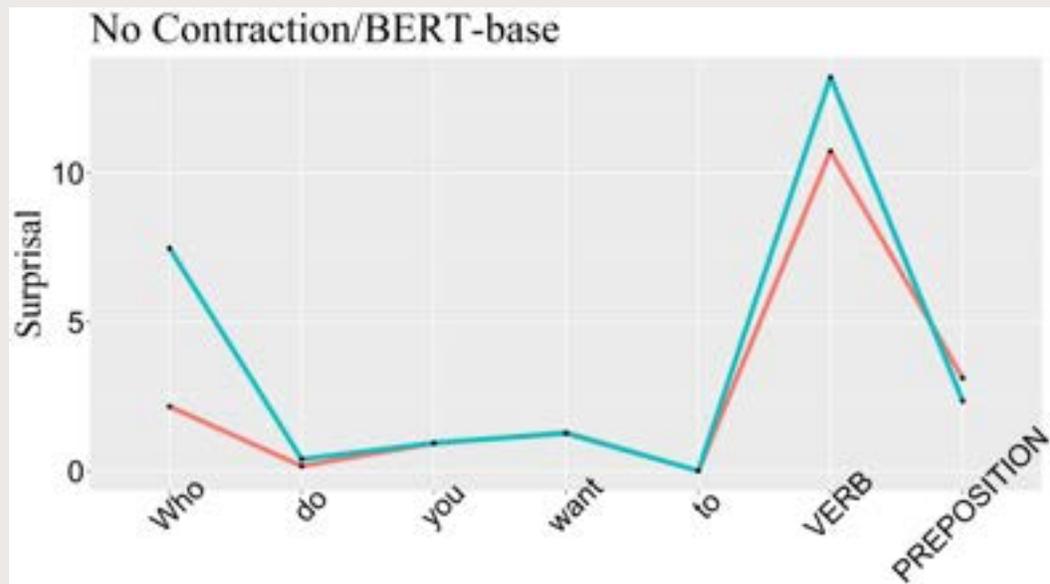
DISCUSSION

Subject-Object Asymmetry

Object extraction is more preferred than subject extraction by both L1 and L2 learners.

- (6) a. Who do you think Mary invited _____ to the party? [Object Extraction]
b. Who do you think _____ invited Bill to the party? [Subject Extraction]

(Stromswold 1995: 40)



DISCUSSION

Do Language Models *Wanna* Understand *Wanna* Contraction?

For the present, BERT and RoBERTa models seem to fail to capture grammatical constraints of *wanna* contraction.

Instead, the current results show that the models could be affected by subject-object asymmetry.

REFERENCES

- Chomsky, N., Culicover, P. W., Wasow, T., & Akmajian, A. 1977. On *wh*-movement. 1977, 65.
- Devlin, J., Chang, M. W., Lee, K., & Toutanova, K. 2018. Ber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arXiv preprint arXiv:1810.04805.
- Hale, J. 2016. Information-theoretical complexity metrics. *Language and Linguistics Compass*, 10(9), 397-412.
- Lightfoot, D. 1976. Trace theory and twice-moved NPs. *Linguistic Inquiry*, 7(4), 559-582.
- Liu, Y., Ott, M., Goyal, N., Du, J., Joshi, M., Chen, D., ... & Stoyanov, V. 2019. Roberta: A robustly optimized bert pretraining approach. arXiv preprint arXiv:1907.11692.
- Stromswold, K. 1995. The acquisition of subject and object *wh*-questions. *Language Acquisition*, 4(1-2), 5-48.
- Zukowski, A., & Larsen, J. 2011. *Wanna* contraction in children: Retesting and revising the developmental facts. *Language Acquisition*, 18(4), 211-241.

THANK YOU FOR LISTENING

Session 5 <전산/코퍼스언어학> 사회: 이영희(아주대)

비원어민의 영어 학술논문에 나타난 언어적 변화 연구

발표: 박혜선(계명대)

토론: 이영희(아주대)

비원어민의 영어 학술논문에 나타난 언어적 변화 연구

박 혜 선(계명대학교)

학문영어의 시대적 변화 양상을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학문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격식체 언어 구조가 증가하며, 많은 양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압축적이고 간결한 구조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Biber & Gray, 2010, 2016; Chang & Swales, 1999; Hyland & Jiang, 2017; Zhou, Gao & Lu, 2023).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의 학문영어에서 관찰된 이러한 변화가 비원어민의 영어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비원어민의 학문영어의 시대적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1955년부터 2012년까지 학술지 <영어영문학>에 발표된 언어학 분야의 논문 총 68편을 선택하여 코퍼스를 구축하고 언어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시대별 변화를 보기 위해 1955년부터 1989년까지 발표된 29편의 논문(109,390 단어)을 전기, 1990년부터 2012년 사이의 논문 39편(166,559 단어)을 후기로 나누었다. 시대의 구분은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수가 급속히 증가한 1990년대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LancBox6.0(Brezina, Weill-Tessier & McEnery, 2020), MAT(Nini, 2019), TAALES(Kyle, Crossley & Berger, 2018), TAALED(Kyle, Crossley & Jarvis, 2021)를 활용하였다.

비격식체의 특징은 Chang과 Swales(1999)가 비격식체의 언어적 특징으로 제시한 것 중 3개(1인칭 대명사, 지시대명사, 문두 접속사)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고 또한 수동태의 빈도 변화도 조사하였다. 압축적인 구조의 사용을 보기 위해 명사화빈도, 어휘 밀도(전체 어휘 중 내용어 빈도), 어휘 복잡성(추상성, 습득연령) 및 TTR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격식체의 특징인 1인칭 대명사와 문두부사의 사용빈도는 전기의 논문에 비해 후기 논문에서 감소하고 수동태의 사용은 증가하여 격식체의 특징이 오히려 증가함을 보였다. 내용어 사용과 관련된 어휘 밀도, 명사화, 저빈도 및 추상적 어휘의 사용 등 텍스트의 압축성 및 복잡성과 관련된 지표는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2 박혜선

비격식체로의 변화 양상이 국내 학자들의 논문에서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규범적 글쓰기 교육의 영향과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작성한 논문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추후 다양한 분야의 비원어민의 학술 논문을 분석하여 학문 분야의 특성과 학문영어의 시대적 변화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ey words: academic English, non-native English, diachronic change, informality, complexity

참고 문헌

- Biber, D., and B. Gray. 2010. Challenging Stereotypes about Academic Writing: Complexity, Elaboration, Explicitness.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9.1, 2-20.
- Biber, D., and B. Gray. 2016. *Grammatical Complexity in Academic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zina, V., P. Weill-Tessier, P., and A. McEnery. 2020. #LancsBox v. 5.x. [software]. Available at: <http://corpora.lancs.ac.uk/lancsbox>.
- Chang, Y., and J. Swales. 1999. Informal Elements in English Academic Writing: Threats or Opportunities for Advanced Non-native Speakers? In C.N. Candlin & K. Hyland (eds.), *Writing: Texts, Processes, and Practices* (pp. 145-167). London: Longman.
- Hyland, K., and F. Jiang. 2017. Is Academic Writing Becoming More Informal?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45, 40-51.
- Kyle, K., S. A. Crossley, and C. Berger. 2018. The Tool for the Analysis of Lexical Sophistication (TAALES): Version 2.0. *Behavior Research Methods* 50.3, 1030-1046. <https://doi.org/10.3758/s13428-017-0924-4>.
- Kyle, K., S. A. Crossley, and S. Jarvis. 2021. Assessing the Validity of Lexical Diversity Using Direct Judgements. *Language Assessment Quarterly* 18.2, 154-170. <https://doi.org/10.1080/15434303.2020.1844205>.
- Nini, A. 2019.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Tagger. In T. Berber Sardinha & M. Veirano Pinto (eds), *Multi-Dimensional Analysis: Research Methods and Current Issues* (pp. 67-94).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Zhou, X., Y. Gao, and X. Lu. 2023. Lexical Complexity Changes in 100 Years' Academic Writing: Evidence from *Nature* Biology Letters.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64. <https://doi.org/10.1016/j.jeap.2023.101262>.

박혜선
정교수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053-580-5091 parkhy@kmu.ac.kr

Session 6 <인지언어학> 사회:김정수(인천대)

한국어 직유 표현의 유형 및 특성 연구

발표: 여현정(영남대)

토론: 송현주(경북대)

한국어 직유 표현의 유형 및 특성 연구

여 현 정 (영남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직유 표현을 형식 및 기능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분류별 직유 표현의 특성을 인지언어학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데에 있다.

‘처럼’, ‘-같’, ‘-듯(이)’ 등의 직유 표현은 편재해있으나, 은유나 환유에 비해 연구 대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듯하다. 국내의 연구에서, 은유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직유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또한 김해연(2019: 767)에서 지적되었듯이, 직유는 은유의 일부분으로 취급되거나 등한시 되어 왔다.¹

본 연구에서는 “직유와 은유 간의 주된 한 가지 구분은 청자에게 제공된 인지적 단서에 있다.” 는 Moder(2010: 318)의 논의에 주목하여,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 직유 표현의 특성을

1 직유 표현에 출현하는 ‘-같’, ‘처럼’ 등의 표현은 언어학 연구에서 비교 구문 연구나, 일부 비교 표현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비교 구문 연구로는 김승곤(1987), 김정대(1993), 하길중(1999) 등이 있으며, ‘-같’, ‘처럼’, ‘-만큼’ 등의 일부 비교 표현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로는 정인수(1999), 나은미(2000), 오경숙(2004, 2005), 임채훈(2002), 김선영(2015) 등이 있다.

이러한 논의에 비해, 직유 표현을 중심으로 논의한 연구로는 하길중(2003a, 2003b), Kim(2019), 김해연(2019) 등에 그친다. 하길중(2003a, 2003b)에서는 직유 표현의 유형을 형태, 의미에 따라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Kim(2019), 김해연(2019)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직유 표현의 기능을 밝히고, 직유가 인지적 기제(cognitive mechanism)임을 논의하였다.

논의하고자 한다.

Moder(2008: 304)에서는 “최근의 연구에서 은유와 직유를 해석하기 위한 인지 과정을 신호(cue)하는 언어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형식과 기능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주로 직관에 기초한다” 라고 언급하며, 직유의 유형을 ‘좁은 범위의 직유(narrow scope similes)’ 와 ‘넓은 범위의 직유(broad scope similes)’ 로 분류하고, 직유의 유형별 특성을 논의하였다.² ‘좁은 범위의 직유’ 와 ‘넓은 범위의 직유’ 유형은 각각 ‘은유적인 직유’ 와 ‘비은유적인 직유’ 로 세분하여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Moder(2008)의 분류를 기반으로, ‘처럼’, ‘-같’, ‘-듯(이)’ 의 직유 표현에 한정하여 구어 및 문어 자료를 중심으로 살피고,³ 직유 표현이 출현한 예문을 바탕으로 형식과 기능에 근거하여 각 분류별 직유의 특성을 검토할 것이다.

2 근원 영역에서 목표 영역으로의 사상이 만들어지는 속성 또는 차원의 명시적인 언어적 설명에 의해 해석이 제한되는 것을 좁은 범위의 직유로 분류한다(Moder 2008: 312). 한편, 넓은 범위의 직유에서 주요한 특성은 직유 진술 자체가 청자/독자가 프레임의 선택된 양상을 식별하도록 할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Dancygier and Sweetser 2014: 145).

3 직유 표현을 ‘처럼’, ‘-같’, ‘-듯(이)’ 에 한정하여 살피는 것은 이들이 가장 빈번히 출현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연지은(2010: 45-51)에 따르면, 구어 및 문어 말뭉치를 토대로 직유 표현의 전체 출현 빈도를 살핀 결과, ‘처럼’, ‘같-’, ‘듯이’, ‘듯’ 이 빈번히 출현하였으며, 이러한 표현들에 비해 ‘양’, ‘마냥’ 등은 출현 빈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문헌

- 김선영(2015), 비유적 의미 분석을 통한 어휘의 의미 확장 가능성, 언어와 문화 11(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03-129.
- 김승곤(1987), 견썹월 연구, 한글 196, 한글학회.
- 김정대(1993), 한국어 비교구문의 통사론,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해연(2019), ‘같은’ 수식 명사구 구문에 나타난 직유 분석, 언어 44(4), 한국언어학회, 765-784.
- 나은미(2000), 현대국어 대비조사의 의미 연구: ‘-만큼, -처럼, -같이, -대로’ 를 대상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지은(2010), 한국어 교육을 위한 직유 표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숙(2004), ‘만큼’ 비교구문과 ‘처럼’ 비교구문의 이질성, 한국어의미학 14, 197-221, 한국어의미학회.
- 오경숙(2005), 비교구문과 비유 의미, 시학과 언어학 10, , 311-329, 시학과언어학회.
- 임채훈(2002), 국어 비유구문의 의미 연구 - ‘처럼’, ‘만큼’ 을 중심으로 -, 한국어의미학 10, 209-226, 한국어의미학회.
- 정인수(1999), 국어 동등 비교 형용사구문의 의미연구- ‘만큼’ 구문과 ‘처럼’ 구문을 중심으로-, 현대문법연구 18, 147-166, 현대문법학회.
- 하길중(1999), 현대 한국어 비교구문 연구, 박이정.
- 하길중(2003a), 직유 표현의 유형 -형태상의 분류-, 한글 261,

- 149-171, 한글학회.
- 하길중(2003b), 직유 표현의 유형 -의미에 따른 분류-, 이중언어학 23, 307-326, 이중언어학회.
- Dancygier, Barbara., and Eve Sweetser. (2014), *Figurative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Haeyeon. (2019), A feature-based analysis of similes and metaphors in metaphor theory, 담화와인지 26(1), 담화인지언어학회, 21-42.
- Moder, Carol. (2008), It's like making a soup: Metaphors and similes in spoken news discourse. In Andrea Tyler, Yiyoun Kim, and Mari Takada (eds.), *Language in the context of use: discourse and cognitive approaches to language*, Berlin: Mouton de Gruyter, 301-320.
- Moder, Carol. (2010), Two puzzle pieces: Fitting discourse context and constructions into cognitive metaphor theory, *English Text Construction* 3(2), 294-320.
- Sullivan, Karen. (2007), *Grammar in Metaphor: A construction grammar account of metaphoric language*, Ph.D. disserta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여현정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객원교수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82-10-8520-2093
전자우편: yth2093@naver.com

Session 6 <인지언어학> 사회:김정수(인천대)

한중 광고 담화에 나타난 은유 대조 분석

발표: 강윤희, 쑤시아(경북대)

토론: 나익주(전남대)

한중 광고 담화에 나타난 은유 대조 분석

강 율 희 · 수 시 아

(경북대학교)

<한국어초록>

본 연구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식품 광고 담화에 나타난 은유 표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 인지적으로 어떤 공유가 이루어지고, 한국과 중국의 은유 표현에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은 무엇이며, 각국의 어떤 문화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23년의 식품 광고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최근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상 광고를 분석하되, 시각·청각적인 분석이 아닌 언어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근원영역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과 중국 광고 담화에 나타난 은유는 ‘사람 은유, 자연 은유, 사물 은유, 방향 은유’가 있었으며, 제품을 ‘추상화하는 은유’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원영역의 기본적인 하위 구성요소 등에서 양국의 은유 표현에 차이를 발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다른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국과 중국의 광고 담화에 나타난 은유 표현을 통해 은유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국이 같은 은유의 기저를 이룰지라도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그 개념적 은유를 이해한다고 할 수 없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 제 어: 한중 광고 담화, 식품, 인지언어학, 비유적 표현, 개념적 은유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식품¹⁾ 광고 담화에 나타난 은유 표현의 특성을 살피는 것이다.

(1) ㄱ. 아이스크림 <蒙牛雪糕>

一口大自然(자연의 한 입)

ㄴ. 캔디 <리콜라(Ricola)>

스위스 알프스 허브가 이 안에

위의 (1ㄱ)은 중국의 ‘아이스크림’ 광고이고, (1ㄴ)은 한국의 ‘사탕’ 광고이다. 두 제품은 입에 넣으면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식품으로 한국 광고와 중국 광고 모두 자연을 통해 제품의 맛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즉, ‘자연’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품에 적용하였다. 이는 은유²⁾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은유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우리의 언어생활에 스며들어 있는데, 특히 광고는 그 은유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은유 표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광고 담화에 나타난 은유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은유가 언어적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문제이고, 은유란 하나의 개념 영역을 또 다른 하나의 개념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본다. 즉, 은유를 단순히 언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고나 개념의 차원으로 보고 우리의 사고 과정이 대부분 은유적이라는 개념적 은유 이론(conceptual metaphor

1) 식품은 인류의 생존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품보다 더 한국인과 중국인의 삶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이에 많은 제품 중에서 식품 광고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2) 은유는 상징의 한 유형으로 ‘어떤 것(B)이 아닌 것을 어떤 것(B)이다’라고 말한다. 즉, 은유는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동일시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이 둘이 실제로 같기 때문이 아니라 비교나 상징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Raymond W. Gibbs, 2017: vi).

theory)에 바탕을 두고서 은유 표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³⁾ 광고에서 은유 기제에 대한 논의는 담화 상황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인지적으로 어떠한 공유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의 보편성과 상대성의 양면을 아우르고 있다.⁴⁾ 즉, 사람은 종 특유의 신체를 공유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신체적 경험과 제약이 언어의 차이점을 초월하여 언어의 보편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며, 한편으로 언어는 문화적 맥락과 깊은 관련성을 맺으므로 언어 상대성 또는 특정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임지룡, 2019: 497).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한국과 중국 광고의 은유 표현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 한국의 은유 표현에 어떤 각국의 문화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요컨대,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광고 담화에 나타난 은유를 살펴 한국인과 중국인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며, 한국과 중국의 은유 표현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문화의 특성을 논의해 보는 동시에 양국을 이해하는 데에 어떤 은유적 기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연구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며, 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광고 담화에 나타난 은유 유형과 사용 양상을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3) 인지언어학자들은 은유란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 영역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 사고의 과정이며 언어 전반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언어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즉, 은유란 경험의 한 영역(근원영역: source domain)으로부터 다른 경험 영역(목표영역: target domain)으로의 인지적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레이코프와 존슨은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로 칭하였다(임지룡 외, 2019: 63-64 참조).

4) 19세기에 흠볼트는 ‘언어·사고·문화’는 분리될 수 없는 통일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 반면, 20세기의 소쉬르는 언어와 문화를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단절을 복원시켜 언어와 문화 간의 다리를 놓은 것이 인지언어학이다(임지룡, 2019: 497 재인용).

2. 선행 연구

인지언어학의 발전과 더불어 광고 맥락에서의 은유 역시 20세기 말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여 21세기 이후 더욱 대중화되었다.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개념적 은유’에 집중하여 광고에 나타난 은유 표현을 분석한 연구로는 이연정(2011), 박원호(2018)를 들 수 있다. 이연정(2011)은 TV 상업 광고를 대상으로 광고 언어에 나타난 은유 표현을 5가지 유형⁵⁾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광고에 나타난 은유 표현을 활용해서 한국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0년 11월 20일~11월 30일까지 공중파 3사와 케이블 TV 광고를 통해 수집한 광고 텍스트를 토대로 은유 표현을 분석하여, 최근의 양상을 살펴볼 수 없는 것이 아쉽다.

박원호(2018)는 은유 기제에 핵심이 되는 ‘목표영역’과 ‘근원영역’을 3가지 유형⁶⁾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갈래로 은유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이 함축 의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함축적인 광고에서의 은유 사용이 더욱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화자의 전략이라고 보고 함축적 광고에서는 그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은유 기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분석 대상과 범위를 밝히지 않았고, 언어적 은유 광고보다는 시각적 은유 광고에 더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과 중국의 광고에 나타난 은유 표현 비교 연구로는 이선희(2014), 이선희(2015), 정성월(2023), QIU YUNHONG(2016), SHI XUANHE(2021)를 들 수 있다. 이선희(2014), 이선희(2015)는 한중 광고에 나타나는 공감각적 전이⁷⁾ 양상을 분석

5) 광고 제품의 의인화, 광고 제품의 동/생물화, 광고 제품의 추상화, 그리고 광고 제품의 사물화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6) 목표영역과 근원영역이 명시적인 광고, 목표영역과 근원영역 중 하나만 함축적인 광고, 목표영역과 근원영역이 모두 함축적으로 드러나는 광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7) 인지언어학의 관점으로 공감각적 전이는 하나의 감각영역에서 다른 감각의

한 연구로, 먼저 이선희(2014)에서는 식품 광고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선희(2015)에서는 기존의 식품 광고 분석에 추가하여 정보통신, 전기전자, 생활용품, 화장품, 패션 5가지 업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업종별 한국과 중국의 공감각적 전이의 출현 양상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그러나 두 연구는 모두 감각어만을 중심으로 은유를 살펴본 연구로 분석 대상이 제한적인 것과 분석 대상의 광고가 각각 2013년 5월부터 2013년 12월, 2012년 5월부터 2012년 12월의 광고로 최근의 양상을 살펴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

정성월(2023)은 한중 영상 광고에 나타나는 언어적, 청각적 그리고 시각적 양상들을 개념적 은유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고 대조하였다. 핸드폰, 세탁기, 자동차, 맥주, 커피, 화장품, 식품, 운동 등의 업종별 광고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언어적 표현보다는 청각, 시각, 즉 감각적 체계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영상 스토리텔링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는 연구로 언어적 양상을 연구하는 본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QIU YUNHONG(2016), SHI XUANHE(2021)는 위의 연구들이 업종별로 여러 제품을 분석한 것과 달리 각각 공익광고와 화장품 광고로 연구의 범주를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QIU YUNHONG(2017)는 한국과 중국 공익광고에 나타난 은유적 언어 표현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개념적 은유 이론’으로 분석하고 양국 공익광고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는데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의 언어적 요소에 의존한, 인쇄 매체에서 나타난 공익광고를 연구 대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보다 더 언어학적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SHI XUANHE(2021)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발간된 《ELLE》 잡지를 중국과 한국 각 51권씩 선정하여, 화장품 광고를 중심으로, 광고 언어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들을 ‘개념적 은유’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이 두 연구는 모두 인쇄 매체를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은유들을 구조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지향적 은유로 나누어 설명했다.

영역으로 전이가 발생하는 공감각적 은유이다(이선희, 2015: 206).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이전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첫째, 분석 대상을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식품과 관련된 광고로 삼고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식품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선희(2014)에서는 감각어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2000년대 초반의 광고 자료를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영상 광고를 분석하여 최근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소비자들은 신문이나 잡지 같은 인쇄 매체보다는 유튜브나 TV 등의 영상 매체로 광고를 접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상 광고를 분석하되 자막과 내레이션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시각, 청각적인 분석이 아닌 언어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논쟁은 전쟁이다]와 같은 특별한 영역 횡단 사상이 미리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고 모든 문맥에서 간접적이고 불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표현을 분석하고 은유 표현을 확인하여 귀납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⁸⁾

3. 연구 절차 및 방법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과 중국 식품 광고 담화에 나타난 은유 표현들을 분석하여 이러한 은유적 언어 표현들에서 어떤 개념적 은유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근원영역을 중심으로 추출한다. 자료에 대한 분석

8) 언어에서 은유를 찾기 위한 방법론적 양상 중에 연역적 접근법과 귀납적 접근법이 있다. 연역적 접근법에서는 연구자들이 [논쟁은 전쟁이다]와 같은 관습적인 영역횡단 사상이 사고 속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런 다음 이 영역 횡단 사상과 관련이 있는 표현을 찾기 위해 언어를 조사한다. 반면에 귀납적 접근법에서 연구자들은 [논쟁은 전쟁이다]와 같은 특별한 영역횡단 사상이 미리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어떤 발화를 마주하고 특정한 언어 표현이 비교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언어 사용인지 파악한다 (Elena Semino, 2020: 127-1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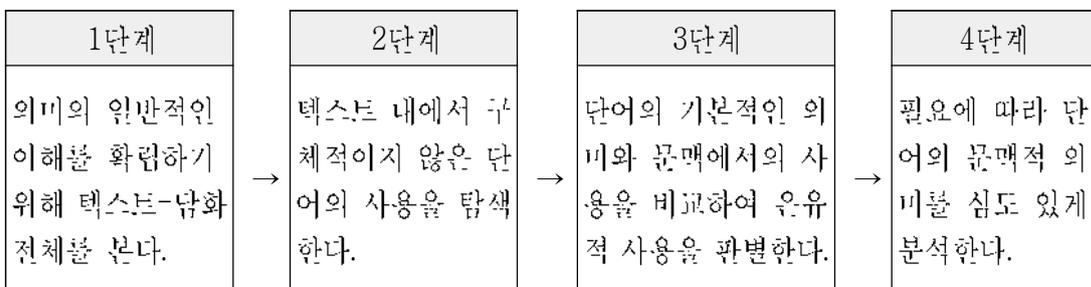
을 통해 한국과 중국 식품 광고 담화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 즉 한국과 중국 식품 광고에서 어떤 근원영역이 사용되는지, 근원영역의 어떤 구체적인 측면이 활용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식품 광고 담화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들을 유형별로 비교함으로써 개념적 은유의 실현 양상과 공통점 및 차이점을 찾는다.

3.1. 연구 대상

한국과 중국 광고는 주로 광고포털사이트인 TVCF⁹⁾를 통해 조사하고 수집하였다.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중파 TV 광고의 ‘식품/제과’ 분야의 광고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식품/제과’로는 ‘햄버거, 피자, 치킨, 스낵, 쿠키, 파이, 빵, 캔디, 초콜릿, 껌, 젤리, 아이스크림, 유아식, 유제품, 영양간식, 대용 식품, 면류, 조미, 소스, 장류, 농축산물, 가공물’ 등이 포함된다.

3.2. 은유 표현 추출 절차

본 연구의 은유 표현 추출 과정을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1]과 같다.



[그림1] 은유 표현 추출 과정¹⁰⁾

9) <http://www.tvcf.co.kr/>

10) Elena Semino 외(2020: 129-134)에서는 은유를 포착하고 설명하는 방법

우선, 식품 광고의 담화-텍스트 전체를 읽는다. 담화 속의 각 어휘의 경우 문맥에서 그 의미를 살펴야 하며, 어휘의 앞과 뒤에 무엇이 나오는지 고려해야 한다. 그런 후에 각 어휘가 주어진 문맥 외의 다른 문맥에서 기본적인 현대의 의미가 있는지 확인한다. 여기서 기본적인 의미는 구체적이며, 신체적 활동과 관련이 있고, 모호하다기보다는 더 정확한 특징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문맥적 의미가 기본 의미와 대조되지만 비교해서 이해되면 그 어휘 단위를 은유로 추출하는 것이다.

(2) ㄱ. Time is a thief.

ㄴ. key variable

예를 들어, (2ㄱ)의 영어 문장 ‘Time is a thief’에서 ‘thief’의 기본 의미는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사람’이지만 문장 내에서 ‘thief’의 의미는 ‘시간이 무언가를 빼앗아 간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므로, 기본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었으므로 은유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필요에 따라 문맥적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데 ‘thief’가 어떻게 시간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즉 시간이 우리의 생명, 기회, 추억 등을 서서히, 무심코 빼앗아 가는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시간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중요한 순간들을 지나치게 한다는 인식을 전달한다. 또한 다른 문장에서의 ‘thief’의 사용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 볼 수도 있다. (2ㄴ)의 경우 ‘key variable’에서 ‘key’의 기본 의미는 ‘문을 여는 도구(실체)’지만 문장 내에서 ‘key’의 의미는 ‘중요한(질)’이므로, 비유적인 표현이므로 은유로 판단된다. 즉, 단어, 개념, 지시물 간의 관계를 포함해서 언어 사용을 폭넓게 살핀다.

중 은유식별절차(Metaphor Identification Procedure; MIP)와 MIP의 변이형 은유식별절차 암스테르담대학 버전(Metaphor Identification Procedure Vrije Universiteit ; MIPVU)을 소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였다.

3.3. 분석 방법

위에서 밝힌 절차에 따라 은유 표현을 추출하고 은유 표현을 유형화한다. 추출된 은유 표현은 근원영역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17-1)은 목표영역인 ‘식품’을 근원영역인 ‘청정한 자연’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식품은 자연이다’라는 개념적 은유에 기반한 예로, ‘자연 은유’로 유형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은유 표현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은유 유형을 설정하고 각각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의 은유 표현을 비교하고자 한다.

4. 은유의 유형과 사용 양상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추출한 한국과 중국의 식품 광고 담화에 나타난 은유 표현을 근원영역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 결과 사용된 은유는 사람 은유, 자연 은유, 사물 은유, 방향 은유, 제품의 추상화로 분류되었다.

4.1. [사람] 은유

현재 식품 광고에 나타난 대표적인 은유는 ‘사람 은유’이다 즉, 식품을 사람에 비유한 광고로 [식품은 사람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로 분석되는 광고들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라는 근원영역을 사용하여 목표영역을 구조화하고 있는데 광고를 보고 듣는 대상인 소비자에게 있어 ‘사람’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즉, 광고 대상을 ‘사람’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친구처럼 친숙한 느낌을 주고,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좁히는 기능을 하게 된다. 다음 (37-1)은 광고 제품(목표영역)이 사람(근원영역)으로 전사된 광고 문구의 예이다.

(3) 가. 라면 <순하군 안성탕면>

NA: 강호동 그 앞에선 모두 순해진다. 사람도

강호동: 라면도. 순하군 안성탕면, 순한 게 참 맛있네.

나. 치킨 <교촌치킨>

자막: 천연 꿀 출전합니다, 달콤한 맛의 대표 선수로.

이것이 교촌의 천연 꿀 고집. 교촌 허니 시리즈.

다. 김치 <청송주왕산김치>

김치 인형: 나와 같이 새 시대를 열어 봅시다.

위생 끝판왕으로 김치의 왕이 될지어다.

르. 미역 <고흥미역>

NA: 고흥의 청정 바다, 이곳에서 고흥미역과 다시마가 자랍니다. 고흥미역과 다시마로 만든 건강한 밥상을 차려 보세요.

(3가)은 ‘순한 맛의 라면’을 설명하기 위해 ‘순해진 사람’에 비추어 이해하게 되는 예이다. (3나) 같은 경우도 사람 비유를 통해 개념화되었는데 ‘대표 선수’는 국가 단체를 대표하는 선수이며 어떤 다른 맛과 겨뤄도 이길 수 있다는 강인한 사람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또한 치킨의 소스로 천연 꿀을 ‘고집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갖는 성격의 특성으로 고집이 있는 사람으로 개념화함으로써 치킨의 ‘정직함, 강력함, 굳은 의지’ 등의 이미지를 심어 준다. (3다)도 제품을 사람으로 비유한 예이다. 특히 김치의 목표가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제품을 구체적으로는 왕에 비유하면서 같은 제품 내에서 최고의 위생, 최고의 품질을 추구한다는 이미지를 쉽게 전달하고 있다. (3르) 역시 사람을 근원영역으로 하여 목표영역인 미역을 전달하고 있는데 ‘건강한 밥상’이라는 표현을 통해 영양이 풍부하고 몸에 좋은 재료로 차려진 밥상을 사람의 건강한 상태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건강한’ 사람의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로 볼 수 있다.

(4) ㄱ. 옥수수 치즈 <北纬47 芝士玉米酪 速冻调制食品>

자막: 玉米粒(옥수수)

万年黑土孕育(만년 흑토땅이 낳아 기르는)

芝士(치즈)

奶香浓郁(길은 향기)

色泽金黄(황금빛의 색깔)

-18度冷冻贮存(-18도 냉동 보관)

ㄴ. 쌀 <金龙鱼大米 乳玉皇妃>

자막: 千年龙脉(천년의 용맥이)

孕育米之精华(쌀의 정수를 낳아 기르고)

以山为魂(산을 영혼으로 삼아)

以水为脉(물을 용맥으로 삼아)

乳玉皇妃(백옥황비¹¹⁾는)

香糯入魂(향기롭고 끈적끈적하여 영혼에 스며듭니다.)

ㄷ. 간장 <味达鲜酱油>

자막: 想把名厨请回家(유명한 셰프를 집으로 모시고 싶으시면)

就用味达美味极鲜(미달미간장을 사용하십시오)

(4ㄱ)은 옥수수 치즈 광고로 옥수수가 비옥한 흑토 지대에 자라는 것을 사람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한 표현이다. ‘비옥한 땅에서 생산된다’라는 표현 대신 ‘낳아 기른다’라는 표현을 써서 사람으로 개념화한 표현이다. 이는 사람의 ‘고귀함’ 등의 이미지로 고품질의 옥수수를 표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4ㄴ)은 쌀 광고로 벼가 자라는 곳을 용맥에 비유하고 사람이 태아를 임신하는 것처럼 좋은 땅이 양질의 쌀을 생산한다는 은유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양질의 쌀은 산을 영혼으로 하고 물을 맥으로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백옥황비(乳玉皇妃)’를 통해 제품에 황비의 ‘우아함’과 ‘고귀함’, 왕실의 ‘정통성’ 같은 이미지를 심어

11) 제품 이름.

주고 있다.¹²⁾ (4ㄷ)도 사람 비유로 특히 요리와 관련되어 간장을 ‘요리사’에 비유함으로써 전문가적 이미지, 즉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요컨대, 사람 은유는 한국 광고, 중국 광고에서 모두 폭넓게 사용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사람을 근원영역으로 사용함으로써 제품에 높은 기능성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광고에서는 사람의 ‘강인한’, ‘건강한’, ‘리더십 있는’ 이미지를, 중국의 광고는 사람의 ‘전문적인’, ‘고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4.2. [자연] 은유

다음은 식품을 자연에 비유한 광고로 [식품은 자연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로 분석되는 광고들이다.

(6) 사탕 <리콜라>

자막: 그럴 땐 숨 쉬세요. Ricola X 차은우

남: 목이 간지러운데 사람 많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사탕을 먹으며) 리콜라 스위스 알프스 허브가 이 안에
그럴 때 숨 쉬세요.

12) ‘사람 은유’가 적용된 한국 ‘쌀’ 광고는 중국 ‘쌀’ 광고와 달리 유머러스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Zoltán Kövecses(2015: 257)에서 지적하듯이 유머 표현에는 많은 환유, 은유, 혼성 같은 ‘비유적인’ 인지 장치가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래의 (5)에서 ‘밥맛’을 ‘인간의 태도’에 비유하였다. 불일치의 개념이 유머러스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여: (서양식 샌드위치를 준비한 남자에게) 너 진짜 밥맛이야.

남: 도대체 밥맛이 뭔데? 밥 짓기 전 미리 불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 입맛에 맞는 찰기. 지역 특산물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맛과 품질이 뛰어난 쌀. 오천 년을 이어온 밥맛의 역사. 고양의 맛. 가와지쌀.

여: (쌀로 지은 밥을 준비한 남자에게) 그래. 이 맛이야.

(6)은 사탕 제품을 스위스 알프스 허브로 비유하고 있다. 이는 제품의 상쾌한 효능을 알리기 위해 청정 지역의 자연물에 빗대고 있다. 자연을 이용한 은유는 건강해지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7) 아이스크림 <蒙牛雪糕>

자막: 一口大自然(자연의 한 입)

(7)도 자연으로 제품을 개념화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광고로 입으로 음미해야 하는 아이스크림을 자연에 비유하여 자연의 이미지가 갖는 ‘청정함, 신선함’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얻기 위해 자연으로 제품을 개념화하고 있다.

요컨대, 자연 은유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자연의 ‘신비로움’, ‘깨끗함’, ‘청정함’을 통해 지친 몸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기분을 상승시키는 추상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데에 효과가 있어 보인다.

4.3. [사물] 은유

다음은 목표영역을 ‘사물’로 사상한 광고 표현들이다. 즉, 추상적 개념을 기술하기 위해 구체적이거나 실제적인 물체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반영된 광고들이다.

(8) ㄱ. 치킨 <바른치킨>

자막: 바삭, 바삭, 바삭

NA: 바삭함에 중독되다.

NA: 바삭함이 남다른 치킨, 바른치킨

자막·NA: eat's 바삭!

ㄴ. 과자 <빼빼로>

자막: 뉴진스, 빼빼로로 말해요.

뉴진스: 오늘만큼은

뉴진스: 허니 뽀뽀로는 내가

뉴진스: 내가 책임진다.

NA(뽀뽀로): 이 말은 널 정말 아낀다는 뜻.

뉴진스: 우리 마음, 뽀뽀로로 말해요.

ㄷ. 라면 <안성탕면>

자막: 바지락, 제육, 파채

남: 이것저것 다 넣어 가며. 지금까지 쪽. 내 입에 안성
맞춤 40년. 역시 라면계의 도화지.

자막: 어떤 재료와도 안성맞춤.

(8ㄱ)은 ‘중독되다’라는 표현을 통해 치킨이라는 식품을 ‘마약’에 비유하여, 너무 맛있어서 바삭한 이 치킨 없이는 견디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 결국 찾게 될 것이라 것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8ㄴ)은 ‘뽀뽀로’를 단순히 과자가 아닌 마음을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편지’ 같은 도구로 비유하고 하고 있다. (8ㄷ)은 라면을 ‘도화지’에 비유하였다. 하얀 ‘도화지’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뭐든지 그려 넣어 새 작품을 완성할 수 있듯이, ‘도화지’ 같은 ‘라면’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재료를 넣어 끓이든지 그 재료의 맛과 어우러져 맛있는 라면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9) ㄱ. 초콜릿 <DOVE巧克力>

一口丝滑(실크 같은 매끄러움의 한 입)

融化小情绪(나쁜 기분을 슬슬 녹인다)

ㄴ. 뽀뽀로 <缤善>

看得见的美味(눈에 보이는 맛)

ㄷ. 치즈 <MILKANA>

听, 芝士的声音(들어 보세요, 치즈의 소리)

云朵般轻盈(구름처럼 가볍고)

芝香浓郁(참깨맛이 강해요.)

(9ㄱ)의 초콜릿 광고는 초콜릿의 부드러운 맛을 매끄러운 ‘실크’에 비유하고 있다. (9ㄴ)은 ‘보인다’라는 표현을 써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맛’이라는 감각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사물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ㄷ) 같은 경우는 소리가 없는 치즈를 소리가 나는 사물로 비유하였으며, 치즈를 ‘구름’에 비유하여 구름의 ‘몽실몽실한’, ‘폭신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요컨대, 사물 은유는 양국의 목표영역과 근원영역이 모두 비교적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중국의 광고에서 사용된 근원영역이 조금 더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편이었다. 양국의 이러한 사물 은유가 적용된 은유 표현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4.4. [방향] 은유

공간적 방향성은 사람들의 신체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 경험적으로 보면 즐거움, 행복 또는 좋음은 대개 위에 있고, 슬픔, 불행 또는 나쁨은 아래에 있다. 다음과 같은 방향 은유 표현들이 있다.

(10) ㄱ. 티라미수 <코만스>

(중략)

NA: 특별한 게 필요한 지금 **떠오르는** 건 바로 마스카포네 치즈의 신선한 재료들이 **떠오르는**, 이탈리아에서의 커피 한 잔이 **떠오르는**, 함께 먹고 싶은 고마운 사람이 **떠오르는**, 그런 마음을 알기에 정성껏 만들었어요. **떠올리고** 싶은 맛, 코만스. 나의 기분을 들뜨게 하는, 계속 **떠오르는** 맛

ㄴ. 치킨 <푸라닭치킨>

남: (치킨을 한입 물며) 치킨. **뚝고 나오는** 바삭함

(10ㄱ)은 디저트의 하나인 떠먹는 티라미수 제품 광고로 티라미수를 먹으면 ‘기억이 되살아난다’라는 표현 대신 ‘떠오르다’라는 표

현을 사용하였다. 떠오른다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것으로 위는 좋음을 나타내어 ‘맛있는 맛’을 ‘좋은 기억이 되살아나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10ㄴ)은 치킨을 씹었는데 바삭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안에서 밖으로 ‘뚫고 나오다’라는 방향 은유를 사용하였다. 이는 치킨 안에 숨겨진 맛을 드러내기 위해 안에서 밖으로의 공간적 방향을 이용한 은유라고 할 수 있다.

(11) 햄버거 <KFC汉堡>

芝士瀑布 치즈 폭포

升级来袭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맛이 기습한다

(11)은 햄버거 광고인데 곧 맛이 향상된 햄버거가 출시될 거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상향 지향을 나타내는 ‘升级(업그레이드된)’, 즉 ‘위’라는 공간 개념과 관련지어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방향 은유는 수직 방향(위/아래)과 수평 방향(앞/뒤, 오른쪽/왼쪽, 가까움/땀)에서 잘 드러나는데 양국의 광고에서는 수직 방향의 은유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4.5. 추상화

다음은 목표영역을 추상적인 용어로 개념화한 경우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개념인 목표영역이 쉬운 개념인 근원영역으로 개념화하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원래의 목표영역(광고 제품)을 더욱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상하는 방법이다. 즉, 목표영역이 명시적이고 근원영역이 함축적인 광고로 다음과 같다.

(12) ㄱ. 한우

아내: 기운 내. 승진 못 할 수도 있지.

남편: 웬 고기? 등심?

아내: 진심.

남편: 남편 힘내라는 와이프 진심.

자막: 한우는 진심입니다.

NA: 진심을 담다, 한우.

ㄴ. 호빵 <삼립호빵>

남: 오! 호빵 나왔네!

남: 호빵 반반 나눠 먹을 사람?

(중략)

남: 음~, 이게 겨울의 맛이지. 겨울의 맛, 삼립호빵.

ㄷ. 짜장라면 <오뚜기 짜슐랭>

남: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고?

풍미를 살렸으니까

복작복작하게

복작복작 풍미 명작, 오뚜기 짜슐랭.

ㄹ. 국산돼지고기 <한돈>

(중략)

자막: 맛있으면 돼지

건강하면 돼지

국내산이면 돼지

여: 아무튼 다 한돈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대하면 돼지

여: 대한민국 기대작, 한돈.

(12ㄱ)은 ‘한우’라는 목표영역을 ‘진심’이라는 더 추상적인 어휘로 근원영역을 표현하였다. (12ㄴ)은 ‘겨울의 맛’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식품을 하나의 맛, 즉 감각으로 비유하고 있다. (12ㄷ-ㄹ)은 각각 자장면을 ‘명작’, 돼지고기를 ‘기대작’, 즉 이름난 훌륭한 작품으로 비유한 것을 알 수 있다. (12)의 예는 모두 목표영역을 더욱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효과는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12ㄱ)의 ‘진심’이라는 표현으로 ‘한우’라는 제품이 다른 제품처럼 단순히 맛이 좋은 식품이라는 것을 부각하

기보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고객을 위해 ‘마음을 다한다’라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이미지를 더 보여 준다. (12ㄴ) 같은 경우도 ‘겨울의 맛’이라는 정의적 표현을 써서 겨울의 대표 식품 이미지를 ‘호빵’에 심어 주었다. (12ㄷ-ㄹ)은 ‘식품’을 ‘작품’으로 표현하면서 식품의 이미지를 상승시켰다.

(13) ㄱ. 껌 <益达口香糖>

自信笑容(자신감 넘치는 미소)

自然绽放(자연의 꽃)

ㄴ. 피자 <必胜客披萨 피자헛>

欢聚的味道(모임의 맛)

分享的味道(나눔의 맛)

阳光的味道(햇살의 맛)

年轻的味道(젊음의 맛)

(13ㄱ)은 ‘껌’이라는 단순 식품을 ‘미소’라는 추상적인 근원영역으로, (13ㄴ)도 ‘피자’라는 식품을 ‘모임, 나눔, 햇살, 젊음’이라는 표현을 써서 식품 광고가 추구하는 맛과 미학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은유는 ‘인지적 도구’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은유가 우리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해 주는 방식일 뿐 아니라, 사물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임을 뜻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식품 광고와 중국 식품의 광고 담화에 나타난 은유 표현 분석을 통해 양국의 사고하는 방식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우선, 빈번하게 사용되는 근원영역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 결과 양국의 은유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사람 은유를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광고에 나타난 은유 표현은 한국 광고에 나타난 은유 표현에 비해 더 명시적인 경향을 보였고, 그에 비해 한국 광고에 나타난 은유 표현은 중국 광고에 나타난 은유 표현에 비해 조금 더 함축적이고, 추상적인 편이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식품 광고 담화에 나타난 은유 표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 인지적으로 어떤 공유가 이루어지고, 한국과 중국의 은유 표현에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은 무엇이며, 각국의 어떤 문화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 2023년의 식품 광고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최근의 양상을 파악하고, 인쇄 매체보다는 영상 매체를 더 접하는 최근 소비자들을 경향에 따라 영상 광고를 분석하되, 시각·청각적인 분석이 아닌 언어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근원영역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 담화에 나타난 은유는 ‘사람 은유, 자연 은유, 사물 은유, 방향 은유’가 있었으며, 제품을 ‘추상화하는 은유’도 포착할 수 있었다. ‘사람 은유’는 가장 일반적인 은유인데 한국은 사람의 ‘강인함, 건강함’ 등이, 중국은 사람의 ‘전문성, 고귀함’ 등이 기본적인 하위 구성요소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자연 은유’는 양국 모두 자연의 ‘신비로움, 깨끗함, 청정함’ 등의 구성요소에 의해 자연이라는 근원영역이 생성된 것으로 보였으며, ‘사물 은유’는 양국 모두 목표영역을 ‘사물’로 사상한 은유로 목표영역과 근원영역이 모두 비교적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의미 해석이 용이했는데 특히 중국이 조금 더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식품의 근원영역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신체적 경험과 관련된 ‘방향 은유’는 양국 모두 기쁨, 행복, 좋음을 지향하는 ‘위’의 방향 관련 언어적 표현이 쓰였는데 이는 양국의 광고가 제품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목표영역을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의 식품 광고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다른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국과 중국의 광

고 담화에 나타난 은유 표현을 통해 은유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국이 같은 은유의 기저를 이룰지라도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그 개념적 은유를 이해한다고 할 수 없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양적 분석을 통한 유형별 사용 양상 분석은 남은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원호 (2018) 함축적 광고의 은유 의미 연구. 『문화와융합』 40(4): 811-846.
- 이선희 (2014) 한중 식품 광고에 나타난 공감각적 은유 양상. 『중국어문학』 65(0): 289-317.
- 이선희 (2015) 한중 광고에 나타난 공감각적 은유의 인지적 연구. 『중국어문학』 68(0): 205-242.
- 이연정 (2011) 廣告에 나타난 隱喻表現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活用方案 연구. 『어문연구』 39(3): 467-489.
- 임지룡 외 (2019) 『인지언어학 탐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임지룡 (2019) 『한국어 의미론』, 한국문화사
- 정성월 (2023) "한중 영상 광고에 대한 개념적 은유 비교".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Elena Semino, Zsófia Demjén(2020) 『The Routledge Handbook of Metaphor and Language』 (임지룡·김동환 옮김 (2020) 『은유 백과사전; 은유 탐구의 최신 방법론』, 한국문화사)
- QIU YUNHONG (2017) "한·중 공익광고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 양상에 대한 대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Raymond W. Gibbs Jr (2017) 『Metaphor Wars: Conceptual Metaphors in Human Life』 (나익주·김동환 옮김 (2022) 『메타포 워즈: 삶 속의 은유적 사유활동』, 커뮤니케이션북스)
- SHI XUANHE (2021) "한·중 화장품광고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 대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Zoltán Kövecses (2015) 『Where Metaphors Come From: Reconsidering Context in Metaphor』 (유석훈·김동환·나익주 옮김 (2020) 『은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은유 속 맥락의 역할』,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Session 6 <인지언어학> 사회:김정수(인천대)

**개념적 혼성의 입력공간 간 관계성에 대한
신고찰 - 동기화 이론을 중심으로 -**

발표: 김종진(한국외대)

토론: 권익수(한국외대)

Gilles Fauconnier & Mark Turner의 개념적 혼성 이론은 인간 사고에서 은유가 갖는 중요성과 은유 작용의 역동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지언어학 분야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개념적 은유 이론을 포괄하며, 개념적 은유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은유에 대해서도 설명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론의 의의가 있다.

한편, 본고에서는 입력공간 간의 사상이 유사성을 기반으로 은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유사성을 기반으로 은유적으로 연결되는 것 이외에도 입력공간 간의 관계성이 설정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하며, 동기화 이론과의 관계성 탐구를 통해 첫 발걸음을 때 보고자 한다.

입력공간 간의 관계를 은유적인 연결에만 한정했을 때, 입력공간으로 설정될 수 있는 범주는 극히 좁다고 할 수 있다. 유사성이 없는 내용 간의 혼성은 입력공간으로 표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중범위 혼성의 경우 유사성이 없거나 불일치하는 입력공간 간의 혼성을 설명하지만, 이러한 혼성은 제한적인 범위의 설명력만 가진다고 본다.

동기화 이론을 입력공간 간 결속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제로 본다면, 입력공간 간의 연결이 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동기화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의미가 결속되고 있다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고는 혼성이라고 하는 현상이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것보다 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탐구이며, 그간 개념적 혼성 이론의 입력공간이 은유적 관계로만 설명됨으로써 분석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초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차례

1. 서론
2. 입력공간 간 관계성의 문제
3. 동기화 이론과의 접점 모색
4. 적용의 예시
5. 결론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혼성의 입력공간 간 관계성에 대해서 새롭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개념적 혼성 이론에서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은유적으로 사상이 이루어진다. 입력공간 간의 공간횡단 사상은 입력공간 속의 대응요소들을 연결한다. 입력공간 간에는 부분적 일치가 있다. 이런 대응요소 연결에는 프레임 간의 연결과 프레임 내의 역할들 간의 연결, 동일성, 변형, 표상의 연결, 유추적 연결, 은유적 연결, 중추적 사상이 해당된다(G. Fauconnier · M. Turner 저, 김동환 · 최영호 역 2009).

개념적 혼성 이론에서는 입력공간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성, 은유 등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력공간으로 설정될 수 있는 범주는 극히 좁다고 할 수 있다. 입력공간 간 유사성을 발생시키지 않는 입력공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입력공간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접근법을 찾고자 동기화 이론과의 접점을 모색한다. 임지룡(2021)에서는 인지적 동기화가 ‘범주화’, ‘틀’, ‘정신공간’ 과 같이 지식에 접근하고 지식을 발달시키는 인간 능력과 ‘추론’, ‘혼성’, ‘사상’ 과 같이 지식에 대한 인지적 작용을 포함한다고 하며, ‘개념적 은유’ 와 ‘개념적 환유’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보았다.

‘혼성’, ‘사상’ 과 같은 인지적 작용을 동기화 이론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다면, 개념적 혼성의 입력공간 간 관계성 또한 동기화의 작용으로서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동기화 이론을 입력공간 간 결속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제로 본다면, 개념적 혼성의 입력공간 간의 연결이 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동기화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의미 결속되고 있다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는 혼성이라고 하는 현상이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것보다 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탐구이며, 그간 개념적 혼성 이론의 입력공간이 은유적 관계로만 설명됨으로써 분석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초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2. 입력공간 간 관계성의 문제

개념적 혼성의 입력공간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개념적 통합 연결망의 종류와 그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김동환(2012)에서는 개념적 통합 연결망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표1> 개념적 통합 연결망의 유형

연결망	입력공간	혼성공간
단순 연결망	하나의 입력공간만 프레임을 포함한다	혼성공간은 이 프레임에 의해 구조화된다
거울 연결망	두 입력공간은 동일한 프레임을 공유한다	혼성공간은 입력공간과 동일한 프레임에 의해 구조화된다
단일범위 연결망	두 입력공간은 서로 다른 프레임을 공유한다	혼성공간은 하나의 입력공간 프레임에 의해서만 구조화된다
이중범위 연결망	두 입력공간은 서로 다른 프레임을 공유한다	혼성공간은 두 개의 입력공간 프레임의 양상에 의해 구조화된다

이러한 개념적 통합 연결망의 형태 중 단순 연결망은 특정 관계만으로 구성된 조직 프레임을 갖는다. ‘샬리는 폴의 딸이다’ 에서 아버지, 딸과 같은 요소가 하나의 입력공간을 형성하고, 폴, 샬리와 같은 요소가 하나의 입력공간을 형성하여, 혼성공간에서 ‘샬리는 폴의 딸이다’ 를 형성한다.

거울 연결망의 입력공간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해야 한다. 1853년 노턴라이트호의 항해 기록을 깨기 위해, 1993년 도전한 그레이트아메리칸2호의 경우, 항해 시점이 다르지만 ‘항로’ 등의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혼성공간에서 ‘배 경주’ 라는 혼성이 발생한다.

단일범위 연결망의 경우 혼성공간의 구조가 한 입력공간에서 도출된다. 이는 두 입력공간은 개념적 은유 이론에서 말하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과 대

응한다. ‘머독이 아이아코카를 쓰러뜨렸다’ 라는 문장은 ‘사업은 권투이다’ 라는 은유에 기초를 둔다. 권투와 사업은 두 사람이나 기관 간의 경쟁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권투의 특성을 혼성공간에 투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중범위 연결망에서는 두 입력공간의 프레임이 서로 다르지만, 혼성공간은 각각의 입력공간에서 가져온 구조에 의해 조직된다. 근원 입력공간뿐만 아니라 목표 입력공간도 혼성공간의 프레임 구조에 기여한다. 한편, 이중범위 연결망에서는 충돌하는 입력공간들에서 나온 구조를 포함할 수 있다. ‘당신은 재정적 무덤을 파고 있다’ 라는 문장은 두 개의 입력공간을 가진다. 하나는 사업가가 감당할 수 없는 용자를 받는 것과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무덤 파기와 관련이 있다. 두 입력공간은 인과성의 관점에서 충돌한다. 과도한 용자는 파산과 관련되지만, 무덤을 판다고 해서 죽음이 초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혼성공간에서는 무덤 파기는 사업 실패라는 죽음을 초래한다.

주목할 부분은 이중범위 연결망에서 각각의 입력공간이 충돌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유사성을 기반으로 사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입력공간 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인과적으로 충돌하는 경우에도 혼성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념적 혼성에서 발생하는 입력공간 간의 사상은 은유적 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은유를 혼성의 유일한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 보았다. 은유적 관계는 동기화를 발생시키기 쉬운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상될 수 있지만, 그 외의 요인을 통해서도 혼성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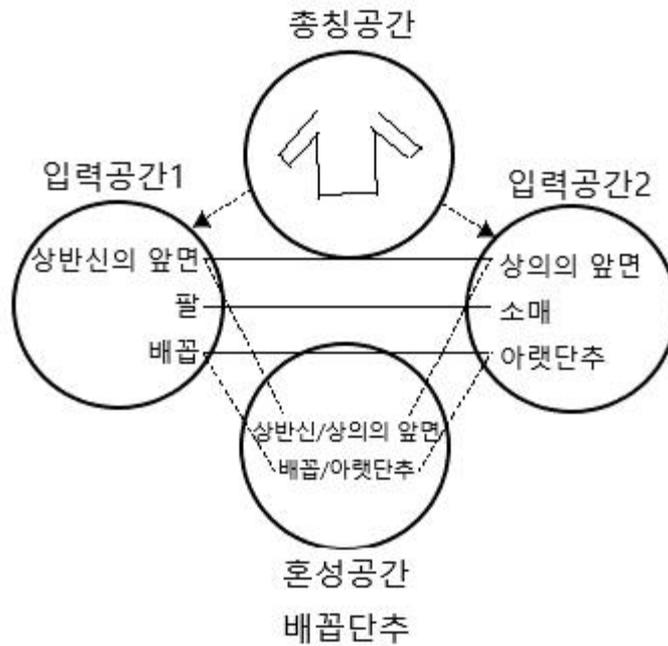
3. 동기화 이론과의 접점 모색

임지룡(2021)에서 알 수 있듯이 ‘혼성’, ‘사상’ 과 관련된 인지적 작용은 동기화의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으나, 개념적 혼성 이론과 동기화 이론을 직접적으로 관련시켜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은 듯하다.

Reka Benczes(2015, M. Brdar · M. Omazić · V.P. Takač 편, 임지룡 · 김동환 역)에서는 은유와 환유에 기초를 두는 창조적 합성어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동기화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창조성을 동기화하는 요인으로 압축성과 생생함, 문맥, 기억력을 제시하였다. 기억력을 돕고 ‘긍정적 연상 효과를 강화하는 요소에는 두운이나 운이 있고, 이는 창조적 합성어에서 우

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배꼽’ 을 가리키는 belly button은 두운이 맞는 합성어이다. belly button의 의미는 단일범위 혼성의 도움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표2. belly button의 개념적 혼성 분석1)



한 입력공간에는 상반신 영역이 있고, 다른 입력공간에는 상의 영역이 있다. 개념적 은유 ‘상반신은 상의이다’ 를 통해, 상의의 이미지가 상반신의 이미지로 사상된다. 소매는 팔에, 상의의 앞면은 상반신의 앞면에 대응한다. 상의 앞면의 단추 중 하나는 배꼽에 대응한다.

수식어 구성소의 선택은 서로에 대한 위치-위치물 관계를 보여 주는 위치도식에 기초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즉, 단추(button)는 복부(belly) 위에 위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elly button에서 왜 stomach나 tummy(둘 다 belly)의 동의어이다)가 아닌 belly가 수식어로 선택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는 두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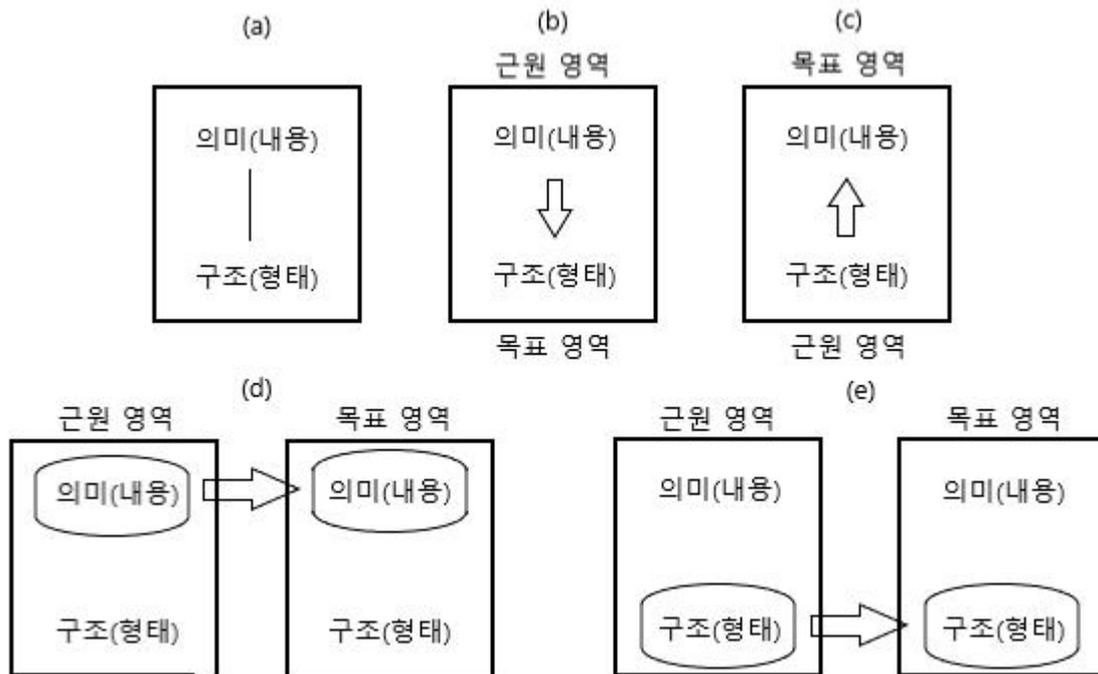
개념적 혼성을 동기화와 관련지어 분석하였을 때, 입력공간 간 관계성은 동기화 이론으로 설명 가능한 범주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정병철(2017)에서는 언어에 동기화와 자의성이 공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1) M. Brdar · M. Omazić · V.P. Takač 편, 임지룡 · 김동환 역(2015)에서는 혼성공간의 요소가 ‘상반신/상반신의 앞면’ 으로 나와 있다. ‘상반신/상의의 앞면’ 의 오타인 듯하여 수정하였다.

Saussure(1916)와 인지언어학의 입장이 같지만, Saussure는 동기화가 자의성을 최소한으로만 규제한다고 보는 반면 인지언어학은 동기화가 언어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자의성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등장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하였다. 개념적 혼성이 상당 부분 자의적인 결합을 다루는 이론이기는 하지만 동기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라덴 · 팬더(2004, 송현주 2021에서 재인용)에서는 의미(내용)와 구조(형태) 간의 기본적 기호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3. 의미와 구조 간의 기호관계



(a)의 경우 기호의 의미와 구조 간의 기호 관계가 자의적이어서 동기화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나머지 네 종류의 경우 동기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는 의미(내용)가 구조(형태)를 동기화하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예는 도상성과 환유이다. (c)는 구조가 의미를 동기화하는 경우로서, 구조동형성이 여기에 속한다. (d)는 의미가 의미를 동기화하는 경우로서, 다의어가 여기에 속한다. (e)는 구조 또는 의미가 구조 또는 의미를 동기화하는 경우로서, 문법화가 여기에 속한다.

이 중에서 (b)와 (c)는 한 공간 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 개의 입력공간을 가지는 개념적 혼성 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력공간 간의 관계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은유적 연결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입력공간을 둘로 쪼개거나 쪼개진 입력공간들이 은유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공간과 사상, 혼성을 아래와 같은 단계로 설정하고자 한다. 은유적 관계는 동기화를 발생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입력공간 간 동기화가 발생됨에 따라 혼성공간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표4. 혼성공간의 형성



4. 적용의 예시

김동환(2019)에서 언급되었듯이 개념적 혼성 이론에서는 최소한 두 개의 입력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영역 내에서 작용하는 인지 과정인 환유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에는 난점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는 생산품을 대표한다’ 환유가 가지는 개념적 혼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때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자와 생산품은 유사성을 기반으로 은유적인 연결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장에서 설정한 단계별 표를 변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5. 환유적 혼성공간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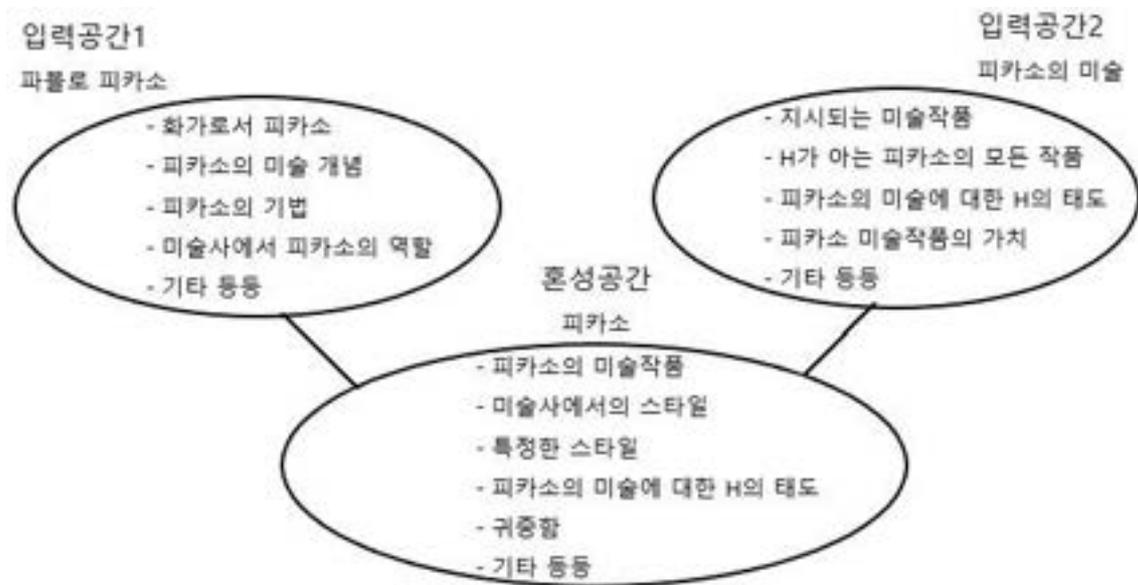
위의 표에서는 2단계에서 은유적인 관계성이 아니라, 환유적인 관계성을

검토하는 형태로 변형되어 있다. 은유와 환유는 공통적으로 동기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설명되지만, 개념적 혼성 이론의 차원에서는 입력공간 간 관계성이 은유적인 연결성을 기반으로 설명되고 있었기 때문에 환유를 개념적 혼성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환유 또한 동기화의 요인이기 때문에, 개념적 혼성 이론을 동기화 이론의 관점에서 확장하여 환유적 사상을 허용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개념적 혼성에서 환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Alač & Coulson(2004, 김동환 2019에서 재인용)에서는 ‘생산자는 생산품을 대표한다’ 환유의 개념적 혼성 연결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6. Picasso 혼성공간의 발현구조(H=청자)



개념적 통합 연결망은 파블로 피카소 입력공간과 피카소의 미술에 관한 생각이 들어있는 입력공간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한 인지영역 또는 ICM에 들어갈 것 같은 ‘피카소’와 ‘피카소의 미술’이 별개의 정신공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둘 간에 아무런 관계도 암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산자와 생산물을 각각의 입력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입력공간1과 입력공간2의 관계성이 은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횡단사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개념적 혼성 이론에서 환유적 사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유적 사상을 허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개개의 구성요소들

은 환유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요소 간 공간횡단사상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혼성공간에 선택적 투사된 요소들이 혼성될 수 있을 듯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혼성 이론의 입력공간 간 관계성에 대해 동기화 이론의 차원에서 재검토해 보았다.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볼 때, 언어의 상당 부분이 동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념적 혼성 이론 또한 동기화의 관점에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 개념적 혼성이 동기화를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례도 살펴보았다.

한편, 개념적 혼성의 입력공간 간의 관계가 은유적인 연결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환유적 사상 등의 확장된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유적 사상 등의 확장이 이론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동기화를 발생시키는 여러 결합에 대해서 개념적 통합 연결망의 형태로 구조화시켜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G. Fauconnier · M. Tunner 저, 김동환 · 최영호 역(2009),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호, pp. 74-79.
- 임지룡(2021), 『의미탐구의 인지언어학적 새 지평』, 한국문화사, pp. 221-223.
- 김동환(2012), 「개념적 통합 연결망의 유형 연구」, 『언어과학연구』 60, 언어과학회, pp. 9-22.
- 송현주(2021), 『국어 동기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pp. 31-35.
- 김동환(2019), 『환유와 인지』, 한국문화사, pp. 94-202.
- 정병철(2017), 『한국어 문법 교육의 인지적 토대』, 박이정, pp. 201-202.
- M. Brdar · M. Omazic · V. P. Takač 편, 임지룡 · 김동환 역, 『영어의 인지언어학적 접근법』, 경북대학교출판부, pp. 79-99.

Session 7 <응용/심리언어학> 사회:박상희(한밭대)

Examining High-Variability L2 Speech Recognition: The Impact of Task Paradigm, Masking Type, and Individual Differences

발표: 신정화(육사)

토론: 신동진(전주대)

Examining High-Variability L2 Speech Recognition: The Impact of Task Paradigm, Masking Type, and Individual Differences

Jeonghwa Shin (Korea Military Academ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cognition of high-variability English speech by non-native listeners, focusing on the effects of task paradigm, informational masking type, and individual listener differences. The participants, comprising eighteen Korean-speaking learners of English with varying degrees of English fluency, immersion experience, and working memory capacity, engaged in four sentence recall tasks. One task employed a single sentence paradigm with single-talker babble, while the other three adopted a sequential sentence paradigm (with single-talker babble, multi-talker babble featuring eight dialects, and mixed-gender multi-talker babble with eight dialects). The sentences with dialectal and gender variability were obtained from PRESTO-R lists (Plotkowski and Alexander 2016). The analysis, based on arcsine-transformed accuracy of recalled keywords, reveals that the sequential sentence paradigm offers a more sensitive measure of the cognitive processing load required for high-variability speech recognition compared to the traditional recall paradigm. Among the two indexical maskers, talker dialect significantly increased listeners' processing load during L2 speech recognition, while talker gender did not show a significant effect. Advanced non-native listeners exhibited superior word recognition in both low- and high-variability L2 speech compared to less advanced non-native listeners, suggesting L2 fluency as a more reliable indicator of non-native listeners' ability to recognize variable L2 speech than other factors such as immersion experience and working memory capacity.

Key words: High-variability L2 speech, task paradigm, indexical masking, fluency

References

- Plotkowski, A. R. and J. M. Alexander. (2016) A Sequential Sentence Paradigm Using Revised PRESTO Sentence Lis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Audiology*, 27(8), 647-660.

Jeonghwa Shi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Korea Military Academy
P.O. Box 77-2, 574 Hwarang-Ro, Nowon-gu, Seoul 01805, Korea
+82-2-2197-2642, jshin1@kma.ac.kr

2023 한국영어학학회 · 담화인지언어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Examining High-Variability L2 Speech Recognition: The Impact of Task Paradigm, Masking Type, and Individual Differences

Jeonghwa 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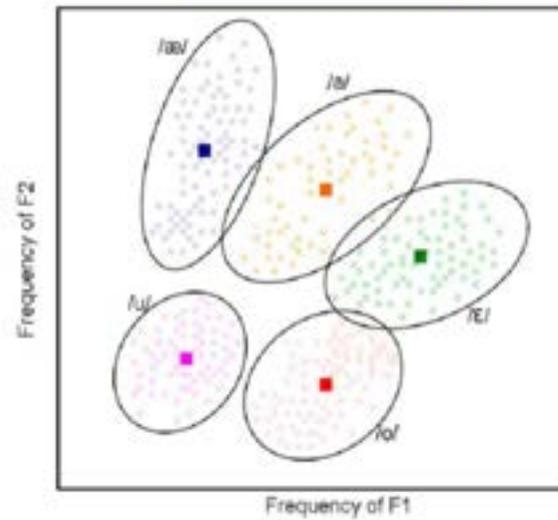
Korea Military Academy

jshin1@kma.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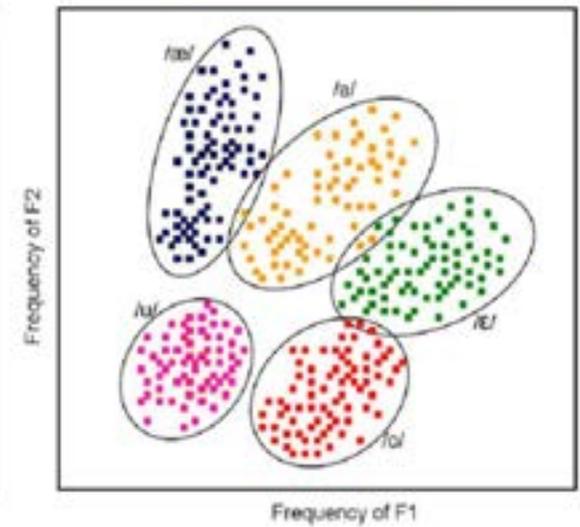
November, 11th

Background

Prototype Theory



Exemplar Theory



Traditional theories of spoken word recognition

- The mental lexicon stores only a single canonical entry for each word (Marslen-Wilson, 1984; Morton, 1979; Oldfield, 1966).
- One abstract symbolic representation for a word.
- Listeners can recognize a word and access the lexicon if the incoming speech signals ideally match the acoustic-phonetic representation of the target word.

Limitations of traditional theories

- Speech is transitory and continuous.
- Speech is highly variable - the acoustic realization of sounds and words is different for each speaker, speaking style, speaking rate, and phonological context (Cleary et al., 2005; Johnson & Mullennix, 1997; Nygaard et al., 1992; Nygaard & Pisoni, 1998; Pisoni, 1997).
- Nonlinguistic contexts such as background noise, reverberation, and transmission media (Cooke, 2006; McQueen & Huettig, 2012; Simpson & Cooke, 2005).

Exemplar-based models

- A new approach to the lexicon by adopting ideas from multiple-trace theories of human memory (Elman, 2004; Goldinger, 1996; Johnson, 1997).
- Human lexical memory encodes and stores multiple entries for a word with detailed perceptual traces.
- Lower-level perceptual sources of variability are indeed encoded into the long-term memory.

Previous Studies in English

- Single-word identification is faster and more accurate in single-talker word lists than for multiple-talker lists in three Signal-to-Noise Ratios conditions (SNRs; + 10, 0, and -10 dB) (Mullennix et al., 1989).
- Processing advantage to a familiar talker's voice (Peters, 1955; Creelman, 1957).
- Indexical acoustic-phonetic information is extracted from the speech signal at the early perceptual process.

Previous Studies in English

- More accurate identification of words produced at a single speaking rate than the ones produced at varying speaking rates (fast vs. medium vs. slow).
- Listeners' processing bias was found for familiar languages and dialects (Cleary et al., 2005; Clopper & Pisoni, 2004; Johnson & Mullennix, 1997; Nygaard & Pisoni, 1998; Pisoni, 1997).
- Listeners encode both linguistic and indexical information simultaneously and automatically during speech processing and build up multiple lexical entries for a word (Nygaard et al., 1994; Tamati & Pisoni, 2014).

Previous Studies in English

- The more frequent or recent words, the more credit they earn for word recognition (Broadbent, 1967; Goldinger, 1996; Howes, 1957; Johnson, 1997).
- Typical variants are encoded more strongly than atypical variants and thus more accurately recognized (Nygaard et al., 2000).
- Atypical variants could benefit the processing for lexical encoding and retrieval if they were perceived as socially salient or ideal dialects (Clopper et al., 2016; Sumner et al., 2014).

Previous Studies in *English as an L2*

- Noise effect
 - similar in native and non-native listeners when the tasks involve lower-level language processing (Cutler et al., 2004; Flege & Liu, 2001; MacKay et al., 2001; Rogers et al., 2006).
 - greater for non-native listeners than for native listeners in word recognition or sentence comprehension (Bergman, 1980; Black & Hast, 1962; Meador et al., 2000).
- Non-native listeners are not good at exploiting higher-level information as a way to compensate for missing or distorted information in incoming speech signals (Mattys et al., 2010).

Research Issues

"What factors underlie the processing of high-variability L2 speech by non-native listeners?"

1. Does the sentence recall paradigm influence non-native listeners' processing of high-variability speech?
2. Does indexical information (regional dialect and talker gender) matter in the processing of high-variability L2 speech?
3. Would L2 fluency, L2 immersion experience, and working memory capacity affect non-native listeners' processing of high-variability speech?

The Present study

Participants

- 18 Korean-speaking learners of English (3 females, 15 males).
- Age: 19-23 years old (M = 20.4, SD = 1.3).
- Age of acquisition (AOA): 4-12 years old (M = 7.9, SD = 3.7).
- Average TOEIC score was 923.2 (850 to 990; SD = 44.4)
 - 9 more vs. 9 less advanced L2 listener groups
- 6 participants had an immersion experience in an English-speaking country for an average of 6.6 years (SD = 5.98; 1-13 years).
- Working memory capacity was measured by using a standard memory test online (<https://www.millisecond.com/download/library/lettermemorytask/>)

Stimulus Materials

- One paired list of 20 sentences recorded by a female native speaker (with western AE dialect) was used in an immediate sentence recall task.
- Three paired lists of 20 sentences from the PRESTO-R lists (Plotkowski & Alexander, 2016) were used in delayed sentence recall tasks.
- The number of keywords and accuracy were controlled across lists.

Paired Lists	Task Paradigm	Task - Mode of Response	
		Immediate Recall - Written	Immediate Recall - Spoken
List 1	Single sentence paradigm	Single female talker 43 keywords ¹⁾ 75.1% (<i>SD</i> = 13.9%) ²⁾	Single female talker 43 keywords 75.2% (<i>SD</i> = 13.3%)
Paired Lists	Task Paradigm	Delayed Recall - Written	Immediate Recall - Spoken
List 2	Sequential sentence paradigm	Single female talker 43 keywords 77.9% (<i>SD</i> = 14.0%)	Single female talker 43 keywords 78.1% (<i>SD</i> = 14.1%)
List 3	Sequential sentence paradigm	Multiple female talkers from 8 different dialects 42 keywords 78.2% (<i>SD</i> = 11.3%)	Multiple female talkers from 8 different dialects 42 keywords 78.2% (<i>SD</i> = 13.0%)
List 4	Sequential sentence paradigm	Multiple mixed-gender talkers from 8 different dialects 42 keywords 78.0% (<i>SD</i> = 11.7%)	Multiple mixed-gender talkers from 8 different dialects 42 keywords 78.3% (<i>SD</i> = 11.3%)

Procedure

- Pair #1 – 10 auditory sentences asked for immediate recall in spoken form and another 10 sentences asked for immediate written recall.
- Pair #2, #3 and #4
 - 10 pairs of sentences were given in a sequence (ISI = 300ms).
 - Participants repeated the second sentence before writing down the first sentence.
- Each trial was self-paced.
- Listeners heard each sentence only once.

Analysis

- Arcsine-transformed accuracy data
- Repeated measures ANOVAs by subject- and item-analysis
- Between-subjects variables: *L2 Fluency* (advanced vs. less advanced), *L2 Immersion Experience* (yes vs. no), and *Working Memory Capacity* (high vs. mid)
- Within-subjects variables: *Task Paradigm* (single vs. sequential sentence paradigm), *Recall Modality* (immediate spoken recall vs. delayed written recall), and *Masker Type* (with vs. without dialect varieties and talker gender)

Results & Discussion

Task Paradigm

- The data from paired lists 1 and 2 were compared.
- The main effect of the *Task Paradigm* - the non-native listeners were overall better at recalling sentences in the single sentence paradigm (*Mean* = 84.4%, *SD* = 23.3%) than in the sequential sentence paradigm (*Mean* = 60.2%, *SD* = 39.1%).
- The sequential sentence paradigm loads more processing burden on the sentence recall task than the single sentence paradig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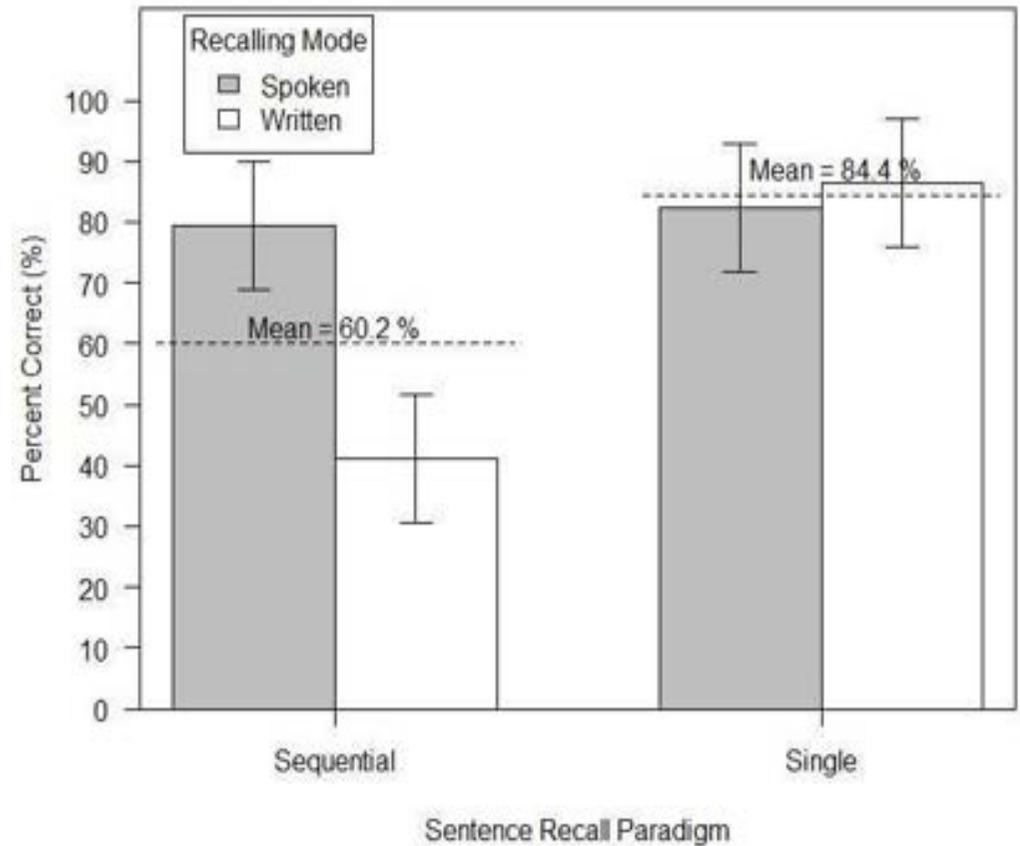
Task Paradigm

- The main effect of *Recall Modality* tells that the two modes of recall yielded different recall rates.
 - Immediate spoken recalls yielded a higher accuracy (*Mean* = 80.8%, *SD* = 26.6%) than delayed written recalls (*Mean* = 63.7%, *SD* = 38.9%).
-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ask Paradigm* and *Recall Modality* tells the effect of *Recall Modality* was different in the two sentence recall paradigms.

Task Paradigm

- Delayed recall tasks in the sequential sentence paradigms are more sensitive to the measure of cognitive processing required in the recognition of high-variability L2 Spe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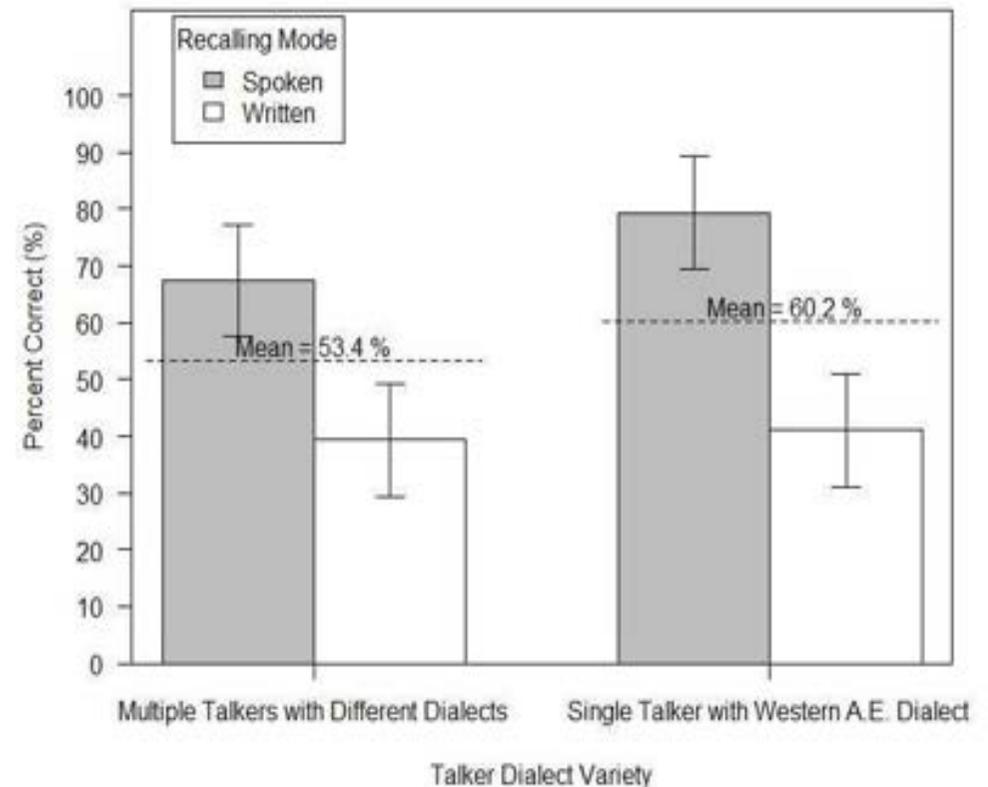
Figure 1. Mean Correct Recall (%) in Single vs. Sequential Sentence Paradigm



Masker Type –Dialect Variety

- The data from paired lists 2 and 3 were compared.
- Main effect of *Recall Modality*.
- No main effect of *Dialect Variety*
- Interaction between *Recall Modality* and *Dialect Variety* suggests that the effect of recalling modes varied depending o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dialectal variation in the paired spe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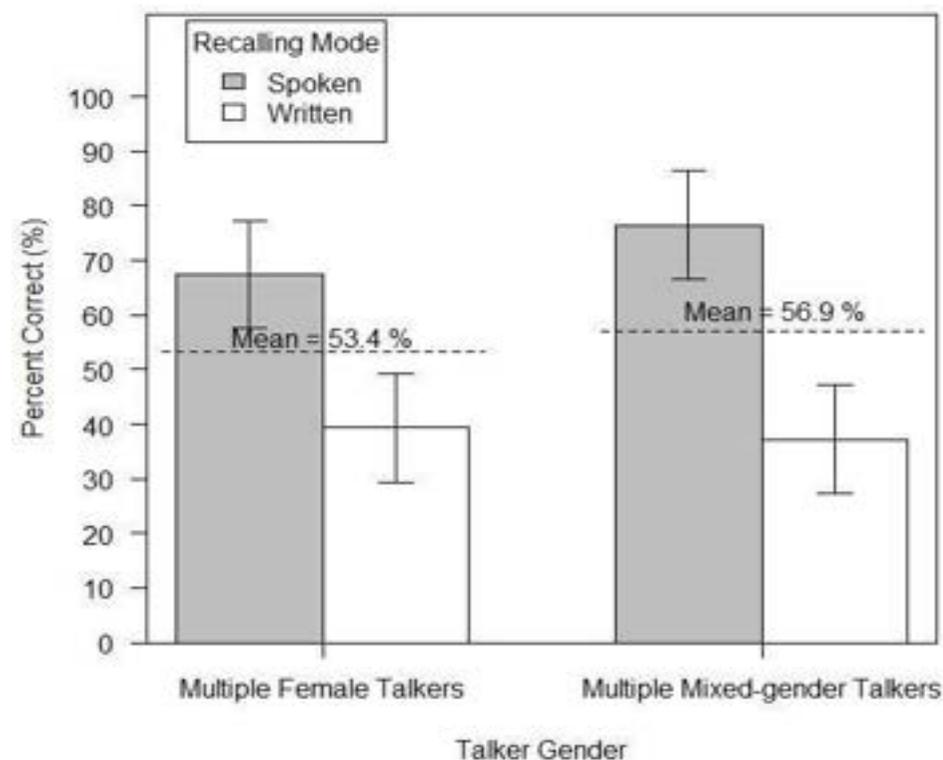
Figure 2. Mean Correct Recall (%) for Multi-talker vs. Single-talker Babble



Masker Type – Gender Variety

- The data from paired lists 3 and 4 were compared.
- Main effect of *Recall Modality*.
- No main effect of *Gender Variety*.
- Interaction between *Recall Modality & Gender* tells that immediate recall has different effects on the recognition of speech with/without gender variation.
- *Tukey's test* shows gender rather eased the processing load.

Figure 3. Mean Correct Recall (%) for Same-gender Talker vs. Mixed-gender Talker Babble



Individual Listener Factor

- The study examined three individual listener factors
 - *L2 Fluency, Immersion Experience, and Working Memory Capacity.*
- *L2 fluency* showed the main effect across all recall tasks and also had a significant interaction with *Recall Modality*.
- *Immersion Experience* and higher *Working Memory Capacity* positively influenced non-native listeners' performance in all sentence recall tasks, but the main effects were not significant.

Task Paradigm (Masker Type)		Single Sentence (Single Female Talker – Pair No. 1)		Sequential Sentence (Single Female Talker – Pair No. 2)		Sequential Sentence (Female Talkers with Mixed Dialects – Pair No. 3)		Sequential Sentence (Mixed-gender Talkers with Mixed Dialects – Pair No. 4)	
Individual Factor	Level	Written Task	Spoken Task	Written Task	Spoken Task	Written Task	Spoken Task	Written Task	Spoken Task
L2 Fluency	Adv. (<i>n</i> = 8)	93.3% (<i>SD</i> =15.1%)	89.1% (<i>SD</i> =22.1%)	55.6% (<i>SD</i> =39.4%)	90.8% (<i>SD</i> =18.3%)	53.0% (<i>SD</i> =32.2%)	81.5% (<i>SD</i> =27.2%)	51.9% (<i>SD</i> =35.1%)	87.1% (<i>SD</i> =22.8%)
	Less Adv. (<i>n</i> = 10)	79.6% (<i>SD</i> =23.5%)	75.5% (<i>SD</i> =26.9%)	26.6% (<i>SD</i> =34.1%)	67.9% (<i>SD</i> =30.6%)	25.7% (<i>SD</i> =29.0%)	53.2% (<i>SD</i> =33.8%)	22.6% (<i>SD</i> =29.2%)	65.9% (<i>SD</i> =31.2%)
Immersion	Yes (<i>n</i> = 6)	89.5% (<i>SD</i> =17.7%)	86.3% (<i>SD</i> =22.6%)	52.7% (<i>SD</i> =40.7%)	84.9% (<i>SD</i> =24.8%)	50.9% (<i>SD</i> =33.4%)	77.4% (<i>SD</i> =29.4%)	47.3% (<i>SD</i> =36.6%)	85.5% (<i>SD</i> =23.9%)
	No (<i>n</i> = 12)	84.9% (<i>SD</i> =22.1%)	80.3% (<i>SD</i> =26.7%)	35.3% (<i>SD</i> =37.7%)	76.6% (<i>SD</i> =28.7%)	33.6% (<i>SD</i> =32.1%)	62.4% (<i>SD</i> =34.7%)	32.2% (<i>SD</i> =30.7%)	72.0% (<i>SD</i> =33.9%)
Working Memory	High (<i>n</i> = 9)	88.3% (<i>SD</i> =20.4%)	85.7% (<i>SD</i> =24.6%)	43.7% (<i>SD</i> =40.9%)	83.3% (<i>SD</i> =23.9%)	38.2% (<i>SD</i> =32.4%)	70.0% (<i>SD</i> =31.9%)	37.5% (<i>SD</i> =34.9%)	77.6% (<i>SD</i> =27.7%)
	Mid (<i>n</i> = 9)	84.6% (<i>SD</i> =21.2%)	78.9% (<i>SD</i> =25.9%)	38.4% (<i>SD</i> =38.0%)	75.4% (<i>SD</i> =30.6%)	40.5% (<i>SD</i> =34.7%)	64.8% (<i>SD</i> =35.5%)	37.0% (<i>SD</i> =36.1%)	75.3% (<i>SD</i> =30.8%)

Conclusion

- For listeners who have imperfect knowledge of the L2 phonological system and less exposure to its variety of sociolinguistic variation, recognition of L2 speech would be particularly challenging.
- The present study *whether* and *how* the *Sentence Recall Paradigm*, *Speaker Indexicality*, and *Individual Listener* factors are at play in determining non-native listeners' recognition of high-variability speech in an L2.
- The sequential sentence paradigm provides a more sensitive measure of the cognitive processing load required for continuous speech recognition in real-time than the single sentence paradigm.

Conclusion

- High-variability speech with mixed dialects increases the processing load in non-native listeners' speech recognition, but the inclusion of talker-gender variety does not necessarily increase the processing burden.
- Advanced L2 listeners are better at recognizing words in continuous speech with and without high variability than less advanced L2 listeners.
- Of the three listener variables, L2 fluency was the most reliable factor in predicting non-native listeners' ability to recognize high-variability speech in an L2

Reference

- Bergman, M. 1980. *Aging and the Perception of Speech*. University Park Press.
- Black, J. W. and M. H. Hast. 1962. Speech Reception with Altering Signal.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5.1, 70-75.
- Broadbent, D. E. 1967. Word-frequency Effect and Response Bias. *Psychological Review* 74.1, 1-15.
- Cleary, M., Pisoni, D. B., and K. I. Kirk. 2005. Influence of Voice Similarity on Talker Discrimination in Children with Normal Hearing and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Hearing Research* 48.1, 204-223.
- Clopper, C. G. and D. B. Pisoni. 2004. Some Acoustic Cues for the Perceptual Categorization of American English Regional Dialects. *Journal of Phonetics* 32.1, 111-140.
- Cooke, M. 2006. A Glimpsing Model of Speech Perception in Noise.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19, 1562-1573.
- Creelman, C. D. 1957. Case of the Unknown Talker.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29.5, 655-655.
- Cutler, A., Weber, A., Smits, R., and N. Cooper. 2004. Patterns of English Phoneme Confusions by Native And Non-Native Listeners.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16.6, 3668-3678.
- Flege, J. E. and S. Liu. 2001. The Effect of Experience on Adults' Acquisition of a Second 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3.4, 527-552.
- Goldinger, S. D. 1996. Words and Voices: Episodic Traces in Spoken Word Identification and Recognition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2.5, 1166-1183.
- Howes, D. 1957. On the Relation Between the Intelligibility and Frequency of Occurrence of English Words.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29.2, 296-305.
- Johnson, K. 1997. Speech Perception without Speaker Normalization: An Exemplar Model. Johnson, K. and J. W. Mullennix (eds.). *Talker Variability in Speech Processing*, 145-166 .San Diego: Academic Press.
- Johnson, K. and J. W. Mullennix. 1997. Complex Representations Used in Speech Processing: Overview of the Book. *Talker Variability in Speech Processing*, 1-8.
- Mackay, I. R. A., Meador, D., and J. E. Flege. 2001. The Identification of English Consonants by Native Speakers of Italian. *Phonetica* 58, 103-125.
- Marslen-Wilson, W. D. 1984. Function and Process in Spoken Word Recognition: A Tutorial Review. *Attention and Performance: Control of Language Processes*, 125-150.
- Mattys, S. L., Carroll, L. M., Li, C. K., and S. L. Chan. 2010. Effects of Energetic and Informational Masking on Speech Segmentation by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Speech Communication* 52.11-12, 887-899.

Reference

- Meador, D., Flege, J. E., and I. R. A. Mackay. 2000. Factors Affecting the Recognition of Words in Second Language. *Bilingualism: Language. Cognition* 3, 55-67.
- McQueen, J. M. and F. Huettig. 2012. Changing only the Probability that Spoken Words will be Distorted Changes how they are Recognized.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31.1, 509-517.
- Morton, J. 1979. Facilitation in Word Recognition: Experiments Causing Change In the Logogen Model. Kolars, P. (ed.). *Processing of Visible Language*, 259-268. Springer, Boston, MA.
- Mullennix, J. W., Pisoni, D. B., and Martin, C. S. 1989. Some Effects of Talker Variability on Spoken Word Recognition.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85.1, 365-378.
- Nygaard, L. C., Sommers, M. S., and D. B. Pisoni. 1994. Speech Perception as a Talker-Contingent Process. *Psychological Science* 5.1, 42-46.
- Nygaard, L. C., Burt, S. A., and J. S. Queen. 2000. Surface Form Typicality and Asymmetric Transfer in Episodic Memory for Spoken Word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6.5, 1228.
- Nygaard, L. C., and D. B. Pisoni. 1998. Talker-Specific Learning in Speech Perception. *Perception and Psychophysics* 60.3, 355-376.
- Nygaard, L. C., Sommers, M. S., and D. B. Pisoni. 1992. Effects of Speaking Rate and Talker Variability on the Representation of Spoken Words in Memory. in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oken Language Processing.
- Oldfield, R. C. 1966. Things, Words and the Brain.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8.4, 340-353.
- Peters, R. W. 1955. *The Relative Intelligibility of Single-Voice and Multiple-Voice and Multiple-Voice Message under Various Conditions of Noise*. Ohio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Columbus.
- Pisoni, D. B. 1997. Some Thoughts on "Normalization" in Speech Perception. *Talker Variability in Speech Processing* 6.2, 9-32.
- Rogers, C. L., Lister, J. J., Febo, D. M., Besing, J. M., and H. B. Abrams. 2006. Effects of Bilingualism, Noise, and Reverberation on Speech Perception by Listeners with Normal Hearing. *Applied Psycholinguistics* 27.3, 465-485.
- Simpson, S. and M. Cooke. 2005. Consonant Identification in N-Talker Babble is a Nonmonotonic Function of N.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18, 2775-2778.
- Sumner, M., Kim, S. K., King, E., and K. B. McGowan. 2014. The Socially Weighted Encoding of Spoken Words: A Dual-Route Approach to Speech Perception. *Frontiers in Psychology* 4, 10-15.
- Tamati, T. N. and D. B. Pisoni. 2014. Non-native Listeners' Recognition of High-Variability Speech Using PRESTO.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Audiology* 25.09, 869-892.

Session 7 <응용/심리언어학> 사회:박상희(한밭대)

L2 Proficiency Effects on English Error Detection: An Eye-tracking Study

발표: 민지호, 백지선, 박해일 (경희대)

토론: 박상희(한밭대)

L2 Proficiency Effects on English Error Detection: An Eye-tracking Study*

Jiho Min (Kyung Hee University)*
Jiseon Baik (Kyung Hee University)**
Haeil Park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second language (L2) proficiency on error detection skills in L2 readers. Previous research has shown that advanced L2 learners outperform basic or intermediate learners in error detection tasks, particularly for subject-verb disagreement errors. However, it remains unclear if L2 proficiency extends to other error types. The present study explores the processing difficulties encountered by L2 readers when confronted with grammatical errors involving tense disagreement, article omission, word order, and nonwords. Eye-tracking data were collected to examine error sensitivity among L2 learners at different proficiency levels (basic, intermediate, and advanced). The findings reveal that L2 proficienc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rror sensitivity, with advanced learners demonstrating higher sensitivity across various error types. However, the study find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error sensitivity for illegal nonwords among the proficiency levels. The presence of an error-checking task enhances error sensitivity, especially for advanced learners. For the purpose of advancing our research,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 First author

** Second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L2 learners and native L1 speakers. Our findings revealed that L2 learners exhibited significantly shorter first fixation durations but longer total fixation durations when compared to their L1 counterparts. These results underscore a notable disparity in error detection competence between individuals who possess L1 proficiency and those acquiring L2 proficiency.

Key words: error sensitivity, L2 proficiency, eye-tracking, grammatical errors

Selected References

- Ellis, N. C., and N. Sagarra. 2010. Learned Attention Effects in L2 Temporal Reference: The First Hour and the Next Eight Semesters. *Language Learning* 60, 85-108.
- Jiang, N. 2004. Morphological Insensitivity in Second Language Processing. *Applied Psycholinguistics* 25, 603-634.
- LaBrozzi, R. M. 2009. *Processing of Lexical and Morphological Cues in a Study abroad Context*.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Sagarra, and N. Rodriguez. 2022. Subject-Verb Number Agreement in Bilingual Processing:(Lack of) Age of Acquisition and Proficiency Effects. *Languages* 7, 15.
- Zheng, C., and T.-J. Park. 2013. An Analysis of Errors in English Writing Made by Chinese and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ory &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3.

Jiho Min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 Hee University
Kyungheedaero 26-gil, Dongdaemun-gu, Seoul, 02447, Korea
zkxoxj@naver.com

Jiseon Baik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 Hee University
Kyungheedaero 26-gil, Dongdaemun-gu, Seoul, 02447, Korea
jiseonbaik@gmail.com

Haeil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 Hee University

L1 and L2 Proficiency Effects on English Error Detection: An Eyetracking Study

Jiho Min (Kyung He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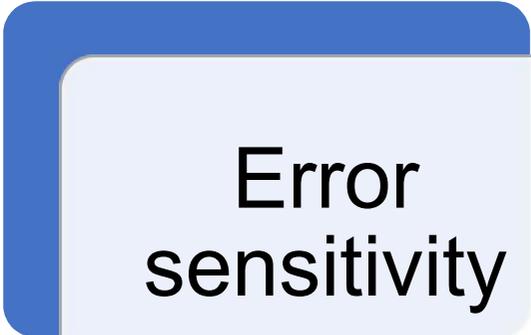
Jiseon Baik (Kyung Hee University)

Haeil Park (Kyung He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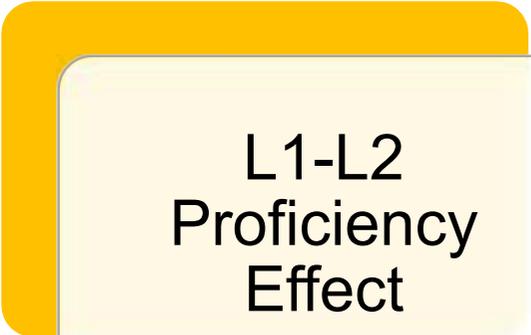
Introduction



Eye
tracking



Error
sensitivity



L1-L2
Proficiency
Effect

Research Implication

- This study conducted an investigation into the sensitivity towards different types of L2 violations, employing varying levels of L2 proficiency, and explored the impact of an error-checking task.
- The findings reveal that L2 proficienc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rror sensitivity, with advanced learners demonstrating higher sensitivity across various error types.
- However, this study also provides evidence that the absence of an L2 proficiency effect in error sensitivity may extend to other error types, such as tense disagreement and article omission.
- The presence of an error-checking task enhances error sensitivity, especially for advanced learners.

Research Questions

1. Are there similarities or differences in the reading patterns of error detection among the three levels of L2 proficiency (advanced, intermediate, and basic)?
2. What are the reading patterns associated with detecting different types of errors?
3. What is the effect of an error-checking task on the error sensitivity of L2 lear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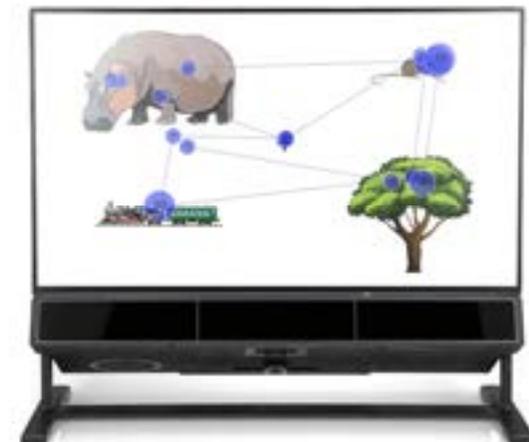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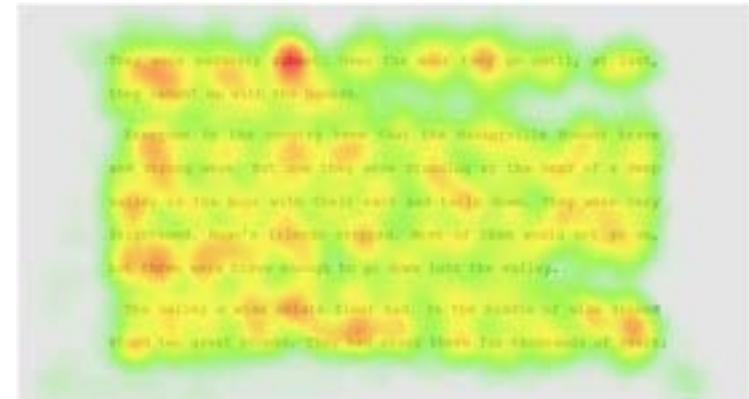
Eye tracking methodology

Eye measure	Description
Duration of the first fixation	The length of the first fixation before leaving out the region. It could be interpreted as the early stage of processing, such as lexical access.
Total duration of fixations	The sum of all fixations remained on the region. It could be interpreted as the late stage of processing, such as context comprehension.



Tobii Pro Fusion

Eye tracking Recording & Representation



Participants

	TOEIC	N	
Advanced	972 (48.7)	16 (F:7, M:9)	64 (M: 35, F:29)
Intermediate	812(273)	17 (F: 7, F: 10)	
Basic	402(276)	31 (F:21, M:10)	

- Participants who have no official TOEIC score took the MET reading test after the experiment, and the scores of MET were converted to TOEIC following the official proficiency description of MET.

Stimuli

Violation type	Description
Tense	Tense violations were created replacing the tense of the main verbs. The replaced tense had three options, past, present, and future.
Nonword	Nonwords were collected at the ARC Nonword database. The onset of the first phoneme contained non-existent combinations. The length of the nonwords was 6 letters.
Word order	The phrases of the main clause were mixed up in the word order violations.
Article omission	The article of the nouns that functions as objects of the main verbs were intentionally omitted for the violations. Half of the omitted articles were indefinite articles, and the rest half were defin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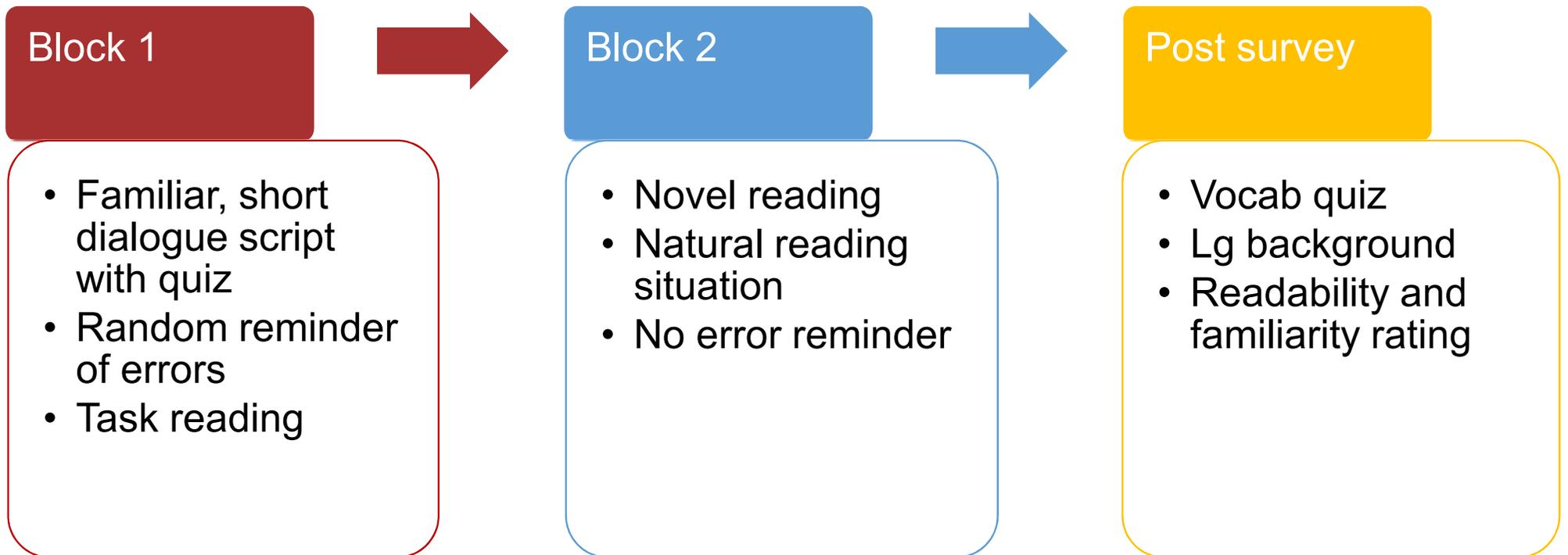
Non-violation Type	Description
Low frequent word	The nouns, adjectives, and verbs that the frequencies were lower than 2000 in COCA.

Stimuli cont'd

Violation type	Example Sentence
Tense	I *moved to London next month. (I move to London next month.)
Nonword	And when I'm done with the *oughmb, should I leave the bill with him? (And when I'm done with the job, should I leave the bill with him?)
Word order	*I in a hurry really am. (I am really in a hurry.)
Article omission	*I was supposed to come to your office to fix (an)* air conditioner this afternoon.

Non-violation type	Example sentence
Low frequent word	The man looked half mad with fear and blabbed (spoke) with difficulty.

Procedure



Block 1

A. Excuse me. I saw the ad for your department store on the Internet. **So I to stop by decided.** You're having a big sale today, right? Does that apply to jewelry items, too?

B. Absolutely. Everything in the **sales** is up to half-off the full price. Did you bring the coupon that came with the advertisement?

A. Actually, I **forget** it at my office. I will come back after work.

Script

Q. 짐작하는 세일 쿠폰을 보고 찾아왔다.

1. 예
2. 아니요
3. 잘 모르겠다

Quiz

Q. 지문에서 문법적 오류를 찾았나요?

1. 네
2. 아니요
3. 잘 모르겠다

Error reminder

Block 2

The man looked half mad with fear and **stuttered** with difficulty. He said that he had seen the girl and the hounds running close behind her. **Sir Hugo just behind the hounds had been riding.** 'But I have seen more than that,' the old man said. 'Behind Sir Hugo I saw a huge and terrible hound running silently. May **God** keep me safe from that hound of hell.'

The thirteen men **laugh** at the old man and rode on. But their laughter soon stopped when they saw Sir Hugo's horse running wildly towards them without a rider.

The thirteen men moved closer together as they rode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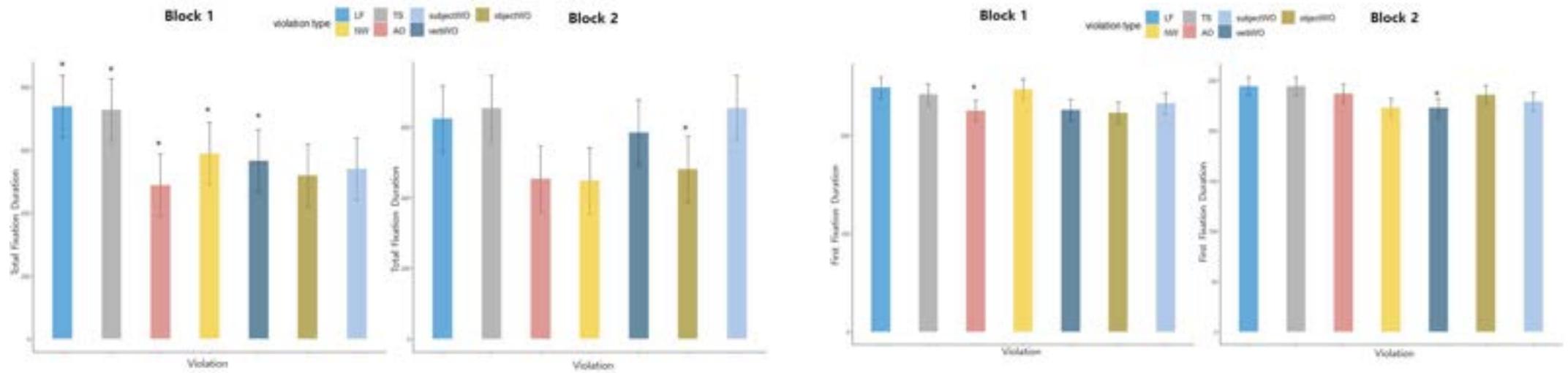
Short Novel
reading

01. 찰스 디킨즈의 경은 몇 달 전 갑작스레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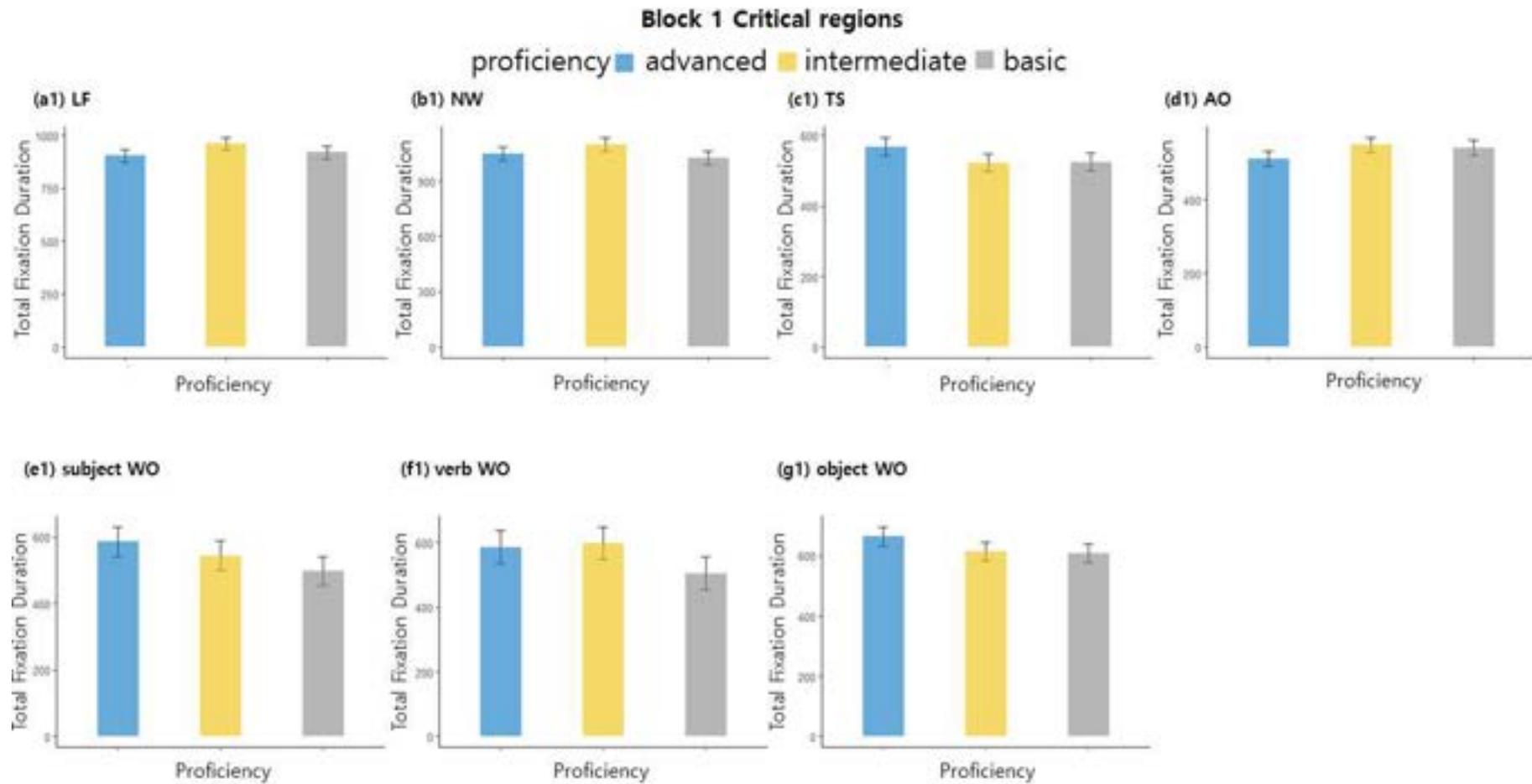
1. 예
2. 아니오
3. 잘 모르겠다

Quiz

Comparisons of Block 1 and Block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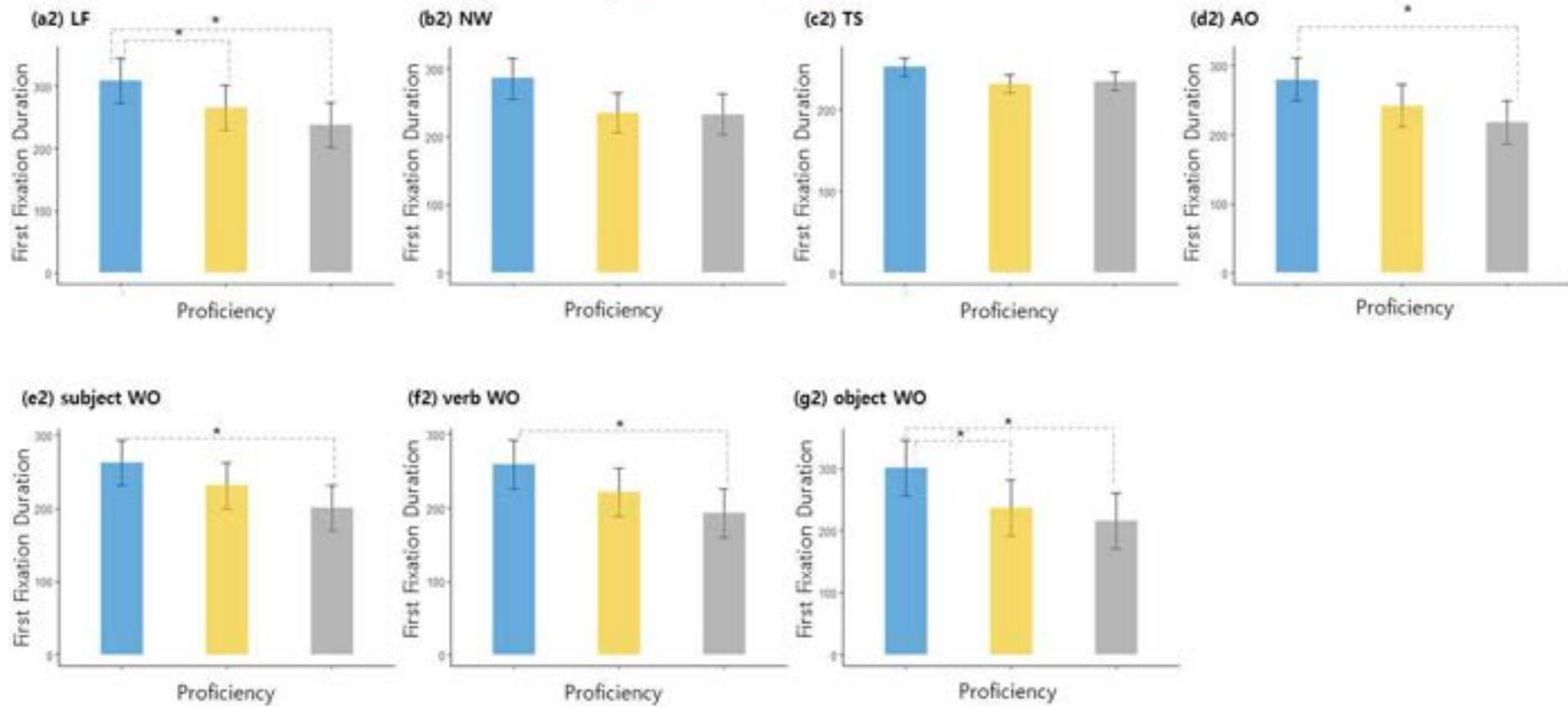
Block 1 Critical Regions Total Fixation Du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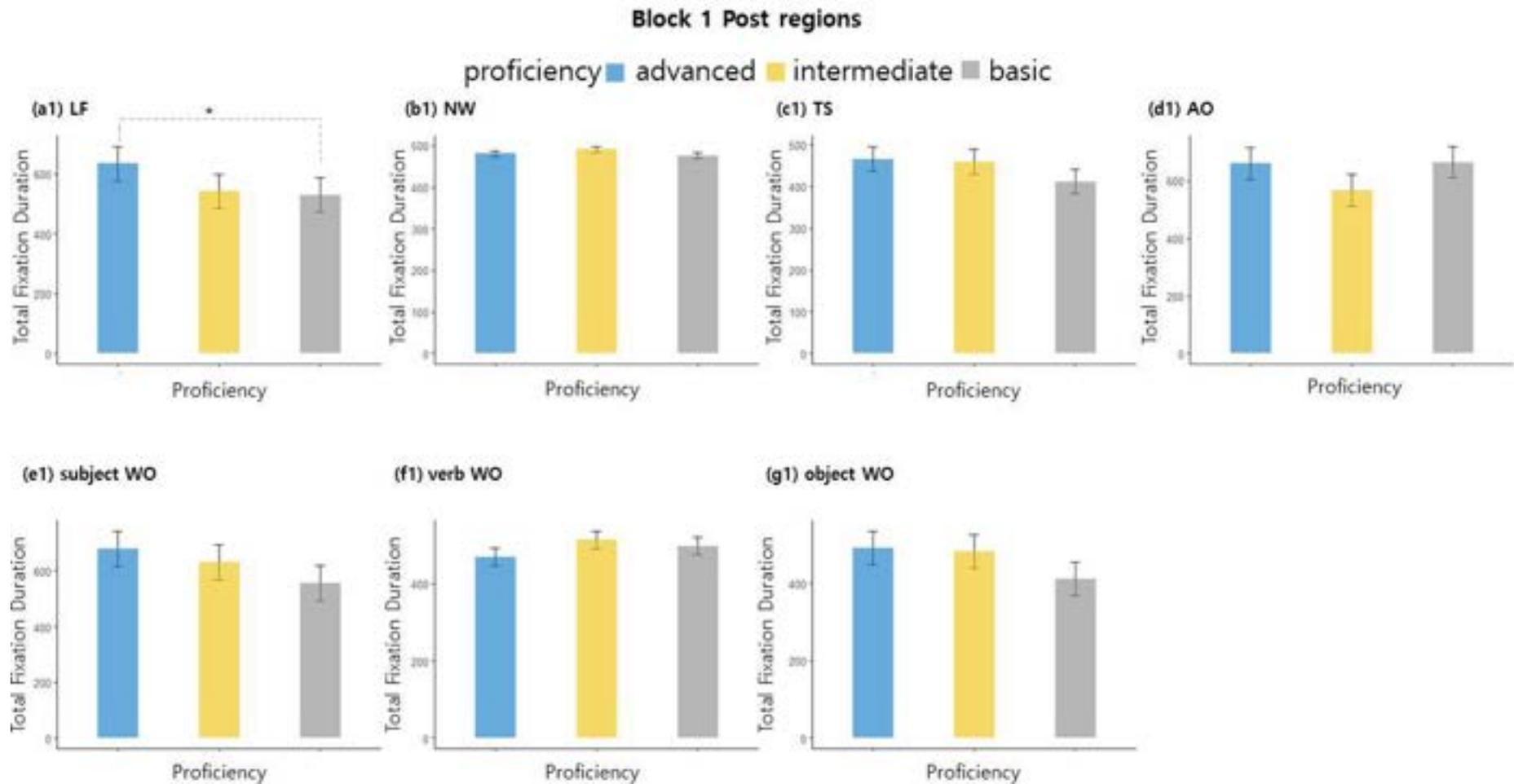
Block 1 Critical Regions First Fixation Duration

Block 1 Critical Reg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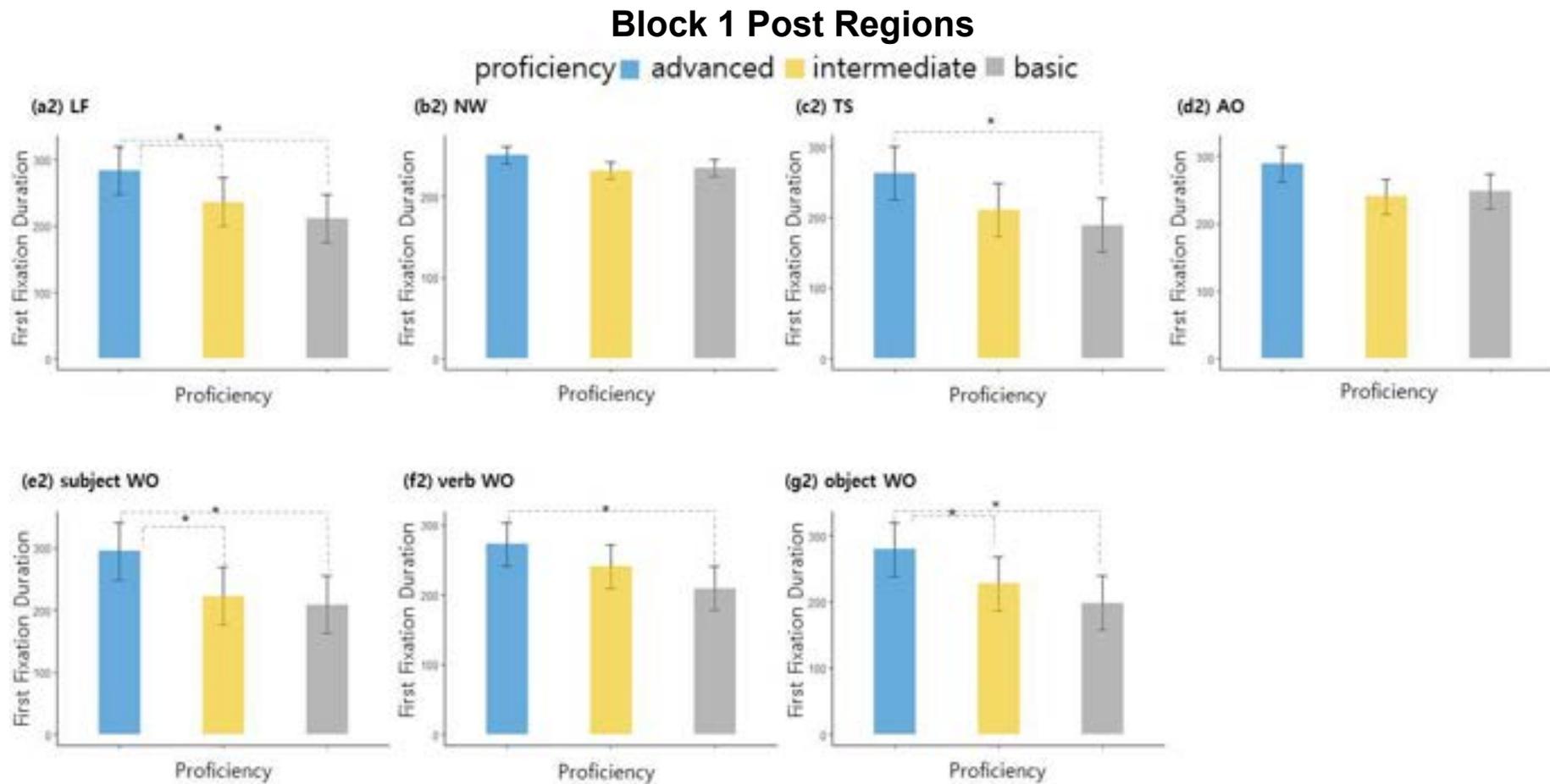
proficiency ■ advanced ■ intermediate ■ ba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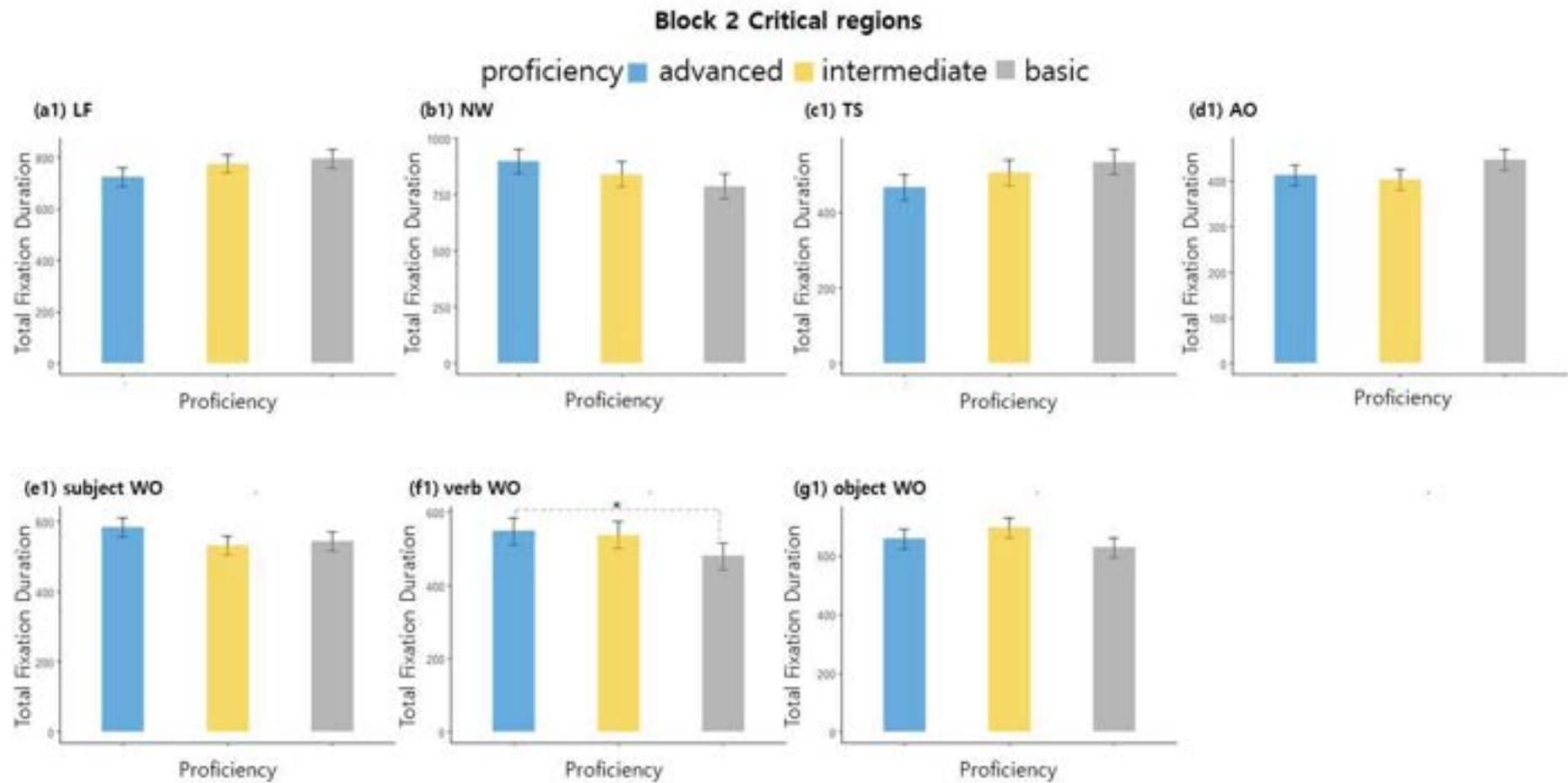
Block 1 Post Regions Total Fixation Duration



Block 1 Post Regions First Fixation Du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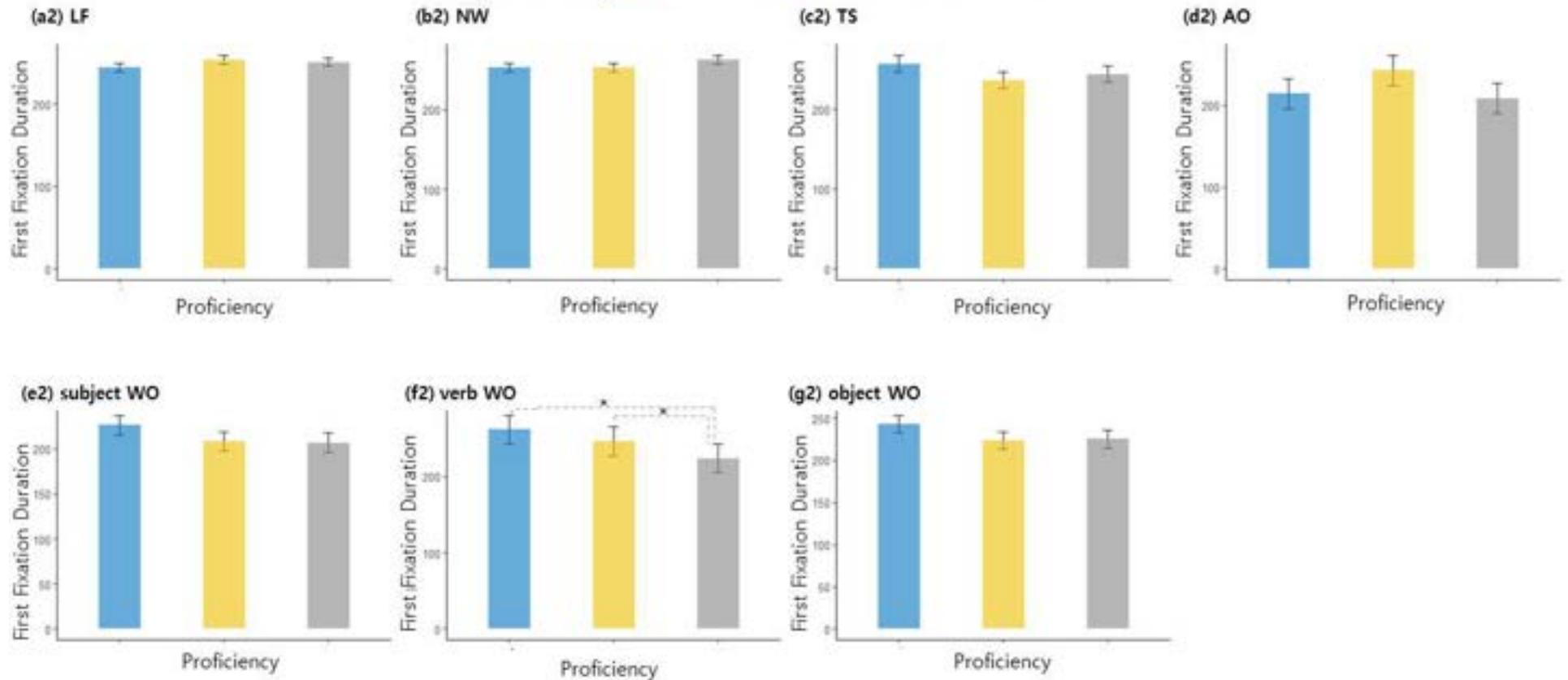
Block 2 Critical Regions Total Fixation Du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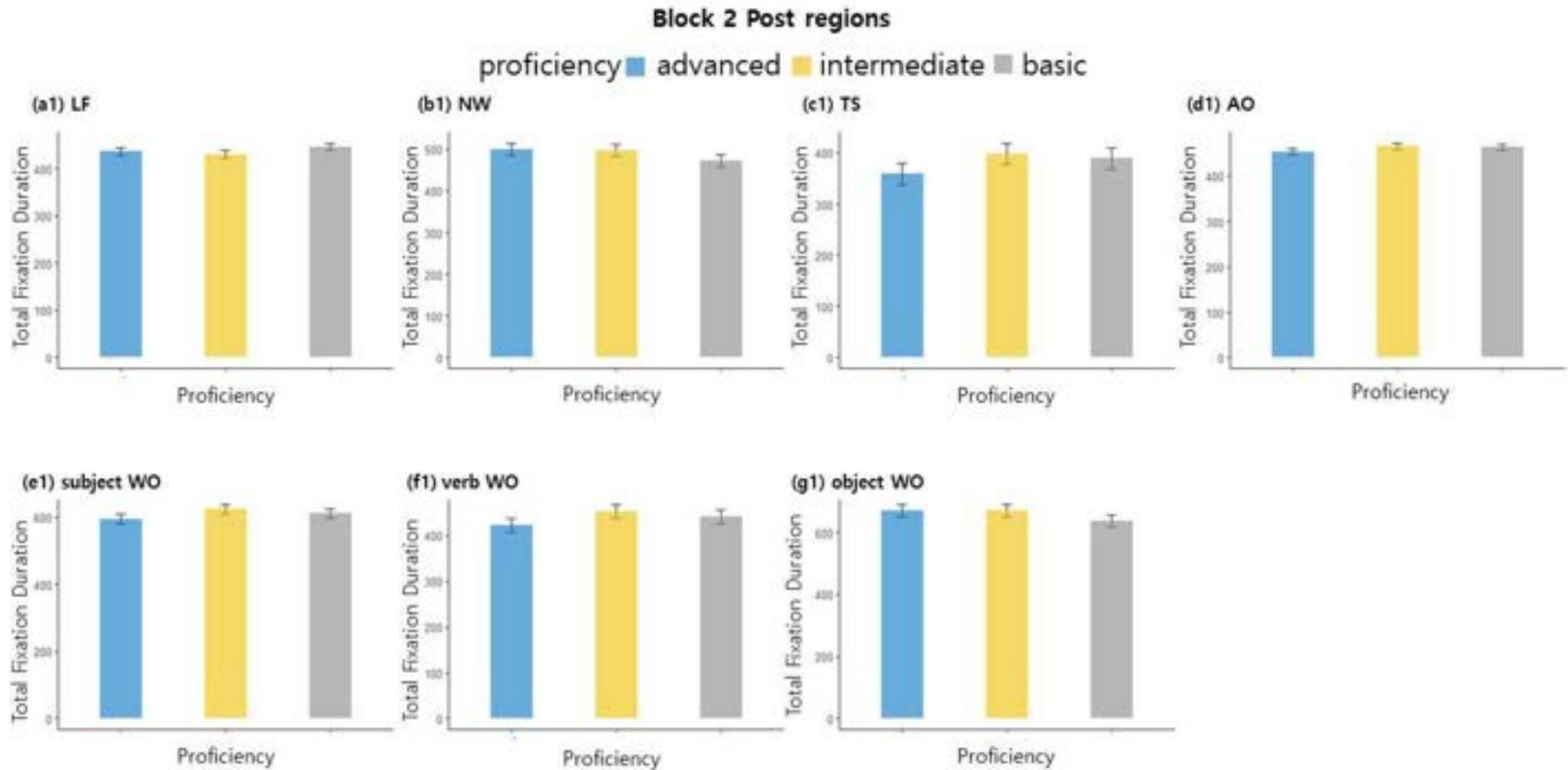
Block 2 Critical Regions First Fixation Duration

Block 2 Critical Reg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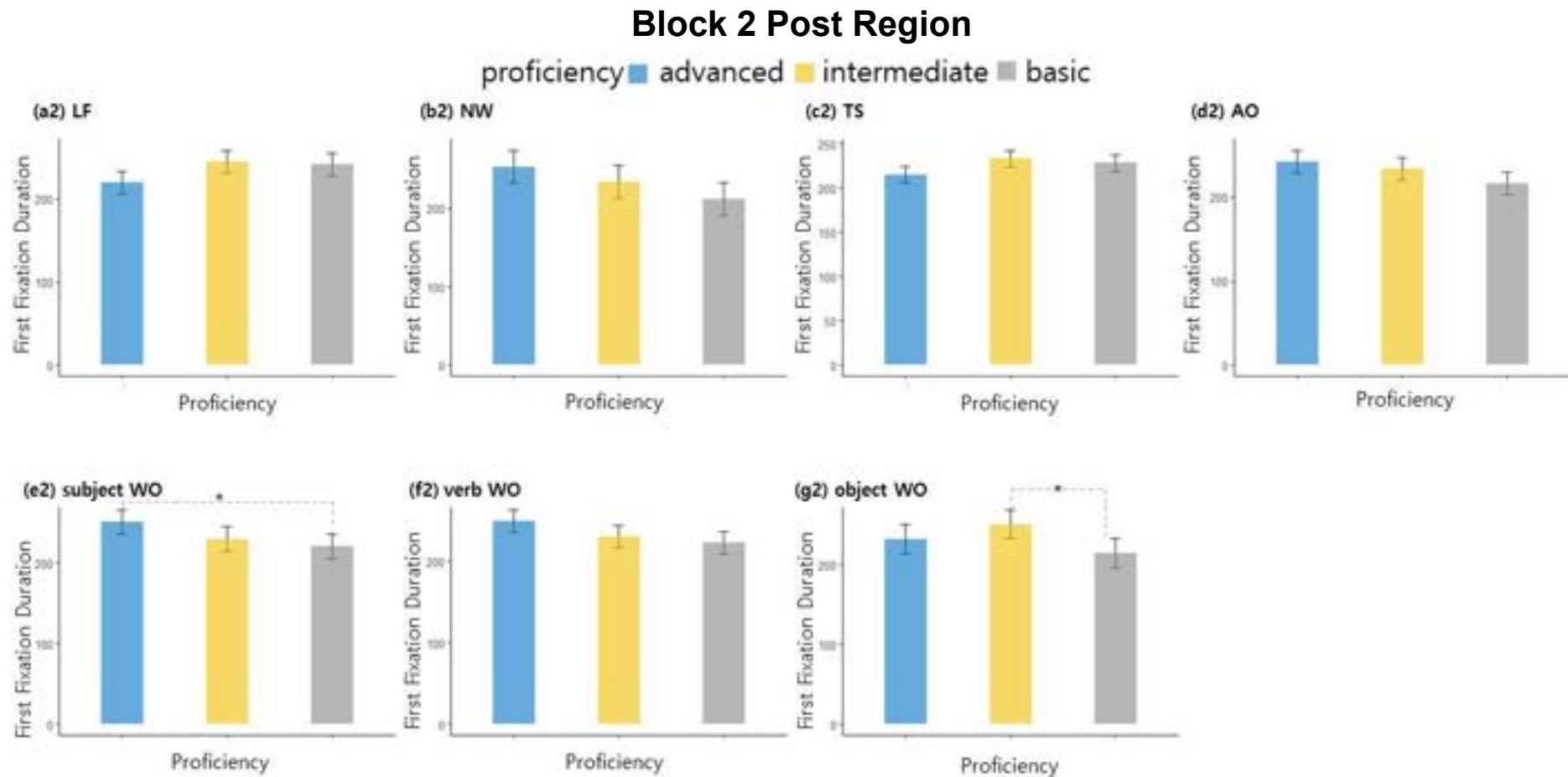
proficiency ■ advanced ■ intermediate ■ basic



Block 2 Post Regions Total Fixation Duration



Block 2 Post Regions First Fixation Duration



Discussion

- Intermediate L2 readers occupy a transitional position regarding successful error detection, as their error detection ability falls between the advanced and basic proficiency groups.
- Regarding WO indicated that both intermediate and advanced groups exhibited greater sensitivity across all regions of word order violations in L2, signifying their heightened awareness of such violations compared to basic L2 learners.
- WO violations are less salient in Korean, where word order flexibility exists due to the presence of case markers.
- L2 learners with higher proficiency, particularly advanced learners, demonstrated longer first fixation durations compared to basic learners when encountering other types of errors.
- L2 proficiency enhances the speed of error detection, as highly proficient L2 learners exhibited early detection of most error types.

Discussion cont'd

- The detection of illegal nonwords exhibits the least L2 proficiency effect.
- Alternatively, the outcomes of NW could potentially be correlated with the results of LF.
- Given that the participants struggled with LF comprehension, the possibility arises that the NW result could also be attributed to a lexical gap; it's plausible that they encountered difficulty comprehending NW as well.
- In Block 1, advanced L2 learners exhibited heightened error sensitivity, particularly for article omission (AO) and tense disagreement (TS) errors.
- An error-checking task may enhance L2 error sensitivity, and that higher L2 proficiency may result in a greater boost in error sensitivity from the task compared to lower L2 proficiency levels.
- Given that higher L2 proficiency has been associated with reduced cognitive load and improved working memory capacity in L2 processing, it can be argued that advanced L2 learners have advantages in error detection.

Discussion cont'd

- When the error-checking task is introduced, the detection of TS may have a greater spillover effect on the post regions, whereas detecting AO does not elicit a similar effect.
- It can be argued that each violation may have varying degrees of spillover effect.
- Additio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L2 error sensitivity for tense errors may result in a spillover effect, similar to plural and verb categorization errors demonstrated in a previous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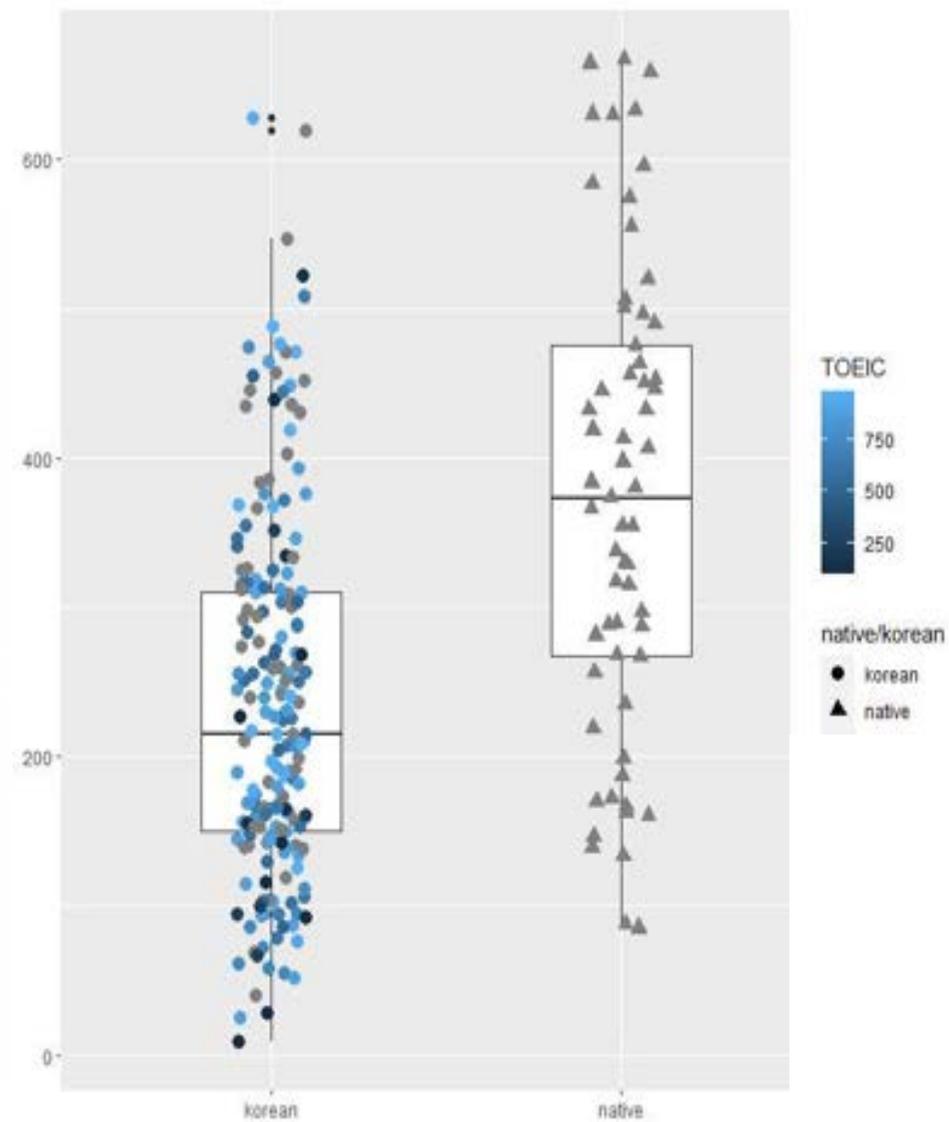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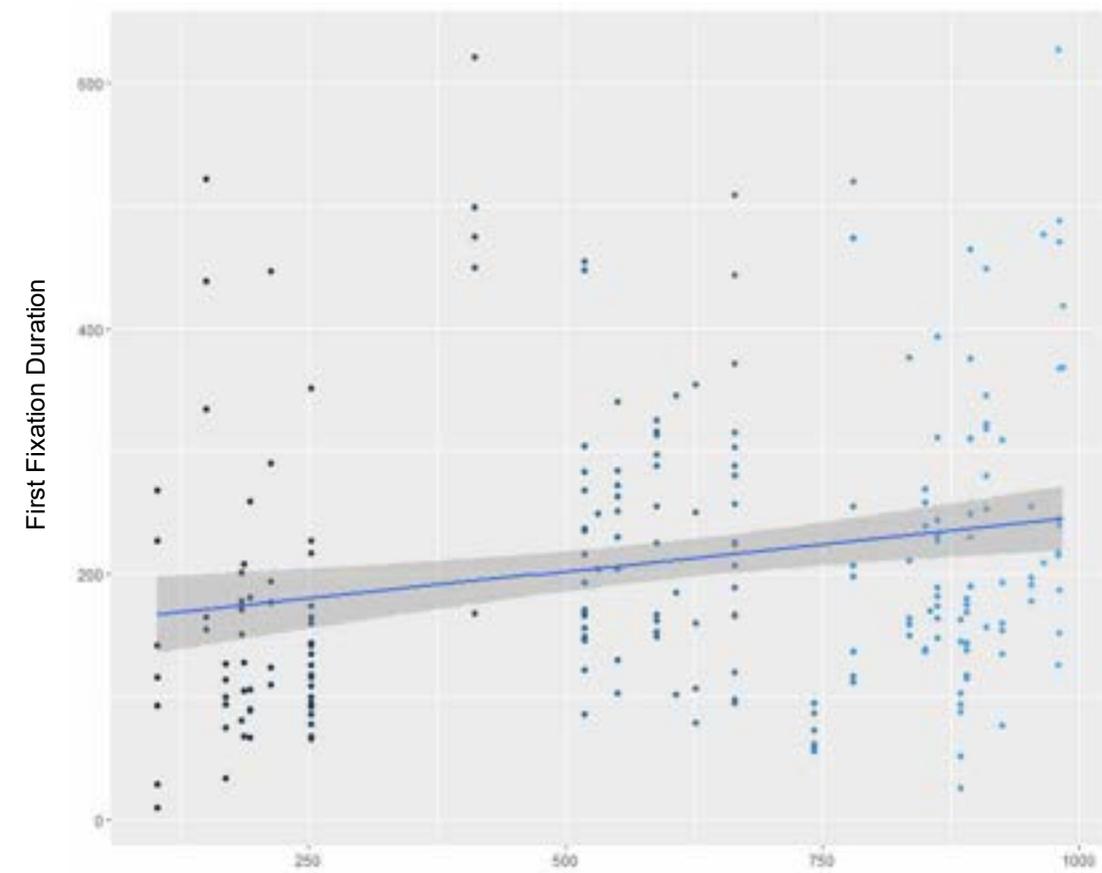
Limitations

- L2 proficiency was operationalized using three distinct participant groups, rather than employing a continuous measure based on L2 proficiency test scores.
- There was an imbalance in the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among the different proficiency groups, which could introduce biases and affect the generalizability of the findings.
- A substantial number of outliers were observed in the fixation durations, which could have introduced noise and obscured the accuracy of the data analysis.
- The sequence of the blocks was not pseudorandomized, which raises the possibility that the outcomes might have been influenced by practice effects.
- To ensur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observed outcomes, it is essential to account for the influence of additional factors, such as working memory capacity and L1 reading skill, which have the potential to impact error sensi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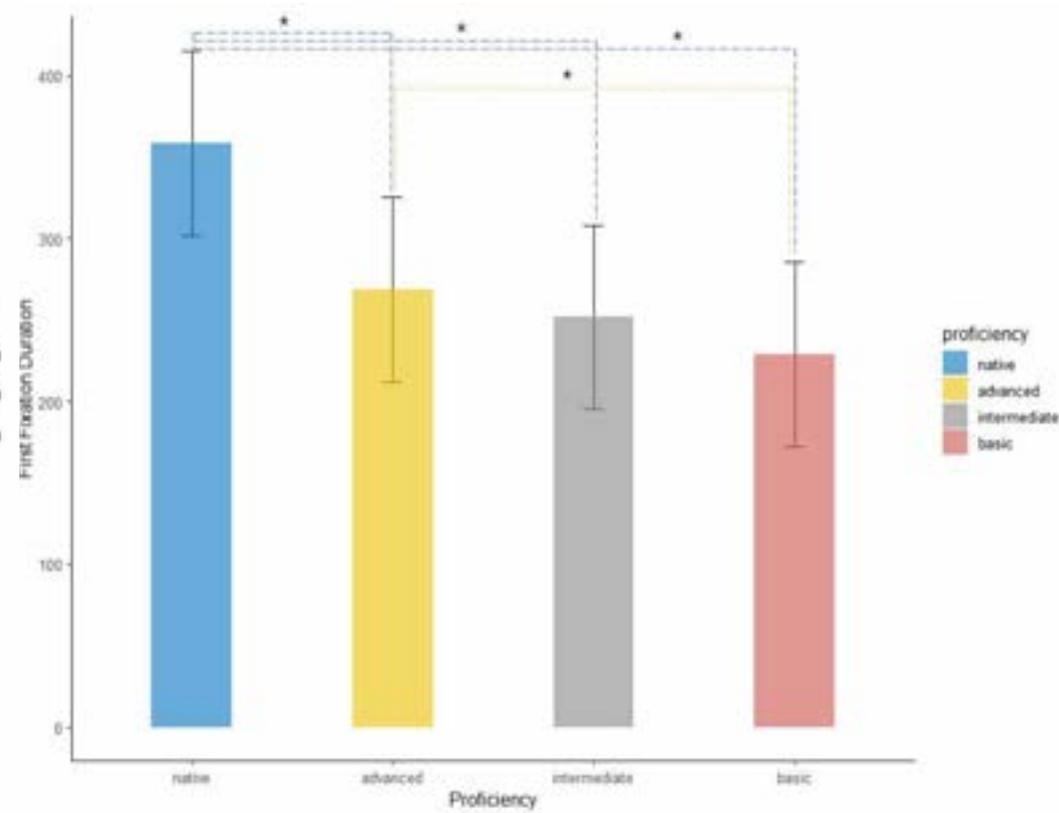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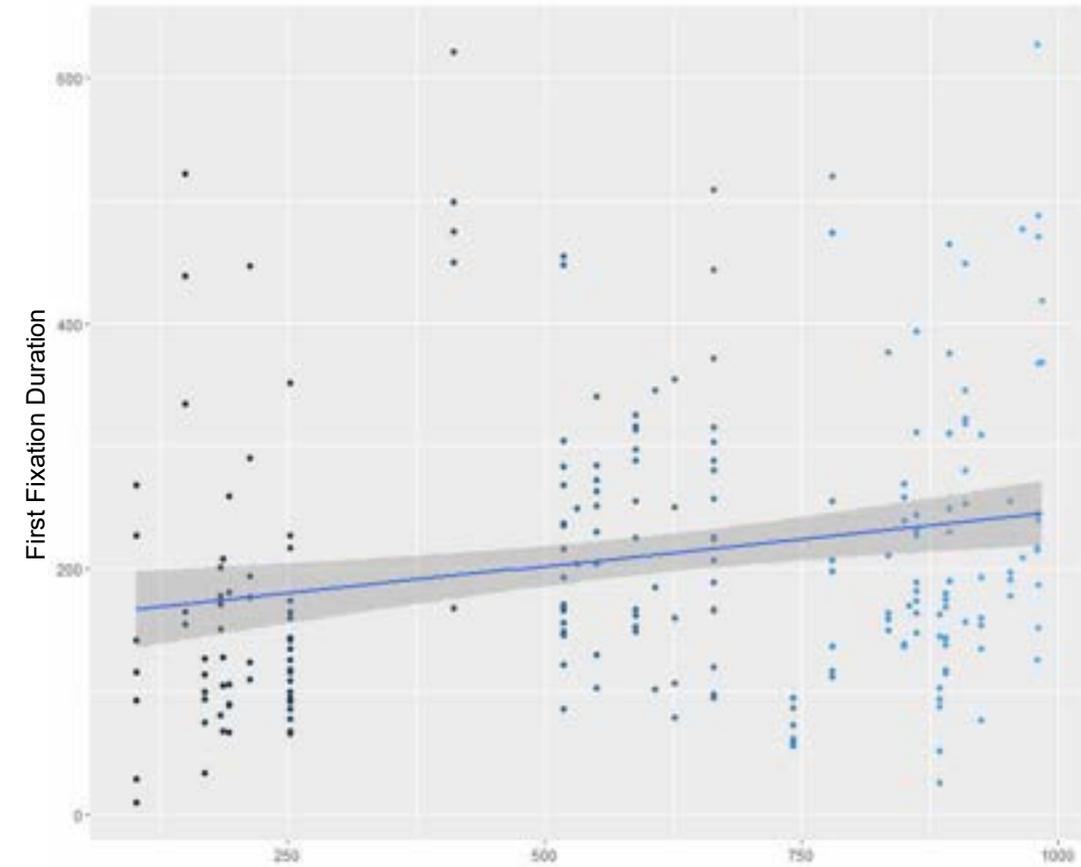
Conclusion

- This study represents the first attempt to investigate L2 error sensitivity across various types of violations.
- The findings suggest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2 error sensitivity and L2 proficiency, but further investigation is need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rrors interrupting other error processing.
- The inclusion of an error-checking task intensified the detection of errors, particularly among advanced L2 readers.

Further study



Further study cont'd



Session 7 <응용/심리언어학> 사회:박상희(한밭대)

양손 수어의 의미 기능과 특성

발표: 조주연, 정유진 (고려대)

토론: 하경영(상명대)

양손 수어의 의미 기능과 특성

조 주 연 (고려대학교)*

정 유 진 (고려대학교)**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수어에서 양손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단어의 형태적 특성과 의미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고 양손 수어 단어의 의미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손 수어에서 중첩(reduplication)과 전경/배경(figure/ground) 개념을 활용하여 한국수어 양손 수어의 의미 기능과 특성을 고찰한다.

한 손 수어로도 의미 전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양손 수어를 통한 중첩 행위는 언어의 경제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는 손이 두 개밖에 없어 특히 제한적인 수어의 특성상 더욱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수어에서 양손을 사용하는 것은 언어의 도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언어의 구조와 단어에는 의미와 형식의 유사성인 도상성이 내재한다. 언어 형식과 도상성은 파생(derivative), 복수(plural) 표현으로 드러나며 복잡한 의미는 길거나 더 복잡한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는 한 손이 기본형으로 쓰이는 단어에 나머지 한 손을 추가하여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고 복수를 나타낸다는 기능적 측면을 통해 알 수 있다. 양손을 활용한 단어의 양이 매우 많고 수어의 도상적 특징이 양손을 통해 잘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양손 수어의 형태·의미와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외 수어 연구에서 중첩은 움직임의 반복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복수의 의미를 갖는다고 알려져 왔다(Pfau, 2016; 이영재, 2019; Kim & Jhang, 2023).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의 중첩 개념을 중첩, 반복(repetition)과 배가(doubling)로 세분화한다. 특히 배가는 한 손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본형인 수어에, 완전중첩의 형태로 다른 한 손을 추가하여 양손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복수를 나타내고 의미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힘들다], [똑똑하다], [욕심등을 양손으로 표현하면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며 [벌레], [흡연하다], [마시다] 등은 복수를 나타낸다.

양손은 전경과 배경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며(Talmy, 2003) 개념적 이미지가 반영된다. 양손이 전경과 배경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양손이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한다. [강원도], [화산]에서 비우세손으로는 배경인 [산]을 나타내며 우세손으로

2 조주연 · 정유진

는 각각 [흐르는 물]과 [용암]은 전경을 나타낸다. 또한 [레슬링], [유도] 등의 경우 비우세손은 배경으로 사용되어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닥을 의미하고 우세손은 경기 중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전경으로 기능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양손 수어는 양손을 모두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수어의 동시성과 도상성을 활용하여 의미의 구체성과 기능적 측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양손 수어의 사용은 단순한 경제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언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Key words: korean sign language, reduplication, doubling, figure/ground, plural meaning, lexical meaning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sldict.korean.go.kr/front/main/main.do> (검색일 2023. 9. 21.)
- 이영재. 2019. 한국수어의 반복(Reduplication) 연구. 『국어문학』 72, 29-59.
- Kim, Soojung & Jhang, Se-Eun. 2023. Reduplication in Spoken and Sign Languages. 『새한영어영문학』 65(1), 269-297.
- Pfau, R. 2016. Morphology. In Baker, A., van den Bogaerde, B., Pfau, R., and Schermer, T.(Eds.),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ernational handbook*.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Börstell, C, Lopic, R. & Belsitzman, G. 2016. Articulatory plurality is a property of lexical plurals in sign language. *Linguisticæ Investigationes*. 39(2). 391-407
- Börstell, C. 2011. Revisiting reduplication: Toward a description of reduplication in predicative signs in Swedish Sign Language(MA thesis). Department of Linguistics, Stockholm University.
- Talmy, L. 2003. The representation of spatial structure in spoken and signed language. In Karen Emmorey(ed.), *Perspectives on classifier constructions in sign languages*. 169-195, NJ: Lawrence Erlbaum.

조주연
박사과정생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언어학과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02-3290-2170, chojuyeon@korea.ac.kr

정유진
부교수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언어학과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02-3290-2170, echung2@korea.ac.kr

양손 수어의 의미 기능과 특성

조주연·정유진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2023 가을 한국영어학학회 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목차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4. 분석
5. 결론

1. 목적 및 필요성

- 언어의 구조와 단어에는 도상성이 내재
 - 파생(derivative), 복수(plural), 더 길거나 복잡한 형식
- 시각언어인 수어는 음성언어보다 도상성이 더욱 풍부

• 예)



[집]



[바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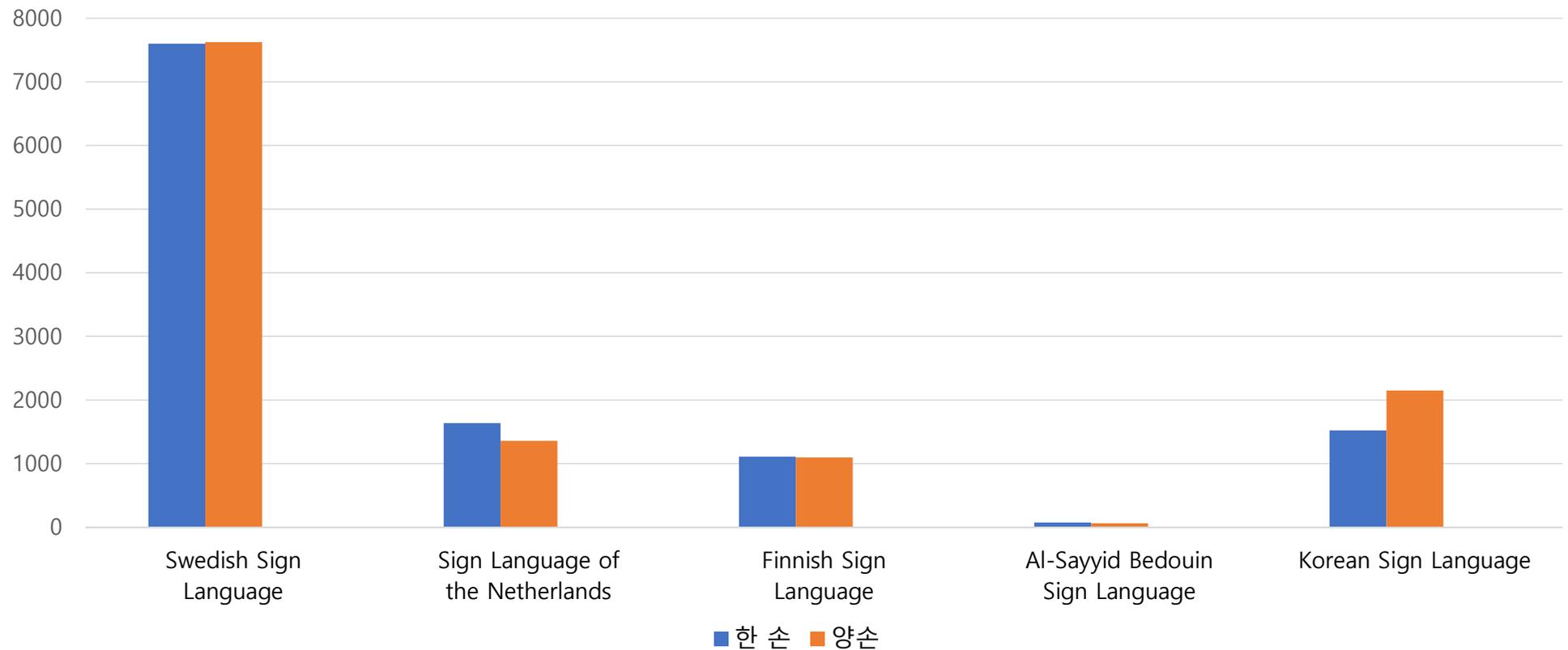


[결혼]

- 양손을 사용한 수어가 한 손을 사용한 수어보다 도상성 ↑

1. 목적 및 필요성

여러 수어사전의 한 손 수어와 양손 수어의 개수(Börstell et al, 2016에서 수정)



1. 목적 및 필요성

- 양손을 활용한 수어가 다수 존재
 - 양손 사용을 당연한 현상으로만 취급, 현재 한국수어의 양손 수어의 형태와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1. 양손 수어를 형태적 특성에 따라 분류
 2. 양손 사용이 형태론적 과정임을 밝힘
 3. 형태적 특성에 따른 의미 기능과 의미 특성을 도출

2. 선행연구

- 양손 수어(two-handed sign)
 - 균형 수어(balanced sign), 불균형 수어(unbalanced sign)



[재활]



[다치다]



[자동차]



[레슬링]

- 우세손(dominant hand), 비우세손(non-dominant hand)

2. 선행연구

- 중첩(reduplication)
 - 언어 단위의 전체 또는 부분을 되풀이하는 현상
 - 구석구석, 생글생글(김옥영, 2015)
 - amigo 'friend', ami-amigo 'friends'(Rubino, 2005)
- 수어의 중첩(reduplication) 현상은 크게 세 가지
 - 중첩, 반복(repetition), 배가(doubling)

2. 선행연구

- Börstell,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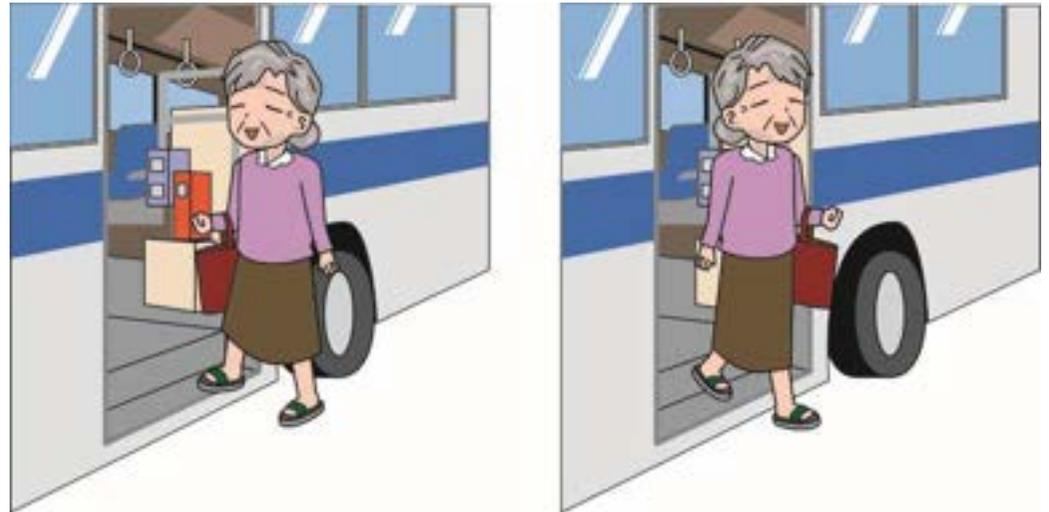
중첩	반복
WAIT++++ /swe/++++ '[I] waited continuously.'	WAIT: WAIT: /swe/ /swe/ '[I] waited, and [I] wai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으로 여러 하위 사건을 전체 중 일부로 표현함 ✓ 문법적 기능을 함 ✓ 각 조음자의 형태가 덜 명확하며 동작 간의 전환이 부드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음자가 각각의 사건을 표현 ✓ 문법적 기능 없음 ✓ 각각의 조음자가 구별됨

2. 선행연구

- 배가(doubling)
 - 다른 손이나 입 모양을 추가하여 의미를 나타내는 것(Klima & Bellugi, 1979; Börstell, 2011)
 - 같은 형태의 양손이 동시 또는 교대로 사용하는 경우 중첩과 관련
- 중첩과 반복은 구분하기에 매우 모호(Börstell, 2011)
 - 수어의 경우 여러 조음자가 동시에 산출(예: 수형+수동, 수형+수동+입 모양 등)되므로 중첩과 단순 반복을 구분하기 어려움
- 그러나 배가는 형태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중첩이 표현되는 방법

2. 선행연구

- 전경/배경(Talmy, 2003)



- 양손은 본질적으로 쌍을 이루고 서로의 관점에서 정의되므로 전경/배경을 나타내는 관계를 나타내는 수어는 양손으로 부호화 (Lepic et al., 2016)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3. 연구 방법

- 『한국수어사전』의 표제어를 양손 수어와 한 손 수어로 분류
- 한 손 수어 중에서 양손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를 선별
(이주애, 2016 참고)
 - 선별된 단어들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
- 양손 수어에서 전경/배경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를 선별하여 분석

4. 분석

- 양손 수어의 의미 기능 ①

- 복수



[별레]

- 강조



[힘들다]



[흡연]

- 배가는 주로 형태소 단위를 추가하므로 굴절로 취급할 수 있음
- 수동의 반복 뿐만 아니라 양손을 이용해 복수와 강조를 나타냄

4. 분석

- 양손 수어의 의미 기능 ②
 - 전경/배경을 통해 경험에 의한 개념적 이미지를 표현



[(이동수단에)타다]



[화산]



[마치다]



[근본]

4. 분석

형태(form)			의미 기능	예
한 손				
양손	동시	불균형	전경/배경	[(이동수단에)타다], [화산], [레슬링], [마치다]..
		균형	복수	[벌레], [잃어버리다]
	강조		[당황하다], [똑똑하다], [욕심]	
	교대(순차)	균형	강조	[소리지르다, 시끄럽게 하다]
			복수	[흡연하다], [마시다]

5. 결론

- 양손 수어는 복수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의미를 강조하기도 함
- 양손으로 전경/배경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개념적 이미지를 표현
- 양손 활용을 통한 굴절 표현은 수어의 생산성을 보여줌
- 동시성과 도상성을 활용하여 의미의 구체성과 기능적 측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양손 수어의 사용은 단순한 경제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언어 전략
- 향후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양손 사용 패턴과 형태·의미 제약을 살펴보고자 함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검색일: 23. 9. 21)
- 김옥영(2015), 「한국어의 중첩현상과 단어형성 -강릉방언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72, 123-151.
- 이주애(2016), 「한국수어의 비우세손에 관한 언어학적 특성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örstell, C.(2011), Revisiting reduplication: Toward a description of reduplication in predicative signs in Swedish Sign Language(MA thesis). Department of Linguistics, Stockholm University.
- Börstell, C. Lopic, R. & Belsitzman, G.(2016), Articulatory plurality is a property of lexical plurals in sign language. *Linguisticæ Investigationes*. 39(2). 391-407.
- Klima, E. S. & Bellugi, U.(1979), *The Signs of Langu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opic et al.(2016), Taking meaning in hand: iconic motivations in two-handed signs. *Sign Language & Linguistics* 19(1), 37-81.
- Rubino, C.(2005), Reduplication: Form, function and distribution. In: Hurch, Bernhard(ed.), *Studies on Reduplica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 Talmy, L.(2003). The representation of spatial structure in spoken and signed language. In Karen Emmorey(ed.), *Perspectives on classifier constructions in sign languages*, 169-195, NJ: Lawrence Erlbaum.

Session 8 <응용/사회언어학> 사회:김진해(경희대)

Raising sociolinguistic awareness with AI chatbots in 3D metaverse environments

발표: 이성용 (한남대)

토론: 최진선(한국기술교육대)

Raising sociolinguistic awareness with AI chatbots in 3D metaverse environments

Seongyong Lee (Hannam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이성용(한남대학교, 조교수)

Seongyonglee77@gmail.com, 010-7488-7236

대전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사범대 314호

Raising sociolinguistic awareness with AI chatbots in 3D metaverse environments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role of technology in enhancing Global Englishes awareness (GEA) within English language teaching (ELT) contexts, given the burgeoning research on Global Englishes (GE) but limited understanding of technological interventions (Rose et al., 2021). On the one hand, many pre-service English teachers, especially in ELT environments, have scant opportunities for English as a lingua franca (ELF) communication (Kim et al., 2022). On the other hand, current AI chatbots in ELT predominantly articulate native English, stemming from a bias towards native speech data (Ahn & Lee, 2016; Jeon, 2022; Markl & Lai, 2021). To bridge this gap, we embarked on a quasi-experimental study involving 97 pre-service English teachers from two South Korean universities, divided into one control group (CG, N=32) and two experimental groups (EG1, N=31; EG2, N=34). The CG received no GE instruction, whereas EG1 undertook presentation activities on English varieties and EG2 conversed with AI chatbots in a 3D metaverse that simulated diverse English accents. These chatbots, integrated into the metaverse as non-player characters, enabled participants to interact with various Englishes (Hwang & Chien, 2022). A mixed-method approach, incorporating surveys and focus-group interviews, assessed variables, such as the acceptance of different English varieties, native-speakerism, confidence and intention regarding ELF communication, and willingness to teach GE (Cao & Wei, 2019; Fang & Ren, 2018). ANCOVA analysis indicated that both experimental groups exhibited enhanced GEA compared to the CG, with EG2, the group engaging with chatbots, showing a stronger impact on ELF confidence and intention. This research underscores the potential of technology, particularly AI chatbots, in bolstering GEA in ELT contexts. The findings provide valuable pedagogical insights, suggesting that the integration of such technological tools can augment ELF communication skills and enhance overall GEA.

Session 8 <응용/사회언어학> 사회:김진해(경희대)

해외 TV다큐멘트리에서 재현된 한국택배노동현장: 복합모드 담화분석을 기반으로

발표: 신진원(부산대)

토론: 예선희(중앙대)

해외 TV 다큐멘터리에서 재현된 한국택배노동현장: 복합모드 담화분석을 기반으로

신진원(부산대, 교양교육원 강사)

본 연구는 2021년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택배기사의 죽음과 관련하여 호주와 싱가포르 공영방송에서 방영된 TV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해외미디어에서 한국의 노동현장이 어떻게 규정되고 어떤 시각으로 재현되고 있는지를 담화영역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는 (1) 두 다큐멘터리가 한국 택배노동현장의 주요 구성원들, 즉 노동자 및 노동사용자, 한국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재현했는가를 복합모드담화분석을 통해 밝히는 것이다. 또한 (2) 그 재현 결과를 통해 노동자 및 노동사용자, 한국사회 간의 상호관계성을 밝히고 두 프로그램에서 한국택배노동현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3) 다큐멘터리의 관점 생성을 위해 언어 외에 이미지와 음악과 같은 비언어적 모드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협력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으로서 선정된 TV 다큐멘터리는 한국 택배기사의 죽음을 다룬 호주 공영방송 ABC의 <Foreign Correspondent> 프로그램과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에서 방영하는 <CNA Insider> 프로그램에서 다룬 에피소드다.

분석방법으로 언어분석의 경우, Halliday(2004)의 체계기능언어학 개념을 이용한다.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사건, 관계, 상황 등이 어떻게 재현되었는가를 살필 때 절(clause)의 과정(주로 동사로 실현), 참여자(주로 명사와 명사구로 실현), 배경(주로 부사나 부사구로 실현)의 구조화를 조사한다.

이미지 분석의 경우는 Kress & van Leeuwen(2006)의 이미지 문법을 기반으로 관념적 의미에 해당하는 재현적 의미를 분석한다.

음악의 경우는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특성상 의미를 만들어내는 언어와 이미지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두 기호가 만들어내는 의미를 어떻게 보조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해외 TV 다큐멘터리에서 재현된 한국택배노동현장: 복합모드 담화분석을 기반으로

신진원(부산대, 교양교육원 강사)

본 연구는 2021년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택배기사의 죽음과 관련하여 호주와 싱가포르 공영방송에서 방영된 TV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해외미디어에서 한국의 노동현장이 어떻게 규정되고 어떤 시각으로 재현되고 있는지를 담화영역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택배기사의 죽음과 관련하여 호주와 싱가포르 공영방송에서 방영된 TV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해외미디어에서 한국의 노동현장이 어떻게 규정되고 어떤 시각으로 재현되고 있는지를 담화영역의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다큐멘터리가 한국사회의 택배노동현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관점을 구성하는 방식을 체계기능언어학 기반의 복합모드담화분석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두 다큐멘터리의 관점 차이를 담화영역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두 다큐멘터리가 한국 택배노동현장의 주요 구성원들, 즉 노동자 및 노동사용자, 한국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재현했는가를 복합모드담화분석을 통해 밝힌다. 또한 (2)그 재현 결과를 통해 노동자 및 노동사용자, 한국사회 간의 상호관계성을 밝히고 두 프로그램에서 한국택배노동현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논의해 본다. 마지막으로 (3)다큐멘터리의 관점 생성을 위해 언어 외에 이미지와 음악과 같은 비언어적 모드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협력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본 연구의 선행연구 중 하나는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의 특성과 저널리스트의 관

점을 관련지은 연구들로, Vickers & Rutter 2018, Pamungkas & Sokowati 2022, 김수정 2008, 안병규 2009, 심우진 & 신동일 2017, 김훈순·정사강 2020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연구들은 다큐멘터리가 실제 세계를 다루기는 하지만 저널리스트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현실을 새롭게 재구성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현재에 존재하는 사실의 단편을 어떻게 재배열하는가에 따라 재현된 현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사례 연구를 통해 입증한 것이다. 다큐멘터리에서 사건이나 현실 재현을 탐구하고자 할 때는 이 연구들처럼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는 콘텐츠 분석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어휘 문법의 구성, 이미지의 구성 등을 조사하는 미시적인 접근으로 접근 방향에서 독창성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선행연구인 해외다큐멘터리에서 한국사회현상 재현을 논의한 연구는 심훈(2009)과 Choi(2009)이다. 심훈(2009)은 ‘쓰나미’를 다룬 한·미 양국의 TV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내레이션의 등장유형 및 발화방식과 같은 이야기 전달방식에서 양국 다큐멘터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조사하였다. Choi(2009)는 미국 PBS 다큐멘터리가 한국전쟁을 어떻게 재현했는가를 탐구하여 그들의 관점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두 연구는 모두 채트만(Chatman 1990)의 서사이론을 바탕으로 한 서사구조에 대한 탐구이다. 따라서 사회언어학측면에서 담화분석을 기반으로 한 본 연구는 두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해외미디어에서 한국사회 현상을 조사한 또 다른 연구로는 이윤진 2007; 황상재 외 2012; 신진원 2014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NY times>나 <BBC>, <르몽드>지와 같은 서구 유럽 중심의 지면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우선 영상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다르다. 또한 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다수의 교민이 존재하지만 한국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비주류 국가로 분류되는 호주와 싱가포르 미디어에서 한국사회 현안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도 차별점이 발생한다.

분석방식으로 복합모드담화분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Chen & Gao 2014, Guo & Feng 2017, Kim 2021 등이 있다. 하지만 모두 지면광고, 포스터, 웹사이트와 같은 고정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미디어의 사회현상 재현을 분석한 복합모드

담화분석 연구는 Piazza(2015; 2020), Tseronis (2015), Saleh & Fero(2022)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외연구로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복합모드를 분석한 국내연구는 김규훈(2020)만이 발견된다. 이 연구는 국어교육현장에서 복합모드담화분석을 활용하고자 한 연구로, 분석대상으로서 다큐멘터리를 선택했다. 따라서 해외미디어가 한국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사하는 본 연구와는 연구목적에서 차이점이 있다.

3.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두 편의 해외다큐멘터리가 한국사회의 택배노동현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관점을 구성하는 방식을 복합모드담화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담화영역의 측면에서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다.

<연구문제1> 두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택배노동현장을 구성하는 노동자 및 노동사용자, 한국사회는 각각 어떻게 재현되었는가?

<연구문제2> 두 다큐멘터리가 재현한 한국의 택배노동현장은 어떠하며, 담화영역의 측면에서 관점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두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택배노동현장을 재현하기 위해 언어, 이미지, 음악 등을 어떻게 구성했으며, 기호간 협력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절차는 아래와 같다.

- 1) 다큐멘터리 및 체계기능언어학의 복합모드담화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설계한다.
- 2) 호주 ABC의 <Foreign correspondent>와 싱가포르 CNA의 <CNA Insider>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에피소드의 영상과 스크립터를 다운받고, 이미지, 사운드를 추출한다.
- 3) 추출된 자료 중 언어텍스트와 이미지텍스트를 바탕으로 노동자, 노동사용자, 한국사회 관련 시퀀스(Sequence)와 장면(Scene)을 분류한다.
- 4) 분류된 장면을 대상으로 언어와 이미지 각각 관련 과정(process) 및 참여

자(participant) 분석을 실시하고 음악과의 협력 관계를 조사한다.

- 5) 재현 결과를 통해 노동자, 노동사용자, 한국사회 간 상호관계성을 논의하여 두 프로그램의 관점 차이를 밝힌다.

분석대상으로서 선정된 TV 다큐멘터리는 한국 택배기사의 죽음을 다룬 호주 공영방송 ABC의 <Foreign Correspondent> 프로그램과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에서 방영하는 <CNA Insider> 프로그램에서 다룬 에피소드다.

[표1] 분석대상 다큐멘터리 정보

방송사	프로그램 제목	에피소드 제목	방영일
호주 ABC	Foreign Correspondent	Death on Arrival	2021.11.1
싱가포르 CNA	CNA Insider	Death by Overwork: South Korea's Delivery Workers Suffer Amid Pandemic Boom	2021.3.1

ABC의 <Foreign Correspondent(이후 ABC)>는 호주의 지식인을 시청자로 하여 호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현안을 소개하고 문제의식을 갖도록 이끄는 다큐멘터리이다. CNA는 싱가포르 국영방송 뉴스채널로, <CNA Insider(이후 CNA)>는 다큐멘터리로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현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분석범위로는 언어와 이미지 및 음악과 같은 기호들이 수행하는 관념적 의미(ideational meaning)에 한정한다. 관념적 의미란 Halliday(2004)에 의해 정리된 언어의 메타기능 중 하나로, 세상살이의 외적 및 내적 경험이 어휘와 문법을 통해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후 Kress & van Leeuwen(2006)의 사회기호학에서 재현적 의미(representational meaning)로 설명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관념적 의미란 용어로 통일한다. 이런 관념적 의미가 담화차원에서 실현될 때 담화영역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텍스트에서 관념적 의미의 분석은 언어와 이미지 텍스트를 대상으로 어떤 과정(process) 유형과 참여자(participant)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따라서 분석방법으로 언어분석의 경우, Halliday(2004)의 체계기능언어

학 개념을 이용한다.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사건, 관계, 상황 등이 어떻게 재현되었는가를 살필 때 절(clause)의 과정(주로 동사로 실현), 참여자(주로 명사와 명사구로 실현), 배경(주로 부사나 부사구로 실현)의 구조화를 조사한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을 재현하면서 어떤 텍스트는 속성을 설명하는 관계적 과정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텍스트에서는 행위자가 대상을 두고 특정 행위를 하는 물질적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자, 노동사용자, 한국사회가 들어간 절을 중심으로 과정 및 참여자 유형을 조사하여 그 맥락을 해석하고 관점을 논의하도록 한다. 언어분석을 위한 과정유형과 참여자유형 구분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2] 언어의 과정과 유형 구분 (Butt et al. 2012, p 81참조)

분류	세부과정	참여자	과정설명
하기	물질적(material)	행위자/대상	타인, 사물과 같은 물질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행동적(behavioral)	행동자	타인과 상황에 대한 영향 없이 자신 혼자 행하는 과정
존재	관계적(relational)	보유자/속성, 식별자/피식별자	사람 및 사물의 속성 사이의 관계, 가치를 나타내는 과정
	존재적(existential)	존재자	존재를 나타내는 과정
감지	전언적(verbal)	화자	사람의 생각을 말을 통해 표현하는 과정
	정신적(mental)	감지자	내적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

물질적 과정과 행동적 과정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나 사건을 표현한 것이라면, 개체의 식별이나 속성을 표현한 것은 관계적 과정과 존재적 과정이다. 또한 내부 세계의 변화를 표현한 것은 전언적 과정과 정신적 과정이다(이관규 외 2021). [표2]를 바탕으로 분석한 샘플은 다음과 같다.

[표3] 언어 텍스트 분석예시

방송	No	절 (clause)	과정	참여자
A B C	1	<u>61-year-old delivery driver Huh Wonjea</u> <u>is</u> a subcontractor with the Korean Postal Service.	관계적(식별적)	피식별자
	2	<u>He works</u> an average of 14 hours a day.	물질적	행위자
	3	<u>Drivers are</u> only paid around \$1 to \$1.50 per parcel	물질적	수혜자

C N A	1	<u>more than a dozen south Korean delivery workers died</u> last year allegedly from harsh working conditions	물질적	행위자
	2	<u>Delivery drivers</u> <u>start</u> the day	물질적	행위자
	3	<u>They</u> <u>pick out</u> packages with addresses in their districts.	물질적	행위자

영상 속 이미지 분석의 경우는 Kress & van Leeuwen(2006)의 이미지 문법을 기반으로 관념적 의미에 해당하는 재현적 의미를 분석한다. 언어는 의미 잠재력을 가진 사회적 기호라는 Halliday의 견해를 바탕으로 Kress & van Leeuwen(2006)은 언어처럼 이미지도 서로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재현적 의미는 서사적 재현과 개념적 재현으로 구별되는데, 서사적 재현은 의사소통 참가자가 벡터로 연결되며 서로에게 또는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재현된다. 반면 개념적 재현은 참가자를 보다 일반화되고 시간을 초월한 본질로 재현하는 것이다.

서사적 재현과 개념적 재현 역시 과정에 따라 역할이 결정된 참가자가 존재하며 그 사건을 구체화하는 환경을 갖는다. 따라서 언어처럼 이미지가 재현한 과정 및 참여자 유형을 세분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영상의 경우 계속 움직이는 이미지로 하부유형별 빈도를 셀 수 있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서사적 또는 개념적 재현이 등장하는 이미지가 지속되는 시간에 의미를 두고 시퀀스별 지속시간만을 합산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어떤 유형의 재현에 집중했는지만을 조사한다. 대신, 이미지 분석의 상당부분은 현저성(salience)을 갖는 이미지를 해석하고 저널리스트가 재현하고자 하는 바를 논의하는 데 할애한다.

[표4] 이미지 유형 구분

분류	내용	이미지 예시	해석
서사적 (narrative)	행위(행위에 초점), 반응(반응에 초점), 전언(말에 초점), 환경(환경에 초점)과정으로 분류 가능		행위와 사건, 시간적 배경, 공간 배치 등을 통해 서사를 해석

개념적 (concept- -ional)	개념이나 정보 제공의 방식에 따라 분류, 분 석, 상징 과정으로 분 류 가능		특정 개념이나 대 상들 간의 관계를 해석
-----------------------------	---	--	------------------------------

[표4]를 기준으로 현저성을 갖는 노동자의 이미지 분석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5] 이미지 분석 예시

방송	분류	영상이미지	분석내용
CNA	서사 적		서사적 재현: 소포 분류 작업을 하는 택 배노동자의 행위에 초점
ABC	개념 적		개념적 재현: 택배노동자가 묻힌 추모공 원으로 택배노동자의 죽음 상징

음악의 경우는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특성상 의미를 만들어내는 언어와 이미지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두 기호가 만들어내는 의미를 어떻게 보조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표6] 음악의 분석 예시

방송	번호	유형	설명	함축	다른 기호와의 관계
ABC	시퀀스 2	음악 (노래)	애국가	국가중심주의	해설: 노동자의 일과 설명 영상: 새벽, 택배차 주행시작 *한국사회 재현보조
CNA	시퀀스 5	음악 (비노 래)	빠른 리듬 연주	노동활동 (빠른 움직임)	영상: 택배노동자들이 골목에 서 택배상자를 들고 뛸 *노동자 재현 보조

4. 분석결과

분석결과로서 언어적 자원의 분석결과를 우선 살펴본다. 두 프로그램 모두에서 노동자를 재현하기 위해 사용된 과정유형은 물질적 과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노동자의 재현은 타인이나 사물 등 물질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하여 노동자는 특정한 행위를 하는 사회 참여자로 재현된 것이다. 두 다큐멘터리에서 두 과정으로 분류된 동사들은 물질적 과정의 경우, work, sort, deliver, die, arrive 등이다. 이 어휘들은 택배노동자의 작업을 묘사하면서 택배노동자 직업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데 선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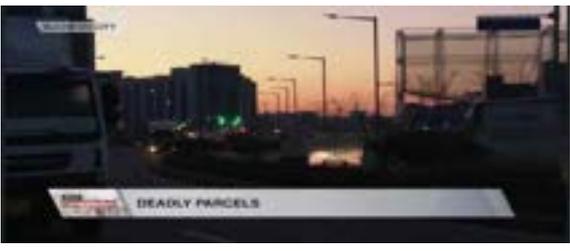
두 프로그램의 차이는 ABC 프로그램에서는 노동자를 표현하는 절에서 관계적 과정이 자주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관계적 과정은 속성과 특징에 초점을 맞춘 과정으로, 사람 및 사물과 속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무엇에 대한 가치를 나타낸다. ABC에서는 노동자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관계적 과정이 이용되었다.

또 다른 특징은 ABC가 내부 정신세계에 초점을 맞춘 과정인 전언적 과정과 정신과정 유형이 나타난 반면, CNA에서는 드물기 나타났다는 점이다. 두 과정은 사람의 생각을 말이나 내적 생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데, ABC의 경우, 가족, 동료들 그리워하는 장면에서 정신적 과정 유형이 자주 사용되었다.

이런 차이는 ABC가 외부 세계의 사건에 대한 기술보다는 사건의 속성이나 내적 세계를 기술하면서 노동자를 재현한 반면, CNA 경우는 노동자들의 속한 외부세계의 사건과 행위를 묘사하는 것으로 노동자를 재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지 분석 예시의 경우는, 거시적 시점의 영상 표현 기법만을 이곳에서 비교해 본다. 두 다큐멘터리에서는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개념적 재현을 나타내는 영상에서 등장인물이 활동하는 서사적 재현 장면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념적 재현은 노동의 시간적 장소적 배경 설명으로 작용하며, 상징성을 갖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서사적 재현은 택배 노동자의 일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화면이 가장 많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두 프로그램에 보여주는 시간적 배경이다.

[표7] 두 프로그램의 시간적 배경의 유사성

	ABC	CNA
이미지		
설명	개념적 재현: 상징 새벽 배달일을 위해 나서는 기사와 택배차	개념적 재현: 상징 새벽일을 시작하는 노동 환경

[표7]처럼 ABC와 CNA 모두에서 노동자가 물건을 분류하거나 물건을 배달하는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 대부분 새벽 또는 어두운 밤이다. 이 시간적 배경은 택배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보여줌으로써 고된 노동환경을 암시한다.

반면, 두 프로그램의 차이는 첫째 노동자가 등장하는 화면의 공간적 배경이다.

[표8] 두 프로그램의 공간적 배경의 차이점

	ABC	CNA
이미지		
설명	서사적 재현: 행위 + 환경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물건을 배달	서사적 재현: 행위 + 환경 승강기를 타고 물건을 배달

택배노동자의 환경에서 ABC는 복잡한 구도심의 다세대 주택을 배경으로 한다면, CNA는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장면이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ABC에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의 원인을 이들의 전반 노동환경에 두고 있는 반면, CNA는 그 원인을 노동환경이 아닌 코로나19와 같은 다른 것에 두고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차이는 노동의 고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사건의 초점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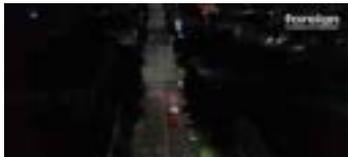
[표9] 두 프로그램의 노동 불합리성 상징 차이

	ABC	CNA
이 미 지		
설 명	서사적 재현: 행위 딸들과 비대면으로 영상 통화하는 장면	서사적 재현: 행위 충분한 식사 시간을 갖지 못한 운수노동 자의 식사시간

ABC는 엄마, 자식 등과 같이 가족을 등장시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의 서사를 만들었다면, CNA는 식사시간에 남들과 같이 보통의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노동의 고단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서구권과 아시아권에서 인간의 권리 침해로 보는 인지적 개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음악이 다른 기호와 협력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10] 음악의 협력 분석

	언어	이미지	음악
구 성 요 소	61-year-old delivery driver Huh Wonjea is a subcontractor with the Korean Postal Service. He works an average of 14 hours a day, or 70 hours a week.	 	애국가 음악 + 영어자막

영상에서 리포터의 내레이션으로 택배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화면 속 이미지는 노동환경으로서 이른 새벽의 도심을 하이앵글로 잡아 보여주고 점차 택배 차안에 있는 노동자로 클로즈업된다. 화면 속 이미지들은 택배노동자

의 노동환경을 시간적 배경을 보여줌으로서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 영상에 깔리는 음악은 택배차의 라디오에서 나오는 애국가이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노동자 개인 권익보다는 여전히 국가목표 지향의 사회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음악은 택배노동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5. 참고문헌

- 김규훈. (2020). 다문화 현상에 관한 국어 의식 교육의 가능성-비판적 언어인식의 관점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10(2), 53-78.
- 김수정. (2008). 영어교육열풍에 대한 텔레비전 담론: 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분석. *한국방송학보*, 22(5), 7-52.
- 김훈순, & 정사강. (2020). TV 다큐멘터리와 청년세대 재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학연구논총*, 36(2), 77-108.
- 남일우. (2017). 한류보도와 문화홍보: 독일 언론의 한류보도 프레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8), 312-324.
- 신진원. (2014). ‘세월호 사고’에 관한 한·미 신문 사설 비교 연구: 평가어 체계를 기반으로. *담화와인지*, 21(3), 123-143.
- 심우진·신동일. (2017). 영어교육 열풍에 관한 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분석: <PD 수첩> ‘조기 영어교육 열풍, 신음하는 아이들’ 방송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7), 79-92.
- 심훈. (2009). ‘쓰나미’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시사 다큐멘터리 담화 분석: 서술자의 등장 유형 및 발화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1), 208-240.
- 안병규. (2009). TV 다큐멘터리 장르 차이가 빚어내는 ‘이주여성’의 현실재현 비교: 시사다큐멘터리 MBC <PD 수첩> 과 휴먼다큐멘터리 KBS <인간극장>을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3(2), 121-168.
- 이관규, 김서경, 노하늘, 성수진, 신희성, 유상미, 이현주, 정려란, 정지현, 정혜현. 2021. *체계기능언어학 개관*. 사회평론아카데미
- 이윤진. (2007). 영국에서의 한국이미지와 스토리텔링/서사의 변화: 2002년~2005년 <The Times>에 나타난 한국관련 기사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한국언론학보*, 51(1), 32-58.

- 황상재, 최진우, & 조용현. (2012). 유럽의 언론과 한국: 프랑스, 영국, 독일 언론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 *유럽연구*, 30(3), 141–181.
- Butt, D., Fahey, R., Feez, S., Spinks, S., & Yallop, C. (2012). *Using functional grammar: An explorer's guide*. Palgrave.
- Chatman, S. B. (1990). *Coming to terms: The rhetoric of narrative in fiction and film*. Cornell University Press.
- Chen, Y. & Gao, X. (2014). Interpretation of movie posters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GSTF Journal on Education (JEd)*, 1(1).
- Choi, S. (2009). The new history and the old present: archival images in PBS documentary Battle for Korea. *Media, Culture & Society*, 31(1), 59–77.
- Guo, F. & Feng, X. (2017). A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of advertisements—based on visual grammar. *Journal of Arts and Humanities*, 6(3), 59–69.
- Halliday, M. A. K. and Matthiessen, C. M. I. M. (2004).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3rd edition). London: Arnold
- Kress, G. van leeuwen, t. (2006).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 Kim, J. (2018). Exploration of National Image Through YouTube Video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Tennessee, 2018.
- Kim, S. Y. (2021). College disability support offices as advertisements: A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Studies*, 23(2), 166–190.
- Nichols, B. (2017). *Introduction to documentary*. Indiana University Press.
- Pamungkas, N. & Sokowati, M. (2022, June). Production of Femininity Discourse in Documentary Film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Our Mothers' Land Films). In Proceedings University of Muhammadiyah Yogyakarta Undergraduate Conference (Vol. 2, No. 1, pp. 342–357).
- Piazza, R. (2015). The representation of travellers in television documentaries: dispelling stigma while dealing with infotainment demands. *Values and Choices in Television Discourse: A View from Both Sides of the Screen*, 132–157.

- Piazza, R. (2020). Ideology in the multimodal discourse of television documentaries on Irish travellers' and gypsies' communities in the UK. *Telecinematic Stylistics*, 113.
- Saleh, A. A., Rasul, K. A., & Fero, K. (2022). A Multimodal Analysis of Discourse and Narrative In Kurdish Television Documentaries. *Polytechnic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1), 85–97.
- Tseronis, A. (2015). Documentary film as multimodal argumentation: Arguing audio–visually about the 2008 financial crisis. Building bridges for multimodal research: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ories and practices of multimodal analysis, 327–345.
- Vickers, T. & Rutter, A. (2018). Disposable labour, passive victim, active threat: Migrant/non–migrant othering in three British television documentaries.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21(4), 486–501.
- Yang, T. (2020). A Research on Korea' s National Image Framing in the People' s Daily (2009–2019): Under the Frame of CDA.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8(2), 126–143.

2023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AI시대의 언어, 인지, 사회에 대한 재고찰>

Session 9 <언어처리> 사회:남윤주(한양대)

대화형 AI 챗봇의 공감 능력 탐색

발표: 김희수, 정혜윤(고려대)

토론: 이종현(서울대)

대화형 AI 챗봇의 공감 능력 탐색

김희수 · 정혜윤 (고려대학교)

인간 간의 대화에서, ‘공감(empathy)’은 상호 이해와 관계 구축의 핵심 요소다. Ekman (2003)에 따르면 공감은 감정 인지, 체감, 그리고 연민의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이의 감정, 생각, 경험에 깊이 관여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다. 공감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강화시키며, 보다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인간 관계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깊게 하며,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공감의 개념을 AI에 도입하는 것은 AI가 사용자의 감정과 필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50년의 튜링 테스트부터 최근의 ChatGPT 4.0에 이르기까지, 대화형 대화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와 강력한 상호 작용을 이끌어내고 대규모 참여를 유도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AI 모델들은 대부분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문장이나 질문에 대응할 뿐, 실제로 감정이나 공감을 체감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은 부재하다. 이러한 AI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근거한 패턴을 반복하며 모방하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저는 인공지능이라 감정이 없다"고 명시하기도 한다. 즉, AI가 단순히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사용자의 신뢰와 수용을 얻기 어렵다. Pelau, Dabija & Ene (2021)의 연구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감정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와의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감을 표현하며 상호작용해야 한다.

AI가 인간의 공감 능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방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인간과 AI간의 상호작용과 관계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이며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실제로 이 분야의 여러 연구는 인간과 AI 사이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욱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며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Wang & Goel (2022)은 상호 이해 발전을 위한 새 프레임워크, Mutual Theory of Mind (MToM)을 소개한다. 이 연구는 특히 일상에서 AI와의 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

본고는 스페인어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LuZia와 인간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발견되는 ‘공감 (empathy)’의 양상을 인간의 실제 대화 속 공감 양상과 비교한

다. 인간 대화의 예시로 스페인어 화자 간 휴대폰 앱을 통한 온라인 채팅 대화와 대규모 스페인어 일상 대화 코퍼스에서 발췌한 대화 샘플을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음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1. 공감 감지: 가장 먼저, 공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감지하고 식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2. 인지적, 정서적 공감의 구분: 이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발견된 공감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하였다. 3. 인지적, 정서적 공감의 세분화: Pudlinski (2005)와 Alam (2022)의 연구를 기반으로, 인지적 공감은 지식 공유, 조언 제공, 공유된 감각 형성, 공유된 의사 결정, 확인 질문, 비슷한 경험이나 감정 공유의 여섯 가지 하위 카테고리 나눴다. 다만, 정서적 공감은 감정 표현과 자신의 반응/감정 표현의 두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공감의 다양한 양상을 상세히 이해하며, 인간과 인간 간 대화와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대화를 상호 비교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 챗봇이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사용자들은 여전히 진정한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사용자들은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조언을 제공한다고 인식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공감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만족을 느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공감 능력 향상은 사용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Blair, R. J. R. (2005). Responding to the emotions of others: Dissociating forms of empathy through the study of typical and psychiatric population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14, 698 - 718.
- Ekman, P. (2003). *Emotions revealed: Recognizing faces and feelings to improve communication and emotional life*, New York, NY: Times Books.
- Pelau, C., Dabija, D. C. & Ene, I. (2021). What makes an AI device human-like? The role of interaction quality, empathy and perceived psychological anthropomorphic characteristics in the accep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service industr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22, 106855.
- Pudlinski, C. (2005). Doing empathy and sympathy: caring responses to troubles tellings on a support line. *Discourse Studies*, 7(3), 267-288.
- Reniers, R. L., Corcoran, R., Drake, R., Shryane, N. M., & Völlm, B. A. (2011). The QCAE: A questionnai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3(1), 84-95.
- Wang, Q., Goel, A. K. (2022). Mutual Theory of Mind for Human-AI Communication. arXiv preprint arXiv: 2210.03842

김희수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박사수료

Email: jennyhskim@korea.ac.kr

정혜윤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조교수

Email: hye_c@korea.ac.kr

Session 9 <언어처리> 사회:남윤주(한양대)

Transformers and polysemy of Korean adverbial postposition *-(u)lo*

발표: 문성민(아주대)

토론: 홍승혜(고려대)

Transformers and polysemy of Korean adverbial postposition *-(u)lo*

Mun, Seongmin¹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Ajou University¹

Keywords: transformers, BERT, GPT-2, polysemy, adverbial postposition

Within a network of words, the intended construal of a polysemous word occurs, expressing various constructional meanings/functions (Goldberg, 2019), yet arguing semantically similar meanings (DSMs; Harris, 1954). In this regard, transformer-architecture models such as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BERT; Devlin et al., 2018) and Generative Pre-Training 2 (GPT-2; Radford et al., 2018) —contextualized word-embedding model, sensitive to the context in which they appear—have yielded significant improvements on the task of polysemy interpretation (Haber and Poesio, 2021; Soler and Apidianaki, 2021; Yenicelik et al., 2020).

I raise the question of how transformer-architecture models apply to the polysemy of a function word, such as a postposition in Korean—a language typologically different from the major Indo-European languages investigated for this task. I report a computational simulation that explores how transformer-architecture models account for the polysemy of *-(u)lo*, interpreting it as six major functions: criterion (CRT), direction (DIR), effector (EFF), final state (FNS), instrument (INS), and location (LOC) (Shin, 2008).

For this purpose, I used the Sejong corpus (Kim et al., 2007; 90% for training and 10% for testing), with semantic annotation cross-verified by three native Korean speakers ($\kappa = 0.95$). After creating the input, I set model training parameters, such as batch size (16), epoch (50), seed (42), sequence length (128), epsilon (0.00000008), and learning rate (0.00002), as advised by previous studies (e.g., McCormick, 2019; Vázquez et al., 2020; Wu et al., 2019). I then employed pre-trained language models BERT and GPT-2 to obtain high-performance outcomes: KoBERT (Jeon et al., 2019) for BERT and KoGPT-2-base-v2 (Jeon et al., 2021) for GPT-2. I fine-tuned the pre-trained models 50 times (i.e., 50 epochs) using the training set. In each epoch (i.e., learning step), model performance was measured by comparing the intended function of the postposition in each test sentence with the classified function via each transformer model. Additionally, I developed a transformer-based visualization system¹ to understand how transformer-architecture models simulate human interpretation of word-level polysemy involving an adverbial postposition *-(u)lo* in Korean.

I note five major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First, BERT outperformed GPT-2 in revealing the polysemy of Korean postpositions. Second, the model identified the intended functions of a postposition as the epoch progressed. Third, there was an inverse relation between classification performance and the number of functions of each postposition. Fourth, the model was affected by the corpus size of each function. Fifth, these models were influenced by the rarely occurring input and/or semantic closeness between items, somewhat limiting their performance in the given task. Despite these limitations of the current transformer models, considering that the networks of interlinked clusters of words and symbolic units in human cognition (construct-i-con; Goldberg, 2006), our findings shed light on relations between a polysemous word and an abstract schema including the word (represented as contextualized semantic representation) for addressing word-level polysemy.

¹ The visualization system available at: <https://seongmin-mun.github.io/Visualization/2022/PostTransformers/index.html>

References

- Aina Garí Soler and Marianna Apidianaki. 2021. Let's play mono-poly: BERT can reveal words' polysemy level and partitionability into senses. CoRR, abs/2104.14694
- Alec Radford, Jeffrey Wu, Rewon Child, David Luan, Dario Amodei, and Ilya Sutskever. 2018. Language models are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s.
- Byoungsoo Kim, Yong-Hun Lee, and Jong-Hyeok Lee. 2007. Unsupervised semantic role labeling for Korean adverbial cas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pages 32–39.
- Chris McCormick. 2019. Bert fine-tuning tutorial with pytorch.
- David Yenicelik, Florian Schmidt and Yannic Kilcher. 2020. How does BERT capture semantics? A closer look at polysemous words. Proceedings of the Third BlackboxNLP Workshop on Analyzing and Interpreting Neural Networks for NLP, pages 156-162
- Goldberg, A. E. 2006 *Constructions at work: The nature of generalization in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berg, A. E. 2019 *Explain me this: Creativity, competition, and the partial productivity of construc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ewon Jeon, Donggeon Lee and Jangwon Park. 2019. Korean BERT pre-trained cased (KoBERT). Retrieved from <https://github.com/SKTBrain/KoBERT>
- Heewon Jeon, Hyung jun Kim, Seujung Jung, Muhyun Kim, Yunho Maeng, Kyeongpil Kang, and Sangwhan Moon. 2021. Kogpt2 ver 2.0.
- Hyo-pil Shin. 2008. The 21st sejong project: with a focus on selk (sejong electronic lexicon of korean) and the knc (korean national corpus). In The 3rd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 Jacob Devlin, Ming-Wei Chang, Kenton Lee and Kristina Toutanova. 2018. BER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arXiv preprint arXiv:1810.04805.
- Janosch Haber and Massimo Poesio. 2021. Patterns of polysemy and homonymy in contextualised language models. In Findings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EMNLP 2021, pages 2663–2676, Punta Cana, Dominican Republic.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 Raúl Vázquez, Alessandro Raganato, Mathias Creutz, and Jörg Tiedemann. 2020. A systematic study of inner-attention-based sentence representations in multilingual neural machine translation. *Computational Linguistics*, 46(2):387–424.
- Yu Wu, Wei Wu, Chen Xing, Can Xu, Zhoujun Li, and Ming Zhou. 2019. A sequential matching framework for multi-turn response selection in retrieval-based chatbots. *Computational Linguistics*, 45(1):163–197.
- Zellig S. Harris. 1954 Distributional Structure. *WORD*, 10(2-3): 146-162.

Transformers and polysemy of Korean adverbial postposition *-(u)lo*

Seongmin Mun

Ajou University

11st November 2023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Outline

[Introduction](#)

[Polysemy in Korean](#)

[Corpus](#)

[Sejong corpus](#)

[Creation of a hand-coded corpus](#)

[Classification models: BERT & GPT-2](#)

[Visualization: PostTransformers](#) [Di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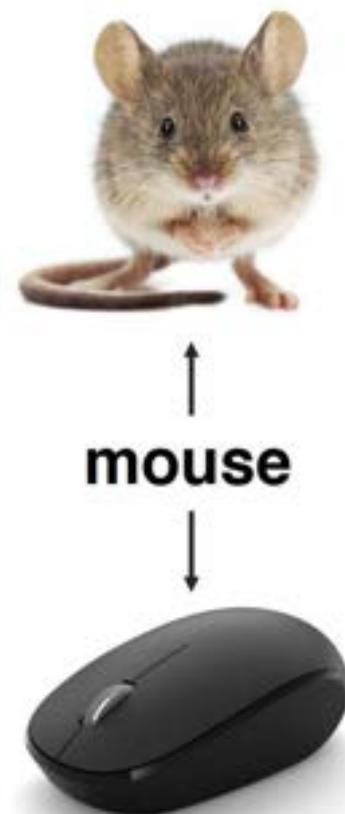
[ussion & Conclusion](#)



Introduction

Polysemy

Polysemy, one type of ambiguity, occurs when one form delivers multiple meanings/functions (Glynn and Robinson, 2014).



Polysemy in Korean adverbial postposition

지붕 위에 구멍이 났다.
cipung wi-ey kwumeng-i na-ss-ta.
Roof top-LOC hole-NOM appear-PST-DECL
'There is a hole on the top of the roof.'

Figure: An example sentence involving the postposition -ey as a function of LOC (location)



[Polysemy in Korean](#)

Question: How a speaker can understand the function of postposition?

Previous studies on adverbial postpositions

Study	Corpus type	Data size	Method	Accuracy
Bae et al. (2020)	Korean PropBank	20,035 sentences	BERT + BiLSTM-CRFs + Structural SVM	0.84
Park et al. (2019)	Korean PropBank	23,059 sentences	BERT + BiLSTM-CRF	0.84
Lee et al. (2015)	Korean PropBank	4,882 sentences	Word2vec (SGNS) + Structural SVM (Support Vector Machine)	0.77
Mun & Shin (2020)	Sejong corpus	2,100 sentences	PPMI & SVD + Similarity-based estimate	0.74
Park & Cha (2017)	Sejong corpus	14,335 sentences	Word2vec (SGNS) + CRF	0.77
Hong et al. (2019)	Korean PropBank	23,059 sentences	RoBERTa + BiLSTM	0.85
Yoon et al. (2016)	Korean PropBank	4,714 sentences	One-hot encoding + Bidirectional LSTM-CRFs	0.66

Transformer-architecture models that we used

- ▶ *Contextualized* word embedding model
 - ▶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 (BERT; Devlin et al., 2018)
 - ▶ Generative Pre-Training 2 (GPT-2; Radford et al., 2019)

Corpus

What is Sejong corpus?

- ▶ Sejong corpus was created by the 21st Century Sejong Project, a ten-year-long project that was launched in 1998.
- ▶ Sejong corpus is a representative large-scale corpus in Korean (Shin, 2008).
- ▶ Previous studies often used this corpus as a linguistic resource (e.g., Kim & Ock, 2016; Park & Cha, 2017; Shin et al., 2005).

What is Sejong corpus?

Table 1: *Primary corpus*

Corpus type	Corpus size(eojul)
Raw corpus	63,899,412
Grammatically tagged corpus	15,226,186
Parsed corpus	570,064
Semantically Tagged corpus	10,132,348
Sum	89,830,015

Table 2: *Plan for construction of raw corpus*

Field	Portion
Newspaper	20%
Magazine	10%
Academic works	35%
Literary works	20%
Quasi-spoken data	10%
The others	5%
Sum	100%

The eojul is defined as a morpheme or combination of several morphemes serving as the minimal unit of sentential components in Korean.

What is the Sejong corpus?

Table 1: *Primary corpus*

Corpus type	Corpus size(eojul)
Raw corpus	63,899,412
Grammatically tagged corpus	15,226,186
Parsed corpus	570,064
Semantically Tagged corpus	10,132,348
Sum	89,830,015

Table 2: *Plan for construction of raw corpus*

Field	Portion
Newspaper	20%
Magazine	10%
Academic works	35%
Literary works	20%
Quasi-spoken data	10%
The others	5%
Sum	100%

The eojul is defined as a morpheme or combination of several morphemes serving as the minimal unit of sentential components in Korean.

Example of the semantically tagged corpus

BSAA0001-00001596	생산자의	생산자/NNG + 의/JKG
BSAA0001-00001597	얼굴	얼굴/NNG
BSAA0001-00001598	사진이	사진_07/NNG + 이/JKS
BSAA0001-00001599	붙어	붙/VV + 어/EC
BSAA0001-00001600	있는	있/VX + 는/ETM
BSAA0001-00001601	농산물이	농산물/NNG + 이/JKS
BSAA0001-00001602	나오고	나오/VV + 고/EC
BSAA0001-00001603	있다.	있/VX + 다/EF + ./SF

Example of the semantically tagged corpus

BSAA0001-00001596	생산자의	생산자/NNG + 의/JKG
BSAA0001-00001597	얼굴	얼굴/NNG
BSAA0001-00001598	사진이	사진_07/NNG + 이/JKS
BSAA0001-00001599	붙어	붙/VV + 어/EC
BSAA0001-00001600	있는	있/VX + 는/ETM
BSAA0001-00001601	농산물이	농산물/NNG + 이/JKS
BSAA0001-00001602	나오고	나오/VV + 고/EC
BSAA0001-00001603	있다.	있/VX + 다/EF + ./SF

Description for annotation

- ▶ Annotators: three native speakers of Korean.
- ▶ Data: 15,000 sentences (-ey: 5,000; -eyse: 5,000; -(u)lo: 5,000)
- ▶ Functions: select the most frequent functions based on the Sejong Electronic Dictionary and the previous studies on adverbial postpositions.
 - ▶ -ey: Location, Goal, Effector, Criterion, Theme, Instrument, Agent, Final state
 - ▶ -eyse: Source, Location
 - ▶ -(u)lo: Final state, Instrument, Direction, Effector, Criterion, Location
- ▶ Fleiss's Kappa: -ey: 0.948; -eyse: 0.928; -(u)lo: 0.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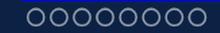
A hand-coded corpus

<i>-ey</i>		<i>-eyse</i>		<i>-(u)lo</i>	
Function	Frequency	Function	Frequency	Function	Frequency
LOC	1,780	LOC	4,206	FNS	1,681
CRT	1,516	SRC	647	DIR	1,449
THM	448			INS	739
GOL	441			CRT	593
FNS	216			LOC	158
EFF	198			EFF	88
INS	69				
AGT	47				
Total	4,715	Total	4,853	Total	4,708

A hand-coded corpus

Index	###	Label	###	Function	###	Sentence_POS	###	Sentence
1	###	0	###	FNS	###	이_05/MM 넥타이/NNG 는/JX 수제품/NNG (으)로/JKB 우리나라/NNG 에서		
2	###	2	###	DIR	###	나/NP 의/JKG 마음_01/NNG 의/JKG 움직임/NNG 이/JKS 위_01/NNG		
3	###	1	###	INS	###	곳/NNG 무당_01/NNG 이/JKS 노래/NNG 나/JC 춤_01/NNG (으)로/JK		
4	###	0	###	FNS	###	모든/MM 주장_03/NNG 이/JKS 나름/NNB 대로/JKB 의/JKG 근거/NNG 를		
5	###	3	###	EFF	###	기억/NNG 이/JKS 스스로/NNG 의/JKG 부력_01/NNG (으)로/JKB 떠오르,		
6	###	2	###	DIR	###	신축_03/NNG 전원주택/NNG 위쪽/NNG (으)로/JKB 는/JX 집_01/NNG		
7	###	0	###	FNS	###	명명/XR 하/XSA L/ETM 채_09/NNB (으)로/JKB 시간_04/NNG 이/JK		
8	###	1	###	INS	###	수한/NNP 이/JKS 저/NP 의/JKG 손_01/NNG (으)로/JKB 저/NP 의/JK		
9	###	2	###	DIR	###	쇠전_01/NNG 끈/XSN 들/XSN 이/JKS 술청/NNG (으)로/JKB 돌아오/VV		
10	###	3	###	EFF	###	그리고/MAJ 그/MM 결과_02/NNG (으)로/JKB 오줌/NNG 이/JKS 나오/V		
11	###	5	###	LOC	###	"/SS 집_01/NNG 들/XSN 이/JKS 다/MAG 어디/NP (으)로/JKB 가/V		
12	###	5	###	LOC	###	바라/MAG 앞/NNG (으)로/JKB 소담구지/NNG 바퀴 01/NNG 자궁 01/N		

Available at: <https://github.com/seongmin-mun/Corpora/tree/main/APIK>



Classification models: BERT & GPT-2

Creating training and test sets

Index	Label	Sentence	Index	Label	Sentence
1,862	1	[CLS] 한참 만에 오반장이 침묵을 깼다. [SEP]	1,862	1	한참 만에 오반장이 침묵을 깼다.
1,863	1	[CLS] 정말 오랫동안 먹어보는 고기였다. [SEP]	1,863	1	정말 오랫동안 먹어보는 고기였다.
1,864	1	[CLS] 옛날 구한말에 유명한 얘기가 있었죠? [SEP]	1,864	1	옛날 구한말에 유명한 얘기가 있었죠?
1,865	1	[CLS] 한밤중에 신나게 한바탕했지요. [SEP]	1,865	1	한밤중에 신나게 한바탕했지요.
1,866	1	[CLS] 그런데 몇 시에 왔어? [SEP]	1,866	1	그런데 몇 시에 왔어?
1,867	1	[CLS] 거울에 꽃이라니요. [SEP]	1,867	1	거울에 꽃이라니요.
1,868	1	[CLS] 아침에 엄마한테 돈을 달랬어요. [SEP]	1,868	1	아침에 엄마한테 돈을 달랬어요.
1,869	1	[CLS] 결혼은 반드시 적령기에 해야 한다. [SEP]	1,869	1	결혼은 반드시 적령기에 해야 한다.
1,870	1	[CLS] 한 달에 얼마씩은 정확하게 들어오니까. [SEP]	1,870	1	한 달에 얼마씩은 정확하게 들어오니까.
1,871	1	[CLS] 그럼 일주일 후에 뵈겠습니다. [SEP]	1,871	1	그럼 일주일 후에 뵈겠습니다.

Figure: Example sentences used in the training for BERT (left) and GPT-2 (Right)

Creating training and test sets

Index	Label	Sentence	Index	Label	Sentence
1,862	1	[CLS] 한참 만에 오반장이 침묵을 깼다. [SEP]	1,862	1	한참 만에 오반장이 침묵을 깼다.
1,863	1	[CLS] 정말 오랫동안 먹어보는 고기였다. [SEP]	1,863	1	정말 오랫동안 먹어보는 고기였다.
1,864	1	[CLS] 옛날 구한말에 유명한 얘기가 있었죠? [SEP]	1,864	1	옛날 구한말에 유명한 얘기가 있었죠?
1,865	1	[CLS] 한밤중에 신나게 한바탕했지요. [SEP]	1,865	1	한밤중에 신나게 한바탕했지요.
1,866	1	[CLS] 그런데 몇 시에 왔어? [SEP]	1,866	1	그런데 몇 시에 왔어?
1,867	1	[CLS] 겨울에 꽃이라니요. [SEP]	1,867	1	겨울에 꽃이라니요.
1,868	1	[CLS] 아침에 엄마한테 돈을 달랬어요. [SEP]	1,868	1	아침에 엄마한테 돈을 달랬어요.
1,869	1	[CLS] 결혼은 반드시 적령기에 해야 한다. [SEP]	1,869	1	결혼은 반드시 적령기에 해야 한다.
1,870	1	[CLS] 한 달에 얼마씩은 정확하게 들어오니까. [SEP]	1,870	1	한 달에 얼마씩은 정확하게 들어오니까.
1,871	1	[CLS] 그럼 일 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SEP]	1,871	1	그럼 일 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Figure: Example sentences used in the training for BERT (left) and GPT-2 (Right)

Model specification: BERT

- ▶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 (BERT; Devlin et al., 2018)
 - ▶ Package used: *Transformer*
 - ▶ Pre-trained model: KoBERT (Jeon et al., 2019)
 - ▶ Tokenizer: KoBERT tokenizer (Jeon et al., 2019)
 - ▶ Epoch: from one to 50
 - ▶ Other parameters: Learning rate (.00002); Batch (16); Sequence length (128); Seed (42); Epsilon (.00000001)
 - ▶ Dimension reduction: *t*-SNE (Maaten and Hinton, 2008)

Model specification: GPT-2

- ▶ Generative Pre-Training 2 (GPT-2; Radford et al., 2019)
 - ▶ Package used: *Transformer*
 - ▶ Pre-trained model: KoGPT2 (Jeon et al., 2021)
 - ▶ Tokenizer: GPT2 tokenizer (Jeon et al., 2019)
 - ▶ Epoch: from one to 50
 - ▶ Other parameters: Learning rate (.00002); Batch (16); Sequence length (128); Seed (42); Epsilon (.00000001)
 - ▶ Dimension reduction: *t*-SNE (Maaten and Hinton, 2008)

Model performance: Class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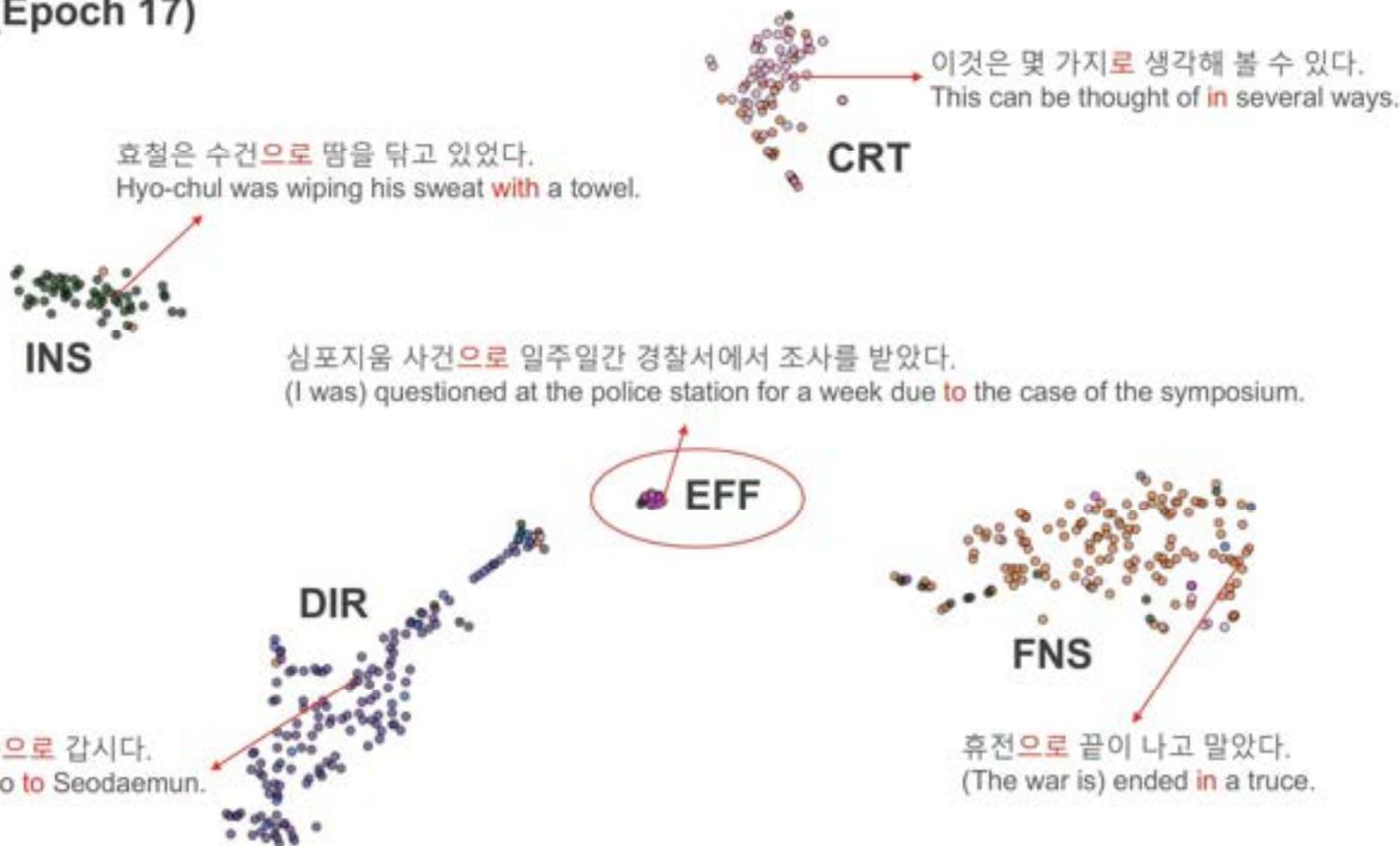
- ▶ BERT performed better than GPT-2 in revealing the polysemy of Korean postpositions.
 - ▶ BERT: *-ey*: 0.744, *-eyse*: 0.875, *-(u)lo*: 0.795
 - ▶ GPT-2: *-ey*: 0.68, *-eyse*: 0.844, *-(u)lo*: 0.676
- ▶ The model performance increased as the epoch progressed.



Visualization: PostTransformers

Visualization: clusters of BERT

-(u)lo (Epoch 17)



Visualization: clusters of GPT-2



Visualization: clusters of BERT





Discussion & Conclusion

Discussion

- ▶ The BERT model performs in a stable way and simulates how humans recognize the polysemy involving Korean a dverbial postpositions better than GPT-2 model does.

Discus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likely that BERT does acquire **some form of a structural inductive bias** from self-supervised pretraining, at least outside of the NPI domain."

(Warstadt Bowman, 2020)

Discussion

"Our results allow us to conclude that BERT does indeed have access to **a significant amount of information**, much of which linguists typically call constructional information." (Madabushi et al., 2020)

Discussion

"**GPT-2's perplexity** is better captured by the considered features and it resulted to be more affected by **lexical parts-of-speech** and features capturing the **vocabulary richness of a sentence**. On the contrary, **BERT's perplexity** seems to be best predicted by **syntactic features** highly sensitive to sentence length."

(Miaschi et al. 2021)

Discussion

- ▶ BERT performs better than GPT-2 because the meaning of Korean adverbial postposition is maybe sensitive to syntactic features.
- ▶ Perhaps, BERT is a better approach for understanding how humans deal with polysemy.

Conclusion

- ▶ To understand word-level polysemy of Korean postposition, at least, we have to use the syntactic information.
- ▶ If we spend more time learning a language, we can identify the word-level polysemy more clearly.
- ▶ Even if the function of the postposition is used rarely but it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functions, we can identify it as a distinguished function.
- ▶ If the functions are semantically similar to each other, it is hard to be distinguished one from the other.



Thank you for listening.

Session 9 <언어처리> 사회:남윤주(한양대)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in multiple pronoun resolution

발표: 송지나(서울대)

토론: 윤홍옥(제주대)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in multiple pronoun resolution

Jina S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vious psycholinguistic work on pronoun resolution has largely focused on how we interpret a single pronoun in a clause (e.g., [1], [3]) while much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how we interpret multiple pronouns in the same clause. I report three studies that investigate whether and how the process of reference resolution of two pronouns (e.g., he verbed him) is different from that of one pronoun (e.g., he verbed (Tom)). I assume that the crucial difference between two pronoun resolution and one pronoun resolution stems from differences in referential structure – whether all or only one of the referents in the preceding clause are mentioned with a pronoun in the subsequent clause. Two hypotheses are tested regarding potential effects of referential structure. According to the Independence View, built on Parallel Function Strategy (PFS) (e.g., [6],[7]) subject-position pronoun interpretation is not sensitive to differences in referential structure type (One-Pronoun vs. Two-Pronoun structure) because the anaphoric dependencies constructed for the different pronouns are resolved fully independently due to a parallel grammatical role guiding pronoun resolution. On the contrary, the Dependence View, based on Centering Theory (CT, [2]), assumes that pronoun interpretation is not sensitive to differences in referential structure type because of interactions between multiple referential dependencies to maximize the coherence of transitions between utterances in discourse. It predicts that subject pronouns in the One-Pronoun sentences would be more likely to be interpreted as referring to a preceding object than subject pronouns in the Two-Pronoun sentences, because the most coherent transition can be established from the subject-position pronoun referring to the object antecedent in the One-Pronoun structure, but not in the Two-Pronoun structure.

Method: Experiment 1, 2, and 3 had 24 targets and 36 fillers. I manipulated (i) the referential structure of Clause 2 (Two-Pronoun: He...him, vs. One-Pronoun: He...(Tom), ex. (1)) and (ii) the Implicit Causality (IC) verb type in Clause 1 (IC1_Sbj-bias vs. IC2_Obj-bias) - Exp1&2 (n=40) tested Stimulus/Experiencer IC verbs while Exp3 (n=60) tested Agent-Patient IC verbs. Nonce verbs (e.g., daxed) were used in Clause 2 to minimize semantic variability. I used a novel picture-writing task (Fig.1): People typed the names in the boxes such that the picture matches the event of the underlined part.

Results: Exp1, 2, and 3 reveal effects of referential structure ($p < .001$, glmer, Fig.2). This confirms the Dependence View prediction that pronoun interpretation is guided by referential structure (fewer object interpretations in Two-Pronoun than One-Pronoun condition). Unexpectedly, Exp1 shows no effects of referential structure with IC1 verbs, which may be due to a potential confound stemming from verb transitivity and associated semantic properties. Once this potential confound was addressed in Exp 2 and 3,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were found with both IC1 (Exp2&3: $p < .001$) and IC2 verbs (Exp2: $p < .01$, Exp3: $p < .001$). Additionally, the well-known IC effects replicate with Exp1, 2, and 3 (more object interpretations with IC2 than IC1 verbs, $p < .05$, glmer), showing that the novel picture-writing task with nonce verbs is a reliable measure.

In sum, the results suggest that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guide pronoun interpretation and generalize across verb classes, supporting Dependence Views: a discourse-level coherence mechanism guide pronoun resolution by contributing to the interactions between anaphoric dependencies of the two different pronouns. Crucially, this study highlights the role of referential structure by looking ‘forward’ towards another pronoun in the same clause while most existing psycholinguistic approaches to pronoun resolution take a ‘backward-looking’ approach.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in multiple pronoun resolution

Jina S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joenjina@snu.ac.kr)

Goals

- How do we interpret **multiple pronouns** in the same clause?
- Are there any differences from how we interpret **a single pronoun**?

a) *Henry₁ respected Kevin₂ because he_{1/2} visited Tom.*

(One-Pronoun)

b) *Henry₁ respected Kevin₂ because he_{1/2} visited him_{2/1}*

(Two-Pronoun)

Differences lie in referential structure - whether all or only one of the preceding referents are mentioned by the pronouns

Overview

- I. **Introduction** (referential structure differences)
 - **Independence view:** anaphoric dependencies for the two different pronouns are resolved fully independently
 - **Dependence view:** resolving one of the pronominal dependencies influences the formation of the other

- II. **Experiment 1 – 3:** Multiple pronoun resolution \neq Single pronoun resolution (*offline picture-writing task*)

Introduction

- Pronouns are informationally underspecified on their own
- To fully understand their meanings, we need to identify what they refer to in the previous context
- Not always straight-forward to establish a dependency relation with a previously mentioned entity
- Pronoun interpretation is guided by various factors at different levels of representation (e.g. Givon 1983; Smyth 1994; Grosz et al., 1995; Hobbs 1970)
- Previous findings are largely based on how we interpret **a single pronoun in a single clause** in ambiguous context.

*Jane respected Mary because **she** visited **Lisa**.*

Introduction

- Pronouns are informationally underspecified on their own
- To fully understand their meanings, we need to identify what they refer to in the previous context
- Not always straight-forward to establish a dependency relation with a previously mentioned entity
- Pronoun interpretation is guided by various factors at different levels of representation (e.g. Givon 1983; Smyth 1994; Grosz et al., 1995; Hobbs 1970)
- These findings are largely based on how we interpret **a single pronoun in a single clause** in ambiguous context.

*Jane respected Mary because **she** visited **her**.*

| 5

How do we interpret multiple pronouns?

Background – Referential structure

- Is reference resolution of multiple pronouns different from that of a single pronoun?
- **Referential structure:** whether all or only one of the referents in the preceding clause are mentioned with a pronoun in the subsequent clause

– 1-pronoun structure

Henry₁ respected Kevin₂ because he_{1/2} visited Tom.



– 2-pronoun structure

Henry₁ respected Kevin₂ because he_{1/2} visited him_{1/2}.

Background – Referential structure

- Is reference resolution of multiple pronouns different from that of a single pronoun?
- **Referential structure:** whether all or only one of the referents in the preceding clause are mentioned with a pronoun in the subsequent clause

– 1-pronoun structure

Henry₁ respected Kevin₂ because he_{1/2} visited Tom.



– 2-pronoun structure

Henry₁ respected Kevin₂ because he_{1/2} visited him_{1/2}.



Background – Referential structure

- Is reference resolution of multiple pronouns different from that of a single pronoun?
- **Referential structure:** whether all or only one of the referents in the preceding clause are mentioned with a pronoun in the subsequent clause

Resolving one pronominal dependency can influence on resolving the other?

– 1-pronoun structure

Henry₁ respected Kevin₂ because he_{1/2} visited Tom.



– 2-pronoun structure

Henry₁ respected Kevin₂ because he_{1/2} visited him_{1/2}.



Hypotheses –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I. Independence view:

anaphoric dependencies constructed for the two different pronouns are resolved fully independently

II. Dependence view:

resolving one of the pronominal dependencies influences the formation of the other dependency in 2-pronoun structure

– 1-pronoun structure

Henry₁ respected Kevin₂ because he_{1/2} visited Tom.



– 2-pronoun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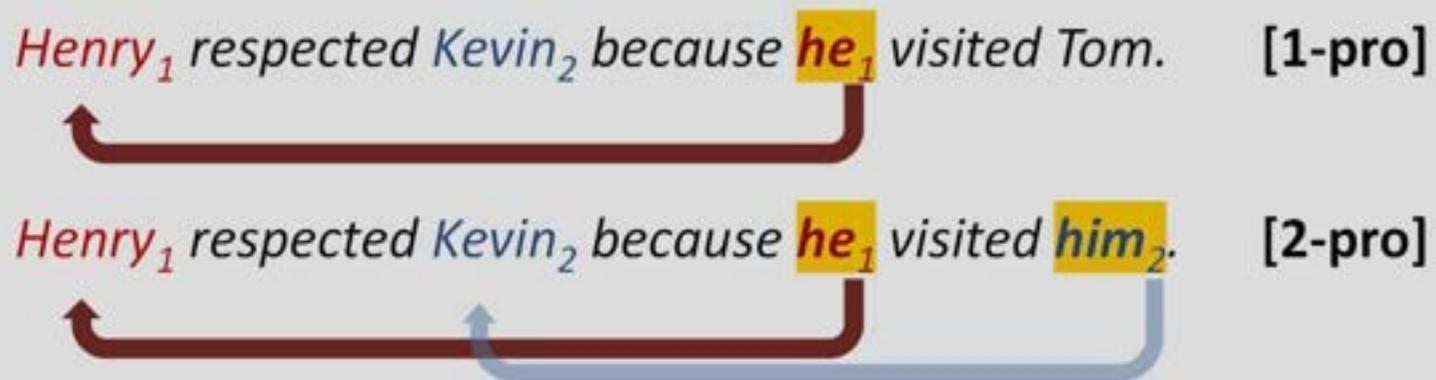
Henry₁ respected Kevin₂ because he_{1/2} visited him_{1/2}.



I. Independence view

- **Parallel function strategy (PFS)** (e.g., Smyth, 1994; Chambers & Smyth 1998)
A pronoun is coreferential with a preceding noun phrase occupying the same grammatical role as the pronoun.
 - Pronouns search for the best antecedent that has matching morpho-syntactic features – *a gender, number, person and grammatical role*
 - **No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1-pronoun structure = 2-pronoun structure (sbj-pronoun)

Forming one of the pronominal dependencies does NOT influence forming the other



II. Dependence view

- **Centering Theory (CT)** (e.g., Grosz et al., 1995; Walker et al 1998)
 - Discourse-level factors (*discourse coherence*) guide **interactions** between referential dependencies from two different pronouns

- The less the salient entity changes, the more coherent the discourse

Most salient Subject >> Direct object >> Indirect object >> Adjun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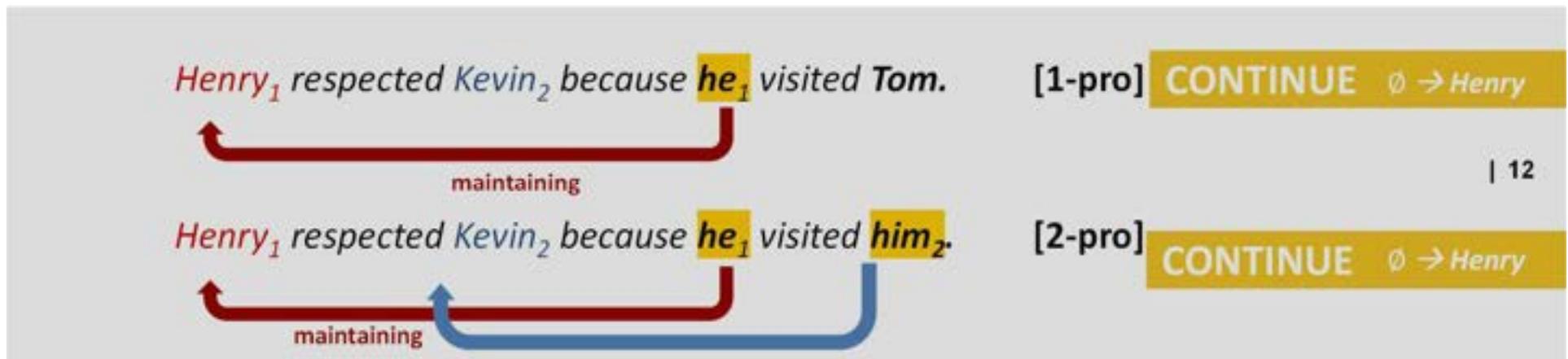
- Pronouns are resolved so that the **transition** from one sentence to the next is as **coherent** as possible (e.g., topic maintenance)
- They are resolved in such a way that maximizes coherence of the discourse transition

Most coherent CONTINUE >> RETAIN >> SHIFT

-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1-pronoun structure **≠** 2-pronoun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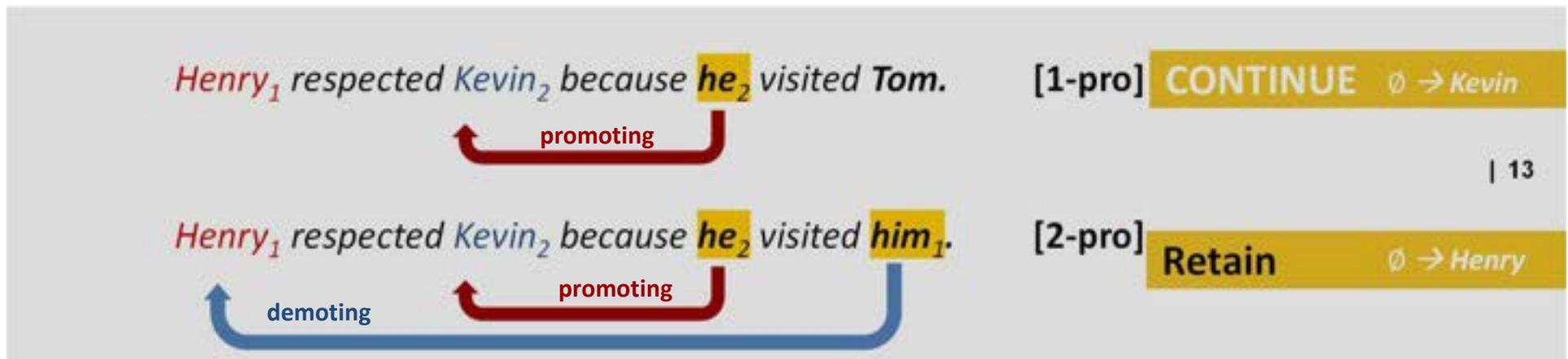
II. Dependence view

- **Centering Theory (CT)** (e.g., Grosz et al., 1995; Walker et al 1998)
 - Discourse-level factors (*discourse coherence*) guide **interactions** between referential dependencies from two different pronouns
 - Pronouns are resolved so that the **transition** from one sentence to the next is as **coherent** as possible (e.g., topic maintenance)
 -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1-pronoun st. $\succ_{\text{obj interpretation}}$ 2-pronoun st.



II. Dependence view

- **Centering Theory (CT)** (e.g., Grosz et al., 1995; Walker et al 1998)
 - Discourse-level factors (*discourse coherence*) guide **interactions** between referential dependencies from two different pronouns
 - Pronouns are resolved so that the **transition** from one sentence to the next is as **coherent** as possible (e.g., topic maintenance)
 -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1-pronoun st. $\triangleright_{\text{obj interpretation}}$ 2-pronoun st.



Experiment 1 - 3: The effects of referential structure in pronoun interpretation

Multiple pronoun resolution \neq Single pronoun resolution?

Method – Picture-writing task

- Picture-writing task:



| 15

- Participants: Native English speakers (Exp1: n= 45, Exp2: n= 48, Exp3: n= 60)
- Items: 24 Targets + 36 Fillers
- Method: Web survey with Qualtrics + Amazon Mturk

Exp1 – 3: Design

- **Clause 1:** Implicit causality (IC) verb type *bias to Sbj or Obj for pronoun resolution*

Henry {*surprised* (IC1_Sbj) / *respected* (IC2_obj)} Kevin

EXP 1&2

Henry {*cheated* (IC1_Sbj) / *criticized* (IC2_obj)} Kevin

EXP 3

- EXP1 (*Stimulus/Experiencer* verb bias): IC1_Sbj M=67.4%, SD=13.6; IC2_Obj M=76.2%, SD=11.7
- EXP2 (*Agent-Patient* verb bias): IC1_Sbj M=67.7%, SD=9.16; IC2_Obj M=72.1%, SD=5.53

- **Clause 2:** Referential structure type

...because he daxed. [1-pro]

EXP 1

...because he daxed Tom. [1-pro]

EXP 2&3

...because he daxed him. [2-pro]

EXP 1,2&3

- **Disentangles effects of syntactic parallelism from semantic parallelism**
 - an *explanation* relation (*because*) for the implicit causality effects and to avoid semantic parallelism effects
 - Nonce verbs: no verb semantics

Exp1 – 3: Design

- **Clause 1:** Implicit causality (IC) verb type

Henry {*surprised* (IC1_Sbj) / *respected* (IC2_obj)} Kevin

EXP 1&2

Henry {*cheated* (IC1_Sbj) / *criticized* (IC2_obj)} Kevin

EXP 3

- EXP1 (Stimulus/Experiencer verb bias): IC1_Sbj M=67.4%, SD=13.6; IC2_Obj M=76.2%, SD=11.7
- EXP2 (Agent-Patient verb bias): IC1_Sbj M=67.7%, SD=9.16; IC2_Obj M=72.1%, SD=5.53

- **Clause 2:** Referential structure type

...because he daxed. [1-pro]

EXP 1

...because he daxed Tom. [1-pro]

EXP 2&3

...because he daxed him. [2-pro]

EXP 1,2&3

- **Disentangles effects of syntactic parallelism from semantic parallelism**
 - an *explanation* relation (*because*) for the implicit causality effects and to avoid semantic parallelism effects
 - Nonce verbs: no verb semantics

Exp1 – 3: Predictions

- **Clause 1:** Implicit causality (IC) verb type

Henry {*surprised* (IC1_Sbj) / *respected* (IC2_obj)} Kevin

EXP 1&2

Henry {*cheated* (IC1_Sbj) / *criticized* (IC2_obj)} Kevin

EXP 3

- EXP1 (Stimulus/Experiencer verb bias): IC1_Sbj M=67.4%, SD=13.6; IC2_Obj M=76.2%, SD=11.7
- EXP2 (Agent-Patient verb bias): IC1_Sbj M=67.7%, SD=9.16; IC2_Obj M=72.1%, SD=5.53

- **Clause 2:** Referential structure type

...because **he** daxed.

[1-pro]



...because **he** daxed Tom.

[1-pro]



...because **he** daxed him.

[2-pro]



Obj preference

EXP 1

EXP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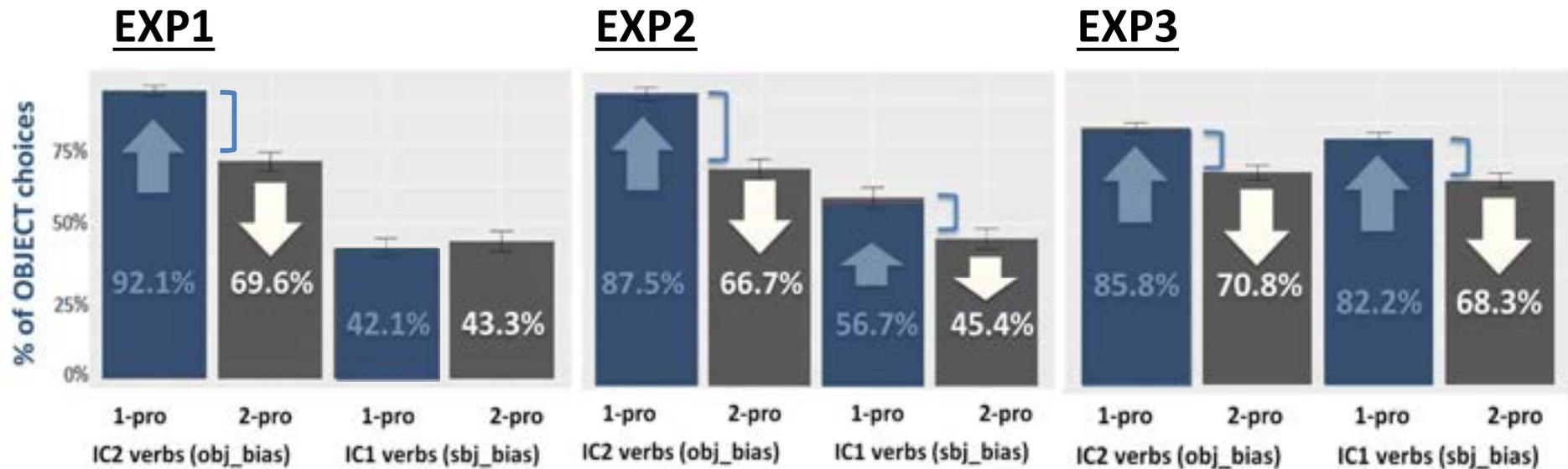
EXP 1,2&3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Would 1-pronoun configurations pattern differently from 2-pronoun configurations?

- **Yes:** Dependence view (Centering Theory)
- **No:** Independence view (Parallel Function Strategy)

Exp1 - 3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Henry {surprised (IC1) / respected (IC2)} Kevin because **he** daxed him/(Tom).*



proportion of trials that the subject-position pronoun is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object antecedent

-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Dependence views)**

1-pronoun structure $>$ obj interpretation 2-pronoun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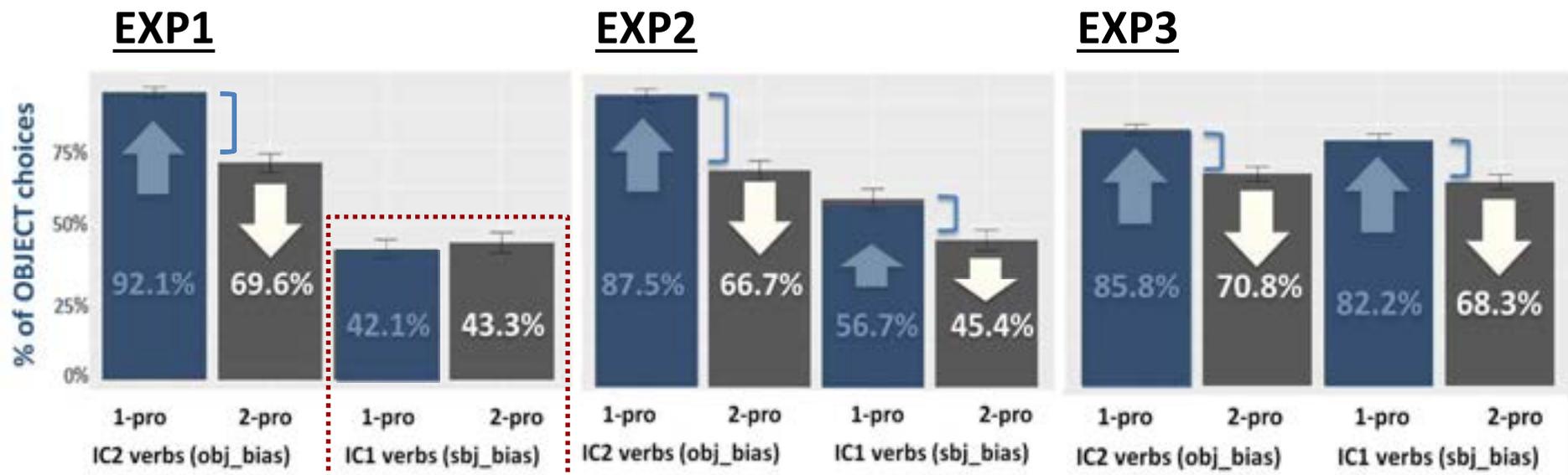
He daxed (Tom)

*He daxed **him***

*(p < .001***, glmer)*

Exp1 - 3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Henry {surprised (IC1) / respected (IC2)} *Kevin* because **he** daxed him/(T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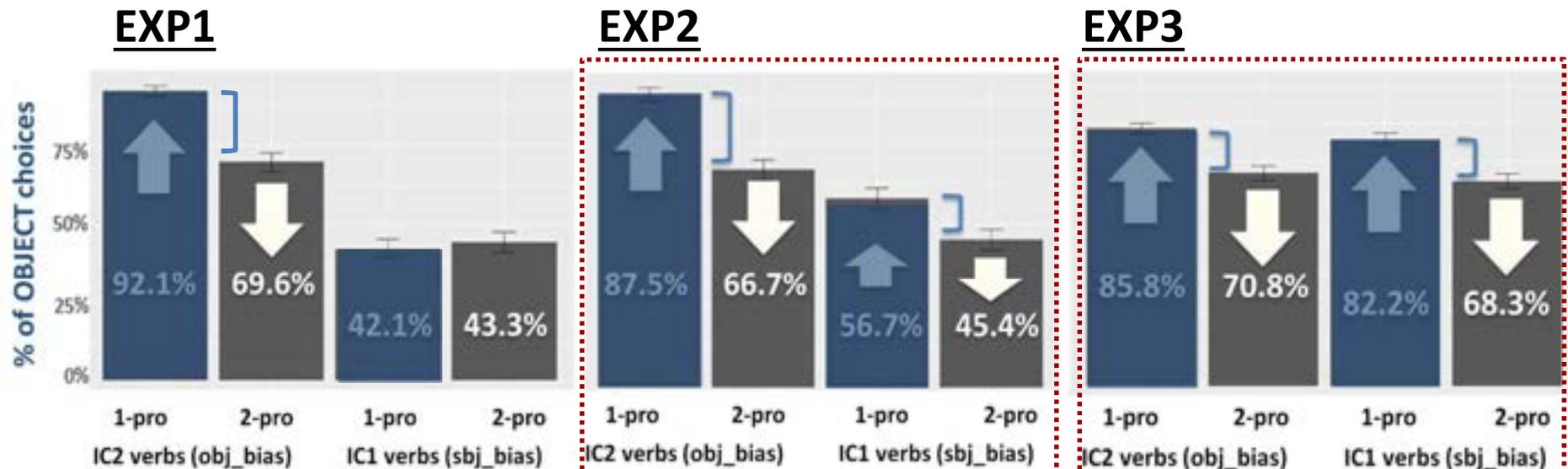
proportion of trials that the subject-position pronoun is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object antecedent

- **Exp1: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only with IC2 verbs**

- Potential confound stem from verb transitivity
- “He daxed” (Intransitive verb) vs. “He daxed him” (Transitive verb)
- IC1 1-Pro condition: relatively non-prominent subjects in both clauses (Stimulus subjects + Intransitive subjects) → *subject interpretation* ↑

Exp1 - 3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Henry {surprised (IC1) / respected (IC2)} Kevin because **he** daxed him/(Tom).



proportion of trials that the subject-position pronoun is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object antecedent

- **Exp2 & Exp3: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both with IC1 & IC2 verbs**
 - No confound stem from verb transitivity
 - “He daxed Tom” (Transitive verb) vs. “He daxed him” (Transitive verb)

| 21

Exp2: IC2 verbs ($p < .01^{**}$), IC1 verbs ($p < .001^{***}$); Exp3: IC2 & IC1 verbs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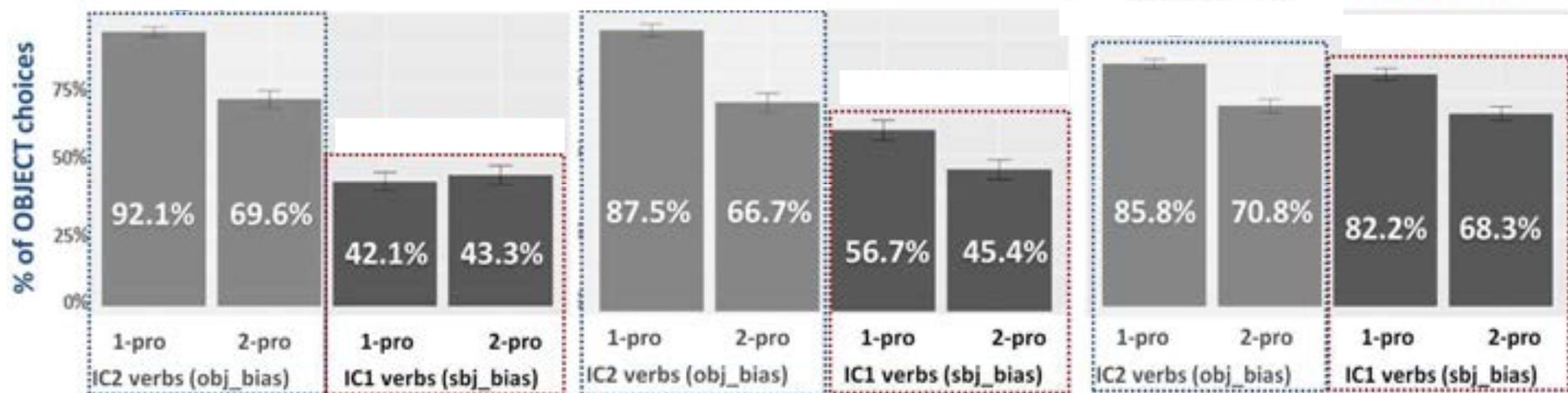
Exp1 - 3 Replicate IC verb effects

Henry {surprised (IC1) / respected (IC2)} Kevin because he daxed him/(Tom).

EXP1

EXP2

EXP3



proportion of trials that the subject-position pronoun is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object antecedent

- Replicate IC verb effects**

IC2 verbs (obj-bias) $>$ obj interpretation IC1 verbs (sbj-bias)

Henry respected Kevin

Henry surprised Kevin

(p < .05, glmer)*

Discussion of Exp 1 – Exp 3

- **Significant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 Multiple-pronoun resolution \neq single-pronoun resolution
 -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generalize across verb classes with different thematic roles.
- **Support the dependence view (Centering Theory)**
 - There are interactions between the anaphoric dependencies of the two different pronouns.
 - Differences in referential structural properties contribute to discourse coherence (a bias to maximize coherence)
- **Replicated IC verb bias effects**
 - The picture-writing task, even with nonce verbs, yields meaningful data regarding pronoun interpretation.

Conclusion

- Importance of ‘forward-looking approach’ in pronoun resolution
 - Most existing models of pronoun resolution take a ‘backward-looking’ approach (e.g., salience of potential antecedents in the prior context)
 - A comprehensive model of pronoun resolution should include forward-looking approach (i.e., referential structure effects)

***When interpreting a pronoun,
what comes next matters!***

In particular, who is or isn't mentioned later.